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 보고서

A Survey on Rural well-being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고서

국가통계승인번호 제11437호

발 행 일 2014년 3월

발 행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 전해경

편 집 농업환경부장 이상범, 농촌환경자원과장 안옥선

연 구 원 국립농업과학원 황정임 농업연구사, 최윤지 농업연구관
코뮤니타스 신동호 대표, 전윤정 선임연구원, 강구민 선임연구원,
김아영 연구원, 조이슬 연구원, 이주영 연구원
경북대학교 이강형 교수

발 행 처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
(441-85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전 화 031-290-0276

인 쇄 처 코뮤니타스 053-746-0021

머 리 말

농어촌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4년 3월, 정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삶의 질 향상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어촌 주민이 도시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어촌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이 법을 근거로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제2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0~'14)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로 농어촌의 복지, 교육, 기초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사업과 농어촌서비스기준·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다각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 생활 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도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15~'19)을 수립하기에 앞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실태 및 인식 등을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해온 농촌생활지표조사(2000~2012년)와 통합 조정되어 실시된 첫 번째 조사로서 이전 조사와는 다른 체계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 조사들을 아우르면서도 조사의 신뢰도 및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표본개편 및 농촌 통계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책자는 2013년 9월 25일에서 10월 25일까지 전국 농촌 및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3,958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여가여건,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지역역량, 경제활동 등 8개 부문에 대해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가 관련 정책, 연구 및 지도 현장에서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다 정확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 이용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해주신 전국의 표본가구 조사대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연구진 일동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보고서는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실시한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수록함.
2. 보고서에 수록된 결과분석에서는 조사대상이 된 읍면의 실제 가구 수 분포와 읍면 내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가구의 확률상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집단으로부터의 추출확률을 고려한 가중치가 적용되었음.
3. 조사결과의 전체 합계와 각 항목 값이 모두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합계의 수치가 각 항목 값의 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
4. 보고서의 통계표는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수치임.
5. 통계표 작성 시 가구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응답자 특성을 반영하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통계 수치를 제시하였음.
6. 통계표에 해당 숫자가 없는 경우는 비워둠.
7. 이 보고서는 일부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수록하고 있으며,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기 바람.
8.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보고서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임을 기재하여야 함.
9. 수록된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자원과(031-290-0276)로 문의 바람.

조사결과 요약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조사 결과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시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법적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 조사연혁

- 2004. 3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 2004. 8~11 :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 2008. 3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 2008. 10 :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 2013. 3 :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 2013. 9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승인

➡ 2013년 조사체계

| 표1 |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

구 분		내 용
표본설계	모집단	● 전국의 모든 가구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전국 가구
	표본규모	● 전국 3,958가구(응답률 98.7%) - 농어촌 2,764가구, 도시 1,194가구
	표본추출방식	● 다단계통화집락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 ● 조사대상 : 표본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만 19세 이상) ● 조사기간 : 2013년 9월 25일~10월 25일(1개월간)

➡ 2013년 조사내용

- 보건의료, 복지 등 8개 영역 87개 문항

| 표2 | 주요 조사내용

구분	조 사 항 목
보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보건의료 여건 전반
복지	사회보장, 노인복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장애인 복지, 복지 여건 전반
교육	학생교육, 사회교육
문화·여가여건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기초생활여건	이주실태, 주택여건, 생활여건
환경·경관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다원적 가치
지역역량	지역개발사업, 이웃과의 관계
경제활동	도·농교류, 경제활동여건
가구원 정보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 혼인상태, 학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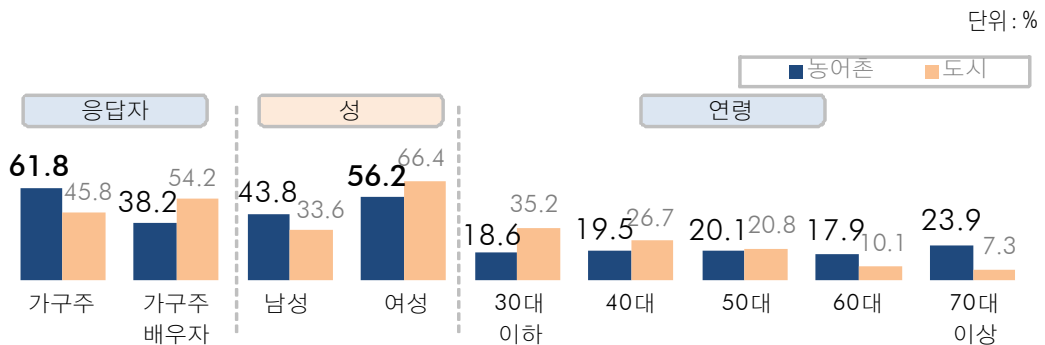
2

주요 조사 결과¹⁾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농어촌의 경우, '가구주'가 61.8%, '여성'이 56.2%, [60대 이상] 연령층이 41.8%,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53.5%), '농/어/축산업'층이 26.6%
- 도시의 경우, '여성'(66.4%) 비중이 농어촌에 비해 높고(+10.2%p), [60대 이상](17.4%) 비중은 낮은(-24.4%p) 반면, '30대 이하'(35.2%) 비중은 높음(+16.6%p). [고등학교 이상](83.5%) 비중이 더욱 높고(+30.0%p), 직업으로는 "사무/기술직"(28.2%)과 함께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아 '전업주부'(31.9%) 비중이 높음



조사대상 가구 특성

- 농어촌 가구의 경우, '농어가'가 33.0%, 가구원 수는 평균 2.7명, '2세대 가구'(45.8%) 비중이 가장 높음
- 도시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는 평균 3.0명으로 비슷한 수준, '1세대 가구'(13.8%) 비중이 낮은(-12.6%p) 반면, '2세대 가구'(65.7%) 비중은 높음(+19.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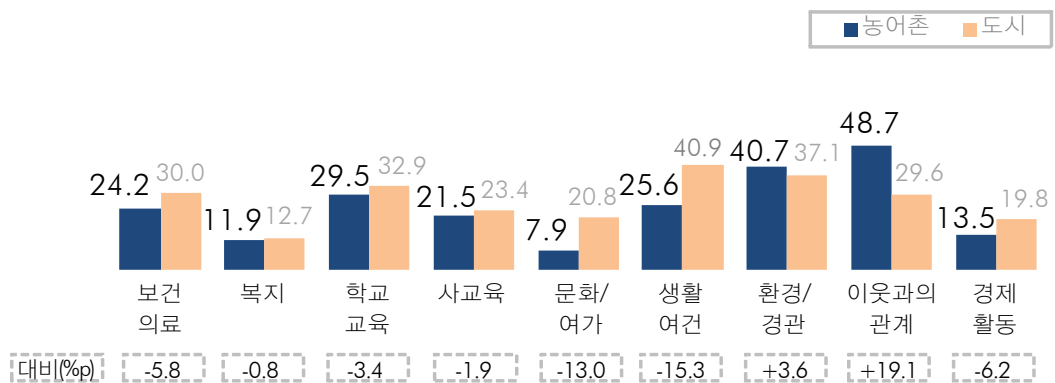
1)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 함

부문별 만족도 종합²⁾

➡ ‘이웃과의 관계’(48.7%), ‘환경·경관’(40.7%) 만족도가 가장 높은 반면, ‘경제활동 여건’(13.5%), ‘복지 여건’(11.9%), ‘문화·여가 여건’(7.9%)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적음

- ‘학교교육 여건’(29.5%), ‘생활 여건’(25.6%), ‘보건의료 여건’(24.2%), ‘사교육 여건’(21.5%) 순
- ‘문화·여가 여건’(-12.9%p), ‘생활 여건’(-15.3%p)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낮은 반면 ‘이웃과의 관계’(+19.1%p) 만족도는 도시에 비해 높음

단위 : %



-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만족도가 높은 부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만족도’의 경우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만족도가 높음

단위 : %

구분		보건의료	복지	학교교육	사교육	문화/여가	생활여건	환경/경관	이웃과의관계	경제활동
농어촌		24.2	11.9	29.5	21.5	7.9	25.6	40.7	48.7	13.5
읍/면	읍	23.2	13.1	30.9	23.2	8.9	28.9	44.7	43.3	16.2
	면	24.9	11.0	27.6	19.0	7.0	22.9	37.4	53.0	11.4
영농여부	농어가	26.4	12.6	23.4	16.8	7.8	24.2	39.9	65.7	11.6
	비농어가	23.1	11.6	30.9	22.5	7.9	26.2	41.1	40.4	14.5
도시		30.0	12.7	32.9	23.4	20.8	40.9	37.1	29.6	19.8

2) 만족(합)=매우 만족+다소 만족

보건의료 부문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 의료기관 이용실태 : '병(의)원'(76.4%)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절반 수준(48.9%),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42.9%) 또는 '대중교통'(34.7%)으로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6.6분
- 도시에 비해 '병(의)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4.8%p) 반면, '종합병원' 이용층은 비슷한 수준(-0.8%p)이었으며, 의료기관 이용 횟수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보임. 편도 소요시간은 도시에 비해 +11.3분 김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

단위 : %(명)

구분		보건 진료소	보건소 (지소)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 병원	기타
농어촌 (2,746)		3.7	3.0	76.4	2.3	13.9	.7
읍/면	읍 (1,219)	2.7	2.7	76.9	2.2	14.9	.7
	면 (1,527)	4.6	3.3	75.9	2.5	13.1	.6
영농 여부	농어가 (903)	6.0	4.2	71.9	3.2	14.2	.4
	비농어가 (1,843)	2.6	2.4	78.5	1.9	13.7	.8
도시 (1,194)		.6	.8	81.2	2.2	14.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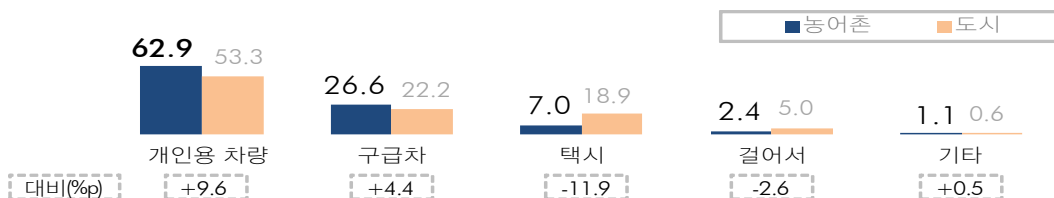
-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 '경험층'이 45.1%,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는 73.4점
- 도시(21.9%)에 비해, 경험층 비중은 높고(+23.2%p), 만족도는 비슷한 수준(+1.9점)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응급실 이용 경험 : '경험층'이 14.4%, 응급실 이동 시 '개인용 차량'(62.9%)이 주된 교통수단, '구급차' 이용률은 26.6%
- 도시(19.1%)에 비해, 경험층 비중은 약간 낮으며(-4.7%p), '개인용 차량' 비중이 높음(+9.6%p) 반면, '택시' 비중은 낮음(-11.9%p)

| 응급실 이동 시의 교통수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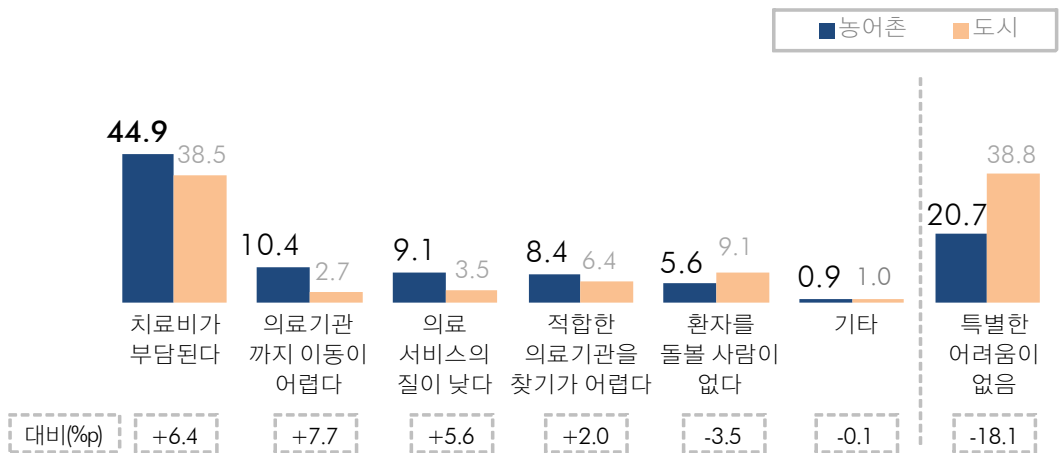
👉 보건의료 여건 전반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치료비 부담'(44.9%)이 주된 어려움.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0.4%),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9.1%),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8.4%),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5.6%) 순

- 도시에 비해 '치료비가 부담된다'(+6.4%p),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7.7%p) 비중이 약간 높음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

단위 : %



-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만족](24.2%) ≒ [불만족](25.9%), '보통 수준'(48.9점)의 평가

- 도시(55.0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음(-6.1점)

|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36)		48.9점	2.4	21.8	24.2	49.9	21.0	4.9	25.9
읍/면	읍 (1,215)	49.5점	2.7	20.6	23.2	52.9	19.7	4.2	23.9
	면 (1,523)	48.5점	2.1	22.8	24.9	47.6	22.0	5.5	27.5
영농 여부	농어가 (902)	48.3점	2.7	23.6	26.4	45.1	21.1	7.4	28.5
	비농어가 (1,836)	49.2점	2.2	20.9	23.1	52.3	20.9	3.7	24.6
도시 (1,189)		55.0점	3.0	27.1	30.0	58.7	9.8	1.5	11.3

복지 부문

☞ 사회보장

- 국민건강보험 가입 실태 : '가입층'이 96.0%, 가입층 중 '직장 가입자'가 59.3%, 보험료가 [부담 됨](52.6%) > [부담되지 않음](9.1%)
- 도시에 비해, '직장가입자' 비중이 낮음(-12.7%p)

|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

단위 : %(명)

구분		가입	가입 종류		미가입	미가입 시 수급 종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 유공자 무료진료	기타
농어촌 (2,764)		96.0	59.3	40.7	4.0	43.1	32.8	14.9	9.2
읍/면	읍 (1,226)	97.5	65.5	34.5	2.5	50.5	29.7	4.1	15.7
	면 (1,538)	94.9	54.3	45.7	5.1	39.9	34.1	19.7	6.3
영농 여부	농어가 (912)	96.9	47.6	52.4	3.1	41.5	44.1	9.0	5.4
	비농어가 (1,852)	95.6	65.2	34.8	4.4	43.5	30.2	16.3	10.0
도시 (1,194)		98.7	72.0	28.0	1.3	51.3	18.4	21.7	8.5

- 공적연금 가입 실태 : '국민연금'(62.2%) 가입률이 가장 높음. 보험료가 [부담 됨](51.9%) > [부담되지 않음](8.8%)
- 도시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음(-14.8%p)

| 공적연금 가입 현황(전체 가구) |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농어촌 (2,764)		62.2	3.9	.9	.8	33.7
읍/면	읍 (1,226)	69.1	5.7	1.5	1.0	24.6
	면 (1,538)	56.6	2.5	.4	.6	40.9
영농 여부	농어가 (912)	62.2	1.6	.2	.5	36.4
	비농어가 (1,852)	62.2	5.0	1.3	1.0	32.3
도시 (1,194)		77.0	3.1	1.0	.4	19.6

➡ 노인복지

●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 '기초노령연금'(67.2%) 인지도가 가장 높음

- 도시에 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3.9%p), '기초노령연금'(-21.9%p),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15.4%p), '의치(틀니) 지원사업'(-15.2%p),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12.0%p)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음

|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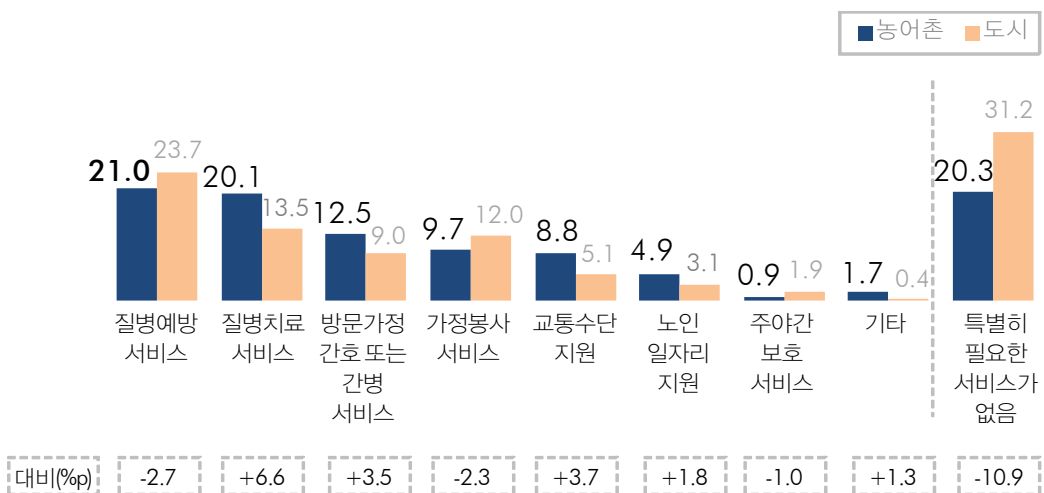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 사업	의치 (틀니) 지원 사업	기초노령 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농어촌	35.8	29.3	40.2	67.2	35.7	35.2	29.5
읍/면	읍	40.5	32.8	46.4	71.1	42.3	45.2
	면	33.8	27.8	37.5	65.6	32.8	30.8
영농 여부	농어가	39.2	33.4	42.1	68.0	39.3	36.6
	비농어가	32.6	25.4	38.5	66.6	32.3	33.9
도시	47.8	36.2	55.4	89.1	59.6	50.6	37.2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질병 '예방'(21.0%) 및 '치료'(20.1%)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

- 도시에 비해, '질병 치료 서비스' 비중이 약간 높음(+6.6%p)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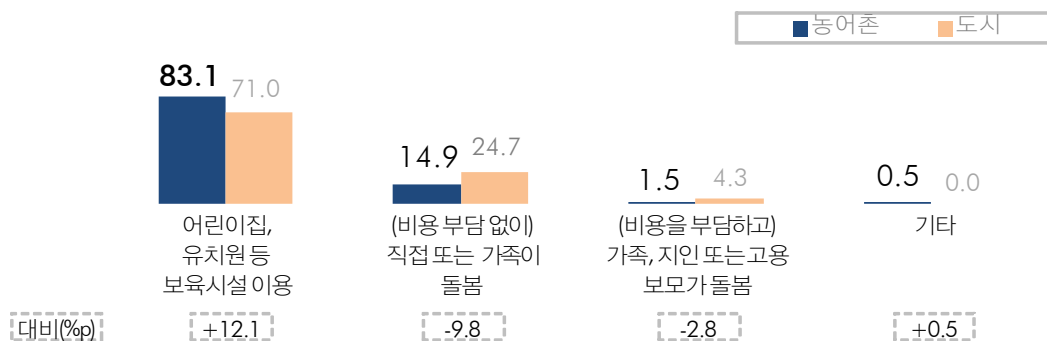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 영유아 보육 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83.1%
 - 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비중이 많은(+12.1%p) 반면,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이 돌봄’(14.9%) 비중은 낮음(-9.8%p)

| 영유아 보육 방법 |

단위 : %



-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30-50만원 미만’(38.4%) 등 평균 43.1만원, 이 중 본인 부담이 평균 21.4만원, 보조금이 21.7만원
 - 도시에 비해, ‘100만원 이상’ 비중이 약간 낮으며(-4.4%p), 평균 47.2만원(본인 부담 평균 26.4만원)

|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

단위 : %(명)

구분		평균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농어촌 (319)		43.1만원	3.6	26.4	38.4	15.3	12.6	3.7
읍/면	읍 (216)	44.9만원	3.5	27.5	36.6	13.6	14.1	4.8
	면 (102)	39.3만원	4.0	24.0	42.4	19.0	9.3	1.3
영농 여부	농어가 (28)	35.6만원	8.4	25.3	49.2	5.2	11.9	
	비농어가 (291)	43.9만원	3.1	26.5	37.4	16.3	12.6	4.0
도시 (236)		47.2만원	3.3	27.0	36.2	13.2	12.2	8.1

➡ 장애인복지

- 장애 가구원 실태 : 전체 농어촌 가구의 5.0%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 ‘가구주’ 본인이 56.0%
 - 도시와 비교 했을 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4.1%)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장애 가구원 유형으로 ‘가구주의 자녀’ 비중이 약간 낮음(-7.9%p)

-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20.8%)이 가장 필요

- 도시에 비해,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비중이 낮은(-14.5%p) 반면, ‘이동편의지원서비스’ 비중은 높음(+10.6%p)

|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

단위 : %(명)

구분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용품 지원	의료 재활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이동 편의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기타
농어촌 (138)		20.8	16.8	14.7	18.0	3.5	7.3	6.3	12.7
읍/면	읍 (55)	22.2	13.1	15.0	19.2	2.3	12.4	3.7	12.0
	면 (83)	19.9	19.3	14.4	17.2	4.3	3.9	7.9	13.1
영농 여부	농어가 (54)	29.4	22.3	9.4	11.6	6.1	7.5	3.0	10.7
	비농어가 (84)	15.3	13.3	18.0	22.0	1.8	7.2	8.4	14.0
도시 (46)		35.3	17.2	14.9	7.4	5.7	7.8	1.0	10.6

➡ 복지 여건 전반

- 복지시설 이용 횟수 및 이용 만족도 : 이용 경험층이 7.6%,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3.1%, 이용층의 만족도는 66.1점

- 농어촌에 비해 복지시설을 상대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도시(74.2점)에 비해,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8.1점)

- 전반적인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만족](11.9%)에 비해 [불만족](30.5%) 비중이 높아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44.4점)의 평가

-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약간 높아(+11.2%p) 만족도가 약간 낮음(-3.6점)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25)		44.4점	1.2	10.7	11.9	57.6	25.4	5.1	30.5
읍/면	읍 (1,211)	44.9점	1.3	11.8	13.1	57.5	23.9	5.5	29.4
	면 (1,514)	44.0점	1.1	9.9	11.0	57.6	26.6	4.8	31.4
영농 여부	농어가 (901)	43.4점	1.3	11.2	12.6	53.2	28.0	6.2	34.2
	비농어가 (1,824)	44.9점	1.1	10.5	11.6	59.7	24.1	4.6	28.6
도시 (1180)		48.0점	1.1	11.6	12.7	68.0	16.9	2.4	19.3

교육 부문

▶ 학생교육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 '걸어서'(44.1%)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편도 소요시간은 16.3분
- 도시에 비해, '자가용' 비중이 높은(+10.8%p) 반면, '걸어서' 비중은 낮음(-21.4%p)

| 자녀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 |

단위 :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15분 미만	15-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농어촌 (545)		16.3분	1.2	19.3	34.0	13.3	16.4	12.8	2.9
읍/면	읍 (341)	15.2분	.7	22.6	38.3	12.4	14.0	9.4	2.8
	면 (225)	18.0분	1.9	14.1	28.8	13.4	20.9	17.6	3.2
영농 여부	농어가 (99)	19.4분	1.3	6.8	26.8	20.6	21.8	21.0	1.6
	비농어가 (466)	15.7분	1.1	21.8	36.1	11.1	15.6	10.9	3.3
도시 (345)		14.2분	2.1	19.1	38.8	13.8	16.9	7.6	1.9

- 자녀 통학 비용 : '통학 비용이 들지 않는다'(48.8%) 비중이 가장 높음
- '걸어서' 비중이 높았던 도시에 비해, '0원' 비중이 낮은 반면(-21.8%p), '2,000원 미만'(+12.6%p), '2,000-4,000원 미만'(+5.8%p) 비중이 높음
- 자녀의 학교교육 만족도 : [만족](29.5%) > [불만족](23.6%), '보통 수준'(51.8점)의 평가
-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높아(+9.7%p) 만족도가 약간 낮음(-3.0점)
-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만족](21.5%)에 비해 [불만족](30.0%) 비중이 약간 높아 '보통 수준'(47.3점)의 평가
-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높아(+11.6%p) 만족도가 낮음(-3.3점)

| 자녀의 학교교육 및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학교교육 만족도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사례수	평균	만족(합)	보통	불만족(합)	사례수	평균	만족(합)	보통	불만족(합)
농어촌		(567)	51.8점	29.5	46.8	23.6	(565)	47.3점	21.5	48.5	30.0
읍/면	읍	(338)	52.9점	30.9	48.7	20.4	(336)	49.0점	23.2	50.3	26.5
	면	(229)	50.1점	27.6	44.1	28.4	(229)	44.8점	19.0	46.0	35.0
영농 여부	농어가	(101)	48.0점	23.4	45.6	31.0	(101)	38.6점	16.8	30.3	52.9
	비농어가	(467)	52.6점	30.9	47.1	22.0	(465)	49.2점	22.5	52.5	25.0
도시		(338)	54.8점	32.9	53.2	13.9	(337)	50.6점	23.4	58.2	18.4

사회교육

-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 '농업기술교육', '스포츠 건강교육' 경험률 및 향후 수요가 높음
 - 도시에 비해, '농업기술교육' 경험률 및 의향률이 높음
-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 '시간적 여유가 없다'(38.0%)가 주된 어려움
 - 도시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낮음(-13.1%p) 반면,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5.2%p),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4.0%p), '교통이 불편하다'+3.5%p) 비중은 약간 높음

|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

단위 : %(명)

구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용이 부담 된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이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 하다	교통이 불편 하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기타	해당 없음
농어촌 (2,738)	38.0	11.4	11.4	8.6	5.4	5.0	3.8	.9	15.6
읍/면	읍 (1,214)	44.5	10.5	8.8	9.3	5.1	4.2	1.4	12.6
	면 (1,524)	32.8	12.1	13.4	8.1	5.6	3.4	.5	18.0
영농 여부	농어가 (901)	34.8	11.6	11.2	8.3	6.8	3.2	.1	17.8
	비농어가 (1,837)	39.5	11.3	11.5	8.7	4.7	4.0	1.2	14.6
도시 (1,184)	51.1	8.6	6.2	4.6	4.4	1.5	3.7	1.3	18.5

문화·여가여건 부문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 : '문화센터'(18.5%), '찜질방/목욕탕'(18.3%)이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
 - 도시에 비해, '찜질방/목욕탕' 비중이 높음(+14.4%p)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

단위 : %(명)

구분	문화 센터	찜질방/목욕탕	영화관/공연장/전시관	체육 시설/경기장	공원/산책로	마을 회관/경로당	도서관	유원지	기타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음
농어촌 (2,730)	18.5	18.3	10.9	9.4	6.1	5.5	3.6	.8	1.2	25.5
읍/면	읍 (1,206)	23.3	8.6	16.7	11.4	7.5	4.5	3.6	.6	22.8
	면 (1,523)	14.8	26.0	6.4	7.9	5.1	6.4	3.7	1.0	27.7
영농 여부	농어가 (909)	13.7	28.4	4.5	8.9	4.0	7.1	2.4	.8	28.7
	비농어가 (1,820)	21.0	13.2	14.1	9.7	7.2	4.8	4.2	.8	23.9
도시 (1,177)	14.1	3.9	11.0	8.0	9.2	0.9	6.8	0.6	1.0	44.4

- 문화·여가 활동 시 어려움 : '시간적 여유가 없다'(32.9%)가 주된 어려움
 - 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다' 비중이 약간 높은(+5.0%p) 반면, '해당없음' 비중은 낮음(-8.4%p)
- 전반적인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만족](7.9%)에 비해 [불만족](36.4%) 비중이 높아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41.4점)
 -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낮음(-12.9%p) 반면, [불만족] 비중은 높아(+16.4%p) 만족도가 낮음(-8.6점)

|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45)	41.4점	.5	7.3	7.9	55.7	29.9	6.5	36.4
읍/면	읍 (1,220)	.8	8.2	8.9	53.4	30.1	7.6	37.7
	면 (1,525)	.3	6.7	7.0	57.6	29.7	5.7	35.4
영농 여부	농어가 (906)	.4	7.4	7.8	56.0	29.4	6.7	36.1
	비농어가 (1,839)	.6	7.3	7.9	55.6	30.1	6.4	36.5
도시 (1,175)	50.0점	2.6	18.2	20.8	59.2	16.6	3.3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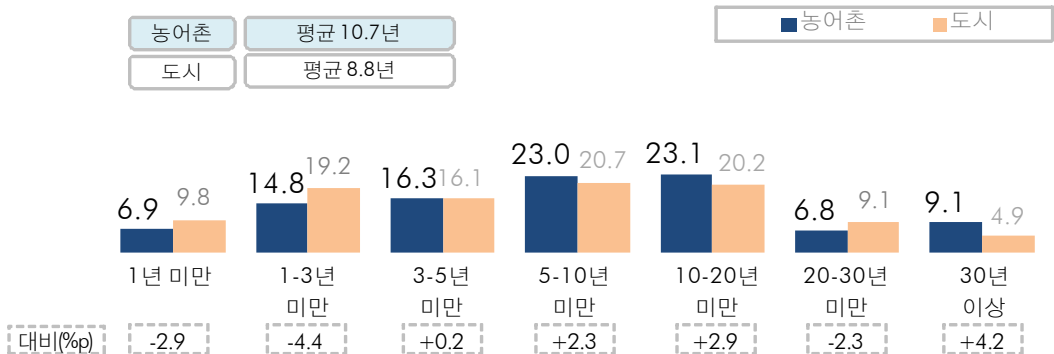
기초생활여건 부문

➡ 이주 실태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 이주층이 50.9%, 거주기간은 [5-20년 미만] 사이가 46.1%
 - 도시에 비해, 동/리 경계를 넘어 이주한 적이 없는 층 비중이 높음(+39.0%p)

| 이주 후 거주기간 |

단위 : %



- 이주 직전 주택 위치 : '현재 살고 있는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이 38.4%
 - 농어촌 가구 중 농어촌에서 이주한 경우는 66.4%, 도시에서 이주한 경우는 33.6%
 - 도시 가구 중 도시에서 이주한 경우가 84.0%, 농어촌에서 이주한 경우가 16.0%

➡ 주택 여건

-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단독주택'이 53.3%, '자가'층이 81.1%
 - 도시에 비해, '아파트' 비중이 낮음(-31.2%p) 반면, '단독주택'은 높음(+43.5%p)
- 난방 시설 유형 : '기름보일러'(38.8%), '도시가스 보일러'(33.9%) 비중이 가장 높음
 - 도시에 비해, '기름보일러'(+35.2%p), '전기보일러'(+10.6%p)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가스 보일러'(-36.0%p), '지역난방'(-13.7%p), '중앙난방'(-9.0%p) 비중은 낮음

| 난방 시설 유형 |

단위 : %(명)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채래식 아궁이	기타
농어촌 (2,737)		.8	1.9	33.9	38.8	6.2	11.2	3.0	.6	3.6
읍/면	읍 (1,221)	1.2	2.5	55.7	23.3	9.3	3.8	1.9	.1	2.2
	면 (1,516)	.4	1.5	16.4	51.2	3.7	17.2	3.9	.9	4.8
영농 여부	농어가 (902)	.6	.1	3.0	59.4	3.0	20.0	5.5	.8	7.5
	비농어가 (1,834)	.9	2.9	49.1	28.6	7.8	6.9	1.8	.5	1.7
도시 (1,189)		9.8	15.6	69.9	3.6	.2	.6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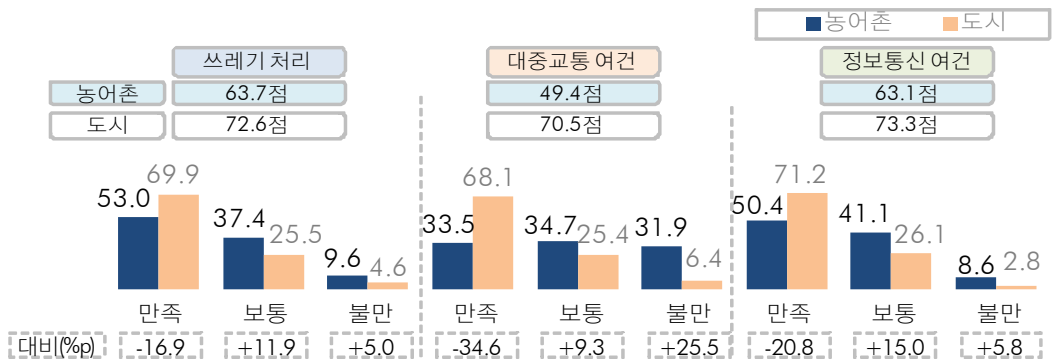
➡ 생활여건

-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 '광역 및 지방 상수도'(71.8%)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먹는 물 수질에 [만족]하는 층이 59.3%
 - 도시에 비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중이 낮음(-27.9%p) 반면,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6.8%p),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10.7%p) 비중은 높음
-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 '공공하수처리시설'(78.2%)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하수 처리에 대해 [만족]하는 층이 55.4%
 - 도시에 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중이 낮음(-20.3%p)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중은 높음(+14.2%p)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대중교통 여건'(49.4점)에 대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음
-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21.1점), '정보통신 여건'(-10.2점), '쓰레기 처리'(-8.9점) 등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

단위 : %



-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만족](25.6%) 비중이 [불만족](20.5%)에 비해 약간 높아 생활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51.0점)의 평가
-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낮은(-15.3%p) 반면, '보통'(+8.1%p), [불만족](+7.2%p)은 높아 만족도가 낮음(-6.8점)

|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0)		51.0점	3.1	22.5	25.6	53.9	16.3	4.2	20.5
읍/면	읍 (1,219)	52.3점	4.3	24.6	28.9	51.1	16.2	3.9	20.0
	면 (1,530)	49.9점	2.1	20.8	22.9	56.2	16.4	4.5	20.9
영농 여부	농어가 (908)	49.8점	2.6	21.6	24.2	54.0	16.0	5.8	21.8
	비농어가 (1,843)	51.6점	3.3	22.9	26.2	53.9	16.4	3.5	19.8
도시 (1,190)		57.8점	4.8	36.2	40.9	45.8	12.2	1.1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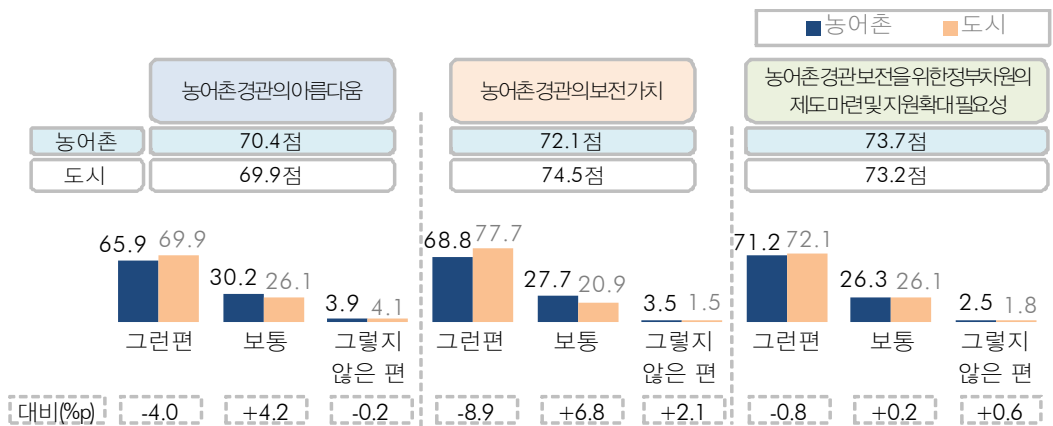
환경·경관 부문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 '농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73.7점) 동의도가 가장 높음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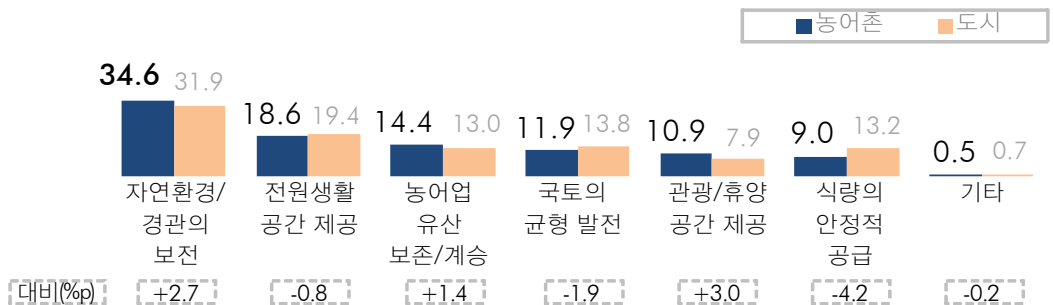


➡ 다원적 가치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4.6%)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음
- 도시에 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비중이 약간 낮음(-4.2%p) 반면,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비중이 약간 높음(+2.7%p)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

단위 : %



-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 [만족](40.7%) 비중이 [불만족](8.1%)에 비해 높아 '약간 만족하는 수준'(60.2점)의 평가
- 도시에 비해, [불만족](-8.4%p) 비중이 낮아 만족도가 높음(+4.5점)

|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8)		60.2점	9.1	31.5	40.7	51.2	7.2	.9	8.1
읍/면	읍 (1,224)	61.1점	9.3	35.4	44.7	46.8	7.6	1.0	8.5
	면 (1,535)	59.4점	9.0	28.5	37.4	54.7	6.9	.9	7.8
영농 여부	농어가 (910)	60.4점	10.6	29.2	39.9	52.4	6.7	1.1	7.7
	비농어가 (1,848)	60.1점	8.4	32.7	41.1	50.6	7.5	.9	8.4
도시 (1,192)		55.7점	3.8	33.3	37.1	46.4	14.8	1.7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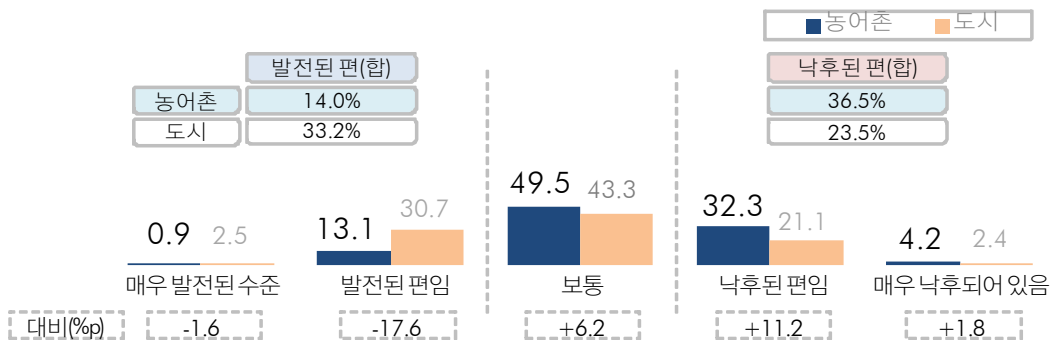
지역역량 부문

지역개발사업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발전된 편](13.9%) < [낙후된 편](36.5%)
- 도시에 비해, [발전된 편] 비중이 낮음(-19.3%p) 반면, [낙후된 편] 비중이 높음(+13.0%p)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

단위 : %



- 지역개발사업 방향 : '농어촌 산업 육성'(23.5%), '문화/여가/복지 여건 개선'(22.4%), '기초 주거환경 개선'(20.0%)이 가장 시급한 사업 분야

➡ 이웃과의 관계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만족]한다는 의견이 48.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4.7점)
-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높아(+19.1%p) 만족한다는 태도가 강함(+8.4점)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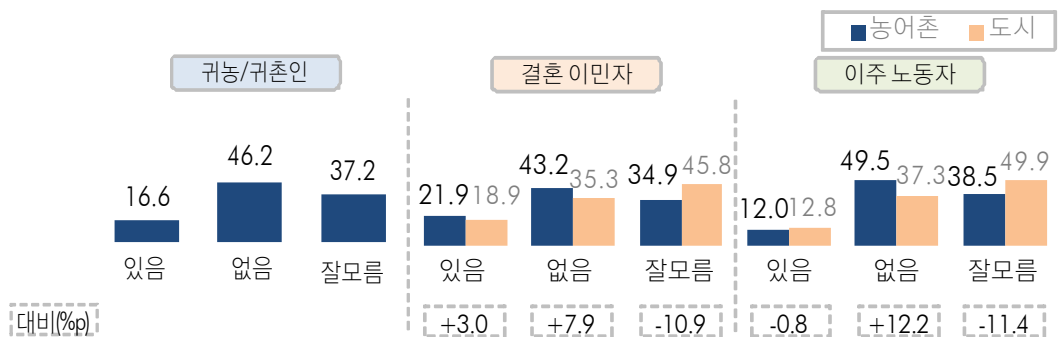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5)	64.7점	14.6	34.1	48.7	47.2	3.6	.6	4.1
읍/면	읍 (1,223)	12.0	31.3	43.3	51.5	4.4	.7	5.1
	면 (1,532)	16.7	36.3	53.0	43.7	2.9	.4	3.3
영농 여부	농어가 (907)	23.7	42.0	65.7	32.8	1.4	.1	1.5
	비농어가 (1,848)	10.2	30.2	40.4	54.2	4.6	.8	5.4
도시 (1,185)	56.3점	3.8	25.8	29.6	62.9	6.9	.7	7.5

-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의식 : '결혼 이민자'의 유입률(21.9%)이 '이주 노동자'(12.0%)에 비해 높았으며, '귀농/귀촌인' 유입률은 16.6%임
- 도시에 비해, '결혼 이민자' 유입률이 약간 높음(+3.0%p)

| 외부인 유입 여부 |

단위 : %



-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용성(49.9%)이 '결혼 이민자'(46.0%), '이주 노동자'(41.6%)에 비해 높음

경제활동 부문

도·농 교류 활성화

- 도·농 교류 경험 실태 : 농어촌(농어가)(n=912)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운영 경험률(16.7%)이 가장 높음
- 도시 주민도 '농수산물 직거래' 이용 경험률(16.1%)이 가장 높음

| 도·농 교류 경험 실태 |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가식당 또는 민박	주말농장
농어촌 (농어가) (912)	16.7	6.2	5.4	3.5	3.1	1.9
도시 (1,194)	16.1	8.7	1.7	4.3	9.8	6.4

*농어촌(농어가) -운영자, 도시 - 이용자

-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 농어촌(농어가)(n=912)에서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 의향률(32.5%)이 가장 높음
- 도시 주민의 경우, '농수산물 직거래'(33.2%), '주말농장'(24.8%), '농어촌 체험관광'(21.7%)에 대한 참여 의향률이 높음

|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

단위 : %(명)

구분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가식당 또는 민박	주말농장
농어촌 (농어가) (912)	32.5	17.1	17.1	10.9	9.8	9.0
도시 (1,194)	33.2	21.7	7.5	17.5	19.5	24.8

*농어촌(농어가) -운영자, 도시 - 이용자

➡ 경제활동 여건

-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부문별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41.3점)
-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은 약간 낮음(-6.3%p) 반면, [불만족] 비중이 높아(+10.9%p) 만족도가 낮음(-5.6점)

|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17)		41.3점	1.1	12.5	13.5	46.0	31.4	9.0	40.4
읍/면	읍 (1,190)	43.9점	.8	15.5	16.2	48.3	29.7	5.8	35.5
	면 (1,528)	39.3점	1.3	10.1	11.4	44.3	32.7	11.5	44.2
영농 여부	농어가 (909)	38.3점	.7	10.9	11.6	43.7	30.6	14.2	44.8
	비농어가 (1,807)	42.8점	1.3	13.2	14.5	47.2	31.8	6.4	38.2
도시 (1,176)		46.9점	1.8	18.0	19.8	50.7	25.2	4.3	29.5

목차1
전체 목차

■ 조사연구 개요	51
-----------------	----

제1부 | 개인설문조사

1. 일반사항	67
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8
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70
(1) 농어촌(읍/면)지역 가구특성	70
(2) 도시(동)지역 가구특성	71
2. 보건의료 부문	72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01 의료기관 이용실태	73
2-02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77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2-03 응급실 이용 실태	79
----------------------	----

보건의료 여건 전반

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81
------------------------	----

2-05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83
--------------------------------	----

3. 복지 부문	84
-----------------------	-----------

사회보장

3-0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85
------------------------	----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85
-----------------------	----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86
----------------------------	----

3-02 공적연금 가입실태	88
----------------------	----

(1) 공적연금 가입현황	88
---------------------	----

(2)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89
--------------------------	----

3-03 기타 보험 가입현황	91
-----------------------	----

3-04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92
--	----

노인복지

3-05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93
----------------------------	----

(1)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93
------------------------	----

(2)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	94
-----------------------------------	----

3-06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96
-------------------------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3-07 영유아 수	98
3-08 영유아 보육 방법	99
3-09 영유아 교육 방법	101
3-10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102

장애인복지

3-11 장애 가구원 유무	105
(1) 장애 가구원 유형	105
(2) 장애 종류 및 등급	106
3-12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107

복지 여건 전반

3-13 복지시설 이용횟수 및 이용 만족도	108
3-1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0

4. 교육 부문

학생교육

4-01 초·중·고생 유무 및 타 지역 유학생 실태	112
4-02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113
4-03 자녀 통학 비용	115
4-0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116
4-05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7

4-06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8
-------------------------------	-----

4-07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119
---------------------------	-----

사회교육

4-08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120
-------------------------	-----

4-09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122
-------------------------------	-----

5. 문화·여가여건 부문	124
----------------------------	------------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5-0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125
------------------------	-----

5-02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126
--------------------------	-----

5-03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128
--------------------------------	-----

6. 기초생활여건 부문	129
---------------------------	------------

이주 실태

6-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130
------------------------------------	-----

6-02 이주 직전 주택 위치	132
------------------------	-----

주택 여건

6-03 주택 건축년도	133
--------------------	-----

6-04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134
-------------------------	-----

6-05 주택 건평 및 방 개수	136
-------------------------	-----

6-06 주택 시설 현황	138
---------------------	-----

6-07 난방비 지출 기간 및 월평균 지출 금액	140
6-08 주택 신·개축 의향	143
(1) 주택 신·개축 의사 및 예상 시기	143
(2) 주택 신·개축 시 자금마련 방법	144

생활여건

6-09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145
6-10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147
6-11 쓰레기 처리 방법	149
6-12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150
6-13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1
6-14 이주 의향	152
(1)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154
(2) 이주 희망 지역	154
6-15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155

7. 환경·경관 부문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7-0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157
--------------------------	-----

다원적 가치

7-0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58
7-03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159

8. 지역역량 부문..... 160

지역개발사업

8-0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61

8-02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162

8-03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163

8-04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165

이웃과의 관계

8-0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6

8-06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의식..... 167

(1) 외부인 유입 여부..... 167

(2)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168

9. 경제활동 부문..... 169

도·농 교류 활성화

9-01 도·농 교류 경험 실태..... 170

(1) 도·농 교류 경험 유무 및 만족도..... 170

(2)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172

9-02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173

경제활동 여건

9-03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174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1. 보건의료 부문	177
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178
1-02 만성질환 현황	179
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0
1-04 건강검진 수진율	181
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82
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3
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4
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85
1-09 농작업 손상	186
1-10 병상수	187
1-11 보건의료기관 수	188
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189
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0
2. 복지 부문	191
2-01 독거노인 현황	192
2-02 장수인구 비율	192

2-03 치매노인 비율	193
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193
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194
2-06 노인일자리 참여	195
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196
2-08 영유아 비율	197
2-09 유치원 취원율	198
2-10 보육시설 현황	199
2-11 조손가구 비율	202
2-12 장애인 추가비용	202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03

3. 교육 부문	205
3-01 학생 수	206
3-02 학교 수	207
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08
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09
3-05 소규모학교 비율	210
3-06 복식학교 비율	211

3-07 교원 수	212
3-08 연령별 교원 수	213
3-09 사무직원 수	214
3-10 사서교사 배치율	215
3-11 보건교사 배치율	216
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17
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18
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19
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0
3-16 통학수단	221
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22
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223
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25
3-20 학업중단 비율	226
3-21 대학(교) 진학률	227
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28
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29
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30
3-25 도서관 현황	230

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1
-----------------------------	-----

4. 문화여가 부문	232
-------------------------	------------

4-01 주요 여가활동	233
--------------------	-----

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34
-------------------------	-----

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35
-------------------------	-----

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36
--------------------------------	-----

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237
-----------------------------------	-----

5.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238
---------------------------------	------------

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239
------------------------	-----

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240
-------------------------	-----

5-03 주택의 시설 현황	241
----------------------	-----

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42
---------------------------	-----

5-05 상수도 보급률	243
--------------------	-----

5-06 하수도 보급률	243
--------------------	-----

5-07 도로 포장률	244
-------------------	-----

5-08交通安全시설에 대한 만족도	245
--------------------------	-----

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45
-------------------------------	-----

5-10 인터넷 이용 목적	246
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247
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249
6. 지역역량 부문	251
6-01 사회단체 참여율	252
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53
7. 경제활동 부문	254
7-01 소득 및 가계지출	255
7-02 부채 규모	256
7-03 소득 만족도	257
7-04 소비생활 만족도	258
7-05 노후준비	259
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60
7-07 자동차 보유 여부	261
부록	263
(1) 전국 표본리스트	265
(2) 주요 항목별 타 자료 비교	276
(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298
(4) 주요 용어정리	301
(5)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표	309

목차2
표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표1 - 01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71
표1 - 02 - (1) 농어촌(읍/면)지역 가구의 일반적 특성	72
표1 - 02 - (2) 도시(동)지역 가구의 일반적 특성	73
표2 - 01 - (1) - 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75
표2 - 01 - (1) - ② 의료기관 이용 횟수	76
표2 - 01 - (2) 의료기관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77
표2 - 01 - (3) 의료기관 이용 시 편도 소요시간	78
표2 - 02 - (1)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79
표2 - 02 - (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80
표2 - 03 - (1) 응급실 이용경험	81
표2 - 03 - (2)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82

표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84
표2-05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85
표3-01-(1)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87
표3-01-(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89
표3-02-(1)-① 공적연금 가입 현황(전체 가구)	90
표3-02-(1)-② 공적연금 가입 현황(18-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90
표3-02-(2)-① 국민연금 가입층의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92
표3-02-(2)-②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92
표3-03 기타 보험 가입현황	93
표3-04-(1) 지원사업 인지 여부 및 인지층 중 경험 여부	94
표3-04-(2) 지원사업 만족도	94
표3-05-(1)-①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95
표3-05-(2)-①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경험	96
표3-05-(2)-②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만족도	97
표3-06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99
표3-07-(1) 영유아 있는 가구	100
표3-07-(2) 영유아 수	100
표3-08 영유아 보육 방법	102
표3-09 영유아 교육 방법	103
표3-10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104

표3-11-(1)-①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107
표3-11-(1)-② 장애 가구원 유형	107
표3-11-(2)-① 장애 종류	108
표3-11-(2)-② 중복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108
표3-12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109
표3-13-(1) 복지시설 이용 횟수	110
표3-13-(2)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111
표3-1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2
표4-01-(1) 초·중·고생 유무	114
표4-01-(2) 타 지역 유학생 실태	114
표4-02-(1)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115
표4-02-(2) 자녀 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편도)	116
표4-03 자녀 통학 비용	117
표4-0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118
표4-05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119
표4-06-(1)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120
표4-06-(2)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121
표4-07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122
표4-08-(1) 사회교육 경험률	123
표4-08-(2) 사회교육 의향률	124

표4-09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126
표5-0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128
표5-02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130
표5-03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131
표6-01-(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133
표6-01-(2) 이주 후 거주기간	134
표6-02-(1) 이주 직전 주택 위치(농어촌)	135
표6-02-(2) 이주 직전 주택 위치(도시)	135
표6-03 주택 건축년도	136
표6-04-(1) 주택 종류	137
표6-04-(2) 주택 점유형태	138
표6-05-(1) 주택 평균 건평	139
표6-05-(2) 방 개수	140
표6-06-(1) 주택 시설 현황	141
표6-06-(2) 주택 시설 종류	141
표6-06-(3) 난방 시설 유형	142
표6-07-(1) 난방비 지출 기간	143
표6-07-(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144
표6-07-(3)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난방시설 종류별)	144
표6-07-(4) 지역별 연 평균 난방비	145

표6-08-(1) 주택 신·개축 의사 및 예상 시기	146
표6-08-(2) 주택 신·개축 시 자금마련 방법	147
표6-09-(1) 상수도 종류	148
표6-09-(2) 먹는 물 수질 만족도	149
표6-10-(1) 하수도 종류	150
표6-10-(2)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151
표6-11 쓰레기 처리 방법	152
표6-12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153
표6-13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54
표6-14-(1)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156
표6-14-(2)- ① 이주 희망 지역(농어촌)	157
표6-14-(2)- ② 이주 희망 지역(도시)	157
표6-15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158
표7-0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160
표7-0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61
표7-03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162
표8-0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164
표8-02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165
표8-03-(1)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166
표8-03-(2)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166

표8-04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167
표8-0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168
표8-06-(1) 외부인 유입 여부	169
표8-06-(2)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170
표9-01-(1)-① 도·농 교류 경험 실태	172
표9-01-(1)-② 도·농 교류 만족도	173
표9-01-(2)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174
표9-02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175
표9-03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176

제2부 | 기존통계 활용

표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180
표1-02 만성질환 현황	181
표1-03 주관적 건강 인식	182
표1-04 건강검진 수진율	183
표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184
표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185
표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186
표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187

표1-09-(1)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손상발생률	188
표1-09-(2)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188
표1-10 병상수	189
표1-11 보건의료기관 수	190
표1-12-(1)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191
표1-12-(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191
표1-13-(1)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92
표1-13-(2)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192
표2-01 독거노인 현황	194
표2-02 장수인구 비율	194
표2-03 치매노인 비율	195
표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195
표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196
표2-06 노인일자리 참여	197
표2-07-(1)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198
표2-07-(2)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198
표2-08 영유아 비율	199
표2-09 유치원 취원율	200
표2-10-(1)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201

표2-10-(2)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202
표2-10-(3)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아동 현황	203
표2-11 조손가정	204
표2-12 장애인 추가비용	204
표2-13-(1) 결혼이민자(조손가족 포함) 현황	205
표2-13-(2)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206
표2-13-(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206
표2-13-(4)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206
표3-01 학생 수	208
표3-02 학교 수	209
표3-03 학급 수별 학교 수	210
표3-04 학생 수별 학교 수	211
표3-05 소규모학교 비율	212
표3-06 복식학교 비율	213
표3-07 교원 수	214
표3-08 연령별 교원 수	215
표3-09 사무직원 수	216
표3-10 사서교사 배치율	217
표3-11 보건교사 배치율	218

표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219
표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220
표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1
표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222
표3-16	통학수단	223
표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224
표3-18-(1)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225
표3-18-(2)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225
표3-18-(3)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1학년	226
표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227
표3-20	학업중단 비율	228
표3-21	대학(교) 진학률	229
표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230
표3-23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231
표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232
표3-25	도서관 현황	232
표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233
표4-01	주요 여가활동	235
표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236

표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237
표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238
표4-05-(1)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239
표4-05-(2)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239
표5-01-(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241
표5-01-(2)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241
표5-02-(1) 주거형태	242
표5-02-(2) 점유형태	242
표5-03-(1) 주거시설	243
표5-03-(2) 난방형태	243
표5-04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244
표5-05 상수도 보급률	245
표5-06 하수도 보급률	245
표5-07 도로 포장률	246
표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247
표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247
표5-10 인터넷 이용 목적	248
표5-1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	249
표5-11-(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249

표5-11-(3)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250
표5-11-(4)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250
표5-11-(5)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250
표5-12-(1)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251
표5-12-(2)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251
표5-12-(3)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252
표5-12-(4)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252
표5-12-(5)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252
표6-01 사회단체 참여율	254
표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255
표7-01 소득 및 가계지출	257
표7-02 부채 규모	258
표7-03 소득 만족도	259
표7-04 소비생활 만족도	260
표7-05 노후준비	261
표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262
표7-07 자동차 보유 여부	263

목차3
그림 목차

제1부 | 개인설문조사

그림1 - 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70
그림2 - 02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80
그림2 - 03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82
그림2 - 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83
그림3 - 0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88
그림3 - 02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91
그림3 - 03 기타 보험 가입현황	93
그림3 - 06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98
그림3 - 08 영유아 보육 방법	101
그림3 - 09 영유아 교육 방법	103
그림3 - 10 - (1)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104

그림3 - 10 - (2)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농어촌)	105
그림3 - 10 - (3)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도시)	106
그림4 - 02 통학 수단별 자녀 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편도)	116
그림4 - 09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125
그림5 - 02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129
그림6- 01 이주 후 거주기간	134
그림6 - 03 주택 건축년도	136
그림6 - 04 - (1) 주택 종류	137
그림6 - 04 - (2) 주택 점유형태	138
그림6 - 05 방 개수	140
그림6 - 09 - (1) 상수도 종류	148
그림6 - 09 - (2) 먹는 물 수질 만족도	149
그림6 - 10 - (1) 하수도 종류	150
그림6 - 10 - (2)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151
그림6 - 12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153
그림6 - 14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155
그림7 - 0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160
그림7 - 0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161
그림8 - 06 - (1) 외부인 유입 여부	169
그림9 - 02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175

조사연구 개요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조사 목적
조사의 추진배경
조사연혁
표본설계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조사방법
조사내용
자료처리 및 분석

1. 조사 목적

-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농어촌의 복지실태, 교육여건 및 기초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분석하여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2. 법적 근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실태조사의 실시)
- 국가승인통계 제11437호('04.8.31.)

3. 조사연혁

2004.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매 5년 주기로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실시 의무화

2004. 8~11

「농림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등 조사」 승인 및 조사 실시
- 농림부에서 외주용역으로 조사 실시

2008. 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통계청으로 조사 이관

2008. 10

「농림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2013. 3

농촌진흥청 이관, 농촌생활지표조사와 통합 추진 결정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실태조사 항목 포괄

2013. 9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로 조사명칭 변경, 조사주기, 조사내용 등 변경

4. 표본설계

① 모집단(survey population)

- 전국의 모든 가구(2010 인구주택총조사)

단위 : 명

시도	동부		읍면부	
	가구수	인구수	가구수	인구수
전국	14,031,069	39,363,373	3,308,353	8,627,388
서울	3,504,297	9,631,482	-	-
인천	891,212	2,561,111	27,638	70,924
경기	3,179,058	9,279,322	652,076	1,916,731
강원	346,314	915,489	211,437	548,161
대전	532,643	1,490,158	-	-
충북	338,245	930,794	220,551	565,190
충남	287,454	791,380	461,581	1,209,093
부산	1,210,108	3,300,085	33,772	93,106
울산	309,357	885,862	64,276	185,811
대구	812,342	2,264,549	55,985	167,225
경북	515,421	1,383,756	489,928	1,191,614
경남	715,155	2,006,763	436,017	1,112,808
광주	515,855	1,466,143	-	-
전북	450,074	1,263,953	209,872	502,091
전남	286,231	797,422	395,200	931,327
제주	137,303	395,104	50,020	133,307

② 추출 단위(sampling unit)

- 1차 추출단위(primary sampling unit: psu) : 동읍면
- 2차 추출단위(secondary sampling unit: ssu) : 조사구(아파트는 단지)
- 3차 추출단위(ultimate sampling unit: usu) : 가구

③ 추출틀(sampling frame)

- 2010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

④ 층화(stratification)

- 1차 층화 : 동 지역과 읍면 지역으로 층화
- 2차 층화 : 동 지역 - 서울, 광역시, 기타
읍면 지역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3차 층화 : 내재적 층화(implicit stratification)
아파트 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지역별 1~3개로 층화

⑤ 표본배분

- 역배분(power allocation)에 의해 지역별 표본 배분을 함

층화추출에서 흔히 고려되는 네이만배분(Neyman allocation)은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나 큰 규모의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매우 효율적인 표본할당을 제공하지만 소규모 부모집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표본을 할당시킴

$$n_h^{Neyman} = n \frac{N_h S_{yh}}{\sum_{h=1}^H N_h S_{yh}} \quad \text{여기서 } N_h \text{는 층크기이고 } S_{yh} \text{는 조사변수 } y \text{의 층분산}$$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Bankier(1988)³⁾가 제시한 “역배분(power allocation)”을 고려할 수 있음. 역배분은 주어진 표본크기 n 을 H 개의 부모집단 (층)에 할당할 때, 층별 특성치 y 의 상대표준오차(coefficient of variation, CV) cv_{yh} 와 크기측도(measure of size) 혹은 중요도 t_{xh} 의 a 승의 곱에 비례하여 할당하는 것

$$n_h^{power} = \frac{(t_{xh})^a cv_{yh}}{\sum_{h=1}^H (t_{xh})^a cv_{yh}}$$

네이만배분은 $a = 1$ 과 $t_{xh} = t_{yh}$ 을 갖는 역배분의 특수형태이고, 층별 상대표준오차가 거의 동일하고 $t_{xh} = N_h$ 이라면 역배분은 층크기 기준의 절충배분의 특수형태임

기존 조사들은 주요 분석 특성들을 달리하며 하나 이상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갖는 상대표준오차들 cv_{qh} 의 조화평균을 고려

$$cv_{yh} = \left(\frac{1}{Q} \sum_{q=1}^Q cv_{qh}^{-1} \right)^{-1}$$

3) Bankier, M.D. (1988). Power allocations: determining sample sizes for subnational areas. The American Statistician 42, pp.174~177.

시도별 표본배분 결과

구분	지역	아파트	비아파트	합계
농촌	소계	650	2,160	2,810
	경기	170	170	340
	강원	40	200	240
	충북	80	200	280
	충남	70	250	320
	전북	10	270	280
	전남	50	310	360
	경북	100	240	340
	경남	130	250	380
	제주	0	270	270
도시	소계	770	430	1,200
	서울	240	220	460
	광역시	240	100	340
	기타	290	110	400

[6] 표본추출

○ 1차 추출 : 표본 동읍면 추출

- 도시 : 동별 인구수 확률비례추출(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 sampling)
- 농어촌 : 읍면별 인구수 pps 추출

○ 2차 추출 : 동읍면 내 조사구 추출

- 아파트 : 동읍면 내 단지 pps 추출
- 비아파트 : 동읍면 내 인구주택 조사구 pps 추출

○ 3차 추출 : 가구 추출

- 조사구 명부 기초로 계통추출

5. 조사원 선정 및 교육

- 조사원 선정 : 2년 이상의 공공조사 경력자를 중심으로 선발하였으며, 1명의 조사원이 50가구 내외를 담당함
- 조사원 교육 : 집합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누어 실시
 - 집합교육 : 투입된 모든 조사원을 대상으로 일관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농촌생활지표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유의사항, 친절도에 대한 교육
 - 수시교육 : 응답거부 시 대처방안과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여 문제점 해결
 - 모든 조사원이 동일한 개념과 기준을 적용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여 조사원 교육 실시

6. 조사방법

- 조사대상 : 전국 3,958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응답률 98.7%)
 - 전체 4,010가구(농어촌 2,810가구, 도시 1,200가구) 중 통상적인 응답률을 고려하여 농어촌 95%(2,670가구), 도시 90%(1,080가구)로 목표 응답률 설정
 - 농어촌 2,764가구(응답률 98.4%), 도시 1,194가구(응답률 99.5%)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 직접면접식과 자기기입식 병행
- 표본대체 :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대체방안 마련 및 그에 따른 조사 진행
 - 3회 방문 후 대체를 진행함을 원칙으로 함
 - 기타 장기부재,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대체 진행
- 조사 일정 : 9월 25일~10월 25일(1개월간)

7. 조사내용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실태 및 의식에 관한 내용
 - 8개 부문, 87개 항목
- 일반적인 문항의 경우 다항선택형 질문(Multiple-choice Question)과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을 사용함
- 각종 평가적 신념(만족도, 인식 등)을 측정하는 척도로 Likert 척도(5점 척도)를 주로 사용함

구분		조사항목
보건 의료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의료기관 이용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응급실 이용 실태
	보건의료 여건 전반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복지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실태, 기타 보험 가입현황,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수, 영유아 보육/교육 방법 및 비용
	장애인복지	장애 가구원 유형, 장애 종류 및 등급,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복지 여건 전반	복지시설 이용횟수 및 이용 만족도,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	학생교육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자녀 통학 비용,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사회교육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문화 여가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전반적 문화·여가여건 만족도
기초 생활 여건	이주 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 직전 주택 위치
	주택 여건	주택 건축년도,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건평 및 방 개수, 주택 시설 현황, 난방비 지출 기간 및 월평균 지출 금액, 주택 신·개축 의향
	생활여건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쓰레기 처리 방법,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주 의향,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환경 경관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다원적 가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지역 역량	지역개발사업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지역개발사업 방향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의식
경제 활동	도·농 교류 활성화	도·농 교류 경험 실태,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
	경제활동 여건	농어가 소득 구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여부, 가구소득,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일반사항		가족 수, 연령, 학력, 직업, 소득 등

8. 자료처리 및 분석

① 자료처리

- 확인/검증을 거친 최종 유효자료에 대해 코딩(Coding), 수정(Editing)과정을 거쳐 R을 이용,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교차분석(Crosstabs Analysis) 등으로 통계분석함
- 보건의로 만족도, 복지여건 만족도 등 평가적 신념과 관련된 문항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평균 값(Mean) 산출[100점 만점 환산[($X_i - 1$) $\times$ 25점, X_i :측정값]

② 추정

- 기호 정의: 층화 다단 집락추출법 추정을 위해 필요한 기호 정의
 - Y : 모총계
 - $\bar{Y}$: 모평균
 - h : 시도, 특성에 따라 나눈 h 번째 층 ($h = 1, 2, \dots, H$)
 - i : i 번째 표본 동읍면
 - j : j 번째 표본 가구
 - y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동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속성치
 - $y_{hi.}$: h 층에 속한 i 번째 동읍면의 총계 추정치
 - w_{hij} : h 층에 속한 i 번째 동읍면의 j 번째 가구의 설계가중치
 - $w_{hi.}$: h 층에 속한 i 번째 동읍면의 설계가중치
 - N_h : h 층에 속한 모집단 동읍면들의 수
 - n_h : h 층에 속한 표본 동읍면들의 수
 - m_{hi} : h 층, i 번째 동읍면의 표본 가구수

● 총계 및 분산추정

$$\cdot \hat{Y} = \sum_{h=1}^H \sum_{i=1}^{n_h} w_{hi} \cdot y_{hi}.$$

$$\cdot \hat{V}(\hat{Y}) = \sum_{h=1}^H \hat{V}_h(\hat{Y})$$

$$\text{여기서, } \hat{V}_h(\hat{Y}) = \frac{n_h(1-f_h)}{n_h-1} \sum_{i=1}^{n_h} (y_{hi} - \bar{Y}_h)^2, \bar{Y}_h = \frac{\sum_{i=1}^{n_h} y_{hi}}{n_h}.$$

● 모평균 및 분산추정

$$\cdot \hat{\bar{Y}} = \left(\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y_{hij} \right) / w_{..}$$

$$\text{여기서, } w_{..}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cdot \hat{V}(\hat{\bar{Y}}) = \sum_{h=1}^H \hat{V}_h(\hat{\bar{Y}})$$

$$\text{여기서, } \hat{V}_h(\hat{\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hat{\bar{Y}}) \right) / w_{..}$$

$$\bar{e}_{h..} = \left(\sum_{i=1}^{n_h} Y_{hi} \right) / n_h$$

● 설계가중치

- 1차층(동부: 서울, 광역시, 기타, 읍면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 내의 가구들은 가중치 동일

$$\cdot w_{hij} = \frac{N_h}{m_{h+}}, \quad m_{h+} = \sum_i \sum_j m_{hij}$$

- 읍면부의 가중치는 최소 제주의 185에서 최대 경기의 2,282 사이의 범위

<읍면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 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읍면부	경기	1	268,893	160
		2	410,821	180
	강원	1	64,536	80
		2	25,575	20
		3	73,893	80
		4	47,433	60
	충북	1	76,607	100
		2	41,629	60
		3	102,315	120
	충남	1	176,626	160
		2	59,831	40
		3	225,124	120
	경북	1	245,825	160
		2	119,963	80
		3	180,125	100
	경남	1	174,122	140
		2	151,533	120
		3	208,410	120
	전북	1	122,466	140
		2	27,398	60
		3	60,008	80
	전남	1	244,173	260
		2	70,973	40
		3	80,054	60
	제주	1	50,020	270

- 동부의 가중치는 최소 서울의 7,350에서 최대 기타의 16,548 사이의 범위
- 동부의 가중치가 읍면부 가중치에 비해 큰 편인데, 이는 본 표본설계가 읍면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냄

<동부 가구의 설계가중치>

구분		층 번호	총가구수	표본 가구수	가중치
동부	서울	1	907,662	120	7,564
		2	588,034	80	7,350
		3	1,090,386	140	7,788
		4	918,215	120	7,652
	광역시	1	552,460	40	13,812
		2	991,807	80	12,398
		3	1,462,831	120	12,190
		4	1,264,419	100	12,644
	기타	1	493,513	40	12,338
		2	1,128,181	80	14,102
		3	4,633,561	280	16,548

● 사후층화에 대한 가중치 조정

- 조사 완료된 표본 응답자의 층별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동부는 50대 이하 비율이 높은 반면, 읍면부는 상대적으로 60대와 70대 이상 고령층의 응답자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층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층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동부	서울	16.7	24.1	26.5	16.7	15.9	100.0
	광역시	13.8	21.3	24.9	19.2	21.0	100.0
	기타	19.8	23.3	24.5	13.0	19.5	100.0
읍면부	경기	19.5	23.3	18.9	15.3	23.0	100.0
	강원	6.1	13.5	23.1	21.8	35.4	100.0
	충북	5.7	12.8	21.8	22.8	36.9	100.0
	충남	7.8	13.5	13.8	24.8	40.1	100.0
	경북	7.6	12.1	14.8	18.7	46.8	100.0
	경남	10.8	19.1	15.3	18.8	36.0	100.0
	전북	3.5	5.8	14.2	31.2	45.4	100.0
	전남	2.2	6.7	14.2	29.2	47.8	100.0
	제주	4.7	19.1	31.3	16.4	28.5	100.0

- 2010년 총조사 결과에 의한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표본에 비해 50대 이하 인구비율이 높고, 60대 이상 인구 비율이 낮음
- 표본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와 사후층화에 의한 가중치 조정이 필요

<총별 모집단 연령대별 비율>

총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동부	서울	30.9	24.1	22.1	14.0	8.9	100.0
	광역시	26.3	27.0	23.6	13.6	9.5	100.0
	기타	30.7	28.6	21.1	11.2	8.4	100.0
읍면부	경기	25.6	25.0	21.1	14.4	13.8	100.0
	강원	16.3	18.8	23.4	18.8	22.6	100.0
	충북	19.5	18.9	20.8	17.2	23.6	100.0
	충남	22.0	18.4	19.3	17.4	22.9	100.0
	경북	16.1	18.1	20.2	18.8	26.9	100.0
	경남	19.3	21.3	20.0	16.8	22.6	100.0
	전북	9.2	13.2	18.7	22.8	36.0	100.0
	전남	10.9	14.8	18.0	21.8	34.5	100.0
	제주	11.8	20.5	20.4	20.0	27.3	100.0

- 총별 모집단 연령대별 인구를 벤치마킹 변수로 하는 사후층화⁴⁾를 실시한 결과 사후 조정된 총별 표본 응답자 연령대별 비율은 다음과 같음
- 모집단 비율에 상당 부분 근접해진 것을 알 수 있음

<총별 표본응답자 연령대별 비율>

총 구분		20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동부	서울	31.5	23.9	22.0	13.8	8.9	100.0
	광역시	26.6	26.6	23.6	13.6	9.5	100.0
	기타	30.7	28.6	21.1	11.2	8.4	100.0
읍면부	경기	20.1	26.4	21.2	15.7	16.7	100.0
	강원	9.8	22.1	23.3	19.1	25.7	100.0
	충북	15.0	18.4	20.8	19.6	26.2	100.0
	충남	16.3	20.0	17.7	21.6	24.4	100.0
	경북	12.6	17.9	18.6	19.2	31.7	100.0
	경남	12.4	24.2	20.1	16.6	26.7	100.0
	전북	7.8	9.5	18.6	24.8	39.2	100.0
	전남	8.1	13.9	17.8	21.9	38.3	100.0
	제주	8.3	18.2	22.5	19.4	31.7	100.0

4) Holt, D., Smith, T.M.F.(1979). Post-stratification.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ty 142(1), pp.33~46.

제1부 개인 설문조사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일반사항
보건의료 부문
복지 부문
교육 부문
문화·여가여건 부문
기초생활여건 부문
환경·경관 부문
지역역량 부문
경제활동 부문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1

일반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기준]

- ▶ '가구주'가 61.8%, '여성'이 56.2%, [60대 이상] 연령층이 41.8%
- ▶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53.5%), '농/어/축산업'층이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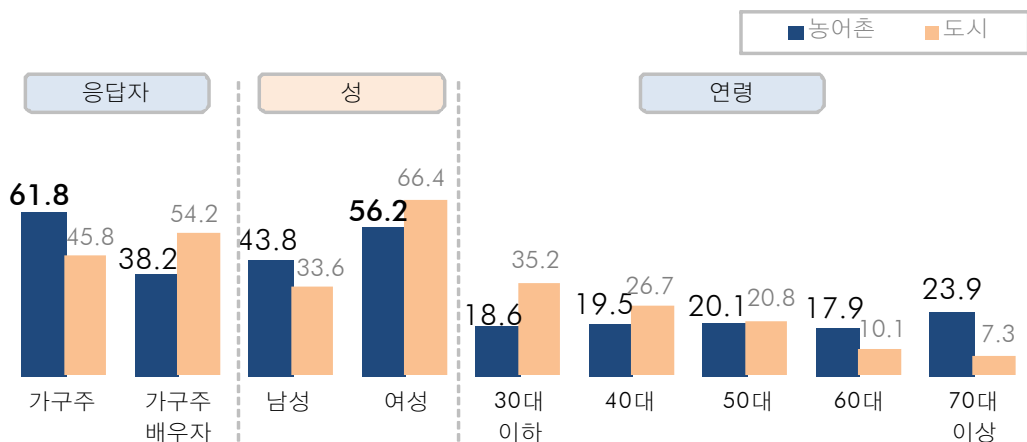
'가구주'가 61.8%, '여성'이 56.2%, [60대 이상] 연령층이 41.8%

가구주나 배우자 중 1명이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사를 진행하여 농어촌(n=2,764)의 경우, 응답자의 61.8%가 '가구주' 본인이며, 성별로는 '여성'(56.2%) 비중이 '남성'(43.8%)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연령별로 '60대'(17.9%), '70대 이상'(23.9%) 등 [60대 이상] 비중이 41.8%였으며, '50대'(20.1%), '40대'(19.5%), '30대 이하'(18.6%) 비중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도시'(n=1,194)의 경우, '가구주 배우자'+16.0%p) 및 '여성'+10.2%p) 비중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다. 또한 [60대 이상] 비중은 낮은(24.4%p) 반면, '30대 이하' 비중은 높았다(+16.6%p).

| 그림 1-0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단위 : %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53.5%), '농/어/축산업' 비중이 26.6%

농어촌의 경우, 학력별로 '고등학교'(30.8%), '대학교'(21.3%), '대학원 이상'(1.4%) 등 [고등학교 이상] 비중이 절반 수준(53.5%)이었다.

직업별로는 60대 이상 연령층의 영향으로 '전업주부'(19.3%), '무직'(21.2%) 비중이 높았으며, 이를 제외하면 '농/어/축산업'(26.6%), "사무/기술직"(15.0%) 등 '직장인'(22.1%)⁵⁾, '자영업'(10.9%) 순이었다. 종사자 지위로 '상용직'(52.4%), '자영업자'(34.3%) 비중이 가장 높았다.

도시의 경우, '고등학교'(38.0%), '대학교'(41.8%), '대학원 이상'(3.7%) 등 [고등학교 이상](83.5%) 비중이 더욱 높았다(+30.0%p). 직업별로는 "사무/기술직"(28.2%) 등 '직장인'(37.8%) 비중이 농어촌에 비해 높았으며(+15.7%p), 응답자 중 여성 비율이 높아 '전업 주부'(31.9%) 비중 역시 높았다(+12.6%p).

도시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12.7%p) 반면, '상용직' 비중은 낮았다(-14.2%p).

| 표1-01-(1) |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2)

단위: %

구분		구성비(%)	
		농어촌	도시
응답자 학력	무학/미취학	10.0	2.5
	초등학교	23.3	6.6
	중학교	13.2	7.3
	고등학교	30.8	38.0
	대학교	21.3	41.8
	대학원 이상	1.4	3.7
구분		구성비(%)	
		농어촌	도시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26.6	
	자영업	10.9	10.2
	판매/서비스직	1.1	1.9
	기능/숙련공	1.2	1.4
	일반작업직	4.0	4.9
	사무/기술직	15.0	28.2
	경영/관리직	0.1	0.0
	전문/자유직	0.7	1.4
	전업주부	19.3	31.9
	학생	0.4	1.0
	무직	20.8	19.1
종사자 지위	자영업자	34.3	21.6
	상용직	52.4	66.6
	임시직	7.2	6.8
	일용직	6.0	5.0

5) 직장인=판매/서비스직+기능/숙련공+일반작업직+사무/기술직+경영/관리직+전문/자유직

1>02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 농어촌(읍/면)지역 가구 특성

[농어촌 가구(n=2,76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농어가가 33.0%, 가구원 수는 평균 2.7명, '2세대 가구'가 45.8%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가 33.0%였으며, 면지역에서 '농어가'(46.6%) 비중이 읍지역(15.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원 수는 '2명'(32.5%) 비중이 가장 높아 평균 2.7명이었으며, 부부 중심의 '1세대' 가구가 28.2%, 부모, 자녀 중심의 '2세대' 가구가 45.8%로 나타났다. 한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18.9%였다.

전체 농어촌 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3.4%, '차상위계층'은 1.5%였다.

| 표1 - 02 - (1) | 농어촌(읍/면)지역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농어가 여부	합계	(2,764)	100.0	가족 형태	합계	(2,751)	100.0
	농어가	(912)	33.0		1인가구	(520)	18.9
	비농어가	(1,852)	67.0		1세대	(776)	28.2
총 가구원 수	합계	(2,764)	100.0		2세대	(1,260)	45.8
	1명	(520)	18.8		3세대	(193)	7.0
	2명	(899)	32.5		4세대	(3)	0.1
	3명	(498)	18.0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합계	(2,703)	100.0
	4명	(609)	22.0		수급층	(92)	3.4
	5명	(169)	6.1		차상위계층 ⁶⁾	(41)	1.5
	6명 이상	(70)	2.5		해당없음	(2,571)	95.1

6)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2) 도시(동)지역 가구특성

[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도시 가구원 수는 평균 3.0명으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
'1세대' 가구 비중이 낮음(-12.6%p) 반면, '2세대' 가구(65.7%) 비중은 높음(+19.9%p)

가구원 수는 '4명'(32.6%) 비중이 농어촌에 비해 높아(+10.6%p) 평균 3.0명이었으며, '1세대' 가구(15.6%) 비중은 낮음(-12.6%p) 반면, '2세대' 가구(65.7%) 비중은 높았다(+19.9%p).

| 표1 - 02 - (2) | 도시(동)지역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구성비	구분			구성비
총 가구원 수	합계	(1,194)	100.0	가족 형태	합계	(1,185)	100.0
	1명	(163)	13.6		1인가구	(163)	13.8
	2명	(239)	20.0		1세대	(185)	15.6
	3명	(319)	26.7		2세대	(779)	65.7
	4명	(389)	32.6		3세대	(58)	4.9
	5명	(64)	5.4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 여부	합계	(1,194)	100.0
	6명 이상	(20)	1.7		수급층	(15)	1.2
					차상위계층	(11)	0.9
				해당없음	(1,168)	97.9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

보건의료 부문

의료기관 이용실태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응급실 이용 실태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01 의료기관 이용실태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자에 한해]

- ▶ ‘병(의)원’(76.4%)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절반 수준(48.9%)
- ▶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42.9%) 또는 ‘대중교통’(34.7%)으로 이동,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6.6분

‘병(의)원’(76.4%)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의)원’(76.4%)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나타난 가운데,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층이 13.9%였으며, ‘보건진료소’(3.7%), ‘보건소(지소)’(3.0%), ‘한방 병(의)원’(2.3%) 이용층은 많지 않았다.

읍/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병(의)원’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건진료소’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았다.

도시에 비해 ‘병(의)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4.8%p) 반면, ‘종합병원’ 이용층은 비슷한 수준(0.8%p)이었다.

| 표2-01-(1)-①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단위: %(명)

구분			보건 진료소	보건소 (지소)	병(의)원	한방 병(의)원	종합 병원	기타
농어촌 (2,746)			3.7	3.0	76.4	2.3	13.9	.7
읍/면	읍	(1,219)	2.7	2.7	76.9	2.2	14.9	.7
	면	(1,527)	4.6	3.3	75.9	2.5	13.1	.6
영농 여부	농어가	(903)	6.0	4.2	71.9	3.2	14.2	.4
	비농어가	(1,843)	2.6	2.4	78.5	1.9	13.7	.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3	.6	83.8	2.1	12.6	.6
	40대	(532)	1.3	1.0	84.5	.7	12.2	.3
	50대	(553)	3.3	2.3	75.9	2.1	15.0	1.2
	60대	(490)	7.1	5.4	69.3	3.2	14.6	.5
	70대 이상	(654)	5.9	5.4	69.5	3.4	15.1	.7
도시 (1,194)			.6	.8	81.2	2.2	14.7	.5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절반 수준(48.9%)

의료기관 이용 횟수로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절반 수준(48.9%)이었으며, 아울러 '월 1-2회' 이용층(33.3%) 비중도 높았다. '월 3-4회'는 9.4%, '월 5회 이상'은 8.4%였다. 한편,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읍지역 거주층, 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월 1회 미만'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월 3-4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월 5회 이상' 등 [월 1회 이상] 비중이 60대 이하 연령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2-01-(1)-㉔ | 의료기관 이용 횟수

단위 : %(명)

구분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농어촌 (2,761)			48.9	33.3	9.4	8.4
읍/면	읍	(1,224)	53.2	31.1	8.1	7.5
	면	(1,537)	45.5	35.0	10.4	9.2
영농 여부	농어가	(1,224)	53.2	31.1	8.1	7.5
	비농어가	(1,537)	45.5	35.0	10.4	9.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50.0	30.9	10.9	8.3
	40대	(538)	59.5	29.6	6.3	4.6
	50대	(551)	57.1	31.6	7.4	3.9
	60대	(493)	46.6	35.1	9.7	8.6
	70대 이상	(658)	33.8	38.6	12.3	15.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102)	46.1	33.6	9.9	10.4
	보건소(지소)	(83)	42.9	27.0	19.6	10.5
	병(의)원	(2,095)	48.1	34.0	9.4	8.5
	한방병(의)원	(64)	41.9	38.7	6.3	13.0
	종합병원	(381)	56.2	30.2	7.8	5.9
	기타	(18)	60.4	32.7		7.0
도시 (1,192)			55.0	30.8	8.2	6.1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42.9%) 또는 '대중교통'(34.7%)으로 이동

의료기관까지 주로 '자가용'(42.9%) 또는 '대중교통'(34.7%)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걸어서' 이동하는 층은 18.9%였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종합병원 이용층에서 '자가용'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걸어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걸어서' 비중이 낮은(-27.0%p) 반면, '자가용' 비중은 높았다(+16.4%p).

| 표2-01-(2) | 의료기관 이동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자가용	대중교통	걸어서	기타
농어촌 (2,754)			42.9	34.7	18.9	3.5
읍/면	읍	(1,219)	46.0	23.1	28.3	2.6
	면	(1,535)	40.4	43.9	11.4	4.3
영농 여부	농어가	(910)	42.6	43.6	8.6	5.1
	비농어가	(1,844)	43.0	30.3	24.0	2.8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9)	26.5	13.2	59.3	.9
	40대	(538)	21.3	20.6	57.1	1.0
	50대	(549)	17.6	25.7	54.9	1.7
	60대	(492)	15.3	41.9	37.5	5.3
	70대 이상	(656)	14.2	65.2	12.9	7.8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102)	19.8	34.8	37.7	7.7
	보건소(지소)	(83)	26.7	34.2	35.0	4.1
	병(의)원	(2,089)	42.6	34.3	20.3	2.8
	한방병(의)원	(64)	37.0	46.4	13.9	2.7
	종합병원	(380)	55.1	35.4	3.7	5.8
	기타	(18)	35.9	32.2	8.4	23.5
도시 (1,189)			26.5	25.4	45.9	2.2

의료기관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평균 26.6분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편도 소요시간으로 ‘10-20분 미만’(32.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0-40분 미만’(17.7%), ‘20-30분 미만’(17.3%), ‘10분 미만’(12.4%), ‘1시간 이상’(10.5%) 순으로 평균 26.6분이었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대중교통 이용층에서 평균 소요시간이 긴 반면, 걸어서 이동하는 층에서 짧았다.

도시에 비해, ‘10-20분 미만’(-18.8%p), ‘10분 미만’(-10.5%p) 비중이 낮아 평균 소요시간이 길었다(+11.3분).

| 표2-01-(3) | 의료기관 이동 시 편도 소요시간

단위: %(명)

구분		평균	10분 미만	10-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40분 미만	40-50분 미만	50분- 1시간미만	1시간 이상
농어촌 (2,705)		26.6분	12.4	32.2	17.3	17.7	7.7	2.3	10.5
읍/면	읍 (1,194)	22.6분	16.5	38.8	17.0	11.9	6.9	2.1	6.9
	면 (1,508)	29.8분	9.0	27.2	17.6	22.3	8.2	2.4	13.3
영농 여부	농어가 (896)	30.7분	8.1	24.5	19.1	21.9	10.3	3.2	12.9
	비농어가 (1,808)	24.6분	14.3	36.2	16.4	15.6	6.4	1.8	9.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1)	18.2분	18.0	45.6	16.3	12.4	3.6	1.7	2.3
	40대 (524)	21.6분	16.4	36.5	16.8	15.6	8.1	2.1	4.5
	50대 (538)	25.3분	12.1	32.5	17.5	18.9	5.9	1.5	11.7
	60대 (486)	31.9분	8.5	27.0	19.0	18.7	9.9	3.5	13.5
	70대 이상 (645)	34.6분	7.1	22.5	17.0	22.0	10.3	2.6	18.5
주로 이용 하는 교통 수단	걸어서 (511)	13.4분	29.2	50.6	9.6	6.2	2.4	.6	1.3
	대중교통 (938)	37.8분	2.7	18.5	17.3	25.7	13.0	4.0	18.9
	자가용 (1,154)	22.7분	12.7	35.2	20.7	16.8	5.9	1.8	6.8
	기타 (92)	36.4분	11.3	33.5	16.9	11.2	5.0		22.0
도시 (1,163)		15.3분	22.9	51.0	12.4	8.2	1.8	.6	3.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02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경험층'이 45.1%,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는 73.4점

 '경험층'이 45.1%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45.1%로,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이용률이 높았다.

도시(21.9%)에 비해, 경험층 비중이 높았다(+23.2%p).

| 표2-02-(1) |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단위: %(명)

구분			경험층	비경험층
농어촌 (2,764)			45.1	54.9
읍/면	읍	(1,226)	41.0	59.0
	면	(1,538)	48.4	51.6
영농 여부	농어가	(912)	55.5	44.5
	비농어가	(1,852)	40.0	60.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35.0	65.0
	40대	(538)	32.5	67.5
	50대	(554)	34.8	65.2
	60대	(493)	54.6	45.4
	70대 이상	(659)	65.4	34.6
도시 (1,194)			21.9	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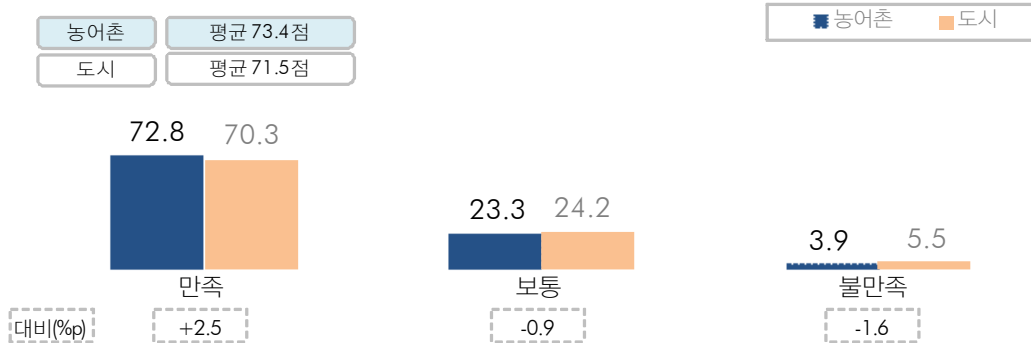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는 73.4점

경험층(n=1,234)의 이용 만족도로 공공의료 시설에 대해 '다소 만족하는 수준'(73.4점)의 평가를 나타낸 가운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71.5점)와 비교 했을 때, 만족도가 비슷한 수준(+1.9점)으로 나타났다.

| 그림2 - 0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



| 표2 - 02 - (2) |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1,234)		73.4점	25.8	47.0	72.8	23.3	2.9	1.0	3.9
읍/면	읍 (497)	73.6점	29.0	42.6	71.7	23.4	3.8	1.2	5.0
	면 (738)	73.3점	23.6	50.0	73.6	23.2	2.3	.9	3.2
영농 여부	농어가 (501)	74.3점	27.9	45.6	73.6	23.3	1.9	1.3	3.1
	비농어가 (732)	72.8점	24.3	48.0	72.3	23.2	3.6	.9	4.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77)	70.6점	21.1	45.4	66.6	28.3	5.1		5.1
	40대 (175)	67.3점	18.5	42.2	60.7	31.5	5.8	2.0	7.8
	50대 (188)	72.1점	23.7	46.5	70.3	25.9	2.0	1.8	3.8
	60대 (267)	74.2점	30.4	41.6	72.0	23.7	2.8	1.5	4.3
	70대 이상 (426)	77.1점	28.5	53.5	81.9	16.4	1.2	.4	1.6
도시 (258)		71.5점	22.4	47.9	70.3	24.2	4.4	1.2	5.5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03 응급실 이용 실태

귀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응급실 이동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경험층'이 14.4%, '개인용 차량'(62.9%)이 주된 교통수단, '구급차' 이용률은 26.6%

 '경험층'이 14.4%

지난 1년간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이 14.4%로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19.1%)에 비해, 경험층 비중이 약간 낮았다(4.7%p).

| 표2-03-(1) | 응급실 이용경험

단위 : %(명)

구분			경험층	비경험층
농어촌 (2,764)			14.4	85.6
읍/면	읍	(1,226)	17.3	82.7
	면	(1,538)	12.2	87.8
영농 여부	농어가	(912)	11.7	88.3
	비농어가	(1,852)	15.8	84.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23.5	76.5
	40대	(538)	13.9	86.1
	50대	(554)	10.9	89.1
	60대	(493)	13.0	87.0
	70대 이상	(659)	12.0	88.0
도시 (1,194)			19.1	80.9

📌 '개인용 차량'(62.9%)이 주된 교통수단, '구급차' 이용률은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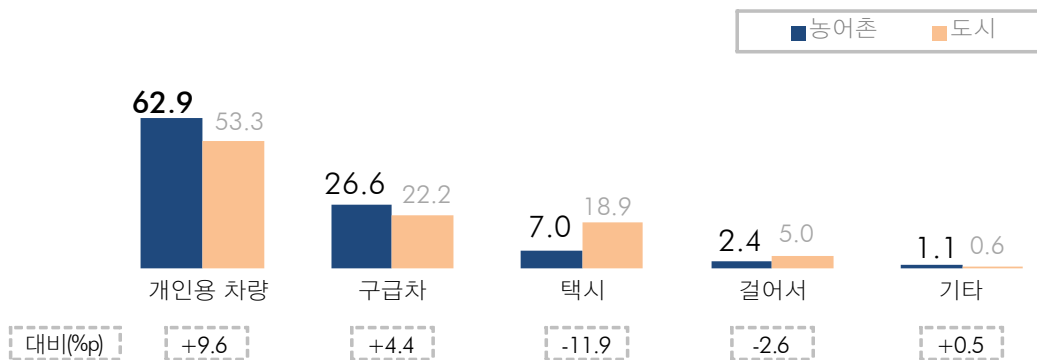
'개인용 차량'(62.9%)이 주된 교통수단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구급차'(26.6%) 이용률 또한 높은 반면, '택시'(7.0%), '걸어서'(2.4%) 비중은 낮았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개인용 차량'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구급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개인용 차량' 비중이 높은(+9.6%p) 반면, '택시' 비중은 낮았다(-11.9%p).

| 그림2 - 03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단위 : %



| 표2 - 03 - (2) |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개인용 차량	구급차	택시	걸어서	기타
농어촌 (399)			62.9	26.6	7.0	2.4	1.1
읍/면	읍	(212)	67.8	19.4	7.9	3.8	1.2
	면	(186)	57.3	34.9	5.9	.9	1.0
영농 여부	농어가	(106)	47.0	44.0	5.4	.7	2.9
	비농어가	(293)	68.6	20.3	7.5	3.1	.5
도시 (221)			53.3	22.2	18.9	5.0	.6

보건의료 여건 전반

2>04 질병 치료 시 어려움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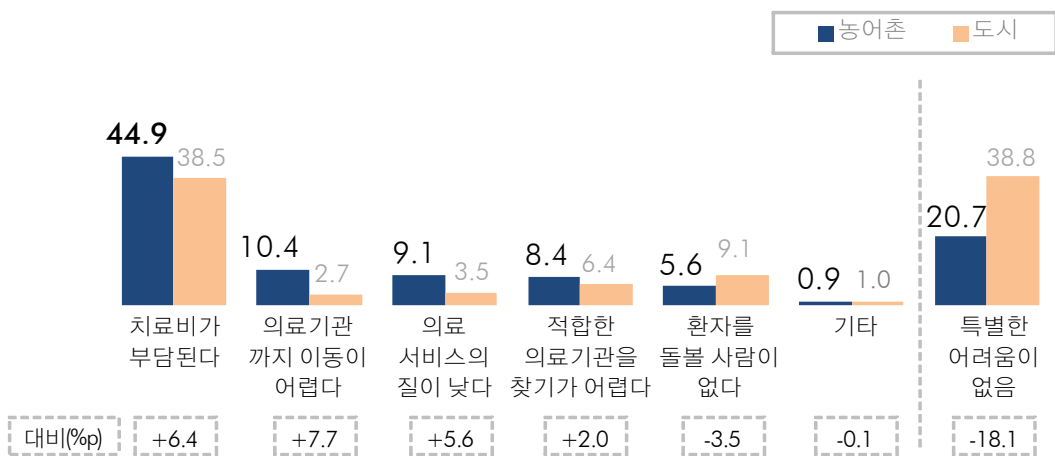
▶ '치료비 부담'(44.9%)이 주된 어려움

'치료비 부담'(44.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10.4%),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9.1%),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8.4%),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5.6%) 순이었다. 한편,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20.7%였다.

도시에 비해,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7.7%p), '치료비가 부담된다'(+6.4%p),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5.6%p) 비중이 약간 높았다.

| 그림2-04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단위 : %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어/축산업층에서 ‘치료비가 부담된다’ 비중이 높은 반면, 자영업/직장인층에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비중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04 | 질병 치료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치료 비가 부담 된다	의료 서비스 의 질이 낮다	적합한 의료 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의료 기관 까지 이동이 어렵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기타	특별한 어려 움이 없음
농어촌 (2,739)			44.9	9.1	8.4	10.4	5.6	.9	20.7
읍/면	읍 (1,211)		39.5	9.9	11.5	9.4	4.8	1.3	23.6
	면 (1,526)		49.3	8.5	5.9	11.2	6.2	.5	18.4
영농 여부	농어가 (905)		52.4	6.2	7.9	11.4	5.0	.2	16.9
	비농어가 (1,833)		41.2	10.5	8.6	10.0	5.9	1.2	22.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3)		29.1	15.0	12.2	9.6	5.4	1.3	27.3
	40대 (532)		38.0	11.6	13.3	6.5	6.3	.9	23.4
	50대 (545)		44.3	9.8	8.4	8.8	3.3	.6	24.8
	60대 (491)		52.0	6.2	7.0	11.3	5.2	1.2	17.2
	70대 이상 (657)		58.5	4.2	2.7	15.1	7.3	.5	11.7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726)		55.3	5.5	6.3	11.1	4.6	.2	17.0
	자영업/직장인 (890)		37.0	13.2	9.1	7.3	5.9	1.3	26.1
	주부/무직/기타 (1,101)		44.6	8.4	9.0	12.6	5.8	.9	18.8
도시 (1,189)			38.5	3.5	6.4	2.7	9.1	1.0	38.8

보건의료 여건 전반

2>05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24.2%) ≒ [불만족](25.9%), '보통 수준'(48.9점)의 평가

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48.9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영농여부나 응답자 성별에 따라서는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보건진료소, 보건소(지소) 이용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55.0점)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다(6.1점).

| 표2 - 05 |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36)			48.9점	2.4	21.8	24.2	49.9	21.0	4.9	25.9
읍/면	읍	(1,215)	49.5점	2.7	20.6	23.2	52.9	19.7	4.2	23.9
	면	(1,523)	48.5점	2.1	22.8	24.9	47.6	22.0	5.5	27.5
영농 여부	농어가	(902)	48.3점	2.7	23.6	26.4	45.1	21.1	7.4	28.5
	비농어가	(1,836)	49.2점	2.2	20.9	23.1	52.3	20.9	3.7	24.6
응답자 성	남성	(1,200)	49.0점	3.0	22.0	25.1	48.5	20.9	5.5	26.4
	여성	(1,533)	48.8점	1.8	21.7	23.5	50.9	21.1	4.5	25.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47.1점	1.5	14.7	16.2	57.5	23.2	3.1	26.3
	40대	(533)	47.7점	2.1	17.4	19.5	54.8	20.6	5.1	25.7
	50대	(544)	48.5점	2.0	21.9	23.9	50.0	20.2	5.9	26.1
	60대	(490)	49.8점	2.7	25.2	27.9	46.0	21.2	5.0	26.2
	70대 이상	(651)	51.1점	3.3	28.6	31.9	42.4	20.3	5.4	25.7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보건진료소	(101)	57.1점	10.5	28.5	39.0	44.4	12.2	4.4	16.6
	보건소(지소)	(82)	54.6점	6.0	29.2	35.2	46.4	13.8	4.6	18.4
	병(의)원	(2,077)	48.3점	1.6	20.3	21.9	52.2	21.7	4.2	25.9
	한방병(의)원	(64)	49.1점	.4	27.2	27.6	42.2	28.8	1.4	30.2
	종합병원	(378)	48.7점	4.1	26.4	30.5	40.0	19.4	10.1	29.5
	기타	(18)	48.6점		21.6	21.6	51.1	27.3		27.3
도시 (1,189)			55.0점	3.0	27.1	30.0	58.7	9.8	1.5	11.3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실태

기타 보험 가입현황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영유아 수

영유아 보육 방법

영유아 교육 방법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장애 가구원 유무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복지시설 이용횟수 및 이용 만족도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장

3>01 국민건강보험 가입실태

(1)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귀책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가입층'이 96.0%, 가입층 중 '직장 가입자'가 59.3%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층이 96.0%로 도시 지역(98.7%)과 비슷한 가입률을 보인 가운데, 가입층(n=2,653)의 가입 유형으로 '직장가입자'가 59.3%, '지역 가입자'가 40.7%였다.

미가입층(n=11)의 수급 종류로 외래와 입원 진료 시 전액이 지원되는 '의료급여(1종)'(43.1%), 외래 진료 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급여(2종)'(32.8%) 등 [의료급여]가 75.9%를 차지했으며, '국가유공자 무료진료'가 14.9%, '기타'가 9.2%였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직장가입자'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직장가입자' 비중이 낮았다(-12.7%p).

| 표3-01-(1) | 국민건강보험 가입 현황

단위 : %(명)

구분		가입	가입 종류		미가입	미가입 시 수급 종류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국가 유공자 무료진료	기타
농어촌 (2,764)		96.0	59.3	40.7	4.0	43.1	32.8	14.9	9.2
읍/면	읍 (1,226)	97.5	65.5	34.5	2.5	50.5	29.7	4.1	15.7
	면 (1,538)	94.9	54.3	45.7	5.1	39.9	34.1	19.7	6.3
영농 여부	농어가 (912)	96.9	47.6	52.4	3.1	41.5	44.1	9.0	5.4
	비농어가 (1,852)	95.6	65.2	34.8	4.4	43.5	30.2	16.3	10.0
도시 (1,194)		98.7	72.0	28.0	1.3	51.3	18.4	21.7	8.5

(2)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가입층(농어촌 가구(n=2,653)/도시 가구(n=1,178))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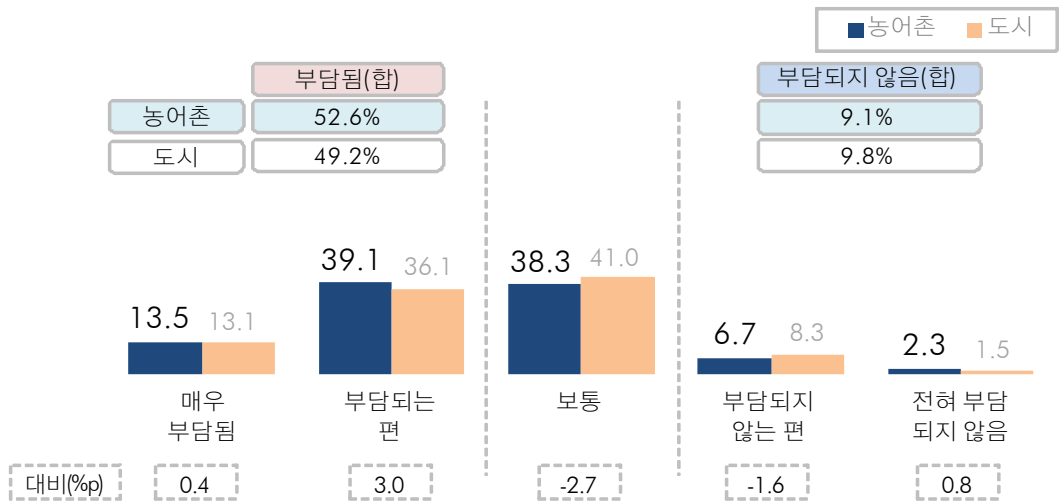
▶ [부담됨](52.6%) > [부담되지 않음](9.1%)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9.1%) 등 [부담됨] 비중이 52.6%로 ‘부담되지 않는 편’(6.7%) 등 [부담되지 않음](9.1%)에 비해 높은 가운데, ‘보통’은 38.3%였다.

도시와 농어촌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그림3-01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



면지역 거주층, 지역가입자,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담됨] 비중이 더욱 높았다.

| 표3-01-(2)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부담 됨	부담 되는 편	부담 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음 (합)
농어촌 (2,088)			13.5	39.1	52.6	38.3	6.7	2.3	9.1
읍/면	읍 (1,029)		12.1	37.7	49.8	43.7	5.0	1.5	6.5
	면 (1,059)		14.9	40.5	55.4	33.1	8.4	3.1	11.5
영농 여부	농어가 (589)		18.3	35.2	53.4	36.1	6.7	3.8	10.5
	비농어가 (1,499)		11.6	40.7	52.3	39.2	6.7	1.8	8.5
가입 유형	직장가입자 (1,110)		8.1	36.5	44.6	44.8	7.7	3.0	10.7
	지역가입자 (967)		19.6	42.3	61.9	31.1	5.7	1.3	7.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87)		10.9	37.8	48.7	44.1	5.4	1.8	7.2
	40대 (513)		14.4	37.6	52.0	38.2	7.8	2.0	9.8
	50대 (468)		14.4	38.0	52.4	39.5	6.0	2.2	8.2
	60대 (318)		14.7	39.5	54.2	34.9	8.0	2.8	10.8
	70대 이상 (297)		13.6	45.3	58.9	30.6	7.0	3.5	10.5
응답자 직업	농/어/축산업 (459)		17.2	36.0	53.2	35.5	7.2	4.1	11.2
	자영업/직장인 (834)		12.4	36.1	48.5	42.4	7.4	1.7	9.1
	주부/무직/기타 (779)		12.6	43.9	56.5	35.6	5.8	2.1	7.9
도시 (1,160)			13.1	36.1	49.2	41.0	8.3	1.5	9.8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모름'(농어촌 19.5%, 도시 8.3%)을 제외한 결과임

사회보장

3>02 공적연금 가입실태

(1) 공적연금 가입현황

귀댁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가구원 중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수급 포함)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응답 :공적연금 유형별 각 100.0%]

▶ '국민연금' 가입률이 62.2%

전체 가구 기준, 농어촌 가구의 62.2%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무원연금'(3.9%), '사학연금'(0.9%), '군인연금'(0.8%) 가입률은 낮았다. 한편, 읍지역 거주층에서 '국민연금' 가입률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미가입'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14.8%p) 반면, 공적연금 중 어느 것도 가입하지 않은 '미가입층' 비율이 높았다(+14.1%p).

| 표3-02-(1)-① | 공적연금 가입 현황(전체 가구)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농어촌 (2,764)		62.2	3.9	.9	.8	33.7
읍/면	읍 (1,226)	69.1	5.7	1.5	1.0	24.6
	면 (1,538)	56.6	2.5	.4	.6	40.9
영농 여부	농어가 (912)	62.2	1.6	.2	.5	36.4
	비농어가 (1,852)	62.2	5.0	1.3	1.0	32.3
도시 (1,194)		77.0	3.1	1.0	.4	19.6

| 표3-02-(1)-② | 공적연금 가입 현황(18-60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경우)

단위 : %(명)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미가입
농어촌 (1,912)		69.9	5.0	1.1	.8	25.0
읍/면	읍 (983)	74.0	6.5	1.7	1.0	19.1
	면 (929)	65.6	3.4	.6	.6	31.3
영농 여부	농어가 (521)	68.1	2.0	.2	.3	30.7
	비농어가 (1,391)	70.6	6.1	1.5	1.0	22.9
도시 (1,069)		80.8	2.9	1.1	.3	16.1

(2)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공적연금 가입층(농어촌 가구(n=1,833)/도시 가구(n=96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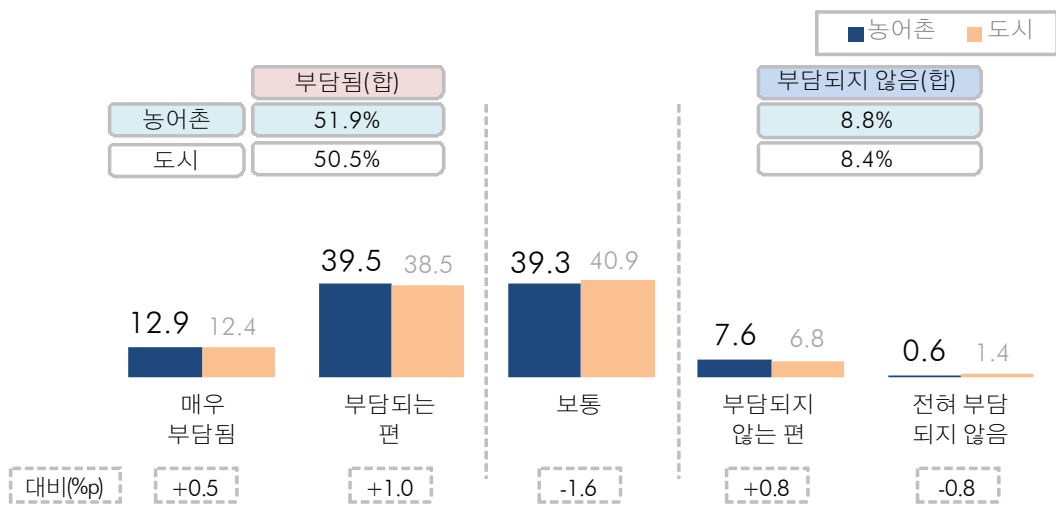
▶[부담됨](51.9%) > [부담되지 않음](8.8%)

납부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 편’(39.5%) 등 [부담된다](51.9%)는 의견이 ‘부담되지 않는 편’(7.6%) 등 [부담되지 않는다](8.8%)에 비해 강했으며, ‘보통’은 39.3%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정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도시와 농어촌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 그림3-02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



* 18세~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공적연금 유형 중 가입률이 가장 높은 국민연금 가입층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도/농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3-02-(2)-① | 국민연금 가입층의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부담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합)
농어촌 (1,192)	13.9	40.3	54.2	38.2	7.0	.6	7.6
도시 (809)	12.8	39.0	51.8	41.0	5.8	1.4	7.2

* 18세-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부담됨]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담되지 않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3-02-(2)-② |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됨	부담 되는 편	부담됨 (합)	보통	부담되지 않는 편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 되지 않음 (합)
농어촌 (1,365)		12.9	39.5	52.4	39.3	7.6	.6	8.2
읍/면	읍 (734)	12.4	38.2	50.6	42.1	7.0	.3	7.4
	면 (546)	13.7	41.2	54.9	35.7	8.3	1.0	9.4
영농 여부	농어가 (278)	17.3	33.8	51.1	40.6	7.3	1.0	8.3
	비농어가 (1,001)	11.7	41.1	52.8	39.0	7.7	.5	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10)	13.8	45.3	59.1	35.5	4.5	.9	5.4
	40대 (412)	13.4	38.8	52.2	37.9	9.9		9.9
	50대 (354)	12.4	33.4	45.8	45.7	8.3	.3	8.6
	60대 (78)	11.5	38.7	50.2	39.5	6.9	3.4	10.3
	70대 이상 (24)	5.2	44.3	49.5	34.7	13.3	2.5	15.8
도시 (853)		12.1	37.7	50.5	40.1	6.7	1.4	8.4

* 18세-60세 사이 가구원이 1명이라도 있는 가구에 한해(전체 가구원이 수급 중인 가구 제외)

사회보장

3>03 기타 보험 가입현황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기준/ 농업인 보험 : 농어가(n=912) 기준/ 중복 응답 : 보험 유형별 각 100.0%]

▶ '민간의료보험'(46.5%) 가입률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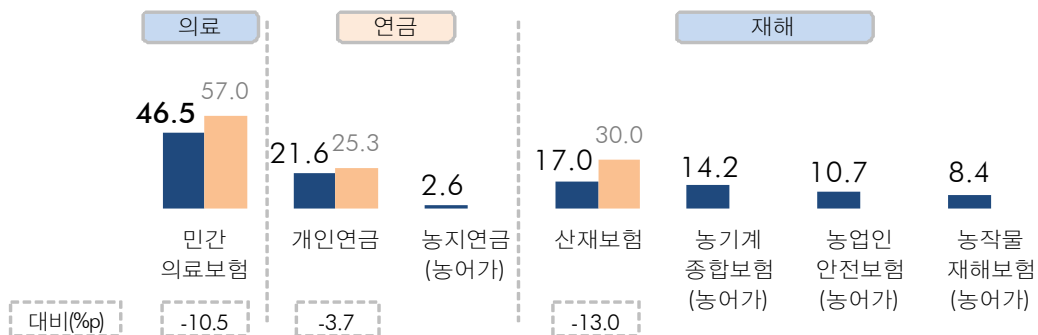
농어촌 지역 가구의 절반가량이 '민간의료보험'(46.5%)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연금' 가입률은 21.6%, '산재보험'은 17.0%였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가입률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산재보험'(-13.0%p), '민간의료보험'(-10.5%p) 등 전반적으로 가입률이 낮았다.

한편, '농기계종합보험'(14.2%), '농업인 안전보험'(10.7%), '농작물 재해보험'(8.4%) 등 농업인 보험 가입률이 10% 내외 수준인 가운데, '농지연금' 가입률은 2.6%로 낮았다.

| 그림3-03 | 기타 보험 가입현황

단위 : %



| 표3-03 | 기타 보험 가입현황

단위 : %(명)

구분		의료	연금		재해		
		민간의료보험	개인연금	농지연금	산재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촌		46.5	21.6	2.6	17.0	14.2	10.7
읍/면	읍	56.0	27.4	1.7	23.3	12.7	10.3
	면	39.0	16.9	2.9	12.0	14.5	10.8
영농여부	농어가	34.3	14.7	2.6	7.5	14.2	10.7
	비농어가	52.5	24.9	-	21.7	-	-
도시		57.0	25.3	-	30.0	-	-

사회보장

3>04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농어가(n=91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사업 인지충은 40% 내외, 이용 경험충은 약 36.0%, 사업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들어본 적 있음’(27.8%) 등 [인지충]이 42.6%, 연금보험료 지원 [인지충]이 38.1%로 나타난 가운데, 사업 인지충 중 건강보험료 지원 ‘경험충’은 36.7%, 연금보험료 지원 ‘경험충’은 36.2%로 면지역 거주층, 40-60대 연령층에서 경험률이 더욱 높았다.

| 표3-04-(1) | 지원사업 인지 여부 및 인지충 중 경험여부

단위 : %(명)

구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충	경험충*	인지충	경험충*
농어촌 (912)			42.6	36.7	38.1	36.2
읍/면	읍 (195)		41.1	27.9	41.3	29.4
	면 (717)		43.0	38.9	37.3	38.2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3)		54.1	25.7	32.9	27.7
	40대 (112)		56.5	51.4	49.4	39.9
	50대 (211)		53.4	39.0	51.0	40.9
	60대 (265)		42.0	34.7	39.1	37.6
	70대 이상 (291)		28.5	27.3	24.2	25.2

*인지충 중 경험충 비율임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60.4점)과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60.8점) 모두 지원 사업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읍/면별로는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3-04-(2) | 지원사업 만족도

단위 : %

구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균	만족	보통	불만	평균	만족	보통	불만
농어촌			60.4점	43.9	47.2	8.9	60.8점	49.6	40.6	9.8
읍/면	읍		59.6점	33.1	66.9		60.4점	40.5	51.9	7.6
	면		60.6점	45.9	43.6	10.5	60.9점	51.7	38.0	10.3

노인복지

3>05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1)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164)/도시 가구(n=22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 '기초노령연금'(67.2%) 인지도가 가장 높음

노인복지 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금'(67.2%) 인지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잘 알고 있음' 비중이 45.2%로 '들어본 적 있음'(22.0%)에 비해 높았다. 다음으로 '의치(틀니) 지원사업'(40.2%),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35.8%),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35.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35.2%) 순이었으며,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29.5%),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29.3%)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읍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23.9%p), '기초노령연금'(-21.9%p),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15.4%p), '의치(틀니) 지원사업'(-15.2%p),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12.0%p)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 표3-05-(1)-㉠ |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단위: %(명)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 사업		의치(틀니) 지원 사업		기초노령 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바우처)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사례 수	인지 총
농어촌		(1,159)	35.8	(1,161)	29.3	(1,160)	40.2	(1,161)	67.2	(1,160)	35.7	(1,152)	35.2	(1,152)	29.5
읍/면	읍	(351)	40.5	(351)	32.8	(351)	46.4	(351)	71.1	(351)	42.3	(349)	45.2	(349)	36.6
	면	(808)	33.8	(809)	27.8	(809)	37.5	(809)	65.6	(809)	32.8	(804)	30.8	(804)	26.4
영농 여부	농어가	(558)	39.2	(558)	33.4	(557)	42.1	(558)	68.0	(558)	39.3	(553)	36.6	(553)	33.4
	비농어가	(600)	32.6	(602)	25.4	(602)	38.5	(602)	66.6	(602)	32.3	(599)	33.9	(599)	25.8
도시		(220)	47.8	(219)	36.2	(219)	55.4	(219)	89.1	(219)	59.6	(219)	50.6	(219)	37.2

(2)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노인복지서비스 인지 가구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서비스별 각 100.0%]

▶ ‘기초노령연금’(67.3%) 경험층이 가장 많은 반면,
경험층의 만족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72.5점)가 가장 높음

‘기초노령연금’(67.3%) 경험률이 가장 높음

인지도가 높았던 ‘기초노령연금’(67.3%)이 경험률 또한 가장 높았으며,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15.6%), ‘의치(틀니) 지원사업’(11.7%),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10.1%) 경험률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8.0%),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7.0%),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5.7%) 경험률은 낮았다.

한편, 비농어가에서 경험층 비중이 전반적으로 약간 높았다.

도시에 비해, ‘기초노령연금’(+14.5%p), ‘의치(틀니) 지원사업’(+7.9%p) 경험률이 높았다.

| 표3 - 05 - (2) - ① |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명)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기초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사례 수	경험 층
농어촌		(421)	15.6	(343)	10.1	(471)	11.7	(784)	67.3	(418)	5.7	(417)	8.0	(352)	7.0
읍/면	읍	(146)	14.0	(119)	13.6	(167)	12.8	(253)	64.9	(152)	6.4	(164)	8.6	(134)	8.8
	면	(274)	16.5	(225)	8.3	(304)	11.0	(531)	68.4	(265)	5.3	(253)	7.7	(218)	5.9
영농 여부	농어가	(221)	12.1	(188)	7.5	(237)	7.7	(381)	63.5	(221)	4.0	(210)	4.3	(192)	2.5
	비농어가	(200)	19.5	(155)	13.3	(234)	15.7	(403)	70.9	(196)	7.5	(208)	11.8	(160)	12.5
도시		(110)	20.0	(86)	9.3	(128)	3.8	(201)	52.8	(136)	4.7	(117)	5.1	(88)	5.0

*사례 수는 인지층의 사례 수임

경험층의 만족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72.5점)가 가장 높음

경험층의 만족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72.5점)가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69.4점),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68.7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68.4점),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67.4점)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인 가운데, 인지도 및 경험률이 가장 높았던 '기초노령연금'(52.2점)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농어가에서 '기초노령연금'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기초노령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

| 표3-05-(2)-㉔ | 노인복지 서비스 경험층의 이용 만족도

단위: 점

구분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의치(틀니) 지원사업	기초 노령연금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농어촌		68.7	67.4	60.2	52.2	72.5	68.4	69.4
읍/면	읍	77.1	74.9	65.3	51.9	79.9	72.8	74.7
	면	64.7	60.6	56.8	52.4	67.4	65.2	64.4
영농 여부	농어가	66.5	64.9	60.0	54.3	63.9	77.2	52.3
	비농어가	70.2	68.9	60.4	50.5	77.9	65.2	73.1
도시		73.4	78.3	66.2	48.8	86.0	71.0	77.8

노인복지

3>06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 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댁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만 65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164)/도시 가구(n=225))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질병 '예방'(21.0%) 및 '치료'(20.1%)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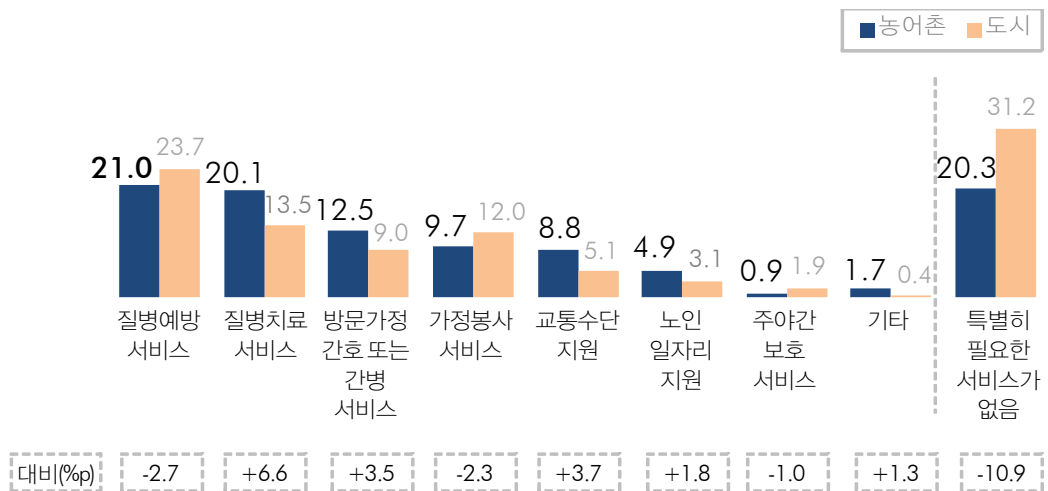
응답자 본인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질병 '예방'(21.0%) 및 '치료'(20.1%) 서비스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방문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12.5%), '가정봉사 서비스'(9.7%), '교통수단 지원'(8.8%), '노인 일자리 지원'(4.9%) 순이었다.

한편, “금전적인 지원” 등 ‘기타’는 1.7%,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 없음’은 20.3%였다.

도시에 비해, ‘질병 치료 서비스’ 비중이 약간 높은(+6.6%p) 반면,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 없음’ 비중은 낮았다(-10.9%p).

| 그림3-06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 %



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질병예방서비스’ 비중이 높은 반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질병치료서비스’ 비중이 높았다.

| 표3-06 |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단위: %(명)

구분			질병 예방 서비스	질병 치료 서비스	방문 가정 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가정 봉사 서비스	교통 수단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기타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농어촌 (1,121)			21.0	20.1	12.5	9.7	8.8	4.9	.9	1.7	20.3
읍/면	읍 (348)		18.5	19.6	12.4	6.7	7.3	7.4	1.0	1.9	25.2
	면 (774)		22.1	20.3	12.6	11.1	9.5	3.8	.9	1.6	18.1
영농 여부	농어가 (537)		27.6	19.5	11.3	7.0	8.3	2.5	1.0	1.4	21.3
	비농어가 (584)		14.9	20.6	13.7	12.2	9.3	7.2	.9	1.9	19.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37)		36.0	7.9	18.6	3.0	3.5	11.5			19.5
	40대 (62)		31.4	13.5	9.5	1.7	14.6	3.0	2.1	1.7	22.6
	50대 (88)		20.8	20.3	19.8	5.6	3.7	3.1	1.4	4.6	20.6
	60대 (303)		22.1	22.6	8.5	5.0	9.7	8.1	.6	.4	22.9
	70대 이상 (630)		18.5	20.2	13.4	13.8	8.9	3.5	1.0	1.9	18.8
도시 (221)			23.7	13.5	12.0	9.0	1.9	5.1	3.1	.4	31.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3>07 영유아 수

귀택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몇 명 있습니까?

[만 6세 미만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49)/도시 가구(n=252)) 중 응답자에 한해]

▶ 가구원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층이 12.6%, '1명'인 가구가 59.9%

전체 농어촌 가구 중 영유아가 있는 가구가 12.6%로 나타난 가운데,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중이 높았다.

영유아 수로 '1명'(59.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2명'(36.3%) 비중도 높은 반면, '3명 이상'(3.8%) 비중은 낮았다. 평균 영유아 수는 1.4명이었으며, 비농어가에서 약간 많았다.

도시에 비해, 영유아가 있는 가구 비중이 낮은(8.5%p) 가운데, '1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14.8%p) 반면, '2명' 비중은 높았다(+13.9%p).

| 표3-07-(1) | 영유아가 있는 가구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농어촌 (2,764)			12.6	87.4
읍/면	읍	(1,226)	19.2	80.8
	면	(1,538)	7.4	92.6
영농 여부	농어가	(912)	3.3	96.7
	비농어가	(1,852)	17.2	82.8
도시 (1,194)			21.1	78.9

| 표3-07 | 영유아 수

단위: %(명)

구분			평균	1명	2명	3명 이상
농어촌 (347)			1.4명	59.9	36.3	3.8
읍/면	읍	(236)	1.4명	59.9	36.0	4.1
	면	(114)	1.4명	59.8	36.9	3.3
영농 여부	농어가	(31)	1.2명	77.5	22.5	
	비농어가	(319)	1.5명	58.2	37.7	4.2
도시 (252)			1.3명	74.7	22.4	2.9

영유아 보육 및 교육

3>08 영유아 보육 방법

귀댁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돌보십니까?

[영유아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49)/도시 가구(n=25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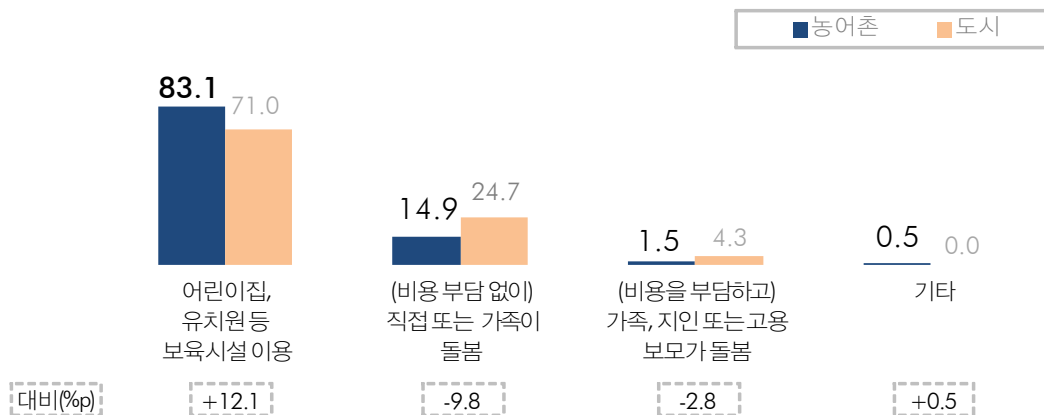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83.1%

영유아를 돌보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층이 83.1%로 가장 많았으며, 아울러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이 돌봄’(14.9%) 비중 또한 높은 반면,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 지인 또는 고용 보모가 돌봄’(1.5%) 비중은 낮았다.

도시에 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층 비중이 많은(+12.1%p) 반면,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이 돌봄’ 비중은 낮았다(-9.8%p).

| 그림3-08 | 영유아 보육 방법

단위 : %



읍/면 거주 여부나 영농여부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50대 이하 연령층, 영유아 수가 2명 이상인 층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 영유아 수가 1명인 층에서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3-08 | 영유아 보육 방법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봄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 지인 또는 고용 보모가 돌봄	기타
농어촌 (348)		83.1	14.9	1.5	.5
읍/면	읍 (233)	82.6	15.2	2.2	
	면 (114)	84.1	14.3		1.6
영농 여부	농어가 (30)	85.9	14.1		
	비농어가 (317)	82.8	15.0	1.6	.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74)	81.6	15.8	1.9	.7
	40대 (48)	94.1	5.9		
	50대 (9)	84.7	15.3		
	60대 (10)	73.1	26.9		
	70대 이상 (7)	75.0	25.0		
영유아 수	1명 (209)	75.9	21.9	1.3	.9
	2명 (125)	94.3	3.8	1.9	
	3명 이상 (13)	90.1	9.9		
도시 (243)		71.0	24.7	4.3	

영유아 보육 및 교육

3>09 영유아 교육 방법

다음 중 귀댁에서 영유아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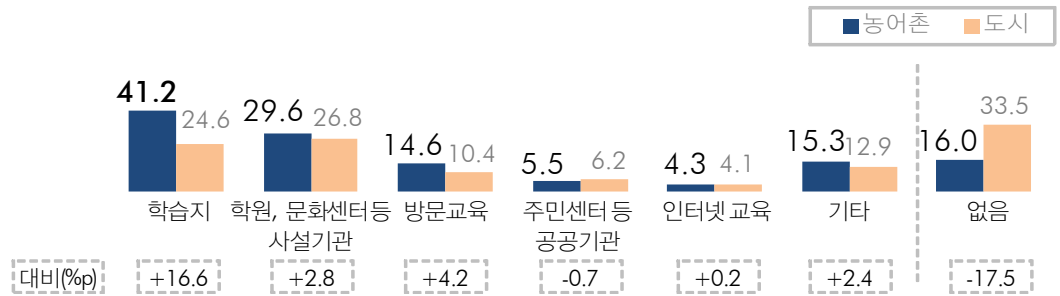
[영유아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49)/도시 가구(n=252)) 중 응답 가구에 한해/중복 응답 : 교육 방법별 각 100.0%]

▶ ‘학습지’ 이용률이 41.2%

영유아 교육을 위해 ‘학습지’를 이용하는 층이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29.6%), ‘방문교육’(14.6%),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5.5%), ‘인터넷 교육’(4.3%) 순이었다. 한편, “집에서” 등 ‘기타’는 15.3%였다.

읍지역 거주층에서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농어가에서 ‘학습지’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학습지’ 이용률이 높았다(+16.6%p).

| 그림3-09 | 영유아 교육 방법 단위 : %



| 표3-09 | 영유아 교육 방법 단위 : %(명)

구분		학습지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방문 교육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인터넷 교육	기타	없음
농어촌 (349)		41.2	29.6	14.6	5.5	4.3	15.3	16.0
읍/면	읍 (235)	39.1	33.4	15.8	4.2	4.8	16.8	14.2
	면 (114)	45.4	21.6	12.0	8.3	3.4	12.1	19.8
영농 여부	농어가 (30)	56.1	30.3	17.0	11.8	5.5	10.8	9.5
	비농어가 (319)	39.7	29.5	14.3	4.9	4.2	15.7	16.6
도시 (251)		24.6	26.8	10.4	6.2	4.1	12.9	33.5

영유아 보육 및 교육

3>10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귀댁의 영유아 전체 인원의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영유아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349)/도시 가구(n=252))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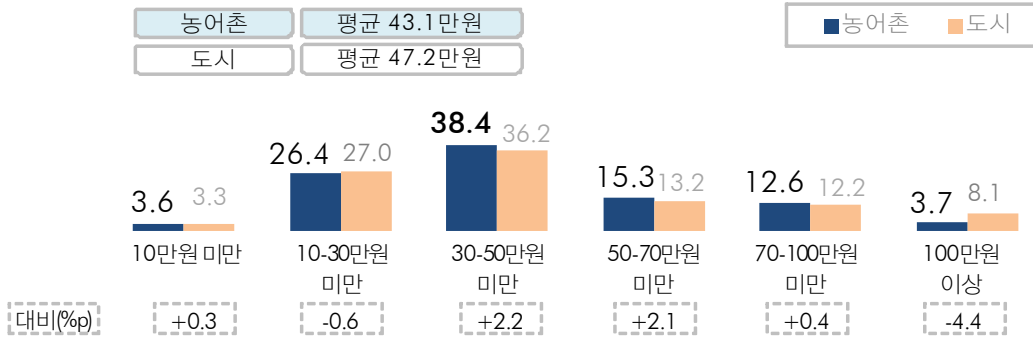
▶ '30-50만원 미만'(38.4%) 등 평균 43.1만원, 이 중 본인 부담이 평균 21.4만원, 보조금이 21.7만원

영유아 전체 인원의 보육/교육 비용으로 '30-50만원 미만'(38.4%)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0-30만원 미만'(26.4%), '50-70만원 미만'(15.3%), '70-100만원 미만'(12.6%), '100만원 이상'(3.7%), '10만원 미만'(3.6%) 순이었다. 평균 보육/교육 비용은 43.1만원으로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평균 보육/교육 비용을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100만원 이상' 비중이 약간 낮았다(4.4%p).

| 그림3-10-(1) |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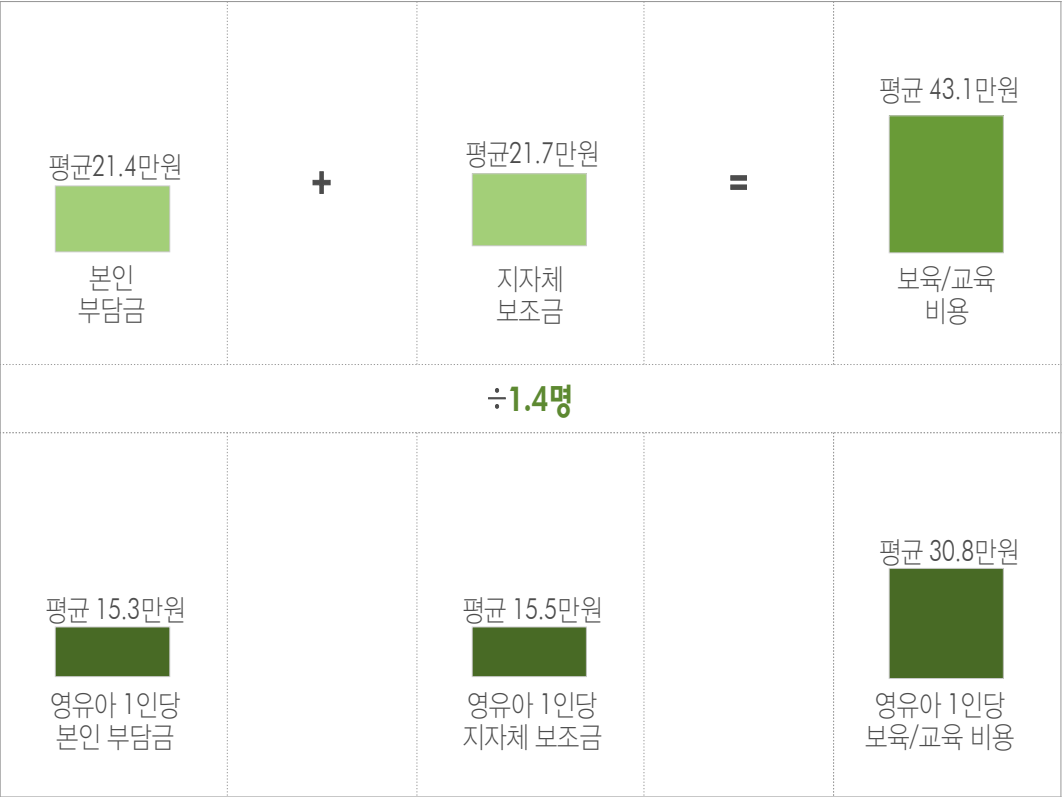
| 표3-10 | 월 평균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단위 : %(명)

구분		평균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70-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농어촌 (318)		43.1만원	3.6	26.4	38.4	15.3	12.6	3.7
읍/면	읍 (216)	44.9만원	3.5	27.5	36.6	13.6	14.1	4.8
	면 (101)	39.3만원	4.0	24.0	42.4	19.0	9.3	1.3
영농 여부	농어가 (29)	35.6만원	8.4	25.3	49.2	5.2	11.9	
	비농어가 (289)	43.9만원	3.1	26.5	37.4	16.3	12.6	4.0
도시 (235)		47.2만원	3.3	27.0	36.2	13.2	12.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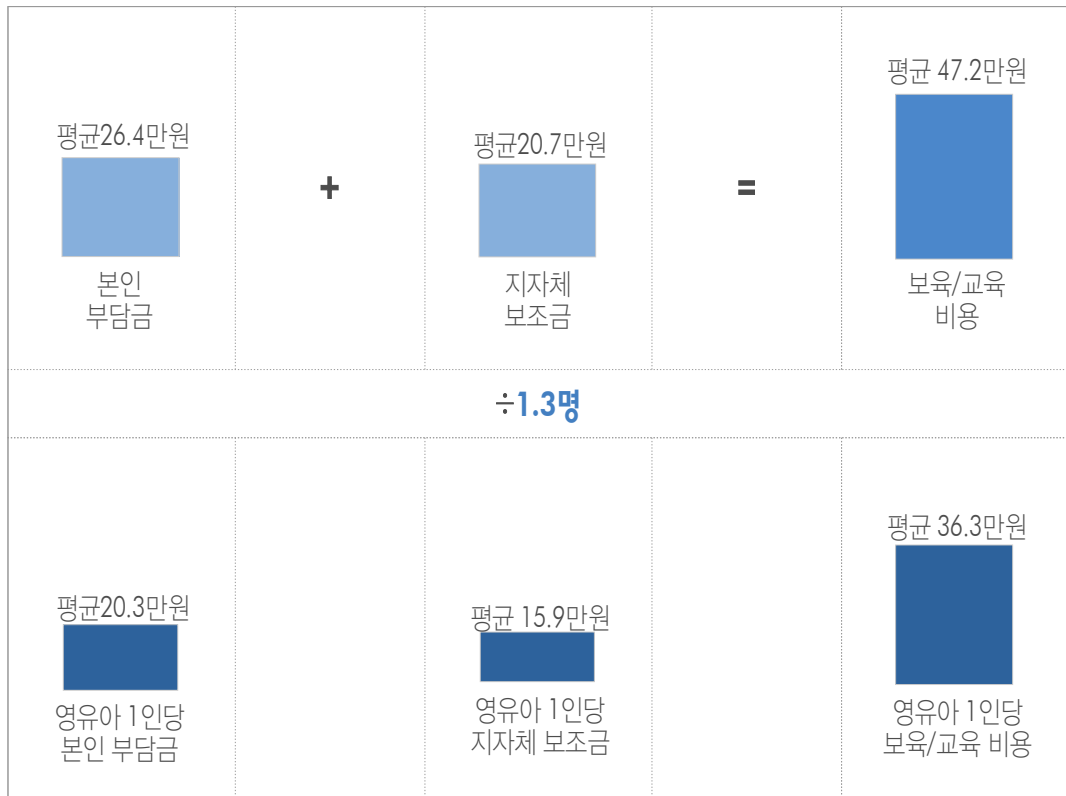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 월 평균 보육/교육 비용은 43.1만원으로, 이를 가구 당 평균 영유아 수인 1.4명으로 나누면 약 30.8만원 선이었다. 한편, 보육/교육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평균 21.4만원, 보조금은 평균 21.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그림3 - 10 - (2) |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농어촌)



도시 가구 월 평균 보육/교육비는 47.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도시 가구 평균 영유아 수인 1.3명으로 나누면 약 36.3만원 선으로 농어촌에 비해 약간 높은(+5.5만원) 수준이었다. 한편 보육/교육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평균 5.0만원 더 높은 26.4만원인 반면, 보조금은 평균 1.0만원 적은 20.7만원 이었다.

| 그림3 - 10 - (3) | 월 평균 영유아 1인당 보육/교육 비용(도시)



장애인복지

3>11 장애 가구원 실태

(1) 장애 가구원 유형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은 누구 입니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44)/도시 가구(n=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최대 3명까지 중복 응답을 100.0% 환산한 결과]

▶ 전체 농어촌 가구의 5.0%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다고 응답, '가구주' 본인이 56.0%

전체 농어촌 가구 중 5.0%에서 장애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장애 가구원 유형으로 '가구주'(56.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가구주의 배우자'(20.7%), '가구주의 자녀'(12.4%), '부모'(4.0%), '자녀의 배우자'(3.5%), '손자녀/그 배우자'(3.0%), '기타 친인척'(0.6%) 순이었다. 먼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가구주'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가구주의 배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와 비교 했을 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비중(4.1%)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장애 가구원 유형으로 '가구주의 자녀' 비중이 약간 낮았다(-7.9%p).

| 표3-11-(1)-① |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

단위: %

구분		있음	없음
농어촌 (2,764)		5.2	94.8
읍/면	읍 (1,226)	4.7	95.3
	면 (1,538)	5.6	94.4
영농 여부	농어가 (912)	6.2	93.8
	비농어가 (1,852)	4.8	95.2
도시 (1,194)		4.1	95.9

| 표3-11-(1)-② | 장애 가구원 유형

단위: %(명)

구분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그 배우자	부모	기타 친인척
농어촌 (137)		56.0	20.7	12.4	3.5	3.0	4.0	0.6
읍/면	읍 (56)	45.3	25.8	17.0	7.5	1.5	2.8	0.0
	면 (82)	63.9	16.9	8.9	0.5	4.0	4.9	1.0
영농 여부	농어가 (54)	61.7	16.5	16.9	0.7	1.5	2.7	0.0
	비농어가 (83)	52.5	23.2	9.5	5.2	3.9	4.8	0.9
도시 (49)		51.3	19.5	20.3	5.5	1.0	2.4	

(2) 장애 종류 및 등급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44)/도시 가구(n=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최대 3명까지 중복 응답을 100.0% 환산한 결과]

▶ ‘지체장애’(45.7%), ‘6급’(21.5%) 비중이 가장 높으며,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가 20.5%

‘지체장애’(45.7%)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뇌병변장애’(11.5%), ‘시각장애’(10.0%), ‘청각장애’(8.4%) 순이었다. 도시에 비해, ‘뇌병변장애’ 비중이 약간 낮았다(-6.8%p).

| 표3-11-(2)-① | 장애 종류

단위: %(명)

구분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장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농어촌		45.7	11.5	10.0	8.4	5.9	5.4	3.2
읍/면	읍	40.4	14.4	7.8	6.6	8.3	9.9	3.5
	면	49.5	9.5	11.5	9.8	4.3	2.2	3.1
영농 여부	농어가	50.9	4.3	12.4	13.9	3.6	5.0	1.9
	비농어가	42.5	15.9	8.5	5.1	7.4	5.7	4.1
도시		44.3	18.3	9.8	9.7	10.1	2.2	

*장애 종류: 농어촌 기준 3.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중복 장애를 가진 경우가 20.5%로 나타난 가운데, 장애 급수로는 ‘6급’(21.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2급’(19.8%), ‘3급’(19.6%) 비중 또한 높았다. 도시에 비해, ‘5급’ 비중이 높은(+8.2%p) 반면, ‘3급’ 비중이 약간 낮았다(-5.3%p).

| 표3-11-(2)-② | 중복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단위: %(명)

구분		중복장애 여부		장애등급					
		비해당	중복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농어촌		79.5	20.5	11.4	19.8	19.6	12.5	14.4	21.5
읍/면	읍	71.6	28.4	10.8	17.3	22.4	11.0	13.1	24.1
	면	85.4	14.6	11.8	21.6	17.5	13.7	15.4	19.6
영농 여부	농어가	83.5	16.5	12.3	16.2	18.0	13.6	16.4	22.0
	비농어가	77.1	22.9	10.8	22.0	20.6	11.8	12.2	21.2
도시		84.1	15.9	12.4	19.1	24.9	12.4	6.2	25.1

장애인복지

3>12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귀하 또는 귀댁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장애 가구원이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144)/도시 가구(n=49))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20.8%)이 가장 필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20.8%)이 장애가 있는 가구원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이동편의지원서비스’(18.0%), ‘의료재활서비스’(16.8%),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14.7%),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7.3%), ‘장애자녀 학습지원 서비스’(6.3%),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3.5%) 순이었다. 한편, “생활자금 지원” 등 ‘기타’는 12.7%였다.

영농여부별로 농어가에서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의료재활서비스’ 비중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이동편의지원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간병인, 도우미 등)’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비중이 낮은(14.5%p) 반면, ‘이동편의지원서비스’ 비중은 높았다(+10.6%p).

| 표3-12 | 필요한 장애인복지 서비스

단위: %(명)

구분		재활보조 기구 및 생활 편의용품 지원	이동 편의지원 서비스	의료 재활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간병인, 도우미 등)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장애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및 심리 재활 서비스	기타
농어촌 (138)		20.8	18.0	16.8	14.7	7.3	6.3	3.5	12.7
읍/면	읍 (55)	22.2	19.2	13.1	15.0	12.4	3.7	2.3	12.0
	면 (83)	19.9	17.2	19.3	14.4	3.9	7.9	4.3	13.1
영농 여부	농어가 (54)	29.4	11.6	22.3	9.4	7.5	3.0	6.1	10.7
	비농어가 (84)	15.3	22.0	13.3	18.0	7.2	8.4	1.8	14.0
도시 (46)		35.3	7.4	17.2	14.9	7.8	1.0	5.7	10.6

복지 여건 전반

3>13 복지시설 이용횟수 및 이용 만족도

귀댁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주 이용한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이용 경험층이 7.6%,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3.1%, 이용층의 만족도는 66.1점

 '월 1회 미만'(3.1%) 등 이용 경험층이 7.6%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 이용 경험층이 7.6%로, 이 중 '월 1회 미만' 이용층이 3.1%였다. 농어가,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경험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도시 지역과 경험률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3-13-(1) | 복지시설 이용 횟수

단위: %(명)

구분			이용 경험 있음	월 1회 미만	월 1-2회	월 3-4회	월 5회 이상	이용 경험 없음
농어촌 (2,755)			7.6	3.1	2.1	1.1	1.3	92.4
읍/면	읍	(1,222)	6.1	2.8	1.4	.3	1.7	93.9
	면	(1,534)	8.8	3.4	2.6	1.8	1.0	91.2
영농 여부	농어가	(908)	11.5	3.6	4.4	2.3	1.2	88.5
	비농어가	(1,847)	5.7	2.9	.9	.5	1.4	94.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9)	2.6	1.3	1.0	.3		97.4
	40대	(536)	6.8	3.9	.7	.5	1.7	93.2
	50대	(552)	5.4	3.0	1.6	.3	.5	94.6
	60대	(492)	8.8	3.5	3.0	1.1	1.2	91.2
	70대 이상	(657)	13.1	3.7	3.6	3.0	2.9	86.9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935)	11.7	3.4	3.8	2.3	2.2	88.3
	없음	(1,820)	5.5	3.0	1.1	.5	.9	94.5
만 6세 미만 영유아 유무	있음	(348)	3.0	.4	1.2	.4	1.0	97.0
	없음	(2,408)	8.3	3.5	2.2	1.2	1.4	91.7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41)	10.6	3.7	1.9	.1	4.9	89.4
	없음	(2,615)	7.4	3.1	2.1	1.2	1.1	92.6
도시 (1,190)			5.3	1.5	.9	.6	2.3	94.7

* 복지시설: 지역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

이용층의 만족도는 66.1점

복지시설 이용에 ‘약간 만족하는 수준’(66.1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농어가, 복지시설 이용 횟수가 많을수록,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도시(74.2점)에 비해, 이용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1점).

| 표3-13-(2) |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02)			66.1점	20.5	32.0	52.5	41.0	4.4	2.1	6.5
읍/면	읍	(71)	65.1점	19.7	32.4	52.1	40.6	3.3	4.0	7.3
	면	(128)	66.7점	21.0	31.7	52.7	41.3	5.0	1.0	6.0
영농 여부	농어가	(97)	69.0점	24.0	34.9	58.9	36.3	2.7	2.2	4.8
	비농어가	(103)	63.4점	17.3	29.3	46.5	45.5	6.0	2.0	8.0
복지시설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81)	57.3점	9.9	21.1	31.0	59.0	8.4	1.6	10.0
	월 1-2회	(55)	69.1점	20.8	45.8	66.6	26.2	3.3	3.8	7.2
	월 3-4회	(29)	73.2점	28.0	36.7	64.7	35.3			
	월 5회 이상	(36)	75.5점	37.8	31.5	69.3	28.0	.5	2.2	2.7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106)	71.9점	26.3	39.7	66.0	31.1	1.4	1.5	3.0
	없음	(95)	59.6점	14.1	23.3	37.4	52.2	7.7	2.7	10.4
만 6세 미만 영유아 유무	있음	(10)	57.3점	1.2	53.8	55.0	30.3	2.3	12.4	14.7
	없음	(191)	66.6점	21.6	30.8	52.3	41.6	4.5	1.5	6.0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5)	64.5점	22.7	26.9	49.6	36.1	14.3		14.3
	없음	(186)	66.2점	20.3	32.4	52.7	41.4	3.6	2.3	5.9
도시 (60)			74.2점	20.4	59.5	79.9	16.6	3.5		3.5

복지 여건 전반

3.14 전반적인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파악 및 제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11.9%)에 비해 [불만족](30.5%) 비중이 높아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44.4점)의 평가

'다소 만족'(10.7%) 등 [만족한다는 견해가 11.9%로 '다소 불만족'(25.4%) 등 [불만족](30.5%)에 비해 낮아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해 '약간 불만족하는 수준'(44.4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40대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약간 높고, 복지시설 이용층, 65세 이상 어르신에 있는 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불만족](+11.2%p) 비중이 약간 높아 만족도가 약간 낮았다(-3.6점).

| 표3-14 |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25)			44.4점	1.2	10.7	11.9	57.6	25.4	5.1	30.5
읍/면	읍	(1,211)	44.9점	1.3	11.8	13.1	57.5	23.9	5.5	29.4
	면	(1,514)	44.0점	1.1	9.9	11.0	57.6	26.6	4.8	31.4
영농 여부	농어가	(901)	43.4점	1.3	11.2	12.6	53.2	28.0	6.2	34.2
	비농어가	(1,824)	44.9점	1.1	10.5	11.6	59.7	24.1	4.6	28.6
응답자 성	남성	(1,196)	44.3점	1.2	11.6	12.9	56.4	24.6	6.2	30.8
	여성	(1,525)	44.4점	1.1	10.1	11.2	58.5	26.0	4.3	30.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1)	42.6점	.4	9.5	9.9	55.2	30.1	4.9	34.9
	40대	(531)	46.1점	1.5	13.4	15.0	56.6	24.6	3.8	28.5
	50대	(547)	43.4점	1.0	8.5	9.5	59.9	24.4	6.2	30.6
	60대	(486)	44.7점	.9	11.6	12.5	57.5	25.5	4.5	30.0
	70대 이상	(651)	44.9점	2.0	10.9	12.8	57.7	23.5	5.9	29.4
복지시설 이용여부	이용층	(209)	56.4점	8.9	29.0	37.8	43.4	16.6	2.2	18.8
	비이용층	(2,512)	43.4점	.6	9.2	9.8	58.8	26.0	5.3	31.4
65세 이상 가구원 유무	있음	(106)	71.9점	26.3	39.7	66.0	31.1	1.4	1.5	3.0
	없음	(95)	59.6점	14.1	23.3	37.4	52.2	7.7	2.7	10.4
만 6세 미만 영유아 유무	있음	(10)	57.3점	1.2	53.8	55.0	30.3	2.3	12.4	14.7
	없음	(191)	66.6점	21.6	30.8	52.3	41.6	4.5	1.5	6.0
장애 가구원 유무	있음	(15)	64.5점	22.7	26.9	49.6	36.1	14.3		14.3
	없음	(186)	66.2점	20.3	32.4	52.7	41.4	3.6	2.3	5.9
도시 (1180)			48.0점	1.1	11.6	12.7	68.0	16.9	2.4	19.3

초·중·고생 유무 및 타 지역 유학생 실태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자녀 통학 비용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학생교육

4>01 초·중·고생 유무 및 타 지역 유학생 실태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초·중·고생 있는 가구가 20.6%, 이 중 타 지역 유학생이 있는 가구는 7.1%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전체 농어촌 가구 중 20.6%였으며, 이 중 7.1%가 타 지역에 유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 유학생 수는 '1명'(80.2%), '2명'(19.5%) 등 평균 1.2명이었다.

도시에 비해,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 비중이 낮은(-8.2%p) 가운데, 이 중 타 지역 유학생 비중이 약간 높았다(+5.3%p).

| 표4-01-(1) | 초·중·고생 유무

단위 : %(명)

구분		있음	없음
농어촌 (2,764)		20.6	79.4
읍/면	읍 (1,226)	27.6	72.4
	면 (1,538)	14.9	85.1
영농 여부	농어가 (912)	11.1	88.9
	비농어가 (1,852)	25.2	74.8
도시 (1,194)		28.8	71.2

| 표4-01-(2) | 타 지역 유학생 실태

단위 : %(명)

구분		타 지역 유학생 유무			타 지역 유학생 수				
		사례수	있음	없음	사례수	평균	1명	2명	3명
농어촌		(568)	7.1	92.9	(40)	1.2명	80.2	19.5	0.3
읍/면	읍	(338)	3.7	96.3	(5)	1.5명	54.2	45.8	0.0
	면	(230)	12.2	87.8	(5)	1.1명	91.8	7.8	0.4
영농 여부	농어가	(101)	13.5	86.5	(31)	1.3명	71.6	28.4	0.0
	비농어가	(467)	5.7	94.3	(12)	1.2명	84.6	15.0	0.4
도시		(344)	1.8	98.2	(6)	1.0명	100.0		

학생교육

4>02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귀댁의 자녀(손자녀)가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걸어서’(44.1%)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편도 소요시간은 16.3분

‘걸어서’(44.1%) 비중이 가장 높음

‘걸어서’(44.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중교통’(24.0%), ‘자가용’(16.1%), ‘통학버스’(11.7%) 순이었다. 한편, “자전거”, “학원차” 등 ‘기타’는 4.2%였다.

초등학생,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걸어서’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고등학생, 농가에서 ‘대중교통’ 비중이 높았다. 한편, 초등학생층에서 ‘자가용’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자가용’(+10.8%p) 비중이 높은 반면, ‘걸어서’ 비중은 낮았다(-21.4%p).

| 표4 - 02 - (1) |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단위 : %(명)

구분			걸어서	대중교통	자가용	통학버스	기타
농어촌 (568)			44.1	24.0	16.1	11.7	4.2
읍/면	읍 (338)		48.4	22.7	12.7	12.8	3.3
	면 (230)		37.7	25.8	21.0	10.0	5.5
영농 여부	농어가 (101)		29.7	41.9	14.3	10.3	3.8
	비농어가 (467)		47.2	20.1	16.4	12.0	4.2
학교급	초등학생 (198)		60.6	2.5	23.4	10.8	2.7
	중학생 (163)		44.4	26.9	15.2	7.8	5.7
	고등학생 (207)		28.0	42.3	9.7	15.7	4.3
도시 (344)			65.5	19.9	5.3	5.0	4.3

학교까지 편도 소요시간은 16.3분

통학 시 편도 소요시간으로 '10-15분 미만'(34.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10분 미만'(19.3%), '20-30분 미만'(16.4%), '15-20분 미만'(13.3%), '30분-1시간 미만'(12.8%) 순으로 평균 소요시간은 16.3분 이었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학교급이 높을수록 통학시간이 길었다.

도시에 비해, '10-15분 미만' 비중이 약간 낮은(4.8%p) 반면, '30분-1시간 미만' 비중이 약간 높았다(+5.2%p). 평균 통학시간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 지역에서 '걸어서', 농어촌 지역에서 '자가용'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이동 거리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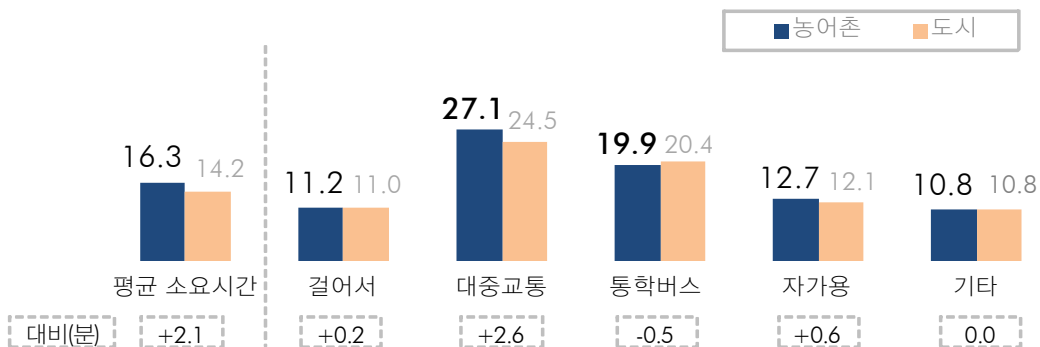
| 표4 - 02 - (2) | 자녀 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편도)

단위: %(명)

구분		평균	5분 미만	5-10분 미만	10-15분 미만	15-20분 미만	20-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농어촌 (545)		16.3분	1.2	19.3	34.0	13.3	16.4	12.8	2.9
읍/면	읍 (341)	15.2분	.7	22.6	38.3	12.4	14.0	9.4	2.8
	면 (225)	18.0분	1.9	14.1	28.8	13.4	20.9	17.6	3.2
영농 여부	농어가 (99)	19.4분	1.3	6.8	26.8	20.6	21.8	21.0	1.6
	비농어가 (466)	15.7분	1.1	21.8	36.1	11.1	15.6	10.9	3.3
첫째 자녀	초등학생 (188)	9.8분	2.8	36.8	43.6	6.4	7.8	2.3	.3
	중학생 (163)	16.3분	.8	9.2	34.4	19.7	24.1	10.6	1.2
	고등학생 (194)	22.7분		11.0	24.5	14.5	18.4	24.8	6.9
도시 (340)		14.2분	2.1	19.1	38.8	13.8	16.9	7.6	1.9

| 그림4 - 02 | 통학 수단별 자녀 통학 시 평균 소요시간(편도)

단위: 분



학생교육

4>03 자녀 통학 비용

귀댁의 자녀(손자녀)의 평균 하루 통학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자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통학 비용이 들지 않는다'(48.8%) 비중이 가장 높음

'0원'(48.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0원 미만'(27.5%), '2,000-4,000원 미만'(18.7%) 순이었다.

초등학생, 걸어서, 통학버스 이용층,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0원' 비중이 높은 반면, 중·고등학생,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층, 면지역 거주층에서 '2,000원 미만' 등 통학비용 지불층 비중이 높았다.

'걸어서' 비중이 높았던 도시에 비해, '0원' 비중이 낮은 반면(-21.8%p), '2,000원 미만'(+12.6%p), '2,000-4,000원 미만'(+5.8%p) 비중이 높았다.

| 표4-03 | 자녀 통학 비용

단위 : %(명)

구분			0원	2,000원 미만	2,000-4,000 원 미만	4,000-6,000 원 미만	6,000원 이상
농어촌 (563)			48.8	27.5	18.7	2.9	2.1
읍/면	읍 (335)		53.1	24.9	18.5	2.4	1.1
	면 (228)		42.5	31.4	18.9	3.6	3.6
영농 여부	농어가 (100)		35.5	41.7	19.6	2.2	1.0
	비농어가 (464)		51.7	24.5	18.5	3.1	2.4
학교급	초등학생 (197)		68.5	21.8	5.4	2.9	1.5
	중학생 (161)		48.1	27.7	19.1	1.9	3.2
	고등학생 (206)		30.5	32.8	31.0	3.7	1.9
통학 시 교통수단	걸어서 (247)		90.2	6.5	2.7		.5
	대중교통 (136)		3.7	50.2	40.0	3.1	2.9
	통학버스 (66)		41.1	27.6	25.9	5.3	
	자가용 (90)		3.2	53.2	26.8	9.5	7.3
	기타 (24)		71.5	17.2	11.3		
도시 (343)			70.6	14.9	12.9	1.2	.5

학생교육

4>04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사설학원 수강'(49.1%)이 주된 활동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사설학원 수강'(49.1%)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16.8%),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14.3%), '집에서 가족이 돌봄'(8.6%), '방과 후 교실(학교 외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5.5%), '개인·그룹 과외'(3.7%) 순이었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사설학원 수강'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사설학원 수강' 비중이 낮은(-15.7%p) 반면,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5.6%p),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4.5%p) 비중은 약간 높았다.

| 표4-04 |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단위: %(명)

구분		사설학원 수강	자녀 자율적 으로 보냄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집에서 가족이 돌봄	방과 후 교실 (학교 외) 참여	개인· 그룹 과외	기타
농어촌 (542)		49.1	16.8	14.3	8.6	5.5	3.7	2.0
읍/면	읍 (319)	53.3	16.4	12.2	6.6	6.7	2.4	2.3
	면 (222)	43.1	17.3	17.3	11.4	3.8	5.5	1.7
영농 여부	농어가 (95)	32.4	27.4	18.6	11.8	6.3	3.5	
	비농어가 (447)	52.6	14.5	13.4	7.9	5.3	3.7	2.5
도시 (335)		64.8	12.3	8.7	5.3	3.9	2.7	2.3

학생교육

4.05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시설, 교육수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29.5%) > [불만족](23.6%), '보통 수준'(51.8점)의 평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교육 여건(시설, 교육수준 등)에 대해 '다소 만족'(24.8%) 등 [만족](29.5%) 비중이 '다소 불만족'(20.1%) 등 [불만족](23.6%)에 비해 약간 높은 가운데, '보통 수준'(51.8점)의 평가였다. 계층별로는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높아(+9.7%p) 만족도가 약간 낮았다(3.0점). 30대 이하 연령층의 경우 농어촌과 만족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50대 이상 경우 농어촌 지역에서 [불만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만족도 또한 낮았다.

| 표4 - 05 |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매우만족	다소만족	만족(합)	보통	다소불만족	매우불만족	불만족(합)
농어촌 (568)			51.8점	4.8	24.8	29.5	46.8	20.1	3.6	23.6
읍/면	읍	(339)	52.9점	4.6	26.3	30.9	48.7	17.0	3.4	20.4
	면	(230)	50.1점	5.0	22.5	27.6	44.1	24.6	3.8	28.4
영농 여부	농어가	(101)	48.0점	2.6	20.8	23.4	45.6	27.9	3.1	31.0
	비농어가	(467)	52.6점	5.2	25.6	30.9	47.1	18.4	3.7	22.0
응답자 성	남성	(186)	52.5점	5.8	23.5	29.3	48.3	19.4	3.0	22.4
	여성	(379)	51.4점	4.3	25.5	29.8	45.8	20.5	3.9	24.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0)	55.0점	4.8	30.8	35.5	47.7	13.1	3.6	16.7
	40대	(322)	51.8점	4.9	25.7	30.5	44.7	21.2	3.6	24.8
	50대	(43)	44.3점	4.5	11.1	15.6	44.5	36.9	3.0	39.9
	60대	(17)	49.7점	7.0	12.7	19.7	52.3	28.0		28.0
	70대 이상	(27)	46.1점	2.3	8.5	10.8	66.7	16.2	6.3	22.5
도시 (338)			54.8점	2.4	30.5	32.9	53.2	11.5	2.3	1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9)	54.1점	4.2	22.6	26.9	60.7	10.1	2.4	12.4
	40대	(211)	55.3점	1.6	34.6	36.2	49.3	12.5	2.1	14.6
	50대	(22)	52.8점	2.4	29.4	31.8	50.4	12.4	5.4	17.7
	60대	(5)	56.9점		27.8	27.8	72.2			
	70대 이상	(1)	50.0점				100.0			

학생교육

4>06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자녀(손자녀) 사교육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21.5%)에 비해 [불만족](30.0%) 비중이 약간 높아 '보통 수준'(47.3점)의 평가

‘다소 만족’(18.0%) 등 [만족](21.5%)에 비해 ‘다소 불만족’(24.0%) 등 [불만족](30.0%) 비중이 약간 높아 학교교육 여건(51.8점)에 비해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47.3점) 가운데, 학교교육 만족도가 높았던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높아(+11.6%p) 만족도가 낮았다(-3.3점).

| 표4-06-(1) |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566)		47.3점	3.5	18.0	21.5	48.5	24.0	5.9	30.0
읍/면	읍 (336)	49.0점	2.9	20.3	23.2	50.3	23.0	3.5	26.5
	면 (229)	44.8점	4.5	14.5	19.0	46.0	25.5	9.4	35.0
영농 여부	농어가 (99)	38.6점	4.4	12.4	16.8	30.3	39.2	13.8	52.9
	비농어가 (464)	49.2점	3.3	19.2	22.5	52.5	20.8	4.2	25.0
응답자 성	남성 (186)	46.2점	4.4	17.8	22.2	45.9	22.1	9.8	31.9
	여성 (377)	47.9점	3.1	18.2	21.3	50.1	24.5	4.0	28.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160)	50.2점	4.8	20.2	25.0	48.8	23.2	3.0	26.2
	40대 (319)	47.1점	2.8	20.0	22.8	46.7	23.5	7.0	30.5
	50대 (42)	41.5점	4.5	8.1	12.7	44.0	35.6	7.7	43.4
	60대 (17)	42.7점	7.0	1.3	8.3	57.2	24.6	9.9	34.5
	70대 이상 (27)	45.1점		8.0	8.0	70.1	16.4	5.5	21.9
도시 (337)		50.6점	0.8	22.6	23.4	58.2	15.0	3.4	18.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98)	51.3점	1.3	26.6	27.9	53.1	13.9	5.1	19.0
	40대 (210)	50.6점	0.6	21.4	22.0	59.9	16.0	2.0	18.1
	50대 (22)	46.6점		20.4	20.4	55.5	14.4	9.8	24.1
	60대 (5)	53.4점		13.6	13.6	86.4			
	70대 이상 (1)	50.0점				100.0			

학생교육

4>07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가구(농어촌 가구(n=568)/도시 가구(n=34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지역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28.9%)이 가장 시급한 정책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28.9%)이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아울러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22.4%), '우수 교사 확보'(21.1%)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 시설 개선'(12.1%), '통학버스 운영'(6.0%),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3.8%) 순이었다.

영농여부별로 농어가에서 '지역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중이 약간 높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비중이 높은 반면, 비농어가에서 '우수 교사 확보' 비중이 약간 높고, '학교시설 개선'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우수교사 확보'(-9.0%p) 비중이 낮은 반면, '지역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5.9%p),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 지원'(+5.7%p) 비중이 높았다.

| 표4 - 07 |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단위 : %(명)

구분		학교 시설 개선	우수 교사 확보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다양한 방과 후 프로 그램 (강사) 지원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기숙 시설 확충	통학 버스 운영	지역 소규모 학교 유지	기타	없음
농어촌 (545)		12.1	21.1	28.9	22.4	3.8	1.4	6.0	1.1	2.0	1.3
읍/면	읍 (320)	13.5	25.1	26.7	22.7	3.1		5.0	.4	2.0	1.6
	면 (223)	10.1	15.3	32.2	21.9	4.8	3.4	7.5	2.1	1.9	.8
영농 여부	농어가 (99)	4.5	16.8	33.1	29.8	2.5	3.3	7.5	.6		1.9
	비농어가 (445)	13.8	22.0	28.0	20.7	4.1	1.0	5.7	1.2	2.4	1.2
도시 (330)		17.0	30.1	23.0	16.7	8.1	.2	2.4	.6	.8	1.2

사회교육

4>08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 수강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중복응답 : 교육유형별 각 100.0%]

▶ '농업기술교육', '스포츠 건강교육' 경험률 및 향후 수요가 높음



'농업기술교육'(8.7%), '스포츠 건강교육'(6.8%)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전반적으로 사회교육 경험률이 10% 미만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농업기술교육'(8.7%), '스포츠 건강교육'(6.8%)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보화 교육'(4.1%),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각 3.7%), '인문교양교육'(2.7%), '시민참여교육'(2.1%), '문해교육'(1.0%) 순이었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560대 연령층에서 '농업기술교육' 경험률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농업기술교육' 경험률이 높은(+8.2%p) 반면, '인문교양교육' 경험률이 낮게 (-2.5%p) 나타났다.

| 표4-08-(1) | 사회교육 경험률

단위 : %(명)

구분		농업 기술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문해 교육	기타
농어촌 (2,764)		8.7	6.8	4.1	3.7	3.7	2.7	2.1	1.0	.5
읍/면	읍 (1,226)	4.5	8.9	5.5	5.3	5.2	3.2	1.4	.9	.7
	면 (1,538)	12.1	5.1	3.0	2.5	2.6	2.2	2.7	1.0	.2
영농 여부	농어가 (912)	22.4	5.9	4.1	2.3	2.3	1.8	3.5	1.1	.2
	비농어가 (1,852)	2.0	7.3	4.0	4.5	4.4	3.1	1.5	.9	.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2.1	5.9	5.1	7.7	5.0	5.1	1.7	.8	
	40대 (538)	5.4	9.5	6.3	5.3	6.0	4.5	2.8	1.0	.6
	50대 (554)	15.2	10.2	6.7	5.1	4.0	2.9	3.8	2.2	.9
	60대 (493)	13.7	6.7	1.9	1.3	2.5	1.0	1.4	.1	.2
	70대 이상 (659)	7.5	2.5	.9	.1	1.6	.3	1.1	.7	.5
도시 (1,194)		.5	7.9	4.1	3.7	4.3	5.2	2.1	1.4	1.3

 '스포츠 건강 교육'(18.7%), '농업기술교육'(11.7%)에 대한 향후 수요가 높음

향후 수강 의향률이 전반적으로 경험률에 비해 높은 가운데, 특히 '스포츠 건강교육'(18.7%)의 향률, '인문교양교육'(11.3%)의향률 등이 특히 상대적으로 높았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50·60대 연령층에서 '농업기술교육'의향률이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연령이 낮을수록 '스포츠 건강교육', '인문교양교육'의향률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농업기술교육'의향률이 약간 높은(+7.0%p) 반면, '인문교양교육'(4.2%p), '직업능력교육'(3.7%p)의향률이 약간 낮았다.

| 표4 - 08 - (2) | 사회교육 의향률

단위 : %(명)

구분		농업 기술 교육	스포츠 건강 교육	정보화 교육	직업 능력 교육	문화 예술 교육	인문 교양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문화 교육	기타
농어촌 (2,764)		11.7	18.7	10.6	10.4	11.1	11.3	6.2	4.7	2.2
읍/면	읍 (1,226)	8.8	23.8	12.6	13.7	14.4	15.0	6.3	5.0	3.5
	면 (1,538)	13.9	14.5	9.0	7.8	8.5	8.4	6.2	4.5	1.3
영농 여부	농어가 (912)	24.5	15.8	10.5	7.6	8.4	6.3	7.7	5.9	1.3
	비농어가 (1,852)	5.4	20.1	10.6	11.8	12.5	13.8	5.5	4.1	2.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7.7	24.4	17.6	18.4	18.5	24.1	7.3	6.5	3.9
	40대 (538)	10.7	24.3	10.7	15.6	15.0	16.7	9.0	4.9	2.4
	50대 (554)	17.8	21.4	15.7	11.1	11.6	9.9	7.7	6.2	2.4
	60대 (493)	15.8	18.2	8.1	5.9	8.6	5.9	4.8	2.3	1.8
	70대 이상 (659)	7.4	7.6	2.5	2.7	3.6	2.3	3.0	3.7	.9
도시 (1,194)		4.7	23.0	11.7	14.1	13.0	15.5	5.1	5.4	4.1

사회교육

4>09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귀하께서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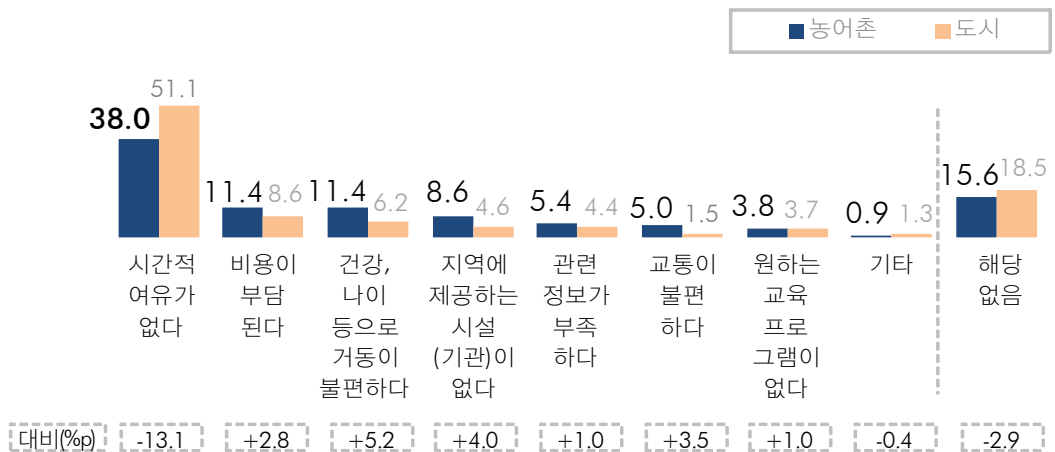
▶ '시간적 여유가 없다'(38.0%)가 주된 어려움

'시간적 여유가 없다'(38.0%)가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용이 부담된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각 11.4%),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8.6%),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5.4%), '교통이 불편하다'(5.0%),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3.8%) 순이었다. 한편, 어려움이 없음, 사회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음 등 '해당없음'은 15.6%였다.

도시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낮은(-13.1%p) 반면,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5.2%p),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4.0%p), '교통이 불편하다'+3.5%p) 비중은 약간 높았다.

| 그림4-09 |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단위: %



읍지역 거주층, 연령대가 낮을수록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높은 반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해당 없음’ 비중이 높았다.

| 표4-09 |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용이 부담 된다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 하다	지역에 제공 하는 시설이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 하다	교통이 불편 하다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기타	해당 없음
농어촌 (2,738)		38.0	11.4	11.4	8.6	5.4	5.0	3.8	.9	15.6
읍/면	읍 (1,214)	44.5	10.5	8.8	9.3	5.1	3.6	4.2	1.4	12.6
	면 (1,524)	32.8	12.1	13.4	8.1	5.6	6.2	3.4	.5	18.0
영농 여부	농어가 (901)	34.8	11.6	11.2	8.3	6.8	6.2	3.2	.1	17.8
	비농어가 (1,837)	39.5	11.3	11.5	8.7	4.7	4.5	4.0	1.2	14.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3)	52.5	10.7	.2	9.5	4.0	6.6	6.2	.9	9.3
	40대 (534)	51.0	10.4	1.2	11.2	4.9	3.4	4.7	.4	12.7
	50대 (549)	48.8	8.9	2.8	10.4	6.3	2.9	3.3	1.3	15.3
	60대 (487)	29.9	13.1	14.4	7.2	7.1	7.1	3.0	1.0	17.3
	70대 이상 (654)	13.1	13.5	33.4	5.2	4.9	5.5	2.1	.9	21.5
도시 (1,184)		51.1	8.6	6.2	4.6	4.4	1.5	3.7	1.3	18.5

문화·여가여건 부문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5>01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시설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문화센터’(18.5%), ‘찜질방/목욕탕’(18.3%)이 가장 필요하다는 견해

지역에 가장 필요한 문화·여가 시설로 ‘문화센터’(18.5%), ‘찜질방/목욕탕’(18.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영화관/공연장/전시관’(10.9%), ‘체육시설/경기장’(9.4%), ‘공원/산책로’(6.1%), ‘마을회관/경로당’(5.5%), ‘도서관’(3.6%) 순이었다. 한편,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다’는 25.5%였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센터’, ‘영화관/공연장/전시관’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찜질방/목욕탕’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찜질방/목욕탕’ 비중이 높은(+14.4%p) 반면,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음’ 비중이 낮았다(-18.9%p).

| 표5-01 |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단위 : %(명)

구분			문화 센터	찜질방/ 목욕탕	영화관/ 공연장/ 전시관	체육 시설/ 경기장	공원/ 산책로	마을 회관/ 경로당	도서관	유원지	기타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음
농어촌 (2,730)			18.5	18.3	10.9	9.4	6.1	5.5	3.6	.8	1.2	25.5
읍/면	읍	(1,206)	23.3	8.6	16.7	11.4	7.5	4.5	3.6	.6	1.2	22.8
	면	(1,523)	14.8	26.0	6.4	7.9	5.1	6.4	3.7	1.0	1.2	27.7
영농 여부	농어가	(909)	13.7	28.4	4.5	8.9	4.0	7.1	2.4	.8	1.5	28.7
	비농어가	(1,820)	21.0	13.2	14.1	9.7	7.2	4.8	4.2	.8	1.0	2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4)	30.7	5.3	20.4	9.6	7.9	.9	7.4	1.1	1.6	15.1
	40대	(534)	19.8	11.6	20.2	10.4	7.8	1.6	6.4	.4	1.0	20.7
	50대	(537)	22.3	17.3	11.6	12.9	6.8	4.0	1.7	.4	.7	22.2
	60대	(489)	15.1	23.5	4.3	11.1	6.1	7.6	1.2	1.9	1.1	28.2
	70대 이상	(656)	7.9	30.5	.3	4.4	2.9	12.1	1.7	.5	1.5	38.1
도시 (1,177)			14.1	3.9	11.0	8.0	9.2	0.9	6.8	0.6	1.0	44.4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5>02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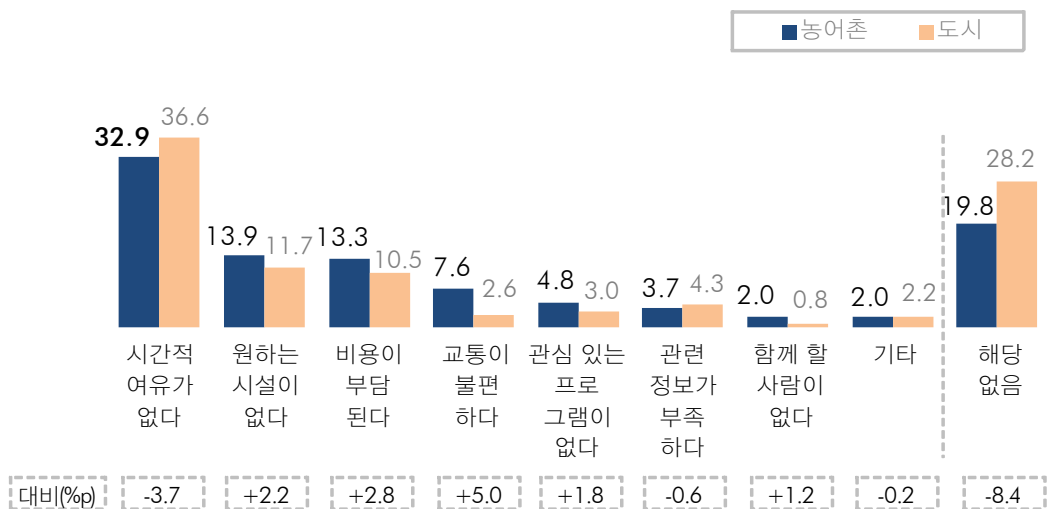
▶ '시간적 여유가 없다'(32.9%)가 주된 어려움

'시간적 여유가 없다'(32.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원하는 시설이 없다'(13.9%), '비용이 부담된다'(13.3%)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교통이 불편하다'(7.6%),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4.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3.7%) 순이었고, '해당 없음'은 19.8%였다.

도시에 비해, '교통이 불편하다' 비중이 약간 높은(+5.0%p) 반면, '해당 없음' 비중은 낮았다(-8.4%p).

| 그림5-02 |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단위 : %



읍지역 거주층, 50대 이하 연령층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없음, 문화여가활동 필요를 느끼지 않음 등 ‘해당없음’ 비중이 높았다.

| 표5-02 |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원하는 시설이 없다	비용이 부담 된다	교통이 불편 하다	관심 있는 프로 그램이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 하다	함께 할 사람이 없다	기타	해당 없음
농어촌 (2,704)			32.9	13.9	13.3	7.6	4.8	3.7	2.0	2.0	19.8
읍/면	읍 (1,194)		37.4	16.5	11.7	6.5	4.8	2.9	1.6	2.3	16.2
	면 (1,510)		29.4	11.8	14.5	8.5	4.7	4.4	2.4	1.7	22.6
영농 여부	농어가 (899)		32.8	11.3	13.3	7.2	4.3	4.1	.8	1.3	24.8
	비농어가 (1,805)		33.0	15.2	13.2	7.9	5.0	3.6	2.6	2.3	17.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91)		39.7	22.1	11.1	7.9	6.6	2.5	.9	.7	8.5
	40대 (525)		40.2	15.9	13.8	5.6	4.1	4.3	1.3	1.4	13.4
	50대 (540)		46.4	15.3	9.9	4.7	3.4	3.7	.7	.7	15.2
	60대 (483)		28.9	10.6	14.4	9.0	5.5	5.0	3.1	2.9	20.6
	70대 이상 (655)		14.3	7.4	16.1	10.6	4.4	3.3	3.4	3.7	36.8
도시 (1,179)			36.6	11.7	10.5	2.6	3.0	4.3	.8	2.2	28.2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5>03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7.9%)에 비해 [불만족](36.4%) 비중이 높아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41.4점)

'다소 만족'(7.3%) 등 [만족](7.9%)에 비해 '다소 불만족'(29.9%) 등 [불만족](36.4%) 비중이 높아 문화·여가여건에 대해 '다소 불만족하는 수준'(41.4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낮은(-12.9%p) 반면, [불만족] 비중은 높아(+16.4%p) 만족도가 낮았다(-8.6점).

| 표5-03 |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45)			41.4점	.5	7.3	7.9	55.7	29.9	6.5	36.4
읍/면	읍	(1,220)	41.1점	.8	8.2	8.9	53.4	30.1	7.6	37.7
	면	(1,525)	41.6점	.3	6.7	7.0	57.6	29.7	5.7	35.4
영농 여부	농어가	(906)	41.3점	.4	7.4	7.8	56.0	29.4	6.7	36.1
	비농어가	(1,839)	41.4점	.6	7.3	7.9	55.6	30.1	6.4	36.5
응답자 성	남성	(1,200)	41.2점	.7	7.5	8.2	55.1	29.4	7.4	36.8
	여성	(1,540)	41.4점	.3	7.2	7.6	56.2	30.3	5.9	36.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4)	36.8점	.1	4.1	4.1	47.7	39.2	9.0	48.1
	40대	(536)	41.2점	.6	9.9	10.5	50.3	31.9	7.2	39.2
	50대	(550)	40.7점	.5	6.9	7.4	56.1	28.1	8.4	36.5
	60대	(492)	42.2점	1.0	7.4	8.5	56.4	29.6	5.5	35.2
	70대 이상	(654)	44.9점	.5	8.1	8.6	65.3	22.8	3.4	26.1
도시 (1,175)			50.0점	2.6	18.2	20.8	59.2	16.6	3.3	20.0

기초생활여건 부문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이주 직전 주택 위치
주택 건축년도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건평 및 방 개수
주택 시설 현황
난방비 지출 기간 및 월평균 지출 금액
주택 신·개축 의향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쓰레기 처리 방법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주 의향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 실태

6>01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후 거주기간

현 거주지가 귀하의 고향이십니까? 아니시라면 이주 후 거주기간은 언제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이주층이 50.9%, 이주시기는 [5-20년 미만] 사이가 46.1%



이주층이 50.9%

현 거주지가 고향이 아닌 이주층이 50.9%로 절반수준을 차지한 가운데,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주층 비중이 더욱 높았다.

도시에 비해, 동/리 경계를 넘어 이주한 적이 없는 층 비중이 높았다(+39.0%p).

| 표6-01-(1) |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단위 : %(명)

구분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동/리 경계를 넘어 이주한 적이 없다)	이주했다
농어촌 (2,764)			49.1	50.9
읍/면	읍	(1,226)	33.1	66.9
	면	(1,538)	61.8	38.2
영농 여부	농어가	(912)	77.6	22.4
	비농어가	(1,852)	35.0	65.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20.4	79.6
	40대	(538)	30.7	69.3
	50대	(554)	50.4	49.6
	60대	(493)	63.2	36.8
	70대 이상	(659)	75.3	24.7
도시 (1,194)			10.1	89.9

이주층의 이주 후 거주기간 [5-20년 미만] 사이가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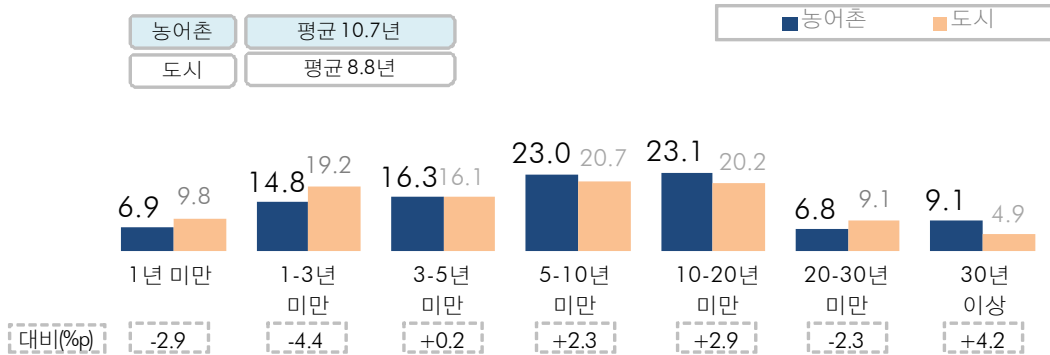
이주층의 이주시기로 '10-20년 미만'(23.1%), '5-10년 미만'(23.0%) 등 [5-20년 미만] 사이가 4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년 미만'(16.3%), '1-3년 미만'(14.8%), '1년 미만'(6.9%) 등 [5년 미만]이 38.0%, '30년 이상'(9.1%), '20-30년 미만'(6.8%) 등 [20년 이상]이 15.9%로 평균 거주 기간은 10.7년이였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1-10년 미만]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10년 이상] 비중이 높아 평균 거주 기간이 길었다.

도시에 비해, [3년 미만] 비중이 약간 낮은(-7.3%p) 반면, '30년 이상' 비중은 약간 높아(+4.2%p) 평균 거주기간이 약간 길었다(+1.9년).

| 그림6-01 | 이주 후 거주기간

단위 : %



| 표6-01 - (2) | 이주 후 거주기간

단위 : %(명)

구분		평균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20-30년 미만	30년 이상
농어촌 (1,405)		10.7년	6.9	14.8	16.3	23.0	23.1	6.8	9.1
읍/면	읍 (821)	8.8년	6.6	16.7	19.9	24.9	20.6	5.5	5.8
	면 (585)	13.4년	7.5	12.2	11.3	20.2	26.5	8.6	13.7
영농 여부	농어가 (204)	21.5년	2.9	6.0	7.3	8.8	29.4	17.7	28.0
	비농어가 (1,202)	8.9년	7.6	16.3	17.8	25.4	22.0	5.0	5.9
도시 (1,070)		8.8년	9.8	19.2	16.1	20.7	20.2	9.1	4.9

이주 실태

6.02 이주 직전 주택 위치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이주층(농어촌 가구(n=1407)/도시 가구(n=1,073))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현재 살고 있는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이 38.4%

현 거주지로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로 ‘현재 살고 있는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이 38.4%로 나타났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14.6%),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지역’(13.4%) 등 농어촌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는 66.4%였다.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지역’에서 이주한 경우는 33.6%였다.

도시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주택(다른 동지역)’ 비중이 56.7%였으며,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지역’(27.3%) 등 도시에서 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84.0%,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에서 도시로 이주한 경우는 16.0%였다.

| 표6-02-(1)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농어촌)

단위: %(명)

구분		농어촌 → (현)농어촌			도시 → (현)농어촌
		현재 살고 있는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 지역
농어촌 (1,311)		38.4	14.6	13.4	33.6
읍/면	읍 (769)	39.3	13.8	34.2	12.6
	면 (543)	37.2	15.6	32.8	14.4
영농 여부	농어가 (183)	32.8	18.6	18.0	30.6
	비농어가 (1,128)	39.4	13.9	12.6	34.1

| 표6-02-(2) | 이주 직전 주택 위치(도시)

단위: %(명)

구분		도시 → (현)도시		농어촌 → (현)도시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주택 (다른 동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
도시 (983)		56.7	27.3	16.0

주택 여건

6>03 주택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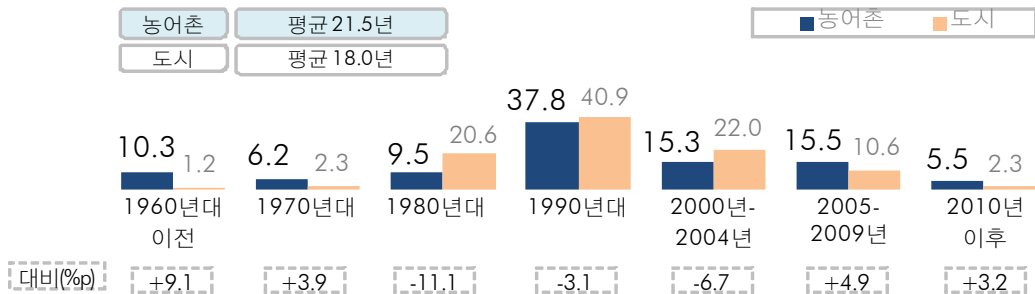
▶ '1990년대' 건축된 주택이 37.8%였으며, 주택의 노후 정도는 평균 21.5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로 '1990년대'(37.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05-2009년'(15.5%), '2000-2004년'(15.3%) 순이었다. 한편, "1960년"(3.2%), "1950년"(1.5%), "1940년"(0.7%), "1940년"(0.6%) 등 '1960년대 이전' 비중은 10.3%로 주택의 노후 정도는 평균 21.5년 이었다. 비농어가에서 '2005-2009년' 비중이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1960년대 이전'에 지은 50년 이상 된 주택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1970년대 이전] 비중이 높은(+13.0%p) 반면, [1980년대~2004년] 비중은 낮아(-20.9%p) 도시에 비해 주택이 좀 더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6-03 | 주택 건축년도

단위 : %



| 표6-03 | 주택 건축년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1960년대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2004년	2005년-2009년	2010년 이후
농어촌 (2,664)		21.5년	10.3	6.2	9.5	37.8	15.3	15.5	5.5
읍/면	읍 (1,180)	18.0년	5.4	3.6	7.1	41.6	15.2	23.2	3.9
	면 (1,484)	24.3년	14.1	8.2	11.4	34.8	15.4	9.5	6.7
영농 여부	농어가 (899)	27.1년	16.6	9.6	13.3	34.8	13.0	7.6	5.1
	비농어가 (1,766)	18.7년	7.0	4.4	7.6	39.3	16.5	19.6	5.7
도시 (1,141)		18.0년	1.2	2.3	20.6	40.9	22.0	10.6	2.3

주택 여건

6>04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택의 점유형태는?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단독주택'이 53.3%, '자가'층이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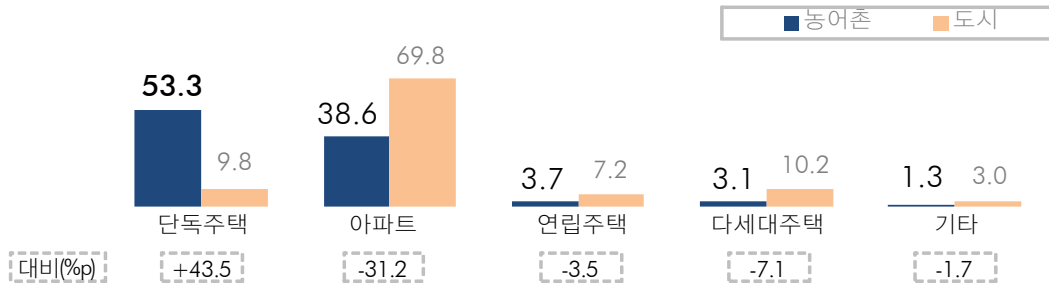
📌 '단독주택'이 53.3%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로 '단독주택' 비중이 절반수준 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아울러 '아파트'(38.6%) 비중 또한 높았다. 반면, '연립주택'(3.7%), '다세대주택'(3.1%) 비중은 낮았다. 먼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 서 '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아파트' 비중이 낮은(-31.2%p) 반면, '단독주택'은 높았다(+43.5%p).

| 그림6-04-(1) | 주택 종류

단위: %



| 표6-04-(1) | 주택 종류

단위: %(명)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농어촌 (2,730)		53.3	38.6	3.7	3.1	1.3
읍/면	읍 (1,203)	25.9	64.3	5.0	3.8	1.0
	면 (1,527)	75.0	18.3	2.6	2.6	1.5
영농 여부	농어가 (897)	92.5	5.1	1.1	.6	.7
	비농어가 (1,833)	34.2	54.9	5.0	4.3	1.6
도시 (1,192)		9.8	69.8	7.2	10.2	3.0

'자가'층이 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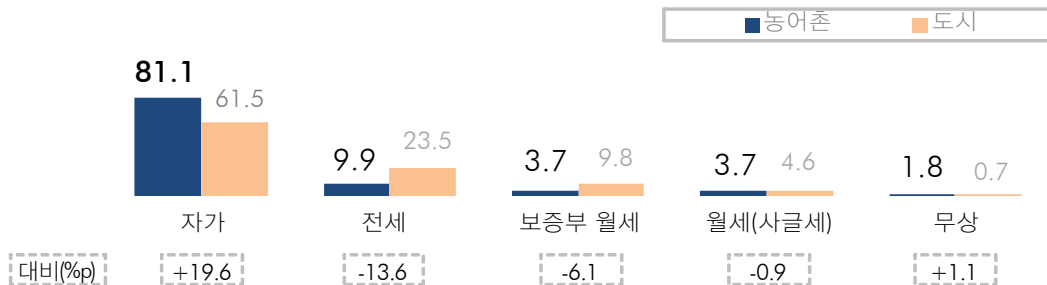
주택 점유 형태로 '자가'층이 대부분(81.1%)을 차지하였으며, '전세'(9.9%),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각 3.7%), '무상'(1.8%) 비중은 낮았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자가'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전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자가' 비중이 높은(+19.6%p) 반면, '전세'(-13.6%p), '보증부 월세'(-6.1%p) 비중은 낮았다.

| 그림6-04-(2)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



| 표6-04-(2) | 주택 점유형태

단위 : %(명)

구분		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사글세)	무상
농어촌 (2,763)		81.1	9.9	3.7	3.7	1.8
읍/면	읍 (1,226)	75.9	13.8	3.9	4.8	1.7
	면 (1,537)	85.2	6.7	3.5	2.8	1.8
영농 여부	농어가 (911)	95.0	2.3	.7	.9	1.1
	비농어가 (1,852)	74.2	13.5	5.1	5.0	2.1
도시 (1,186)		61.5	23.5	9.8	4.6	.7

주택 여건

6.05 주택 건평 및 방 개수

건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주택의 건평은 평균 84.9㎡, 방 개수는 평균 2.7개

주택의 건평은 평균 84.9㎡

주택의 건평으로 '70-80㎡ 미만'(16.1%), '60-70㎡ 미만'(15.4%), '90-100㎡ 미만'(14.5%), '80-90㎡ 미만'(13.7%) 등 [60-100㎡ 미만]이 59.7%를 차지한 가운데, 평균 건평은 84.9㎡였다.

읍지역 거주층, 아파트 거주층, 최근에 지어진 주택일수록 평균 건평이 넓었다.

도시에 비해, '50㎡ 미만' 비중이 낮은(8.2%p) 반면, '90-100㎡ 미만'(+10.3%p), '80-90㎡ 미만'(+7.2%p) 비중은 높았다.

| 표6-05-(1) | 주택 평균 건평

단위: %(명)

구분			평균	50㎡ 미만	50-60㎡ 미만	60-70㎡ 미만	70-80㎡ 미만	80-90㎡ 미만	90-100㎡ 미만	100-110㎡ 미만	110㎡ 이상
농어촌 (2,754)			84.9㎡	11.9	4.9	15.4	16.1	13.7	14.5	10.8	12.7
읍/면	읍	(1,223)	88.1㎡	8.7	3.7	12.8	17.1	13.2	11.1	19.2	14.3
	면	(1,531)	82.3㎡	14.4	5.9	17.5	15.3	14.1	17.3	4.1	11.4
영농 여부	농어가	(908)	84.4㎡	10.4	7.4	17.8	10.8	18	20.8	3.6	11.3
	비농어가	(1,846)	85.1㎡	12.6	3.7	14.3	18.7	11.5	11.5	14.4	13.4
주택 유형	비아파트	(1,710)	81.7㎡	15.7	7.2	19.7	8.4	15.9	18.3	3.7	11.1
	아파트	(1,044)	90.1㎡	5.6	1.1	8.4	28.7	10.1	8.3	22.4	15.3
주택 건축 년도	1980년대 이전	(690)	72.4㎡	22.7	9.0	27.1	9.6	12.3	11.7	2.1	5.4
	1990년대	(1,006)	85.6㎡	7.1	3.0	13.4	27.2	15.7	15.7	9.1	8.8
	2000년대 이후	(964)	95.2㎡	6.1	3.5	10.3	9.8	13.0	16.2	18.3	22.9
도시 (1,193)			84.3㎡	20.1	9.4	11.6	14.7	6.5	4.2	18.1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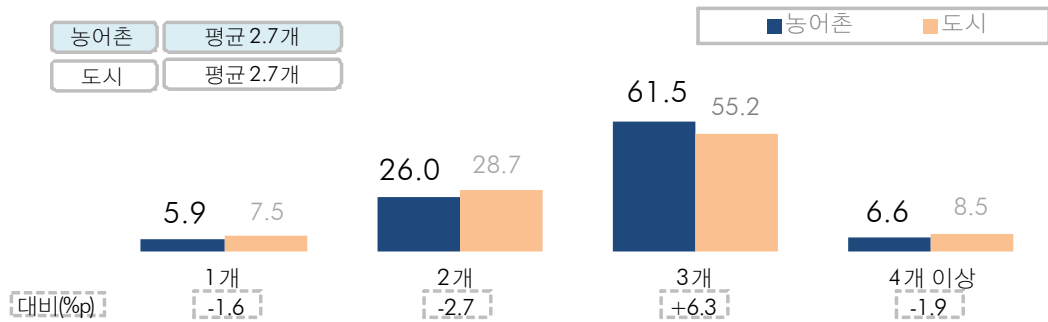
방 개수는 평균 2.7개

방 개수로 '3개'(61.5%)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개'(26.0%), '4개 이상'(6.6%), '1개'(5.9%) 등 평균 방 개수는 2.7개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3개' 비중이 약간 높았으나(+6.3p), 평균 방 개수는 2.7개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그림6-05 | 방 개수

단위 : %



| 표6-05-(2) | 방 개수

단위 : %(명)

구분			평균	1개	2개	3개	4개 이상
농어촌 (2,755)			2.7개	5.9	26.0	61.5	6.6
읍/면	읍	(1,222)	2.7개	6.7	22.8	65.4	5.1
	면	(1,534)	2.7개	5.2	28.6	58.4	7.8
영농 여부	농어가	(910)	2.8개	2.3	24.1	64.4	9.1
	비농어가	(1,846)	2.6개	7.6	26.9	60.1	5.3
총 가구원 수	1명	(515)	2.2개	20.9	42.4	34.1	2.6
	2명	(898)	2.7개	3.9	28.0	61.1	6.9
	3명	(497)	2.8개	2.2	22.2	69.3	6.3
	4명	(606)	2.9개	1.3	17.6	74.1	7.0
	5명	(170)	3.0개	0.5	13.1	76.3	10.1
	6명 이상	(70)	3.2개		10.3	67.9	21.8
도시 (1,189)			2.7개	7.5	28.7	55.2	8.5

주택 여건

6.06 주택 시설 현황

귀책 주택의 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부엌(99.9%), 화장실(99.6%), 목욕시설(98.7%) 모두 '단독사용'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난방시설로 '기름보일러'(38.8%), '도시가스 보일러'(33.9%) 비중이 가장 높음



부엌(99.9%), 화장실(99.6%), 목욕시설(98.7%) 모두 '단독사용' 비중이 매우 높고

시설 종류로 '입식'(98.5%) 부엌, '수세식'(93.9%) 화장실, '온수'(98.7%) 화장실 비중이 매우 높음

부엌(99.9%), 화장실(99.6%), 목욕시설(98.7%) 모두 '단독사용'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화장실의 경우 평균 1.3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지역과 전반적인 시설 설치 현황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표6-06-(1) | 주택 시설 현황

단위: %(명)

구분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사례 수	단독사용	사례 수	단독사용	평균	1개	2개	3개	사례 수	단독사용
농어촌		(2,761)	99.9	(2,764)	99.6	1.3개	70.1	29.4	.6	(2,759)	98.7
읍/면	읍	(1,226)	100.0	(1,226)	99.8	1.4개	61.2	38.5	.3	(1,224)	99.4
	면	(1,535)	99.7	(1,537)	99.5	1.2개	77.0	22.1	.9	(1,535)	98.1
영농	농어가	(911)	99.9	(912)	99.6	1.2개	76.2	23.1	.6	(911)	98.7
여부	비농어가	(1,850)	99.8	(1,852)	99.7	1.3개	67.0	32.4	.6	(1,848)	98.7
도시		(1,186)	100.0	(1,184)	99.7	1.4개	62.3	37.6	.1	(1,185)	99.6

시설 종류로 부엌의 경우 '입식'(98.5%), 화장실의 경우 '수세식'(93.9%), 목욕시설의 경우 '온수'(98.7%)가 대부분이었다. 도시에 비해, '입식', '수세식', '온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 표6-06-(2) | 주택 시설 종류

단위: %(명)

구분		부엌			화장실			목욕 시설		
		사례수	입식	재래식	사례수	수세식	재래식	사례수	온수	비온수
농어촌		(2,748)	98.5	1.5	(2,741)	93.9	6.1	(2,717)	98.7	1.3
읍/면	읍	(1,220)	99.2	.8	(1,212)	96.8	3.2	(1,211)	99.6	.4
	면	(1,528)	97.9	2.1	(1,530)	91.6	8.4	(1,505)	98.1	1.9
영농	농어가	(910)	98.7	1.3	(907)	91.8	8.2	(900)	98.3	1.7
여부	비농어가	(1,838)	98.4	1.6	(1,834)	95.0	5.0	(1,816)	99.0	1.0
도시		(1,190)	99.9	.1	(1,187)	99.4	.6	(1,185)	99.9	.1

난방시설로 '기름보일러'(38.8%), '도시가스 보일러'(33.9%) 비중이 가장 높음

난방시설의 경우 '기름보일러'(38.8%), '도시가스 보일러'(33.9%)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기보일러'(11.2%), '프로판가스(LPG) 보일러'(6.2%), '연탄보일러'(3.0%), '지역난방'(1.9%) 순이었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도시가스 보일러'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기름보일러' 비중이 높고, '전기보일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기름보일러'(+35.2%p), '전기보일러'(+10.6%p) 비중이 높은 반면, '도시가스 보일러'(-36.0%p), '지역난방'(-13.7%p), '중앙난방'(-9.0%p) 비중은 낮았다.

| 표6-06-(3) | 난방 시설 유형

단위 : %(명)

구분		중앙 난방	지역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가스 (LPG)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재래식 아궁이	기타
농어촌 (2,737)		.8	1.9	33.9	38.8	6.2	11.2	3.0	.6	3.6
읍/면	읍 (1,221)	1.2	2.5	55.7	23.3	9.3	3.8	1.9	.1	2.2
	면 (1,516)	.4	1.5	16.4	51.2	3.7	17.2	3.9	.9	4.8
영농 여부	농어가 (902)	.6	.1	3.0	59.4	3.0	20.0	5.5	.8	7.5
	비농어가 (1,834)	.9	2.9	49.1	28.6	7.8	6.9	1.8	.5	1.7
도시 (1,189)		9.8	15.6	69.9	3.6	.2	.6	.2		.1

주택 여건

6>07 난방비 지출 기간 및 월평균 지출 금액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난방비 지출 시작 월은 '11월'(48.5%), 종료 월은 '3월'(47.2%) 비중이 높으며, 월 평균 난방비는 19.7만원

 난방비 지출 시작 월은 '11월'(48.5%), 종료 월은 '3월'(47.2%) 비중이 높음

난방비 지출 시작 월은 '11월'(48.5%), '10월'(36.0%), '12월'(10.6%) 등 [10월-12월](95.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종료 월은 '3월'(47.2%), '4월'(24.6%), '2월'(16.8%) 등 [2월-4월](88.6%)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원지역에서 난방비 지출 기간이 약간 긴 반면, 제주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짧았다.

| 표6-07-(1) | 난방비 지출 기간

단위 : %

구분		난방비 지출 기간	난방비 지출 시작 월			난방비 지출 종료 월		
		평균	10월	11월	12월	2월	3월	4월
농어촌		4.5개월	36.0	48.5	10.6	16.8	47.2	24.6
읍/면	읍	4.5개월	37.0	50.3	10.0	17.1	47.3	23.9
	면	4.5개월	35.2	47.0	11.1	16.6	47.2	25.2
영농 여부	농어가	4.5개월	36.4	49.3	9.2	20.8	49.5	22.7
	비농어가	4.5개월	35.8	48.0	11.3	14.8	46.1	25.5
지역	경기	4.6개월	45.2	38.7	14.5	26.0	37.2	19.8
	강원	5.3개월	51.3	34.2	8.5	5.8	31.5	51.5
	충북	4.2개월	20.1	76.7	1.7	21.8	58.6	15.4
	충남	4.8개월	60.6	24.5	7.0	5.0	77.3	12.3
	전북	4.7개월	39.2	44.6	6.4	20.1	45.7	30.4
	전남	4.1개월	20.4	57.1	11.6	39.2	39.4	18.6
	경북	4.5개월	19.1	77.9	2.1	7.2	59.2	30.6
	경남	4.3개월	32.5	40.2	22.3	7.6	31.3	30.6
	제주	3.8개월	19.6	54.3	19.4	44.8	28.0	15.6
도시		4.4개월	34.6	47.2	12.7	20.2	42.4	20.5

월 평균 난방비는 19.7만원

농어촌 지역의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은 19.7만원으로 도시에 비해 월 평균 5.2만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6-07-(2) |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단위: (명)만원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2,698)	19.7	(1,163)	14.5
읍/면	읍	(1,209)	17.8	-	-
	면	(1,489)	21.3	-	-
영농 여부	농어가	(886)	24.2	-	-
	비농어가	(1,811)	17.5	-	-

도시 지역의 주된 난방형태인 도시가스 보일러 이용층은 월평균 13.2만원, 농어촌 지역의 주된 난방형태인 기름보일러 이용층은 월평균 23.6만원의 난방비를 지출하여 약 10.4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표6-07-(3) |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난방시설 종류별)

단위: (명)만원

구분		농어촌		도시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합계		(2,698)	19.7	(1,163)	14.5
난방시설 종류	중앙난방	(22)	16.0	(109)	20.2
	지역난방	(51)	14.1	(161)	15.2
	도시가스 보일러	(919)	14.6	(731)	13.2
	기름보일러	(1,056)	23.6	(32)	26.4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168)	16.9		
	전기보일러	(289)	24.6	(5)	19.0

월 평균 난방비 지출금액에 연 평균 난방비 지출기간을 곱한 연 평균 난방비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88.7만원으로 도시에 비해 24.9만원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지역별로는 강원, 충남, 전북 지역에서 연 평균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지역에서 가장 적게 들었다.

| 표6-07-(4) | 지역별 연 평균 난방비

구분		연 평균 난방비 지출 기간	월 평균 난방비	연 평균 난방비
농어촌		4.5개월	19.7만원	88.7만원
지역	경기	4.6개월	20.1만원	92.2만원
	강원	5.3개월	25.1만원	133.2만원
	충북	4.2개월	20.4만원	85.7만원
	충남	4.8개월	24.3만원	116.6만원
	전북	4.7개월	23.2만원	108.9만원
	전남	4.1개월	15.5만원	63.5만원
	경북	4.5개월	18.6만원	83.7만원
	경남	4.3개월	16.6만원	71.6만원
	제주	3.8개월	12.5만원	47.5만원
도시		4.4개월	14.5만원	63.8만원

주택 여건

6>08 주택 신·개축 의향

(1) 주택 신·개축 의사 및 예상 시기

귀하께서는 주택을 향후 신축하거나 개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향후 주택 신·개축 의향층이 6.9%, 예상 시기는 평균 4.7년 후

향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난 가운데, 예상 시기(n=178)로 '4~5년 후'(30.3%)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년 이후'(20.7%), '1년 후'(17.0%), '3년 후'(16.5%), '2년 후'(15.5%) 순으로 평균 예상 시기는 4.7년 후였다.

주택 노후정도가 농어가에 비해 덜했던 비농어가에서 '6년 이후' 등 평균 예상시기(4.9년 후)가 늦었다.

도시에 비해, [1~2년 후] 비중이 낮음(-20.3%p) 반면, [3년 이후] 비중이 높아(+20.4%p) 평균 예상 시기가 약간 길었다.

| 표6-08-(1) | 주택 신·개축 의사 및 예상 시기

단위: %(명)

구분		의향층	예상 시기					
			평균	1년 후	2년 후	3년 후	4~5년 후	6년 이후
농어촌 (2,764)		6.9	4.7년 후	17.0	15.5	16.5	30.3	20.7
읍/면	읍 (1,226)	7.5	4.7년 후	19.8	16.7	14.2	24.6	24.8
	면 (1,538)	6.3	4.7년 후	14.3	14.3	18.7	35.9	16.7
영농 여부	농어가 (912)	7.9	4.3년 후	22.4	13.4	14.4	38.4	11.4
	비농어가 (1,852)	6.3	4.9년 후	13.4	16.9	17.9	24.9	26.9
도시 (1,194)		5.7	3.8년 후	24.5	28.3	11.0	17.3	18.8

* 예상 시기는 의향층(n=178)을 기준으로 분석 (시기별 합이 100.0%)

(2) 주택 신·개축 시 자금마련 방법

귀하께서는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주택 신·개축 의향층(농어촌 가구(n=191)/도시 가구(n=68))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돈을 모아 목돈 마련’(55.0%)이 주된 자금마련 방법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자금 마련 방법으로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겠다’(55.0%)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22.5%),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겠다’(11.6%), ‘가족/친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3.6%) 순이었다. 한편, “저축과 융자”, “부동산 처분” 등 ‘기타’는 7.3%였다.

영농여부에 관계없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겠다’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농어가에서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 비농어가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겠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 비중이 약간 높았다(+6.6%p).

| 표6-08-(2) | 주택 신·개축 시 자금마련 방법

단위: %(명)

구분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겠다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	금융기관으로 부터 용자를 받겠다	가족/친지로 부터 도움을 받겠다	기타
농어촌 (188)		55.0	22.5	11.6	3.6	7.3
읍/면	읍 (90)	50.7	20.2	17.4	2.9	9.0
	면 (97)	59.1	24.6	6.2	4.3	5.8
영농 여부	농어가 (72)	52.8	31.6	7.8	4.8	3.0
	비농어가 (115)	56.3	16.8	14.0	2.8	10.0
도시 (65)		57.1	15.9	12.9	3.2	10.9

생활여건

6>09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먹는 물 수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광역 및 지방 상수도'(71.8%)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먹는 물 수질에 [만족]하는 층이 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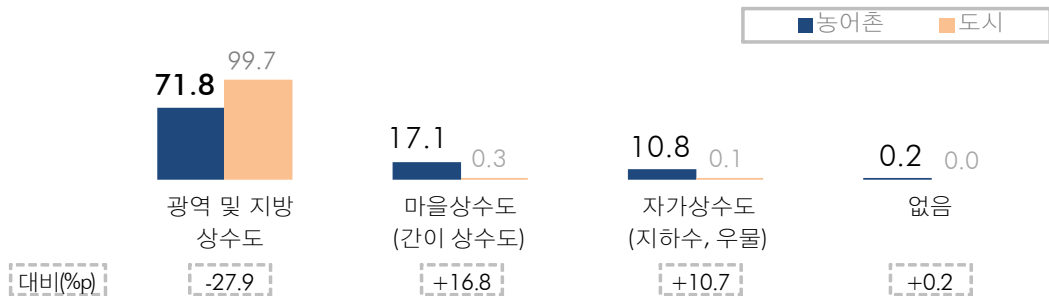
거주하고 있는 곳의 상수도 종류로 '광역 및 지방 상수도'(71.8%)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7.1%),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10.8%) 순이었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비중이 낮은(-27.9%p) 반면,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16.8%p),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10.7%p) 비중은 높았다.

| 그림6-09-(1) | 상수도 종류

단위: %



| 표6-09-(1) | 상수도 종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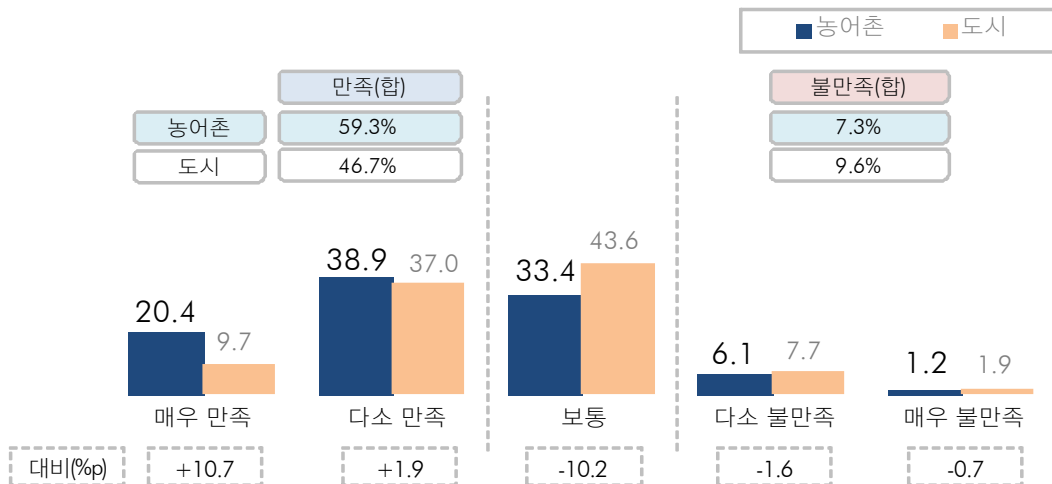
구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 (간이 상수도)	자가상수도 (지하수, 우물)	없음
농어촌 (2,749)		71.8	17.1	10.8	.2
읍/면	읍 (1,223)	85.8	9.3	4.6	.3
	면 (1,525)	60.6	23.4	15.9	.1
영농 여부	농어가 (904)	49.3	30.0	20.7	
	비농어가 (1,845)	82.9	10.8	6.0	.3
도시 (1,193)		99.7	.3	.1	

먹는 물 수질에 대해 ‘다소 만족’(38.9%) 등 [만족]하는 층이 절반 이상(59.3%)이었으며, ‘다소 불만족’(6.1%) 등 [불만족](7.3%) 비중은 낮았다. 광역 및 지방 상수도,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층에서 [만족]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자가상수도 사용층에서 [불만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높았다(+12.6%p).

| 그림6-09-(2) | 먹는 물 수질 만족도

단위 : %



| 표6-09-(2) | 먹는 물 수질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49)			20.4	38.9	59.3	33.4	6.1	1.2	7.3
읍/면	읍	(1,220)	18.3	39.3	57.6	35.6	6.4	.4	6.8
	면	(1,528)	22.1	38.6	60.7	31.6	5.8	1.9	7.7
영농 여부	농어가	(907)	23.7	37.8	61.5	30.2	6.3	1.9	8.2
	비농어가	(1,842)	18.8	39.5	58.3	35.0	6.0	.8	6.8
상수도 종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1,968)	21.8	39.6	61.4	33.8	4.3	.5	4.8
	마을상수도	(468)	18.3	43.9	62.2	30.5	6.9	.3	7.2
	자가상수도	(297)	14.1	26.9	41.0	35.5	16.6	6.9	23.5
도시 (1,191)			9.7	37.0	46.7	43.6	7.7	1.9	9.6

생활여건

6>10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하수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공공하수처리시설’(78.2%)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하수처리에 대해 [만족]하는 층이 55.4%

‘공공하수처리시설’(78.2%) 비중이 ‘개인하수처리시설’(15.5%)에 비해 높았으며, 하수처리 시설이 없다는 응답도 6.3%였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가에서 ‘없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시에 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비중이 낮은(-20.3%p) 반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비중은 높았다(+14.2%p).

| 그림 6-10-(1) | 하수도 종류

단위 : %



| 표 6-10-(1) | 하수도 종류

단위 : %(명)

구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없음
농어촌 (2,751)		78.2	15.5	6.3
읍/면	읍 (1,220)	86.3	10.0	3.8
	면 (1,530)	71.8	20.0	8.3
영농여부	농어가 (906)	58.0	29.0	13.0
	비농어가 (1,844)	88.1	8.9	3.0
도시 (1,192)		98.5	1.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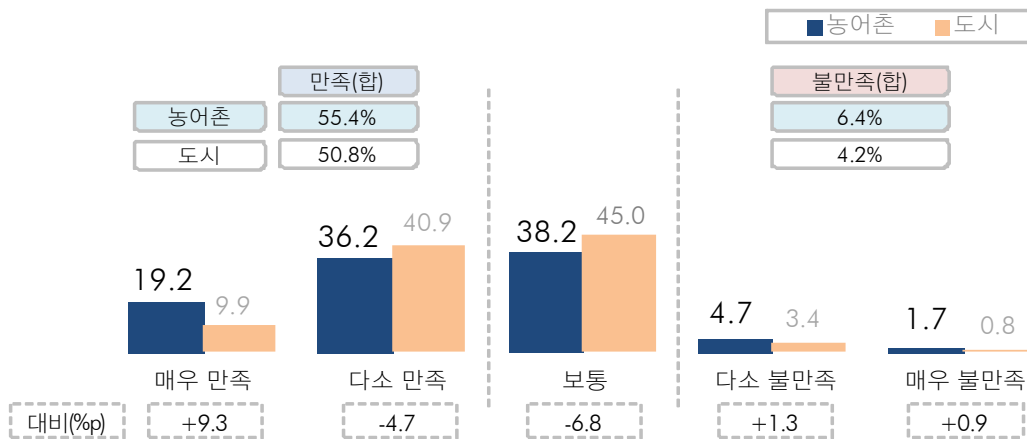
하수 처리에 대해 ‘다소 만족’(36.2%) 등 [만족]하는 층이 절반 이상(55.4%)이었으며, ‘다소 불만족’(4.7%) 등 [불만족](6.4%) 비중은 낮았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용층에서 [만족] 비중이 더욱 높은 반면, 농어가, 하수처리시설 없는 층에서 [불만족]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약간 높았다(+4.6%p).

| 그림6-10-(2) |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



| 표6-10-(2) |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695)			19.2	36.2	55.4	38.2	4.7	1.7	6.4
읍/면	읍	(1,200)	21.8	38.5	60.3	36.3	2.4	.9	3.3
	면	(1,495)	17.1	34.3	51.4	39.7	6.5	2.4	8.9
영농 여부	농어가	(876)	14.8	33.9	48.7	39.7	8.9	2.7	11.6
	비농어가	(1,819)	21.3	37.2	58.5	37.5	2.7	1.3	4.0
하수도 종류	공공하수처리시설	(2,118)	23.6	40.8	64.4	33.3	1.8	.5	2.3
	개인하수처리시설	(413)	4.1	24.4	28.5	56.5	11.9	3.1	15
	없음	(157)	.8	3.9	4.7	55.8	24.6	14.9	39.5
도시 (1,189)			9.9	40.9	50.8	45.0	3.4	.8	4.2

생활여건

6>11 쓰레기 처리 방법

귀댁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사용'(78.0%),
음식물쓰레기(61.4%), 재활용품(86.6%), 폐영농자재(63.5%)는 '분리배출'이 주된 처리 방법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봉투 사용'(78.0%), '소각'(19.2%),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61.4%), '매립'(20.1%), "퇴비", "사료" 등 '기타'(12.2%), 재활용품의 경우 '분리배출'(86.6%), '소각'(9.5%), 폐영농자재(농어가)의 경우 '분리배출'(63.5%), '소각'(28.5%) 비중이 높아 대체로 '종량제 봉투 사용' 및 '분리배출'을 생활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아파트 거주층에서 '종량제 봉투 사용', '분리배출' 비중이 더욱 높았다.

도시에 비해, '종량제 봉투사용' 및 '분리배출' 비중이 낮은 반면, '매립'이나 '소각' 비중은 높았다.

| 표6-11 | 쓰레기 처리 방법

단위: %

구분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폐영농자재 (농어가)	
		종량제 봉투	소각	분리 배출	매립	기타	분리 배출	소각	분리 배출	소각
농어촌		78.0	19.2	61.4	20.1	12.2	86.6	9.5	63.5	28.5
읍/면	읍	90.5	7.9	81.8	7.4	7.0	95.4	3.3	73.7	17.9
	면	68.0	28.2	45.1	30.2	16.3	79.6	14.3	60.9	31.2
영농 여부	농어가	56.5	38.3	26.9	36.7	25.8	77.0	16.6	63.5	28.5
	비농어가	88.6	9.7	78.3	12.0	5.5	91.3	6.0	-	-
아파트 여부	비아파트	65.3	30.6	39.9	32.0	19.2	80.3	14.9	62.6	29.3
	아파트	98.9	.5	96.6	.7	.7	97.0	.5	86.6	8.7
도시		99.3	.0	98.7	.2	.3	98.8		-	-

* 농어촌 기준 5.0% 미만은 제시하지 않음

생활여건

6>12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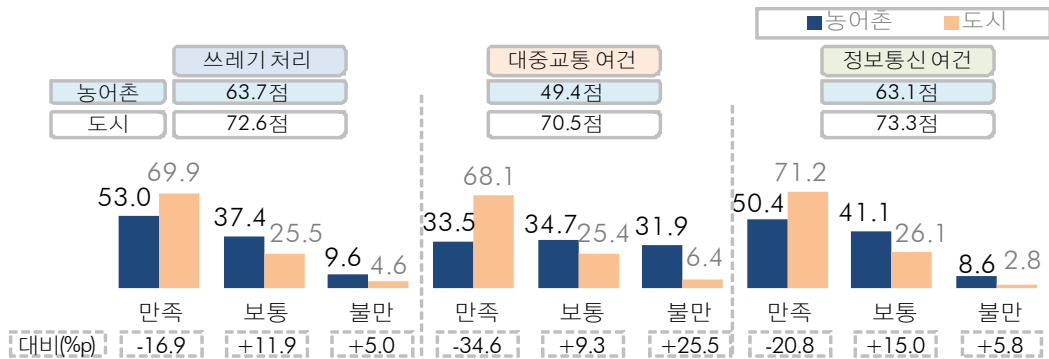
▶ '대중교통 여건'(49.4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음

'쓰레기 처리'(63.7점), '정보통신 여건'(63.1점)에 대해 [만족]한다는 층이 절반 이상인 반면, [불만족]하는 층은 10% 미만으로 '약간 만족하는 수준'의 평가를 보인 반면, '대중교통 여건'에 대해서는 [만족](33.5%)과 [불만족](31.9%) 비중이 비슷한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태도가 약했다(49.4점).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21.1점), '정보통신 여건'(-10.2점), '쓰레기 처리'(-8.9점) 등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보였다.

| 그림 6-12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단위 : %



| 표 6-12 |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여건		정보통신여건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농어촌		(2,745)	63.7점	(2,750)	49.4점	(2,738)	63.1점
읍/면	읍	(1,219)	67.4점	(1,220)	53.0점	(1,212)	66.4점
	면	(1,526)	60.8점	(1,531)	46.6점	(1,526)	60.4점
영농 여부	농어가	(901)	60.0점	(907)	46.3점	(901)	59.7점
	비농어가	(1,844)	65.5점	(1,844)	51.0점	(1,837)	64.7점
도시		(1,192)	72.6점	(1,193)	70.5점	(1,193)	73.3점

생활여건

6>13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1순위×2+2순위×1로 가중치 부여]

▶ 'CCTV 설치 확대'(20.1%)가 주된 필요 사항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CCTV 설치 확대'(20.1%)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아울러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18.6%), '가로등 확충'(16.6%) 비중도 높았다.

다음으로 '노후건물, 시설 등 보수'(12.0%), '도로 안전시설 확충'(11.7%), '경찰순찰 확대'(7.0%) 순이었으며,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은 12.1%였다.

도시에 비해, '가로등 확충'(+6.3%p) 비중이 약간 높은 반면,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비중은 낮았다(-8.6%p).

읍지역 거주층, 연령대가 낮을수록 'CCTV 설치 확대' 비중이 높은 반면,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비중이 높았다.

| 표6-13 |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구분		도로 안전시설 확충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	가로등 확충	CCTV 설치 확대	경찰 순찰 확대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기타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농어촌 (2,758)		11.7	18.6	16.6	20.1	7.0	12.0	2.0	12.1
읍/면	읍 (1,222)	10.9	18.3	14.2	23.4	9.5	8.5	2.0	13.2
	면 (1,536)	12.3	18.7	18.5	17.5	5.1	14.7	2.0	11.2
영농 여부	농어가 (910)	11.9	16.3	17.6	18.1	4.1	18.2	1.7	12.2
	비농어가 (1,848)	11.6	19.7	16.1	21.1	8.5	8.9	2.1	12.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9)	9.9	21.3	12.6	28.1	10.0	6.1	2.3	9.6
	40대 (537)	11.4	20.9	15.9	22.2	8.8	9.0	1.4	10.4
	50대 (553)	12.3	15.7	18.0	22.5	6.9	11.2	2.1	11.2
	60대 (492)	11.6	18.1	18.5	17.8	5.6	13.4	3.1	11.9
	70대 이상 (658)	12.9	17.3	17.4	12.0	4.2	18.6	1.3	16.2
도시 (1,193)		8.9	16.3	10.3	21.9	9.4	10.6	1.9	20.7

생활여건

6.14 이주 의향

(1) 이주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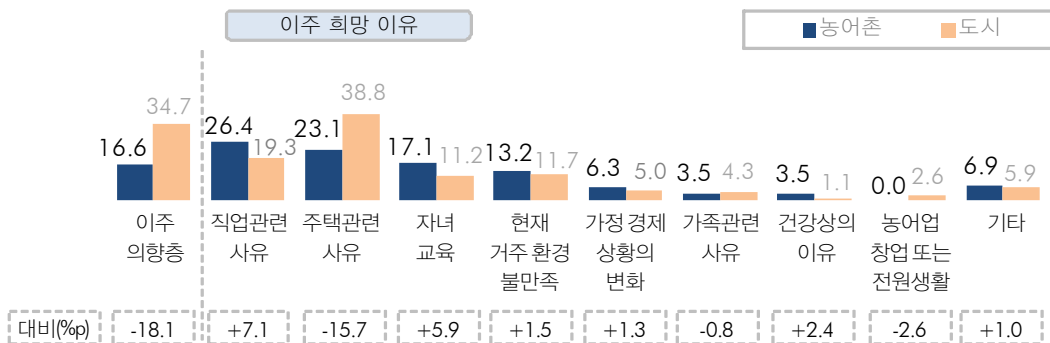
- ▶ 이주 의향이 '있다'(9.4%), '반반이다'(7.2%) 등 이주 의향이 있는 층이 16.6%
- ▶ '직업 관련 사유'(26.4%) 및 '주택 관련 사유'(23.1%)가 의향층의 주된 이주 희망 이유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이주할 의향이 '있다'(9.4%), '반반이다'(7.2%) 등 의향층이 16.6%로 나타난 가운데, 의향층(n=415)의 이주 희망 이유로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26.4%),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23.1%)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자녀교육 때문에'(17.1%), '현재 거주환경이 불만족스러워서'(13.2%),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6.3%),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건강상의 이유로'(각 3.5%) 순이었다. 한편, "개발지역", "세종시 때문에 철거됨" 등 '기타'는 6.9%였다.

도시(34.7%)에 비해, 의향층이 적은(-18.1%p) 가운데, 의향층의 이주 희망 이유로 '주택 관련 사유' 비중이 낮은(-15.7%p) 반면, '직업 관련 사유'(+7.1%p), '자녀교육 때문에'(5.9%p) 비중은 약간 높았다.

| 그림6-14 |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4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주 의향층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이주 의향 이유로 비농어가에서 ‘직업 관련 사유’가 높은 반면, 농어가에서 ‘현재 거주 환경이 불만족’ 비중이 높았다.

연령대별로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직업 관련 사유’ 비중이 높고, 3040대 연령층에서 ‘자녀교육 때문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4060대 연령층에서 ‘주택 관련 사유’, ‘현재 거주 환경 불만족’ 비중이 높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비중이 높았다.

| 표6-14-(1) | 이주 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의향층	이주 희망 이유							
			직업 관련 사유	주택 관련 사유	자녀 교육 때문에	현재 거주 환경 불만족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로	가족 관련 사유	건강 상의 이유로	기타
농어촌 (2,756)		16.6	26.4	23.1	17.1	13.2	6.3	3.5	3.5	6.9
읍/면	읍 (1,224)	23.9	28.3	24.1	18.2	11.8	4.9	3.1	3.5	6.1
	면 (1,533)	10.6	22.9	21.3	15.0	15.8	8.8	4.3	3.6	8.4
영농 여부	농어가 (910)	6.4	15.8	17.6	16.5	22.9	5.9	3.8	8.4	9.1
	비농어가 (1,846)	21.5	28.0	23.9	17.1	11.8	6.3	3.4	2.8	6.6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31.3	44.8	16.2	25.3	7.2	1.0	1.0	1.0	3.5
	40대 (535)	31.1	16.8	30.7	20.3	15.3	9.0	1.6	.9	5.3
	50대 (553)	14.4	17.0	23.4	2.1	22.1	8.5	7.7	9.7	9.4
	60대 (492)	5.4	8.2	22.4	.8	21.0	14.5	11.9	7.0	14.3
	70대 이상 (659)	3.1	21.4	13.1		3.9	8.3	13.3	20.1	19.9
도시 (1,193)		34.7	19.3	2.6	1.1	11.2	4.3	38.8	5.0	11.7

(2) 이주 희망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주 의향층(농어촌 가구(n=456)/도시 가구(n=41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다른 시의 동지역으로’(29.6%),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다른 곳’(29.0%)이 주된 희망 지역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다른 곳으로’(29.0%),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13.8%), ‘현재 살고 있는 면에서 읍으로’(13.1%),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10.6%) 등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는 층이 66.5%, ‘다른 시의 동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층이 29.6%, 해외 파견, 이민 등 ‘기타’가 3.9%였다.

도시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시 내의 다른 주택(다른 동지역)’(65.3%)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다른 시의 동지역으로’(26.2%) 등 도시 지역으로의 이주가 91.5%,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층은 6.4%였다.

| 표6-14-(2)-① | 이주 희망 지역(농어촌) 단위: %(명)

구분			(현)농어촌 → 농어촌				(현)농어촌 → 도시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현재 살고 있는 면에서 읍으로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다른 곳으로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다른 시의 동 지역으로	
농어촌 (420)			13.1	13.8	29.0	10.6	29.6	3.9
읍/면	읍 (274)		12.0	14.2	26.3	12.1	30.9	4.4
	면 (146)		15.2	13.0	34.0	7.6	27.0	3.1
영농 여부	농어가 (55)		11.7	29.5	24.3	17.1	17.1	.3
	비농어가 (365)		13.3	11.5	29.7	9.6	31.5	4.5

| 표6-14-(2)-② | 이주 희망 지역(도시) 단위: %(명)

구분	(현)도시 → 도시		(현)도시 → 농어촌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주택 (다른 동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지역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	
도시 (390)	65.3	26.2	6.4	2.2

생활여건

6>15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25.6%) 비중이 [불만족](20.5%)에 비해 약간 높아 생활여건에 대해 '보통 수준'(51.0점)의 평가

'다소 만족'(22.5%) 등 [만족](25.6%) 비중이 '다소 불만족'(16.3%) 등 [불만족](20.5%)에 비해 약간 높아 '보통 수준'(51.0점)의 평가를 보인 가운데, 읍지역 거주층, 이주의향 없는 층에서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낮은(-15.3%p) 반면, '보통'+(+8.1%p), [불만족]+(+7.2%p)은 높아 만족도가 낮았다(-6.8점).

| 표6-15 |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0)			51.0점	3.1	22.5	25.6	53.9	16.3	4.2	20.5
읍/면	읍	(1,219)	52.3점	4.3	24.6	28.9	51.1	16.2	3.9	20.0
	면	(1,531)	49.9점	2.1	20.8	22.9	56.2	16.4	4.5	20.9
영농 여부	농어가	(907)	49.8점	2.6	21.6	24.2	54.0	16.0	5.8	21.8
	비농어가	(1,843)	51.6점	3.3	22.9	26.2	53.9	16.4	3.5	19.8
응답자 성	남성	(1,202)	50.3점	3.3	21.9	25.2	53.0	16.4	5.5	21.8
	여성	(1,543)	51.5점	3.0	22.8	25.7	54.8	16.2	3.3	19.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50.3점	1.2	23.5	24.7	54.3	17.0	4.0	21.0
	40대	(535)	50.1점	3.2	19.8	23.0	55.6	17.0	4.4	21.4
	50대	(553)	51.0점	2.9	25.0	27.8	50.6	16.4	5.1	21.6
	60대	(489)	51.9점	3.8	24.8	28.6	50.5	16.8	4.1	20.9
	70대 이상	(657)	51.5점	4.2	19.7	23.9	57.6	14.8	3.7	18.5
향후 5년 내 이주 의사	그렇다	(258)	49.0점	2.0	22.6	24.5	51.2	18.0	6.3	24.3
	반반이다	(197)	46.9점	.7	17.4	18.1	55.9	20.7	5.3	26.0
	그렇지 않다	(2,291)	51.6점	3.4	22.9	26.4	54.1	15.7	3.9	19.6
도시 (1,190)			57.8점	4.8	36.2	40.9	45.8	12.2	1.1	13.3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7

환경·경관 부문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7.01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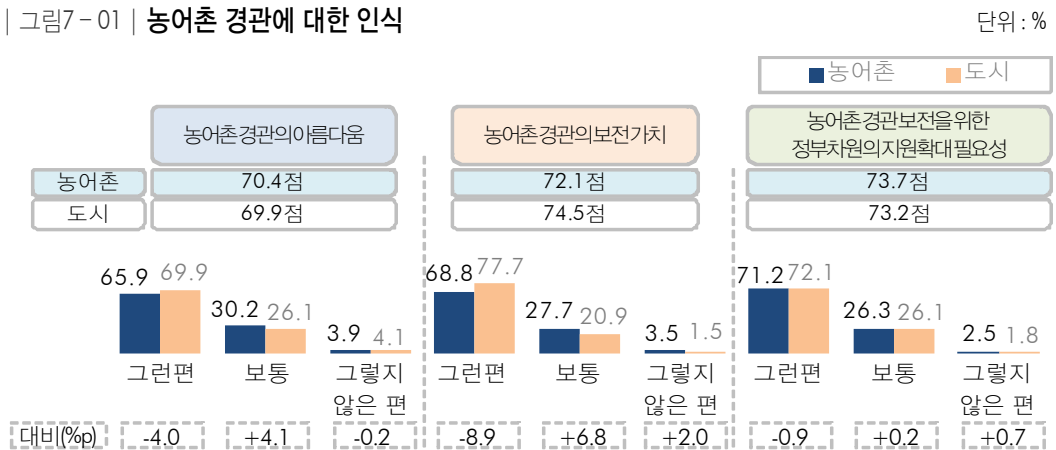
농어촌의 경관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농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73.7점) 동의도가 가장 높음

'농어촌 경관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73.7점), '농어촌 경관은 보전할만한 가치가 있다'(72.1점), '농어촌 경관은 아름답다'(70.4점) 등 농어촌 경관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층이 전반적으로 65% 이상이였으며, [그렇지 않은 편]이라는 층은 5% 미만으로 '다소 긍정적인 수준'의 평가를 보였다.

| 그림7-01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 표7-01 |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단위: (명)

구분		농어촌의 경관의 아름다움		농어촌 경관의 보전 가치		농어촌의 경관 보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농어촌		(2,758)	70.4점	(2,756)	72.1점	(2,753)	73.7점
읍/면	읍	(1,219)	74.9점	(1,220)	73.9점	(1,220)	71.0점
	면	(1,534)	72.7점	(1,536)	70.7점	(1,536)	70.0점
영농 여부	농어가	(910)	70.3점	(910)	71.8점	(910)	74.7점
	비농어가	(1,848)	70.5점	(1,846)	72.3점	(1,843)	73.1점
도시		(1,187)	69.9점	(1,187)	74.5점	(1,187)	73.2점

다원적 가치

7>02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다음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복수 응답 : 합계 100.0%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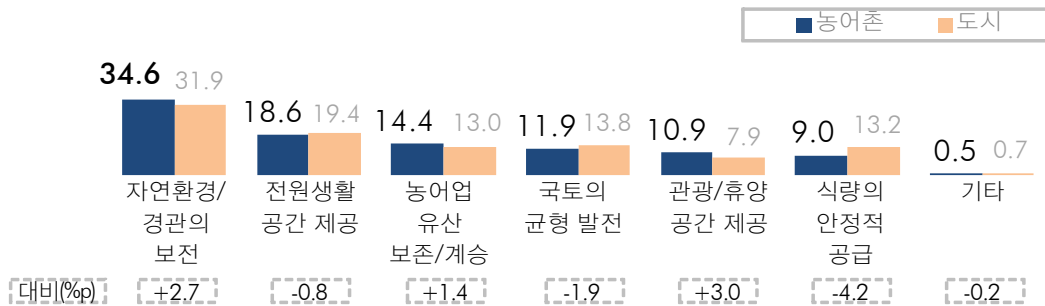
▶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4.6%)이 주된 가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자연환경/경관의 보전'(34.6%)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원생활 공간 제공'(18.6%),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14.4%), '국토의 균형 발전'(11.9%), '관광/휴양 공간 제공'(10.9%), '식량의 안정적 공급'(9.0%) 순이었다.

도시에 비해, '식량의 안정적 공급' 비중이 약간 낮은(4.2%p) 반면,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비중이 약간 높았다(+2.7%p).

| 그림7-02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단위 : %



| 표7-02 |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단위 : %(명)

구분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전원생활 공간 제공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관광/휴양 공간 제공	국토의 균형 발전	식량의 안정적 공급	기타
농어촌 (2,749)		34.6	18.6	14.4	11.9	10.9	9.0	0.5
읍/면	읍 (1,217)	35.5	17.8	13.3	13.4	11.5	8.0	0.5
	면 (1,531)	34.0	19.2	15.3	10.7	10.5	9.8	0.5
영농 여부	농어가 (908)	33.5	17.3	18.5	9.2	10.6	10.5	0.3
	비농어가 (1,841)	35.2	19.2	12.4	13.2	11.1	8.3	0.6
도시 (1,187)		31.9	19.4	13.0	13.8	7.9	13.2	0.7

다원적 가치

7>03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자연)환경·경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40.7%) 비중이 [불만족](8.1%)에 비해 높아 '약간 만족하는 수준'(60.2점)의 평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경관에 대해 '다소 만족'(31.5%) 등 [만족] 비중이 40.7%인 반면, [불만족]은 8.1%에 그쳐 조사 부문 중 가장 높은 만족도(60.2점)를 보였다. 읍지역 거주층, 5·60대 연령층에서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도시에 비해, [불만족] 비중이 낮아(-8.4%p) 만족도가 높았다(+4.5점).

| 표7-03 |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8)			60.2점	9.1	31.5	40.7	51.2	7.2	.9	8.1
읍/면	읍	(1,224)	61.1점	9.3	35.4	44.7	46.8	7.6	1.0	8.5
	면	(1,535)	59.4점	9.0	28.5	37.4	54.7	6.9	.9	7.8
영농 여부	농어가	(910)	60.4점	10.6	29.2	39.9	52.4	6.7	1.1	7.7
	비농어가	(1,848)	60.1점	8.4	32.7	41.1	50.6	7.5	.9	8.4
응답자 성	남성	(1,206)	60.5점	9.9	31.7	41.6	50.5	6.7	1.3	8.0
	여성	(1,546)	59.9점	8.5	31.4	39.9	51.8	7.6	.7	8.3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0)	58.0점	6.1	32.3	38.4	51.3	8.2	2.1	10.4
	40대	(535)	59.6점	7.1	33.3	40.4	51.2	7.9	.5	8.4
	50대	(552)	61.9점	11.4	32.1	43.5	50.3	5.1	1.2	6.3
	60대	(491)	61.7점	11.8	32.6	44.4	46.8	8.1	.7	8.8
	70대 이상	(658)	60.0점	9.4	28.7	38.1	55.0	6.4	.4	6.9
도시 (1,191)			55.7점	3.8	33.3	37.1	46.4	14.8	1.7	16.5

지역역량 부문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의식

지역개발사업

8>0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발전된 편](13.9%) < [낙후된 편](36.5%)

‘발전된 편임’(13.1%) 등 [발전된 편](13.9%)에 비해 ‘낙후된 편임’(32.3%) 등 [낙후된 편](36.5%) 비중이 높은 가운데,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낙후된 편] 비중이 높았다.

도시에 비해, [발전된 편] 비중이 낮은(-19.3%p) 반면, [낙후된 편] 비중이 높았다(+13.0%p).

| 표8-01 |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발전된 수준	발전된 편임	발전된 편 (합)	보통임	낙후된 편임	매우 낙후되어 있음	낙후된 편 (합)
농어촌 (2,754)		.9	13.1	13.9	49.5	32.3	4.2	36.5
지역	읍 (1,223)	.7	16.0	16.7	53.6	27.5	2.2	29.7
	면 (1,531)	1.0	10.8	11.7	46.3	36.2	5.8	42.0
영농 여부	농어가 (909)	1.0	10.5	11.5	45.5	37.5	5.4	42.9
	비농어가 (1,845)	.8	14.4	15.1	51.5	29.8	3.6	33.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8)	0.2	11.2	11.5	50.3	35.1	3.0	38.2
	40대 (537)	1.0	17.1	18.2	49.8	27.7	4.4	32.0
	50대 (551)	0.9	9.5	10.4	51.8	32.6	5.2	37.9
	60대 (492)	0.8	13.8	14.5	45.0	36.3	4.2	40.4
	70대 이상 (657)	1.3	13.9	15.1	49.6	31.1	4.2	35.3
도시 (1,188)		2.5	30.7	33.2	43.3	21.1	2.4	23.5

지역개발사업

8>02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사업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에 마을공동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마을공동사업 경험률은 10% 미만, 향후 참여 의향률은 20% 내외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사업’(9.0%)이나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7.6%)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 농어촌 가구의 10% 미만으로 나타난 가운데,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험률이 높았다.

한편, ‘마을공동사업’(20.3%)과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19.6%)에 대한 향후 참여 의향률은 20% 내외 수준으로 경험률에 비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험률과 마찬가지로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5-60대 연령층에서 더 높았다.

| 표8-02 |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단위: %(명)

구분			마을공동사업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경험률	향후 참여의향률
합계 (2,764)			9.0	20.3	7.6	19.6
읍/면	읍	(1,226)	5.3	16.7	3.5	16.9
	면	(1,538)	12.0	23.1	10.9	21.8
영농 여부	농어가	(912)	18.1	33.6	15.9	31.7
	비농어가	(1,852)	4.6	13.7	3.6	13.7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11)	.9	11.6	.9	13.1
	40대	(538)	4.9	18.8	3.8	19.0
	50대	(554)	10.7	25.9	9.2	25.1
	60대	(493)	13.2	25.0	10.9	22.9
	70대 이상	(659)	14.4	20.2	12.2	18.5

지역개발사업

8>03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마을공동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에 ‘약간 공감하는 수준’(62.8점)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된다’(63.0점), ‘마을공동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62.0점),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61.1점) 등 ‘마을공동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약간 공감하는 수준’(62.8점)의 견해를 보였다.

농어가, 50대 이상 연령층,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층 및 향후 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에서 전반적으로 공감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 표8-03-(1)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단위: (명)

구분		주민 소득 증대 도움 정도					생활 환경 개선 도움 정도				
		사례수	평균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사례수	평균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합계		(2,755)	61.1점	46.1	45.8	8.1	(2,753)	62.0점	47.4	46.1	6.5
읍/면	읍	(1,220)	60.5점	45.3	46.5	8.3	(1,216)	61.6점	46.6	47.5	5.9
	면	(1,535)	61.7점	46.8	45.2	8.0	(1,535)	62.4점	47.9	45.1	7.0
영농 여부	농어가	(910)	64.3점	52.3	41.4	6.3	(910)	65.6점	54.8	39.5	5.7
	비농어가	(1,845)	59.6점	43.0	47.9	9.0	(1,841)	60.2점	43.7	49.4	6.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7)	57.6점	36.6	56.3	7.1	(507)	58.8점	40.5	52.6	6.9
	40대	(536)	58.9점	43.0	44.2	12.8	(534)	61.0점	46.0	46.1	7.9
	50대	(553)	62.7점	50.2	42.7	7.1	(551)	62.7점	49.5	43.6	6.9
	60대	(492)	62.6점	49.4	42.0	8.7	(492)	63.9점	51.7	42.4	6.0
	70대 이상	(659)	63.5점	50.6	43.9	5.5	(659)	63.6점	49.2	45.7	5.1
마을 공동사업	경험층	(250)	68.5점	65.8	26.2	8.0	(250)	70.7점	71.2	23.7	5.1
	비경험층	(2,505)	60.4점	44.1	47.7	8.1	(2,502)	61.1점	45.0	48.4	6.7
향후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	(560)	71.8점	73.1	21.9	5.0	(560)	73.8점	76.6	20.9	2.5
	참여 비의향층	(2,195)	58.4점	39.2	51.8	8.9	(2,192)	59.0점	39.9	52.6	7.5

| 표8-03-(2) |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단위: (명)

구분		주민 화합 도움 정도					전반적 마을 발전 도움 정도				
		사례수	평균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사례수	평균	그런 편 (합)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합)
합계		(2,751)	63.0점	49.7	44.1	6.2	(2,748)	62.8점	49.0	45.1	5.9
읍/면	읍	(1,216)	62.8점	50.1	44.1	5.8	(1,217)	62.7점	49.9	44.7	5.4
	면	(1,535)	63.2점	49.4	44.1	6.5	(1,533)	63.0점	48.2	45.4	6.3
영농 여부	농어가	(910)	66.8점	56.8	37.5	5.7	(909)	66.5점	55.8	38.6	5.6
	비농어가	(1,841)	61.2점	46.2	47.4	6.4	(1,841)	61.0점	45.6	48.3	6.1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7)	58.8점	38.9	54.4	6.7	(507)	59.3점	39.8	55.0	5.2
	40대	(534)	60.5점	45.7	45.6	8.7	(534)	61.3점	47.0	45.1	7.9
	50대	(551)	65.2점	55.5	38.9	5.6	(553)	64.5점	53.0	41.7	5.3
	60대	(492)	65.4점	56.3	37.4	6.3	(490)	64.2점	52.5	40.7	6.8
	70대 이상	(659)	65.1점	52.1	43.8	4.1	(658)	64.7점	52.2	43.2	4.6
마을 공동사업	경험층	(250)	74.1점	77.8	19.0	3.2	(248)	73.4점	73.7	21.9	4.5
	비경험층	(2,502)	61.9점	46.9	46.6	6.5	(2,502)	61.8점	46.5	47.4	6.1
향후마을 공동사업	참여 의향층	(560)	75.5점	81.3	16.8	1.9	(560)	75.5점	79.7	19.2	1.1
	참여 비의향층	(2,192)	59.9점	41.6	51.1	7.3	(2,190)	59.6점	41.1	51.7	7.1

지역개발사업

8>04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농어촌 산업 육성’(23.5%), ‘문화/여가/복지 여건 개선’(22.4%), ‘기초 주거환경 개선’(20.0%)이 가장 시급한 사업 분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읍/면)의 발전을 위해 ‘농어촌 산업 육성’(23.5%), ‘문화/여가/복지 여건 개선’(22.4%), ‘기초 주거환경 개선’(20.0%)이 가장 시급하다는 응답이었으며, 아울러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련 기반 정비’(15.9%) 비중 또한 높았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농어촌 산업 육성’,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련 기반 정비’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문화/여가/복지 여건 개선’ 비중이 높았다.

| 표8-04 |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단위: %(명)

구분			농어촌 산업 육성	문화/ 여가/ 복지 여건 개선	기초 주거 환경 개선	농수 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련 기반 정비	관광 휴양 자원 개발	주민 역량 강화	주민 공동체 복원	도시민 유치	기타
합계 (2,731)			23.5	22.4	20.0	15.9	6.7	4.4	2.9	1.8	2.3
지역	읍	(1,206)	16.5	34.2	18.2	12.6	6.4	4.9	3.7	1.6	1.9
	면	(1,525)	29.1	13.1	21.5	18.5	6.9	4.0	2.3	2.0	2.6
영농 여부	농어가	(906)	31.9	10.2	18.3	25.2	5.2	3.8	2.8	1.7	.9
	비농어가	(1,825)	19.4	28.4	20.9	11.3	7.4	4.7	3.0	1.9	3.0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98)	18.7	37.3	19.4	10.2	5.0	3.7	2.1	1.8	1.8
	40대	(529)	19.1	28.9	19.5	14.2	7.0	6.0	2.9	0.8	1.6
	50대	(547)	25.9	20.3	15.1	16.6	8.4	4.5	3.0	3.3	2.7
	60대	(490)	25.0	15.1	20.4	19.6	7.3	4.5	2.9	2.6	2.6
	70대 이상	(656)	27.2	13.1	24.7	18.4	5.9	3.5	3.5	0.9	2.7

이웃과의 관계

8.0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만족]한다는 의견이 48.7%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약간 만족하는 수준'(64.7점)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다소 만족'(34.1%), '매우 만족'(14.6%) 등 [만족] 비중이 48.7%로 매우 높은 반면, '다소 불만족'(3.6%) 등 [불만족]은 4.1%에 불과하여 '약간 만족하는 수준'(64.7점)의 평가였다.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이 높아(+19.1%p) 100점 환산 점수가 높았다(+8.4점).

| 표8-05 |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55)			64.7점	14.6	34.1	48.7	47.2	3.6	.6	4.1
읍/면	읍 (1,223)		62.4점	12.0	31.3	43.3	51.5	4.4	.7	5.1
	면 (1,532)		66.5점	16.7	36.3	53.0	43.7	2.9	.4	3.3
영농 여부	농어가 (907)		71.9점	23.7	42.0	65.7	32.8	1.4	.1	1.5
	비농어가 (1,848)		61.1점	10.2	30.2	40.4	54.2	4.6	.8	5.4
응답자 성	남성 (1206)		64.9점	15.9	32.5	48.4	47.2	4.0	.4	4.4
	여성 (1544)		64.5점	13.6	35.4	49.1	47.0	3.2	.7	3.9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509)		58.3점	5.7	27.9	33.6	61.3	4.1	1.0	5.1
	40대 (535)		59.7점	7.7	32.3	40.0	52.8	5.5	1.6	7.2
	50대 (552)		64.7점	14.6	33.3	47.9	48.6	3.4	.1	3.5
	60대 (492)		68.9점	20.5	37.7	58.1	39.0	2.7	.1	2.8
	70대 이상 (657)		70.6점	23.1	38.8	61.8	35.7	2.4	.1	2.4
도시 (1,185)			56.3점	3.8	25.8	29.6	62.9	6.9	.7	7.5

이웃과의 관계

8>06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인식

(1) 외부인 유입 여부

귀댁 또는 귀하의 이웃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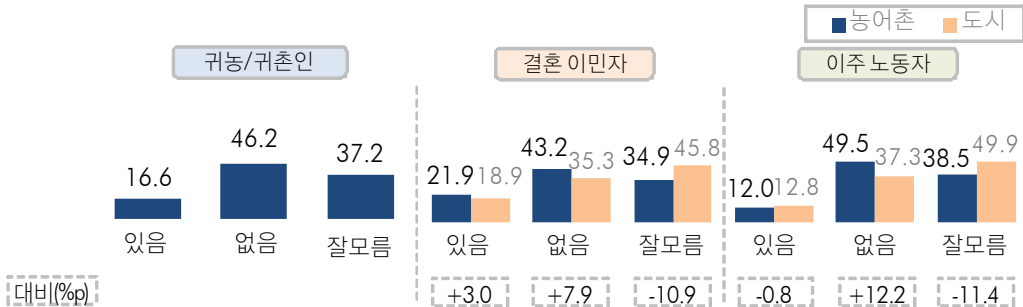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결혼 이민자’ 유입률(21.9%) > ‘귀농/귀촌인’ 유입률(16.6%) > ‘이주 노동자’ 유입률(12.0%)

‘결혼 이민자’의 유입률(21.9%)이 ‘이주 노동자’(12.0%)에 비해 높았으며, ‘귀농/귀촌인’ 유입률은 16.6%였다. 도시에 비해, ‘결혼 이민자’ 유입률이 약간 높았다(+3.0%p).

| 그림8-06-(1) | 외부인 유입 여부

단위: %



면지역 거주층, 농어가에서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가 ‘있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8-06-(1) | 외부인 유입 여부

단위: %(명)

구분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있음	없음	잘 모름	있음	없음	잘 모름	있음	없음	잘 모름
농어촌	16.6	46.2	37.2	21.9	43.2	34.9	12.0	49.5	38.5
읍/면	8.5	45.6	45.8	17.3	40.3	42.4	9.7	43.1	47.2
	22.9	46.7	30.4	25.7	45.4	28.9	13.8	54.6	31.6
영농 여부	29.6	50.7	19.6	27.9	51.5	20.6	14.0	60.8	25.1
	10.1	44.0	45.9	19.0	39.1	41.9	11.0	43.9	45.1
도시	-	-	-	18.9	35.3	45.8	12.8	37.3	49.9

(2)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용성(49.9%)이 가장 높음

‘귀농/귀촌인’에 대한 수용성(49.9%)이 가장 높았으며, ‘결혼 이민자’(46.0%), ‘이주 노동자’(41.6%)의 순이었다. 도/농 모두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의 유입에 대해 [찬성] 이 [반대]에 비해 높았으며, 도/농 간 수용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어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귀농/귀촌인 및 결혼 이민자에 대한 수용성이 높았다.

| 표8-06-(2) |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단위 : %(명)

구분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		
		찬성(합)	보통	반대(합)	찬성(합)	보통	반대(합)	찬성(합)	보통	반대(합)
농어촌		49.9	46.0	4.0	46.0	45.5	8.4	41.6	47.9	10.5
읍/면	읍	46.6	50.1	3.3	43.7	48.3	8.0	39.4	50.0	10.6
	면	52.7	42.8	4.5	48.0	43.3	8.7	43.3	46.3	10.4
영농 여부	농어가	54.0	40.9	5.1	50.2	40.9	8.9	44.4	43.8	11.8
	비농어가	48.0	48.6	3.4	44.0	47.8	8.1	40.2	50.0	9.9
응답자 성	남성	51.9	44.5	3.6	48.3	44.1	7.6	42.5	48.4	9.1
	여성	48.6	47.2	4.2	44.5	46.6	8.9	41.0	47.5	11.5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2.6	54.1	3.3	40.2	51.2	8.6	35.9	52.6	11.5
	40대	50.3	46.7	3.1	47.8	44.5	7.7	45.4	45.0	9.6
	50대	51.5	43.5	5.0	46.0	44.2	9.8	40.1	48.1	11.8
	60대	53.0	42.7	4.3	48.9	43.5	7.6	44.5	46.3	9.2
	70대 이상	52.3	43.7	4.0	47.7	44.2	8.1	42.4	47.4	10.2
도시		-	-	-	43.9	45.7	10.3	41.1	46.8	12.1

 RDA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9

경제활동 부문

도·농 교류 경험 실태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도·농 교류 활성화

9.01 도·농 교류 경험 실태

(1) 도·농 교류 경험 유무 및 만족도

[농어촌 농어가 귀하께서는 농어업 생산에서 확장한 다음의 사업형태 중 지난 1년 동안 직접 운영하거나, 마을 단위에서 실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 유무와 향후 참여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도시 가구] 다음에 제시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동에 대해 지난 1년 간 경험 유무와 향후 참여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n=912)/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농수산물 직거래' 경험률(16.7%)이 가장 높음

농어가(n=912)에서 지난 1년간 운영하거나 참여한 도·농 교류 사업형태 중 '농수산물 직거래'(16.7%) 경험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어촌 체험관광'(6.2%), '자매 결연'(5.4%), '농어촌 봉사활동'(3.5%), '음식판매 또는 민박운영'(3.1%) 순이었다.

도시의 경우, '농수산물 직거래'(16.1%), '음식판매 또는 민박(농어가 식사 또는 민박 이용)'(9.8%), '농어촌 체험관광'(8.7%)의 순으로 이용 경험률이 높았다.

| 표9-01 - (1) - ① | 도·농 교류 경험 실태

단위: %(명)

구분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가 식당 또는 민박	주말농장
농어촌 (농어가) (912)	16.7	6.2	5.4	3.5	3.1	1.9
도시 (1,194)	16.1	8.7	1.7	4.3	9.8	6.4

* 농어촌(농어가) - 운영자/ 도시 - 이용자

농어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던 ‘농어촌 체험관광’(65.4점, n=50), ‘농수산물 직거래’(64.7점, n=138), ‘자매결연’(63.8점, n=42) 경험층의 사업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농어가에 비해 높은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험률이 높았던 ‘농수산물 직거래’(76.7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자매결연’의 만족도가 53.9점으로 가장 낮았다.

| 표9-01-(1)-② | 도·농 교류 만족도

단위: 점(명)

구분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가 식당 또는 민박		주말농장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사례수	평균
농어촌 (농어가)	(138)	64.7	(50)	65.4	(42)	63.8	(20)	59.0	(24)	56.0	(16)	58.5
도시	(169)	76.7	(94)	73.9	(16)	53.9	(38)	73.4	(105)	68.3	(61)	73.8

* 농어촌(농어가) - 운영자/ 도시 - 이용자

(2)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향후 참여 의사는 어떠십니까?

[농어촌 가구 중 농어가(n=912)/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농수산물 직거래’ 참여 의향률(32.5%)이 가장 높음

전반적으로 경험률에 비해 의향률이 높은 가운데, 농어가(n=912)의 경우, 경험률이 높았던 ‘농수산물 직거래’(32.5%)에 대한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농어촌체험관광’, ‘자매결연’(각 17.1%), ‘농어촌 봉사활동’(10.9%), ‘음식 판매 또는 민박 운영’(9.8%), ‘주말농장 운영’(9.0%) 순이었다.

도시의 경우, ‘농수산물 직거래’(33.2%)에 대한 참여 의향률이 가장 높았으며, ‘주말농장’(24.8%), ‘농어촌 체험관광’(21.7%)의 순이었다.

| 표9-01-(2) |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단위: %(명)

구분	농수산물 직거래	농어촌 체험관광	자매결연	농어촌 봉사활동	농어가 식당 또는 민박	주말농장
농어촌 (농어가) (912)	32.5	17.1	17.1	10.9	9.8	9.0
도시 (1,194)	33.2	21.7	7.5	17.5	19.5	24.8

* 농어촌(농어가) - 운영자/ 도시 - 이용자

도·농 교류 활성화

9>02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귀하께서 도·농 교류를 추진하면서, 또는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도·농 교류 사업 관련 경험이나 의향이 있는 경우(n=348)에 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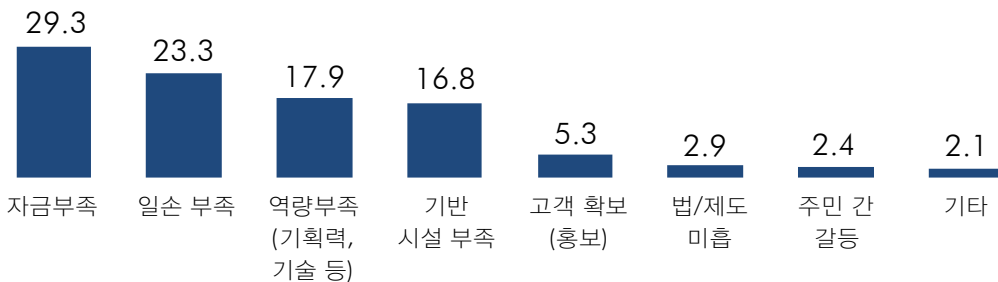
▶ '자금 부족'(29.3%) 및 '일손 부족'(23.3%)이 주된 어려움

도·농 교류를 추진하면서, 또는 추진하고자 할 때 '자금 부족'(29.3%) 및 '일손 부족'(23.3%)이 주된 어려움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역량 부족(기획력, 기술 등)'(17.9%), '기반 시설 부족'(16.8%) 비중도 높았다. 면지역 거주층에서 '자금 부족' 비중이 높은 반면, 읍지역 거주층에서 '일손 부족' 비중이 높았다.

이밖에, '고객 확보(홍보)'(5.3%), '법/제도 미흡'(2.9%), '주민 간 갈등'(2.4%) 비중은 낮았다.

| 그림9-02 |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단위 : %



| 표9-02 |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단위 : %(명)

구분		자금 부족	일손 부족	역량 부족 (기획력, 기술 등)	기반 시설 부족	고객 확보 (홍보)	법/제도 미흡	주민 간 갈등	기타
합계 (347)		29.3	23.3	17.9	16.8	5.3	2.9	2.4	2.1
읍/면	읍 (61)	21.1	34.0	18.2	13.5	5.6	.2	1.3	6.0
	면 (287)	31.0	21.0	17.9	17.5	5.3	3.4	2.7	1.3

경제활동 여건

9.03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일자리, 소득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농어촌 가구(n=2,764)/도시 가구(n=1,194) 중 응답 가구에 한해]

▶ 부문별 만족도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임(41.3점)

‘다소 불만족’(31.4%) 등 [불만족](40.4%) 비중이 ‘다소 만족’(12.5%) 등 [만족](13.5%)에 비해 높아 문화·여가 여건 만족도와 더불어 부문별 만족도 중 가장 낮은 평가였다(41.3점). 읍지역 거주층, 비농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에 비해, [만족] 비중은 약간 낮은(6.3%p) 반면, [불만족] 비중이 높아(+10.9%p) 만족도가 낮았다(-5.6점).

| 표9-03 |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구분			평균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만족 (합)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합)
농어촌 (2,717)			41.3점	1.1	12.5	13.5	46.0	31.4	9.0	40.4
읍/면	읍	(1,190)	43.9점	.8	15.5	16.2	48.3	29.7	5.8	35.5
	면	(1,528)	39.3점	1.3	10.1	11.4	44.3	32.7	11.5	44.2
영농 여부	농어가	(909)	38.3점	.7	10.9	11.6	43.7	30.6	14.2	44.8
	비농어가	(1,807)	42.8점	1.3	13.2	14.5	47.2	31.8	6.4	38.2
응답자 성	남성	(1,187)	40.7점	1.6	11.4	13.0	45.2	31.8	10.0	41.8
	여성	(1,525)	41.7점	.7	13.3	14.0	46.6	31.2	8.2	39.4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494)	45.2점	.3	15.7	16.0	52.6	27.2	4.2	31.3
	40대	(526)	44.8점	2.5	14.8	17.3	47.8	29.3	5.7	35.0
	50대	(543)	42.3점	1.0	14.9	15.9	46.0	28.4	9.7	38.1
	60대	(492)	39.1점	1.2	10.9	12.1	42.5	33.8	11.6	45.4
	70대 이상	(655)	36.4점	.6	7.4	8.0	41.9	37.1	13.0	50.1
도시 (1,175)			46.9점	1.8	18.0	19.8	50.7	25.2	4.3	29.5

제2부 기존통계 활용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보건의료 부문

복지 부문

교육 부문

문화·여가여건 부문

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부문

지역역량 부문

경제활동 부문

보건의료 부문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외병일수
만성질환 현황
주관적 건강 인식
건강검진 수진율
월평균 보건의료비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를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농작업 손상
병상 수
보건의료기관 수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1>01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 농어촌의 유병률은 30.4%, 평균 유병일수 9.7일, 평균 와병일수 0.5일

2012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주 동안 농어촌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아팠던 사람은 30.4%로 2008년 이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22.8%)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1-01 | 유병률, 유병일수 및 와병일수

(단위: %, 일)

연도	구분	유병률	평균 유병일수	평균 와병일수
2008	농어촌	21.8	9.0	0.7
	도시	16.6	8.1	0.7
2010	농어촌	25.3	8.1	0.6
	도시	19.7	7.1	0.6
2012	농어촌	30.4	9.7	0.5
	도시	22.8	8.1	0.6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0세 이상 인구 대상, 지난 2주간

1.02 만성질환 현황

▶ 농어촌의 만성질환으로 '고혈압'이 많으며, 도시에 비해 유병률이 높음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고혈압'(37.2%), '고중성지방혈증'(16.7%), '고콜레스테롤혈증'(16.5%), '당뇨병'(12.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이 2005년 이후 2012년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고혈압' 유병률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지속적으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1-02 | 만성질환 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유병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병
2005	농어촌	33.8	8.6	17.3	10.1
	도시	26.6	7.9	16.5	8.8
2007	농어촌	26.6	7.7	12.6	8.1
	도시	24.7	11.7	18.2	10.2
2008	농어촌	33.4	10.3	19.3	10.3
	도시	25.7	11.3	16.9	9.9
2009	농어촌	33.0	11.1	17.8	11.4
	도시	26.7	12.0	16.7	9.7
2010	농어촌	33.1	13.2	16.6	10.8
	도시	27.6	14.4	17.1	9.9
2011	농어촌	36.1	14.9	19.1	13.8
	도시	29.3	14.4	15.8	9.6
2012	농어촌	37.2	16.5	16.7	12.4
	도시	30.1	15.1	17.2	9.2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 만 30세 이상 대상

1.03 주관적 건강 인식

▶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는 평가가 43.8%

2012년 농어촌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 인식은 '좋다'(43.8%)는 평가가 '나쁘다'(22.8%)에 비해 높았으며, '보통'은 33.3%였다. 건강에 대해 '좋다'고 평가하는 비율은 도시(45.7%)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다.

| 표1 - 03 | 주관적 건강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좋다			보통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08	농어촌	46.0	10.0	36.0	32.1	21.9	18.8	3.1
	도시	52.8	10.3	42.5	35.0	12.2	10.6	1.5
2010	농어촌	42.2	9.2	33.0	34.8	23.1	19.3	3.8
	도시	47.8	10.0	37.8	38.1	14.1	11.9	2.2
2012	농어촌	43.8	10.0	33.8	33.3	22.8	18.8	4.0
	도시	45.7	10.2	35.5	39.8	14.6	12.2	2.4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1>04 건강검진 수진율

▶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55.3%

2012년 기준, 농어촌의 건강검진 수진율은 55.3%로, 도시(56.2%)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 표1 - 04 | 건강검진 수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N	분율	표준오차
1998	농어촌	3,107	44.9	1.4
	도시	5,716	49.8	1.0
2001	농어촌	1,651	45.1	1.7
	도시	6,411	48.1	0.9
2005	농어촌	1,564	50.2	1.6
	도시	6,236	46.7	1.0
2007	농어촌	862	52.6	2.5
	도시	2,116	47.5	1.4
2008	농어촌	1,801	53.5	1.7
	도시	5,002	47.8	1.1
2009	농어촌	1,916	57.1	1.7
	도시	5,556	49.8	1.0
2010	농어촌	1,368	55.1	2.3
	도시	4,883	53.8	1.0
2011	농어촌	1,214	59.9	1.8
	도시	4,809	52.2	1.0
2012	농어촌	1,127	55.3	2.0
	도시	4,478	56.2	1.1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998년 - 만 20세 이상 대상, 2001년 이후 - 만 19세 이상 대상

1.05 월평균 보건의료비

▶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62,980원, 어가는 167,667원

2012년 농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62,980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164,019원)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어가의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167,667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보다 높았다.

| 표 1 - 05 | 월평균 보건의료비

(단위 : 원)

연도	구분	월평균 보건의료비
2007	농가	143,031
	어가	128,167
	도시근로자가구	111,985
2008	농가	153,203
	어가	137,000
	도시근로자가구	119,194
2009	농가	161,945
	어가	145,833
	도시근로자가구	142,343
2010	농가	167,058
	어가	163,333
	도시근로자가구	151,101
2011	농가	161,310
	어가	175,167
	도시근로자가구	159,985
2012	농가	162,980
	어가	167,667
	도시근로자가구	164,019

자료 :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조사(도시)

주 : 농어가는 2007년, 2008년 구분류 기준, 2009년 이후 신분류 기준

1.06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3.1%, 치과 31.6%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미치료자 중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은 병의원 13.1%, 치과 31.6%로 2007년 이래 최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 표 1 - 06 | 연간 미치료자의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치료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병의원			치과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188	20.0	3.9	326	34.8	3.7
	도시	452	22.8	3.1	773	41.9	2.7
2008	농어촌	456	28.0	2.5	729	45.5	2.3
	도시	1,165	21.9	1.6	2,172	39.0	1.4
2009	농어촌	529	21.7	2.8	850	42.0	2.3
	도시	1,319	25.3	1.5	2,586	45.1	1.4
2010	농어촌	360	16.0	2.5	527	34.6	3.6
	도시	855	17.3	1.5	1,820	32.5	1.6
2011	농어촌	263	19.7	3.8	439	32.1	2.7
	도시	837	17.1	1.4	1,735	33.6	1.4
2012	농어촌	226	13.1	2.6	384	31.6	3.3
	도시	709	23.1	2.2	1,579	36.6	1.7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1>07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3.0%

2012년 기준, 농어촌의 자살 생각률은 15.2%로 도시 12.9%에 비해 높았지만, 자살 생각자의 자살 시도율은 농어촌 3.0%, 도시 5.0%로 도시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 표1 - 07 | 자살 및 우울 관련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자살 생각률			자살 생각자의 자살시도율		
		N	분율	표준오차	N	분율	표준오차
2007	농어촌	860	16.0	2.1	158	11.5	2.4
	도시	2,113	14.7	1.1	340	3.4	0.9
2008	농어촌	1,798	19.8	1.3	384	9.3	2.3
	도시	4,998	16.9	0.7	930	5.6	0.8
2009	농어촌	1,920	18.1	1.2	406	4.6	1.2
	도시	5,558	16.0	0.7	942	7.2	1.0
2010	농어촌	1,366	18.3	1.3	260	3.1	1.1
	도시	4,886	14.0	0.7	683	6.6	1.1
2011	농어촌	1,214	16.2	1.2	225	5.2	1.7
	도시	4,812	13.4	0.7	657	6.0	1.3
2012	농어촌	1,124	15.2	1.2	184	3.0	1.4
	도시	4,467	12.9	0.6	604	5.0	1.0

자료 :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1>08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 농어촌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6%,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8.5%

2012년 기준, 농어촌에서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2.6%로 도시와 비슷한 수준(2.5%)이었다. 한편 농어촌에서 우울 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은 8.5%로 도시 10.1%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1 - 08 | 정신보건 관련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명, %)

연도	구분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우울증상 경험자의 정신문제 상담 경험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N	비율
2008	농어촌	1,796	2.0	756	1.2	1,040	2.7	317	5.7	98	5.2	219	6.1
	도시	4,998	2.1	2,081	1.4	2,917	2.7	773	8.7	209	8.3	564	8.9
2009	농어촌	1,920	1.6	845	0.8	1,075	2.4	320	6.0	92	4.0	228	6.9
	도시	5,560	2.4	2,391	1.7	3,169	3.1	886	8.7	261	5.5	625	10.4
2010	농어촌	1,366	1.4	595	1.5	771	1.3	197	4.4	57	2.0	140	5.9
	도시	4,889	2.4	2,109	1.2	2,780	3.5	628	10.9	163	8.0	465	12.1
2011	농어촌	1,214	3.2	527	3.0	687	3.3	178	15.1	63	21.9	115	10.3
	도시	4,812	2.2	2,033	1.6	2,779	2.7	640	9.0	187	6.6	453	10.4
2012	농어촌	1,125	2.6	483	2.8	642	2.3	168	8.5	59	12.6	109	5.0
	도시	4,466	2.5	1,826	0.9	2,640	3.9	580	10.1	157	4.3	423	12.7

자료: 각 연도 국민건강영양조사

주: 만 19세 이상 대상

1.09 농작업 손상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 손상 종류로는 골절(34.4%)이 가장 많음

2012년에 농업인이 경험한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3.0%인 가운데, 농기계 및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인은 사용하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손상 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각각 3.9%, 3.6%의 손상 발생률을 보였다. 농작업 손상 종류로는 ‘골절’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타박상/멍(12.1%), 뺨/접질림(염좌)(10.6%)의 순이었다. 농약 중독 발생률은 2.3%로 나타났다.

| 표1-09-(1) | 농기계 및 농약 사용별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업무상 손상 발생률
농기계 사용 여부별 손상발생률	사용함	43,441	3.9
	사용 안함	21,294	2.1
	총 계	64,735	3.0
농약 사용 여부별 손상발생률	사용함	49,331	3.6
	사용 안함	15,465	2.1
	총 계	64,796	3.0

자료: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 표1-09-(2) |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종류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구분	업무상 손상자수	비율
굵힘/찰과상	2,527	3.9	일시적 의식상실(뇌진탕 등)	1,292	2.0
찢림	848	1.3	농약 중독	1,453	2.3
타박상/멍	7,778	12.1	동물에 물림(교상)	2,184	3.4
뺨/접질림(염좌)	6,765	10.6	일시적/영구적 청력상실	155	0.2
베임(열상/개방상)	4,349	6.8	일시적/영구적 시력상실	0	0.0
신체 절단	1,194	1.9	화상	181	0.3
골절	22,027	34.4	산소 결핍/질식	134	0.2
탈구	796	1.2	감전	0	0.0
근육/인대 파열(좌상)	4,870	7.6	복합 손상	3,309	5.2
허리/목 디스크 파열	4,160	6.5	기타	3,276	5.1
			총계	64,019	100.0

자료: 2013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 조사

주: 업무상 손상자수 - 가중치를 적용하여 추정된 값임, 다중 응답 항목으로 총계와 항목의 합이 상이함

1 > 10 병상수

▶ 농어촌의 병상수는 77,050개로 도시(521,794개)의 약 1/7 수준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병상수는 총 77,050개로 ‘병원’(25,874개), ‘요양병원’(25,362개), ‘정신병원’(10,486개)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시(521,794개)에 비해 약 1/7 수준이었다.

| 표1 - 10 | 병상수

(단위 : 개)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74,970	4,581	14,393	25,847	17,432	0	1,000
	도시	375,149	121,259	52,334	86,545	78,860	1,373	0
2008	농어촌	62,243	5,016	12,789	23,674	9,611	0	1,000
	도시	416,402	123,657	64,181	98,980	88,231	1,355	0
2009	농어촌	65,584	5,277	15,122	24,066	9,289	0	1,000
	도시	432,718	125,324	74,381	106,722	82,473	1,345	0
2010	농어촌	81,556	9,136	21,150	24,182	13,181	0	1,000
	도시	441,801	123,961	91,677	106,488	75,023	1,318	0
2011	농어촌	72,338	5,893	21,144	24,125	8,874	0	1,000
	도시	492,234	131,835	114,150	121,400	77,703	1,318	0
2012	농어촌	77,050	5,882	25,362	25,874	8,251	0	700
	도시	521,794	132,968	135,692	129,146	73,618	1,286	0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10,461	29	0	880	154	191	2
	도시	26,253	220	17	7,365	301	469	153
2008	농어촌	9,479	24	0	377	158	158	1
	도시	30,080	229	14	8,233	704	704	75
2009	농어촌	10,197	25	0	358	63	187	0
	도시	31,513	266	39	8,336	881	1,361	77
2010	농어촌	11,647	25	0	926	63	187	0
	도시	32,634	303	45	8,565	881	1,361	77
2011	농어촌	10,544	24	0	438	76	220	0
	도시	33,341	327	90	10,205	1,228	548	89
2012	농어촌	10,486	24	0	278	52	140	1
	도시	35,027	293	61	11,669	1,485	467	82

자료 :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1>11 보건의료기관 수

▶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5,145개소로 도시(54,374개소)의 약 1/10 수준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5,145개소로 ‘의원’(2,432개소), ‘치과의원’(1,130개소), ‘한의원’(1,118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도시(54,374개소)의 약 1/10 수준이었다.

| 표1 - 11 | 보건의료기관 수

(단위: 개소)

연도	구분	계	종합병원	요양병원	병원	의원	결핵병원	한센병원
2007	농어촌	6,857	20	137	187	3,516	0	1
	도시	46,057	282	456	758	22,749	3	0
2008	농어촌	4,641	22	130	170	2,301	0	1
	도시	49,524	291	560	894	24,280	3	0
2009	농어촌	4,776	22	341	175	2,344	0	1
	도시	50,993	290	621	954	24,760	3	0
2010	농어촌	6,411	30	177	185	3,131	0	1
	도시	49,833	282	672	969	24,203	3	0
2011	농어촌	5,034	23	170	170	2,383	0	1
	도시	53,462	296	805	1,075	25,526	3	0
2012	농어촌	5,145	23	189	178	2,432	0	1
	도시	54,374	300	898	1,149	26,330	3	0

연도	구분	정신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2007	농어촌	28	4	1,543	17	1,375	25	4
	도시	19	147	11,737	121	9,520	157	48
2008	농어촌	26	20	947	8	997	18	1
	도시	92	164	12,671	131	10,251	157	30
2009	농어촌	28	3	1,007	8	1,024	21	2
	도시	102	175	13,064	143	10,681	164	36
2010	농어촌	38	5	1,444	15	1,354	29	2
	도시	105	183	12,630	144	10,450	157	35
2011	농어촌	32	3	1,118	8	1,100	24	2
	도시	112	196	13,884	170	11,205	156	34
2012	농어촌	33	3	1,130	5	1,118	30	3
	도시	123	199	13,670	194	11,322	154	32

자료: 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1>12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 기준 병원, 한의원 51.2%, 종합병원의 89.7%가 다른 지역(읍면 경계 밖)에 있음

2010년 기준, 농어촌 주민들은 약국(61.2%), 보건소(72.1%)의 경우 읍면 내에서 이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한의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 각각 51.2%, 89.7%는 읍면 경계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12-(1)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05)

(단위 : %)

이동수단		이동시간		
		15분미만	15~30분	30분 이상
걸어서	15.3	9.5	3.4	2.3
자동차	69.9	24.7	25.6	19.6
기타	14.9	4.6	5.5	4.8

자료 : 2005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표1-12-(2) |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 - 농어촌(2010)

(단위 : 개, %)

구분	계 (행정리)	(우리 행정리 안에 있음(①)	읍(면) 사무소 소재지 에 있음(②)	다른 지역(①, ② 이외)에 있음			이용 하지 않음	
				15분 미만	15~30 분	30분 이상		
약국	36,498	11.1	50.1	37.8	42.1	40.9	17.0	0.9
보건진료소	36,498	9.1	32.0	27.6	52.2	31.4	16.4	31.3
보건소	36,498	9.6	62.5	23.6	52.7	33.1	14.2	4.2
병·의원, 한의원	36,498	8.3	39.4	51.2	29.2	43.8	27.0	1.1
종합병원	36,498	1.0	4.6	89.7	6.6	26.2	67.2	4.7

자료 : 2010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원자료 분석

1>13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0.0%)'가 가장 높음

2012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 동안 주로 이용한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보건소'(70.0%), '종합병원'(58.8%), '병의원'(54.5%), '한의원'(5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비가 비싸다'(24.3%), '치료결과 미흡'(18.1%), '진료, 입원대기시간이 길다'(16.3%) 순으로 나타났다.

| 표1-13-(1) |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종합병원			병(의원)			한의원(한방병원)			보건소			약국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만족	보통	불만
2008	농어촌	62.9	26.6	10.5	54.4	38.7	6.8	55.0	37.9	7.0	75.6	21.2	3.2	30.5	63.2	6.3
	도시	52.0	33.3	14.7	47.3	44.1	8.6	55.2	38.1	6.7	51.0	38.3	10.7	30.8	61.9	7.3
2010	농어촌	58.4	29.8	11.8	53.5	44.2	7.7	52.0	38.7	9.3	71.2	26.3	2.5	36.5	52.0	11.6
	도시	51.3	33.4	15.2	46.1	43.1	9.7	56.6	35.7	7.6	50.6	35.0	14.4	32.3	58.4	9.3
2012	농어촌	58.8	30.2	10.9	54.5	37.7	7.8	52.0	35.7	9.3	70.0	25.8	4.2	28.9	68.9	2.2
	도시	51.7	34.4	13.9	45.2	45.6	9.2	56.6	36.2	7.6	56.7	34.2	9.1	28.2	65.9	5.9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9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1-13-(2) | 보건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연도	구분	불친절함	의료비 비싸다	치료 결과 미흡	진료 불성실	진료, 입원 대기 시간 김	의료 시설 낙후 미비	과잉 진료	전문 의료 인력 부족	기타
2008	농어촌	11.7	32.8	19.9	9.4	16.4	2.0	5.6	1.6	0.6
	도시	13.4	27.9	20.3	9.0	15.7	5.9	4.1	3.7	0.0
2010	농어촌	11.7	29.9	17.9	8.0	19.4	2.6	8.5	1.7	0.3
	도시	8.4	30.7	21.1	6.7	19.8	5.1	5.1	2.9	0.2
2012	농어촌	13.5	24.3	18.1	10.1	16.3	6.7	5.5	5.2	0.2
	도시	11.1	28.2	19.7	11.1	17.9	2.4	7.9	1.4	0.2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의료서비스 불만족자 대상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2

복지

부문

독거노인 현황
장수인구 비율
치매노인 비율
노인 희망거주 형태
노인의 의존 소득원
노인 일자리 참여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영유아 비율
유치원 취원율
보육시설 현황
조손가구 비율
장애인 추가비용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2>01 독거노인 현황

▶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 중 1인 가구원은 440,726명

2010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인구는 1,747,486명이며, 이 가운데 1인 가구원은 440,726명(25.2%)으로 2005년에 비해 2.2%p 증가하였다. 도시(17.7%)에 비해서도 독거노인 비율은 7.5%p 높게 나타났다.

| 표2-01 | 독거노인 현황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가구원	65세 이상 1인 가구원	비율
2005	농어촌	1,593,513	366,809	23.0
	도시	2,721,902	415,899	15.3
2010	농어촌	1,747,486	440,726	25.2
	도시	3,536,134	625,639	17.7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6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02 장수인구 비율

▶ 농어촌의 장수인구(85세 이상) 비율은 1.6%로 도시(0.6%)에 비해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85세 이상 장수인구 비율은 1.6%로 나타나 도시(0.6%)에 비해 높았으며, ‘여자’(2.3%)가 ‘남자’(0.9%)에 비해 장수인구 비율이 높았다.

| 표2-02 | 장수인구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내국인	남자	여자
2005	농어촌	1.1	0.6	1.6
	도시	0.4	0.2	0.5
2010	농어촌	1.6	0.9	2.3
	도시	0.6	0.3	0.9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85세 이상 인구 비율

2>03 치매노인 비율

▶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 치매 유병률은 9.18%

2012년 기준, 전국의 65세 이상 치매 노인 수는 540,755명으로, 9.18%의 치매 유병률을 나타내는 가운데, 2005년 8.25%에 비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2-03 | 치매노인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65세 이상 인구	치매노인 수					치매 유병률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5	전국	4,252,919	351,025	36,606	54,274	100,328	159,817	8.25
2012	전국	5,889,675	540,755	-	-	-	-	9.1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2012 치매 유병률 조사

주: 노인 인구 100명당 치매노인 수

2>04 노인 희망거주 형태

▶ 농어촌 노인의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

2011년 기준, 농어촌 노인 희망거주 형태는 '일반주택·아파트'(77.7%), '자녀와의 동거'(17.2%), '시설입소'(4.2%) 순으로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 표2-04 | 노인 희망거주 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일반 주택·아파트	자녀 동거	고령자 전용 주거 단지	그룹홈	일반 주택·아파트 + 필요시 경로당	시설 입소	기타
2011	농어촌	77.7	17.2	0.2	0.5	0.1	4.2	0.0
	도시	72.5	18.9	1.1	1.1	0.7	5.5	0.2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05 노인의 의존 소득원

▶ 농어촌 노인의 생활비는 '본인 및 배우자'(65.1%)가 마련하는 비율이 높으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74.8%)이 주된 소득원임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 부담(65.1%)', '자녀 또는 친척 지원(25.8%)', '정부 및 사회단체(9.1%)' 순으로 나타나, 도시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농어촌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 소득 및 사업소득'이 74.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자녀 또는 친척이 지원'하는 경우에 농어촌에서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67.3%)이 지원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시에서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50.1%)이 지원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 표2 - 05 | 노인의 의존 소득원

(단위 : %)

연도	구분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 단체	기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금	예금		함께 살고 있음	함께 살고 있지 않음		
2007	농어촌	66.0	81.7	5.6	7.8	4.8	28.7	40.2	59.8	5.2	0.0
	도시	59.2	56.5	14.2	20.4	8.9	36.6	58.0	42.0	4.1	0.1
2009	농어촌	63.9	73.0	5.8	17.1	4.0	27.1	34.1	65.9	9.0	0.0
	도시	58.3	48.3	16.8	27.9	7.1	33.2	48.7	51.3	8.4	0.1
2011	농어촌	63.5	70.6	4.9	17.5	7.0	28.6	35.5	64.5	7.8	0.1
	도시	58.8	42.3	15.7	32.0	10.0	33.4	51.1	48.9	7.6	0.2
2013	농어촌	65.1	74.8	6.0	13.6	5.6	25.8	32.7	67.3	9.1	0.0
	도시	63.1	44.4	14.7	29.3	11.6	29.9	50.1	49.9	7.0	0.1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60세 이상 인구 대상

2>06 노인일자리 참여

▶ 농어촌의 노인일자리 인지율은 66.5%, 노인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10.4%

2011년 기준, 농어촌의 노인일자리 인지율은 66.5%로 도시 69.8%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에서 노인일자리 참여하고 있는 층은 3.1%, 참여한 경험이 있는 층은 7.3%, 신청했으나 참여기회가 없는 층은 3.9%로 모두 도시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 표2 - 06 | 노인일자리 참여

(단위 : %)

연도	구분	인지율	참여 실태			
			현재 참여 중	참여경험 있음	신청했으나 참여기회 없었음	비신청
2011	농어촌	66.5	3.1	7.3	3.9	85.7
	도시	69.8	4.5	6.6	9.7	79.2

자료 : 2011 노인실태조사

주 : 65세 이상 인구 대상

2>07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60세 이상 노인의 90.7%가 평소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응답한 가운데,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건강검진'(29.8%), '간병서비스'(26.2%), '가사서비스'(20.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른 조사에서 2011년 기준, 농어촌의 65세 이상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소득 보장'(32.3%), '의료서비스'(28.3%), '수발서비스'(21.5%)로 나타났다.

| 표2-07-(1) |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받고 싶음									
			간병 서비스	목욕 서비스	가사 서비스	식사 제공	이야 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취미 여가 프로 그램	정보 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07	농어촌	71.5	25.3	3.0	9.4	4.1	2.6	7.2	40.6	6.6	1.0	0.1
	도시	79.1	20.0	2.3	7.6	3.2	2.7	14.0	40.3	8.1	1.5	0.3
2009	농어촌	76.6	26.9	2.2	16.2	3.8	2.2	5.2	35.6	5.4	2.0	0.5
	도시	83.8	22.1	1.3	11.7	3.5	2.6	13.1	35.6	8.3	1.4	0.3
2011	농어촌	93.1	28.3	2.5	17.8	2.6	1.9	7.3	34.5	4.0	0.9	0.2
	도시	95.3	25.2	1.8	13.2	3.3	1.6	11.9	34.3	7.0	1.4	0.3
2013	농어촌	90.7	26.2	2.7	20.8	4.2	2.4	6.9	29.8	5.8	0.8	0.4
	도시	93.2	23.4	1.8	16.3	3.8	2.2	11.9	31.3	7.9	1.2	0.2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60세 이상 인구 대상

| 표2-07-(2) |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인복지 서비스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보장	수발 서비스	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경제 활동 지원	노후 주거 지원	기타
2011	농어촌	32.3	21.5	6.7	28.3	6.8	3.7	0.6
	도시	31.6	17.4	10.1	25.1	10.7	3.9	1.3

자료: 2011 노인실태조사

주: 65세 이상 인구 대상

2>08 영유아 비율

▶ 농어촌의 영유아 비율은 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0세~5세 영유아 비율은 4.9%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도시(5.5%)에 비해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2-08 | 영유아 비율

(단위 : %)

연도	구분	총인구		0세~5세	
				0세~3세	4~5세
2007	농어촌	100.0	5.3	3.4	1.8
	도시	100.0	5.8	3.8	2.0
2008	농어촌	100.0	5.2	3.4	1.8
	도시	100.0	5.7	3.7	2.0
2009	농어촌	100.0	5.2	3.5	1.7
	도시	100.0	5.6	3.7	1.9
2010	농어촌	100.0	5.1	3.5	1.6
	도시	100.0	5.5	3.7	1.8
2011	농어촌	100.0	5.1	3.4	1.7
	도시	100.0	5.6	3.7	1.9
2012	농어촌	100.0	5.1	3.4	1.8
	도시	100.0	5.6	3.7	1.9
2013	농어촌	100.0	4.9	3.3	1.6
	도시	100.0	5.5	3.7	1.8

자료 : 각 연도 주민등록인구

2>09 유치원 취원율

▶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3.2%로 도시(43.4%)와 비슷한 수준

2011년 기준, 농어촌의 유치원 취원율은 43.2%로 20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도시 43.4%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 표2-09 | 유치원 취원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유치원 취원 대상자	유치원 재원자	유치원 취원율
2007	농어촌	261,908	95,242	36.4
	도시	1,241,154	446,308	36.0
2010	농어촌	241,045	90,099	37.4
	도시	1,068,985	448,488	42.0
2011	농어촌	212,865	92,009	43.2
	도시	1,088,943	472,825	43.4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주: 1) 유치원 취원 대상자는 각 지역 만 3~5세 인구수임

2) 취원율 = 재원자 수/취원대상자 x 100

3)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대도시+중소도시를 합한 수치임

2>10 보육시설 현황

▶ 농어촌의 영유아 보육시설(8,269개)은 도시의 절반 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은 8,269개로, 2007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대도시 및 중소도시의 보육시설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수 역시 소폭의 감소 추이를 보인 가운데, ‘개인 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180,675명)가 가장 많았다.

| 표2 - 10 - (1) | 설립주체별 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4,901	352	673	346	2,145	1	1,342	42
	대도시	12,456	938	387	403	5,469	27	5,071	161
	중소도시	13,499	458	400	253	5,467	33	6,771	117
2008	농어촌	6,504	426	751	362	2,674	3	2,246	42
	대도시	13,018	921	384	389	5,482	29	5,628	185
	중소도시	13,977	479	323	218	5,150	33	7,651	123
2009	농어촌	6,996	468	764	358	2,775	7	2,576	48
	대도시	13,485	944	393	370	5,486	29	6,068	195
	중소도시	15,069	505	313	207	5,172	30	8,715	127
2010	농어촌	7,759	506	783	354	2,947	10	3,104	55
	대도시	14,034	977	389	343	5,558	34	6,519	214
	중소도시	16,228	551	296	191	5,284	30	9,744	132
2011	농어촌	8,030	528	781	356	3,068	13	3,224	60
	대도시	14,591	999	387	327	5,630	41	6,968	239
	중소도시	17,221	589	294	187	5,436	35	10,530	150
2012	농어촌	8,477	555	773	363	3,178	19	3,509	80
	대도시	15,461	1,039	384	308	5,709	46	7,701	274
	중소도시	18,589	609	287	198	5,553	48	11,725	169
2013	농어촌	8,269	569	770	362	3,220	21	3,224	103
	대도시	15,852	1,120	383	302	5,746	56	7,927	619
	중소도시	19,649	643	286	204	5,785	52	12,481	198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안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10-(2) | 보육시설 유형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30,902	2,506	6,915	2,714	13,942	5	4,550	270
	대도시	68,892	8,835	4,548	2,776	34,318	154	16,937	1,324
	중소도시	69,791	4,287	4,557	2,197	34,828	186	22,680	1,056
2008	농어촌	38,653	3,092	7,490	2,657	17,237	7,899	11	267
	대도시	74,799	9,247	4,476	2,609	36,563	11,904	8,339	1,661
	중소도시	71,450	4,482	3,581	1,940	33,257	26,920	153	1,117
2009	농어촌	45,245	3,781	8,455	3,037	20,166	32	9,403	371
	대도시	82,568	10,507	4,827	2,870	39,804	161	22,454	1,945
	중소도시	79,099	5,109	3,760	2,081	35,698	155	31,006	1,290
2010	농어촌	51,110	4,215	8,870	3,075	22,594	42	11,827	487
	대도시	90,341	11,061	4,928	2,669	43,659	203	25,518	2,303
	중소도시	87,633	5,704	3,570	1,964	38,278	153	36,550	1,414
2011	농어촌	54,512	4,530	8,857	3,115	24,577	55	12,784	594
	대도시	97,617	11,541	5,015	2,646	46,959	248	28,544	2,664
	중소도시	96,506	6,158	3,619	1,963	41,243	182	41,583	1,758
2012	농어촌	61,460	4,884	9,076	3,336	28,004	86	15,235	839
	대도시	111,076	12,183	5,284	2,616	52,339	299	35,125	3,230
	중소도시	111,701	6,658	3,651	2,142	45,896	229	50,913	2,212
2013	농어촌	63,928	5,292	9,423	3,488	30,481	99	14,021	1,124
	대도시	117,198	13,990	5,492	2,811	54,921	365	35,603	4,016
	중소도시	120,593	7,468	3,850	2,404	50,778	266	53,107	2,720

자료: 각 연도 보육통계

주: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 표2-10-(3) | 보육시설 유형별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설립 주체별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 시설	민간보육시설		부모 협동	가정 보육 시설	직장 보육 시설
					법인 외	개인			
2007	농어촌	227,794	19,518	54,441	20,132	111,914	34	19,921	1,834
	대도시	443,670	68,506	34,116	19,362	245,412	671	68,064	7,539
	중소도시	428,469	31,117	29,654	16,412	255,158	739	89,638	5,751
2008	농어촌	264,423	22,571	56,137	20,069	133,177	58	30,671	1,740
	대도시	453,534	68,260	32,901	18,689	246,314	727	77,710	8,933
	중소도시	417,545	32,574	24,856	15,060	236,156	706	102,057	6,136
2009	농어촌	277,630	25,185	55,724	19,954	139,279	157	35,242	2,089
	대도시	465,344	70,072	32,432	18,096	248,600	769	85,284	10,091
	중소도시	432,075	34,399	24,182	14,668	235,166	729	116,317	6,614
2010	농어촌	307,963	27,447	58,344	19,849	154,732	213	44,654	2,724
	대도시	499,674	72,250	32,956	17,265	266,763	918	97,603	11,919
	중소도시	472,273	37,907	22,754	14,012	250,396	767	139,179	7,258
2011	농어촌	320,857	28,984	57,232	20,068	163,523	289	47,528	3,233
	대도시	522,894	73,711	32,714	16,634	279,297	1,128	106,252	13,158
	중소도시	504,978	40,340	22,742	13,974	263,827	869	154,630	8,596
2012	농어촌	348,759	30,206	57,290	20,922	180,619	474	54,967	4,281
	대도시	574,723	76,753	33,120	16,167	303,679	1,325	128,424	15,255
	중소도시	563,879	42,718	22,639	14,825	283,958	1,114	188,280	10,345
2013	농어촌	340,626	30,323	55,069	20,356	180,675	480	48,397	5,326
	대도시	573,577	79,950	31,748	16,166	300,273	1,509	126,877	17,054
	중소도시	572,777	44,192	22,017	15,162	289,231	1,237	188,839	12,099

자료 : 각 연도 보육통계

주 : 2012년 기준, '법인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외 민간보육시설'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으로 변경

2.11 조손가구 비율

▶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조손가구 비율은 1.0%로 도시(0.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2-11 | 조손가정

(단위: 가구, %)

연도	구분	일반가구	조손가구	
				비율
2005	농어촌	3,142,188	21,633	0.7
	도시	12,744,940	36,468	0.3
2010	농어촌	3,308,353	32,626	1.0
	도시	14,031,069	86,668	0.6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조손가구는 조부모+미혼손자녀, 조부 또는 조모+미혼손자녀의 합

2.12 장애인 추가비용

▶ 장애인 추가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크게 증가함

2005년에는 155.4천원이었던 장애인 추가비용이 2008년에는 158.7천원, 2011년에는 160.7천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활보조기구 구입, 유지비'가 2005년 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 표2-12 | 장애인 추가비용

(단위: 천원)

연도	총 추가 비용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보호, 간병인	재활 기관 이용료	통신비	재활 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부모 사후 대비비
2005	155.4	22.9	90.2	6.1	11.8	2.1	1.2	6.4	8.8
2008	158.7	17.8	57.3	6.2	9.9	2.0	1.4	36.8	6.2
2011	160.7	22.8	56.8	6.0	14.1	1.9	9.6	31.7	5.4

자료: 각 연도 장애인실태조사

2>13 결혼이민자 및 자녀 현황

▶ 농어촌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10.3%, 농림어업 종사자의 외국 여성과 혼인 비율은 29.1%

2012년 기준, 농어촌 혼인건수에서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10.3%로 도시(5.5%)에 비해 높았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림어업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은 29.1%로 도시 거주 농림어업종사자가 외국 여성과 혼인하는 비율(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 표2-13-(1) | 결혼이민자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전체			농림어업종사자		
		혼인건수(A)	외국 여성과의 혼인		혼인건수(C)	외국 여성과의 혼인	
			건수(B)	비율(B/A)		건수(D)	비율(D/C)
2004	농어촌	53,909	5,694	10.6	4,883	1,474	30.2
	도시	241,071	18,095	7.5	1,433	333	23.2
2005	농어촌	55,029	7,575	13.8	5,878	2,371	40.3
	도시	244,360	22,545	9.2	1,663	498	29.9
2006	농어촌	58,382	8,746	15.0	6,479	2,991	46.2
	도시	261,377	20,470	7.8	1,793	529	29.5
2007	농어촌	59,397	8,016	13.5	5,948	2,649	44.5
	도시	274,592	20,145	7.3	1,718	522	30.4
2008	농어촌	57,035	7,853	13.8	4,959	2,038	41.1
	도시	262,357	19,893	7.6	1,499	434	29.0
2009	농어촌	52,918	6,839	12.9	4,341	1,679	38.7
	도시	248,050	17,846	7.2	1,295	307	23.7
2010	농어촌	56,502	7,219	12.8	4,489	1,684	37.5
	도시	261,077	18,605	7.1	1,481	338	22.8
2011	농어촌	54,441	6,074	11.2	3,959	1,291	32.6
	도시	266,713	15,709	5.9	1,395	267	19.1
2012	농어촌	52,829	5,462	10.3	4,042	1,176	29.1
	도시	266,463	14,623	5.5	1,352	219	16.2

자료 :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주: 농림어업종사자는 남편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만 집계(외국인 제외)

2012년 기준, 농어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비율이 71.6%인 반면, 도시에서는 60.1%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도시 모두 다문화가족은 자녀 양육시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한국어 가르치기'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표2-13-(2) | 결혼이민자 자녀 현황 (단위: %)

연도	구분	없음	1명	2명	3명이상
2009	농어촌	29.7	41.4	22.3	6.6
	도시	43.1	37.2	16.6	3.1
2012	농어촌	28.4	36.2	27.9	7.5
	도시	39.9	37.4	18.9	3.8

자료: 각 연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13-(3)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도	구분	6세 미만	6~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평균(세)
2012	농어촌	54.4	26.9	9.7	4.5	4.4	6.56
	도시	51.3	24.9	7.6	4.6	11.5	7.86

자료: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표2-13-(4) |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의 어려움 (단위: %)

연도	구분	어려움 없음	자녀 양육 방식을 둘러싼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 와 갈등	한국어 가르 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 줄 사람 또는 보육 시설이 없음	양육비, 교육비 지출	학업 성적 부진 또는 학교 생활 부적 응	자녀의 건강, 행동의 문제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 이라는 점으로 인한 아이의 심리적 혼란	기타
2012	농어촌	53.1	7.0	30.7	10.5	50.7	4.9	7.7	1.9	2.8
	도시	49.4	6.2	22.9	11.7	49.1	3.8	4.4	2.5	2.5

자료: 2012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교육 부문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별 학교 수
 학생 수별 학교 수
 소규모학교 비율
 복식학교 비율
 교원 수
 연령별 교원 수
 사무직원 수
 사서교사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율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학교 컴퓨터 보급률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통학수단
 결손가정 아동 비율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학업중단 비율
 대학(교) 진학률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학생 1인당 월 사교육비 및 참여율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도서관 현황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3>01 학생 수

▶ 농어촌의 학생수는 994,318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994,318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초등 학생수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 표3-01 |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1,144,550	609,385	282,418	252,747
	도시	6,473,246	3,062,822	1,756,193	1,654,231
2009	농어촌	1,109,056	570,718	277,997	260,341
	도시	6,338,103	2,903,677	1,728,975	1,705,451
2010	농어촌	1,087,631	545,841	277,955	263,835
	도시	6,148,617	2,753,253	1,696,843	1,698,521
2011	농어촌	1,060,729	521,695	275,042	263,992
	도시	5,926,118	2,610,782	1,635,530	1,679,806
2012	농어촌	1,038,396	496,997	273,273	268,126
	도시	5,682,780	2,454,998	1,575,821	1,651,961
2013	농어촌	994,318	463,026	263,333	267,959
	도시	5,487,174	2,320,720	1,540,856	1,625,34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2 학교 수

▶ 농어촌의 학교수는 4,431개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수는 총 4,431개로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도시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3-02 | 학교 수 (단위: 개)

연도	구분	학교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526	2,609	1,240	677
	도시	6,554	3,204	1,837	1,513
2009	농어촌	4,485	2,573	1,235	677
	도시	6,675	3,256	1,871	1,548
2010	농어촌	4,489	2,566	1,239	684
	도시	6,748	3,288	1,891	1,569
2011	농어촌	4,475	2,550	1,238	687
	도시	6,842	3,332	1,915	1,595
2012	농어촌	4,457	2,531	1,236	690
	도시	6,903	3,364	1,926	1,613
2013	농어촌	4,431	2,513	1,229	689
	도시	6,977	3,400	1,944	1,633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3 학급 수별 학교수

▶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는 '6~10학급' 비중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학급수는 6~10학급이 46.9%로 가장 많았으며, 1~5학급이 23.5%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반면, 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급수는 26~30학급이 19.2%로 가장 많았으며, 21~25학급이 18.4%, 31~35학급이 14.1%로 다음 순위를 나타냈다.

| 표3-03 | 학급수별 학교수

(단위: %)

연도	구분	학급수별 학교수										
		1~5 학급	6~ 10 학급	11~ 15 학급	16~ 20 학급	21~ 25 학급	26~ 30 학급	31~ 35 학급	36~ 40 학급	41~ 45 학급	46~ 50 학급	51 학급 이상
2008	농어촌	23.2	47.8	10.3	6.2	4.5	3.1	2.2	1.6	0.5	0.3	0.3
	도시	0.7	4.7	6.0	10.1	14.6	19.1	14.7	13.5	8.2	4.7	3.7
2009	농어촌	23.9	47.0	10.1	6.4	4.7	3.1	2.2	1.7	0.4	0.4	0.2
	도시	0.7	5.0	5.7	10.9	15.8	18.7	14.9	12.8	8.1	4.0	3.2
2010	농어촌	24.4	46.6	10.1	6.0	4.9	2.9	2.4	1.7	0.5	0.3	0.2
	도시	0.6	4.9	5.8	11.4	17.1	18.6	14.8	13.0	7.4	3.7	2.7
2011	농어촌	24.1	46.6	9.8	6.2	5.1	3.0	2.4	1.8	0.5	0.3	0.1
	도시	0.6	5.3	6.2	11.5	17.8	18.8	14.7	12.5	6.9	3.5	2.1
2012	농어촌	23.5	46.9	10.2	5.9	5.1	3.1	2.5	1.8	0.6	0.3	0.1
	도시	0.6	5.3	6.8	12.7	17.9	19.0	14.5	12.0	6.4	3.0	1.8
2013	농어촌	23.5	46.9	10.8	5.5	5.1	3.1	2.5	1.6	0.6	0.3	0.1
	도시	0.7	5.1	7.4	13.3	18.4	19.2	14.1	11.6	5.9	2.9	1.4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3>04 학생 수별 학교 수

▶ 농어촌의 학생수별 학교수는 '100명 이하'인 학교 비율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학생수별 학교 분포를 보았을 때 농어촌에서는 학생수 '100명 이하'가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도시에서는 학생수 '1,001~1,500명'인 학교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표3-04 | 학생수별 학교수

(단위: %)

연도	구분	100명 이하	101~ 200명	201~ 400명	401~ 600명	601~ 800명	801~ 1,000명	1,001~ 1,500명	1,501~ 2,000명	2,001~ 3,000명	3,001명 이상
2008	농어촌	47.9	17.9	13.5	7.7	4.6	3.6	4.1	0.6	0.1	0.0
	도시	2.1	1.8	5.2	10.2	14.0	17.4	37.4	10.5	1.3	0.0
2009	농어촌	49.1	16.9	13.5	7.7	4.8	3.5	4.0	0.4	0.0	0.0
	도시	2.3	1.9	5.6	10.8	15.9	18.4	35.5	8.8	0.9	0.0
2010	농어촌	50.5	16.2	13.1	7.8	4.7	3.6	3.9	0.3	0.0	0.0
	도시	2.3	2.2	6.0	12.1	17.5	18.6	33.7	7.0	0.6	0.0
2011	농어촌	51.5	15.6	12.9	7.7	4.8	3.6	3.7	0.2	0.0	0.0
	도시	2.5	2.3	7.2	13.6	18.4	19.9	30.2	5.6	0.4	0.0
2012	농어촌	52.4	14.8	13.2	7.4	4.6	4.1	3.3	0.1	0.0	0.0
	도시	2.4	2.7	8.7	15.4	20.3	19.8	26.9	4.2	0.2	0.0
2013	농어촌	53.5	14.0	13.6	7.6	4.8	3.5	3.0	0.1	0.0	0.0
	도시	2.6	2.8	9.2	17.1	21.4	19.7	24.0	3.1	0.1	0.0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1) 초, 중, 고등학교 대상임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5 소규모학교 비율

▶ 농어촌의 소규모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소규모학교(학생수 100인 이하) 비율은 53.5%이며, ‘초등학교’가 65.9%, ‘중학교’ 49.8%, ‘고등학교’ 14.9%로 도시에 비해 매우 높았다. 특히, 농어촌의 초등학교, 중학교 가운데에는 소규모학교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표3-05 | 소규모학교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소규모학교(100인 이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47.9	57.2	46.3	15.1
	도시	2.1	3.8	0.7	0.3
2009	농어촌	49.1	58.7	48.0	14.6
	도시	2.3	4.1	0.9	0.2
2010	농어촌	50.5	60.2	49.2	16.2
	도시	2.3	4.0	0.9	0.3
2011	농어촌	51.5	62.1	49.4	16.0
	도시	2.5	4.4	0.8	0.4
2012	농어촌	52.4	64.1	49.4	15.1
	도시	2.4	4.3	0.8	0.3
2013	농어촌	53.5	65.9	49.8	14.9
	도시	2.6	4.5	1.1	0.3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6 복식학교 비율

▶ 농어촌의 복식학교 비율은 13.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초등학교 2,513개 중 복식학교 비율은 13.2%로, 이 가운데 ‘2개 학년’ 복식학교 비율이 9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에서는 복식학교 비율이 0.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3-06 | 복식학교 비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초등학교		복식학급 학교수					복식학교 비율
				2개 학년	3개 학년	4개 학년	5개 학년	6개 학년	
2008	농어촌	2,609	364	362	2	-	-	-	14.0
	도시	3,204	47	23	10	10	3	1	1.5
2009	농어촌	2,573	386	381	1	3	1	-	15.0
	도시	3,256	34	24	4	3	2	1	1.0
2010	농어촌	2,566	382	379	3	-	-	-	14.9
	도시	3,288	36	24	6	3	3	-	1.1
2011	농어촌	2,550	368	355	6	1	-	6	14.4
	도시	3,332	27	19	3	3	1	1	0.8
2012	농어촌	2,531	335	320	2	3	-	10	13.2
	도시	3,364	24	16	5	2	-	1	0.7
2013	농어촌	2,513	332	314	2	1	1	14	13.2
	도시	3,400	30	17	6	2	1	4	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1) 복식학급은 초등학교만 있음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7 교원 수

▶ 농어촌의 교원수는 86,872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교원수는 86,872명으로, 2008년 대비 증가했으며, 모든 학교급에서 공통적으로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 표3-07 | 교원 수 (단위: 명)

연도	구분	교원수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83,688	41,228	21,881	20,579
	도시	320,108	130,962	86,819	102,327
2009	농어촌	83,748	41,223	21,753	20,772
	도시	325,469	133,845	87,322	104,302
2010	농어촌	84,422	41,674	21,700	21,048
	도시	327,536	135,080	87,081	105,375
2011	농어촌	86,136	42,468	22,046	21,622
	도시	336,228	138,155	88,612	109,461
2012	농어촌	87,000	42,639	22,225	22,136
	도시	338,392	138,796	88,779	110,817
2013	농어촌	86,872	42,155	22,457	22,260
	도시	340,817	139,430	90,233	111,154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8 연령별 교원 수

▶ 농어촌 학교의 **연령별 교원수**는 40대가 28.2%로 가장 많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교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40대'가 28.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0대'(28.0%), '50대'(24.6%)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는 '30대' 교원 비율이 33.8%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7.3%), '50대'(22.6%)의 순이었다.

| 표3 - 08 | 연령별 교원 수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교원 수	비율
2008	농어촌	83,688	13,617	16.3	20,878	24.9	20,501	34.1	18,433	22.0	2,259	2.7
	도시	320,108	54,187	16.9	100,257	31.3	100,383	31.4	58,095	18.1	7,186	2.2
2009	농어촌	83,748	14,412	17.2	20,737	24.8	28,537	34.1	17,779	21.2	2,283	2.7
	도시	325,469	54,141	16.6	103,410	31.8	101,487	31.2	59,637	18.3	6,794	2.1
2010	농어촌	84,422	14,243	16.9	21,294	25.2	28,270	33.5	18,219	21.6	2,396	2.8
	도시	327,536	51,086	15.6	105,824	32.3	100,166	30.6	63,006	19.2	7,454	2.3
2011	농어촌	86,136	14,453	16.8	22,345	25.9	27,534	32.0	19,240	22.3	2,564	3.0
	도시	336,228	50,321	15.0	111,401	33.1	97,931	29.1	68,821	20.5	7,754	2.3
2012	농어촌	87,000	14,407	16.6	23,624	27.2	26,273	30.2	20,133	23.1	2,563	2.9
	도시	338,392	48,577	14.4	113,373	33.5	95,140	28.1	73,518	21.7	7,784	2.3
2013	농어촌	86,872	14,038	16.2	24,309	28.0	24,460	28.2	21,332	24.6	2,733	3.1
	도시	340,817	47,105	13.8	115,152	33.8	92,949	27.3	76,962	22.6	8,649	2.5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09 사무직원 수

▶ 농어촌의 초·중·고교 사무직원수는 16,870명, 학교 당 3.8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고등학교 전체 사무직원수는 16,870명, 학교 당 3.8명으로 연도별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도시의 학교 당 사무직원수는 학교당 4.9명으로 농어촌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 표3-09 | 사무직원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사무직원수				학교 당 사무직원수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2008	농어촌	17,490	10,398	3,989	3,103	3.9	4.0	3.2	4.6
	도시	33,284	15,106	7,993	10,185	5.1	4.7	4.4	6.7
2009	농어촌	17,252	10,222	3,948	3,082	3.8	4.0	3.2	4.6
	도시	33,360	15,082	8,079	10,199	5.0	4.6	4.3	6.6
2010	농어촌	17,304	10,290	3,897	3,117	3.9	4.0	3.1	4.6
	도시	33,794	15,229	8,162	10,403	5.0	4.6	4.3	6.6
2011	농어촌	17,114	10,175	3,825	3,114	3.8	4.0	3.1	4.5
	도시	33,851	15,260	8,121	10,470	4.9	4.6	4.2	6.6
2012	농어촌	17,218	10,240	3,844	3,134	3.9	4.0	3.1	4.5
	도시	34,291	15,499	8,217	10,575	5.0	4.6	4.3	6.6
2013	농어촌	16,870	10,021	3,792	3,057	3.8	4.0	3.1	4.4
	도시	33,889	15,244	8,078	10,567	4.9	4.5	4.2	6.5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10 사서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도시(8.0%)의 약 1/3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사서교사 배치율은 2.5%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8.0%)의 약 1/3수준이었다.

| 표3-10 | 사서교사 배치율

(단위: %)

연도	구분	사서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2.7	2.5	2.0	4.9
	도시	7.9	4.5	5.8	17.8
2009	농어촌	2.7	2.6	2.0	4.6
	도시	7.9	4.5	5.8	17.6
2010	농어촌	2.9	2.8	2.1	4.8
	도시	8.1	4.7	5.5	18.5
2011	농어촌	3.0	2.8	2.3	4.8
	도시	8.3	4.7	6.1	18.5
2012	농어촌	2.9	2.7	2.6	4.3
	도시	8.0	4.7	5.7	17.8
2013	농어촌	2.5	2.5	2.1	3.2
	도시	8.0	4.8	6.0	17.1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 1) 사서교사배치율(%)=사서교사 배치 학교수x100/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3>11 보건교사 배치율

▶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도시(80.7%)의 약 1/2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38.0%로,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48.1%)을 보인 반면,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16.8%)을 나타냈다. 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80.7%로 농어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3-11 | 보건교사 배치율

(단위: %)

연도	구분	보건교사 배치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8.7	50.1	16.1	35.7
	도시	82.0	90.1	71.5	77.6
2009	농어촌	37.7	49.0	15.7	35.3
	도시	81.7	89.5	72.0	77.1
2010	농어촌	38.1	49.7	15.7	35.1
	도시	80.7	88.8	72.0	74.3
2011	농어촌	38.1	48.7	16.6	37.6
	도시	81.7	88.0	73.4	78.5
2012	농어촌	38.2	48.4	16.6	39.4
	도시	81.9	87.8	73.4	79.7
2013	농어촌	38.0	48.1	16.8	39.0
	도시	80.7	86.7	72.4	78.0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1) 보건교사배치율(%)=보건교사 배치 학교수/전체학교수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임

3>12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

2013년 농어촌 고등학교의 기숙사 보유율은 76.6%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시(36.9%)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3-12 |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율

(단위: 개, %)

연도	구분	고등학교	기숙사 보유 고등학교	
			보유 학교수	보유율
2008	농어촌	677	528	78.0
	도시	1,513	520	34.4
2009	농어촌	677	532	78.6
	도시	1,548	523	33.8
2010	농어촌	684	503	73.5
	도시	1,569	528	33.7
2011	농어촌	687	515	75.0
	도시	1,595	560	35.1
2012	농어촌	690	537	77.8
	도시	1,613	581	36.0
2013	농어촌	689	528	76.6
	도시	1,633	603	36.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13 학교 컴퓨터 보급률

▶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수는 2.4명

2013년 기준, 농어촌 학교의 컴퓨터 1대 당 학생수는 2.4명으로 점차 보급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 4.4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3-13 | 학교 컴퓨터 보급률

(단위: 명)

연도	구분	컴퓨터 1대 당 학생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08	농어촌	3.0	3.4	3.0	2.4
	도시	5.6	6.5	6.2	4.1
2009	농어촌	2.9	3.2	2.9	2.5
	도시	5.4	6.0	6.1	4.2
2010	농어촌	2.4	2.9	1.8	2.5
	도시	5.2	5.6	5.9	4.2
2011	농어촌	2.7	2.7	2.8	2.4
	도시	4.9	5.2	5.7	4.0
2012	농어촌	2.5	2.6	2.7	2.4
	도시	4.7	4.9	5.6	4.0
2013	농어촌	2.4	2.4	2.5	2.3
	도시	4.4	4.5	5.2	3.8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14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7.7%

2012년 기준, 농어촌의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37.7%로 나타났으며, 농어촌이 대도시(48.0%) 및 중소도시(42.1%)에 비해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낮았다.

연도	구분	참여율
2007	농어촌	40.8
	대도시	38.1
	중소도시	37.5
2008	농어촌	37.9
	대도시	40.6
	중소도시	37.0
2009	농어촌	38.0
	대도시	45.9
	중소도시	42.0
2010	농어촌	42.1
	대도시	51.3
	중소도시	45.8
2011	농어촌	43.3
	대도시	54.1
	중소도시	45.5
2012	농어촌	37.7
	대도시	48.0
	중소도시	42.1

자료 : 각 연도 사교육비실태조사

3>15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 비율은 44.1%

2012년 기준, 전국의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은 44.1%로, 고등학교(61.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교(42.4%), 중학교(29.3%) 순이었다.

| 표3-15 | 학교급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단위: %)

구분		학교급별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38.2	35.5	22.1	61.9	70.0
2008	38.7	33.8	26.5	61.2	70.2
2009	43.1	37.2	30.6	66.2	76.8
2010	47.6	39.8	38.1	70.1	80.8
2011	48.8	44.6	36.4	67.8	77.7
2012	44.1	42.4	29.3	61.0	70.1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실태조사

3>16 통학수단

▶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통학수단은 '도보(37.1%)'가 가장 많고,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12세 이상 학생들의 주된 통학수단으로는 '도보'가 37.1%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시내·좌석·마을버스'(29.3%), '승용·소형승합차'(13.9%), '통근·통학버스'(9.1%) 순이었다. 농어촌이 도시에 비해 '시내·좌석·마을버스', '승용·승합차' 및 '통근·통학버스' 이용률이 높은 반면, '도보' 및 '전철·지하철'은 낮게 나타났다.

| 표3-16 | 통학수단

(단위 : %)

연도	구분	승용 소형 승합 차	시내 좌석 마을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전철· 지하 철	기차	택시	자전 거	도보	기타	복합 수단
2005	농어촌	11.1	35.4	8.3	2.6	0.3	0.3	0.1	2.1	37.5	0.7	1.6
	남자	12.0	34.0	8.0	2.4	0.3	0.3	0.1	3.3	37.4	0.7	1.3
	여자	10.1	37.1	8.7	2.7	0.3	0.3	0.1	0.6	37.6	0.6	1.9
	도시	5.5	29.5	5.9	1.0	7.6	0.2	0.1	1.2	45.1	0.1	3.9
	남자	6.1	28.1	5.7	1.0	7.1	0.2	0.1	2.2	45.8	0.2	3.6
	여자	4.8	31.0	6.2	1.0	8.1	0.2	0.1	0.2	44.2	0.0	4.2
2010	농어촌	13.9	29.3	9.1	1.8	0.8	0.3	0.2	2.1	37.1	0.7	4.8
	남자	14.2	28.6	8.8	1.7	0.7	0.3	0.1	3.4	37.0	0.8	4.3
	여자	13.5	30.1	9.6	1.8	0.9	0.3	0.2	0.5	37.2	0.5	5.4
	도시	6.2	26.8	6.7	0.9	6.2	0.1	0.2	1.7	43.2	0.3	7.6
	남자	6.6	25.7	6.4	0.9	5.9	0.1	0.2	3.0	43.9	0.4	6.9
	여자	5.8	28.1	7.1	0.9	6.4	0.1	0.2	0.3	42.6	0.1	8.4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3>17 결손가정 아동 비율

▶ 농어촌의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로 도시(7.5%)와 비슷한 수준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전체 12세 이하 아동 대비 결손가정 아동 비율은 7.7%인 가운데, 편부모 가정 아동은 5.7%, 조손 가정 아동은 2.0%로 나타났다. 편부모 가정 아동 비율이 도시에 더 높은 반면, 조손 가정 아동 비율은 농어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 표3-17 | 결손가정 아동 비율

(단위: %)

연도	구분	결손가정(편부모, 조손) 아동 비율		
			편부모	조손
2005	농어촌	6.7	4.8	1.9
	도시	6.7	6.2	0.5
2010	농어촌	7.7	5.7	2.0
	도시	7.5	6.7	0.8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12세 이하 인구 대상

3>18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농어촌의 학생의 학업성취도 우수학력 비율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

2013년 기준, 초등학교 6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우수학력 비율을 보면 각각 농어촌이 49.1%, 34.3%, 66.7%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학업성취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우수학력 비율이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표3-18-(1)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초등학교 6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15.3	47.5	30.7	6.5	16.8	58.1	23.2	1.9	44.1	23.1	27.6	5.2
	대도시	19.9	51.5	25.2	3.5	27.3	56.0	15.6	1.1	61.2	19.2	17.0	2.6
	중소도시	20.2	51.2	25.2	3.3	24.1	58.3	16.4	1.2	61.4	19.3	16.8	2.5
2013	농어촌	49.1	33.9	16.5	0.5	34.3	43.2	21.6	0.9	66.7	21.8	10.8	0.8
	대도시	55.8	30.5	13.2	0.5	43.0	39.0	17.0	0.9	78.0	13.8	7.5	0.7
	중소도시	50.6	33.2	15.6	0.6	37.0	41.6	20.4	1.0	78.9	16.5	9.7	0.9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3-18-(2)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중학교 3학년

(단위: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7.4	40.5	43.0	9.1	11.6	29.1	48.9	10.4	10.5	36.4	46.6	6.5
	대도시	11.9	44.3	36.4	7.4	20.1	34.1	39.7	6.1	23.7	36.3	35.4	4.6
	중소도시	11.0	45.3	36.6	7.0	18.3	33.9	41.0	6.8	19.9	37.9	37.5	4.7
2013	농어촌	26.5	55.0	17.4	1.0	9.5	49.6	36.9	3.9	16.8	50.5	30.2	2.4
	대도시	33.1	51.7	14.1	1.0	19.5	50.3	27.1	3.1	32.2	44.4	21.3	2.0
	중소도시	30.6	52.6	15.6	1.1	16.1	49.8	30.3	3.7	27.1	45.8	24.6	2.3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 표3 - 18 - (3) | 학업성취도 등급별 비율 - 고등학교 1학년

(단위 : %)

연도	성취수준	국어				수학				영어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2006	농어촌	9.1	43.4	41.7	5.8	7.2	30.7	47.6	14.6	4.5	32.7	56.0	6.8
	대도시	18.3	46.3	31.4	4.0	15.0	38.5	36.8	9.6	12.8	40.6	42.5	4.2
	중소도시	20.9	44.9	29.8	4.4	16.6	37.3	35.9	10.2	14.0	39.9	41.0	5.2
2013	농어촌	24.6	56.5	17.4	1.5	19.0	59.3	17.1	4.6	25.0	55.9	16.3	2.8
	대도시	31.5	53.1	13.3	2.0	27.2	55.4	13.3	4.1	37.0	49.0	11.6	2.3
	중소도시	28.9	54.0	14.9	2.2	22.8	57.3	15.4	4.6	31.4	51.8	14.0	2.7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연구)

3>19 학교 진학률(초→중, 중→고)

▶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은 농어촌과 도시 모두 거의 100% 수준

2013년 기준, 농어촌의 학교진학률은 중학교 99.9%, 고등학교 99.0%로, 도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도	구분	중학교 진학률(초→중)	고등학교 진학률(중→고)
2008	농어촌	99.9	98.8
	도시	99.9	98.8
2009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6
2010	농어촌	99.9	98.8
	도시	99.8	98.1
2011	농어촌	99.9	97.9
	도시	99.9	98.2
2012	농어촌	99.9	98.9
	도시	99.9	98.7
2013	농어촌	99.9	99.0
	도시	99.9	98.9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20 학업중단 비율

▶ 농어촌의 학업중단 비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7%, 고등학교 2.5%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초·중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각각 0.3%, 0.7%로 도시 0.7%, 1.0%에 비해 낮았다. 반면, 농어촌의 고등학교 학업중단 비율은 2.5%로 도시 1.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표3-20 | 학업중단 비율

(단위: 명, %)

연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학생수	학업 중단 학생	학업 중단 비율
2008	농어촌	609,385	2,159	0.4	282,418	1,914	0.7	252,747	6,714	2.7
	도시	3,062,822	18,291	0.6	1,756,193	18,187	1.0	1,654,231	26,229	1.6
2009	농어촌	570,718	1,820	0.3	277,997	1,882	0.7	260,341	7,196	2.8
	도시	2,903,677	15,824	0.5	1,728,975	17,793	1.0	1,705,451	27,754	1.6
2010	농어촌	545,841	1,115	0.2	277,955	1,686	0.6	263,835	7,353	2.8
	도시	2,753,253	10,519	0.4	1,696,843	14,050	0.8	1,698,521	27,187	1.6
2011	농어촌	521,695	1,496	0.3	275,042	2,016	0.7	263,992	7,775	2.9
	도시	2,610,782	17,340	0.7	1,635,530	16,850	1.0	1,679,806	31,112	1.9
2012	농어촌	496,997	1,697	0.3	273,273	1,907	0.7	268,126	7,315	2.7
	도시	2,454,998	17,466	0.7	1,575,821	15,904	1.0	1,651,961	30,076	1.8
2013	농어촌	463,026	1,375	0.3	263,333	1,781	0.7	267,959	6,724	2.5
	도시	2,320,974	15,453	0.7	1,540,856	14,645	1.0	1,625,344	28,210	1.7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주: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21 대학(교) 진학률

▶ 농어촌의 대학(교) 진학률은 72.9%로 도시(69.7%)에 비해 약간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 고등학교 졸업자는 84,850명이며, 이 중 72.9%가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진학률이 감소한 가운데, 도시(69.7%)에 비해 대학(교) 진학률이 약간 높았다.

| 표3-21 | 대학(교)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진학자			대학(교)진학률			
			국내대학	국내 전문대학	국외대학		국내 대학	국내 전문 대학	국외 대학
2008	농어촌	76,446	37,915	26,668	264	84.8	49.6	70.3	1.0
	도시	505,475	303,546	115,998	1,222	83.2	60.1	38.2	1.1
2009	농어촌	74,708	37,008	26,342	272	85.2	49.5	71.2	1.0
	도시	501,590	281,706	122,942	1,458	81.0	56.2	43.6	1.2
2010	농어촌	82,011	39,772	28,289	340	83.4	48.5	71.1	1.2
	도시	551,528	298,665	127,707	1,489	77.6	54.2	42.8	1.2
2011	농어촌	84,007	36,076	28,052	315	76.7	42.9	77.8	1.1
	도시	564,461	261,064	139,334	1,459	71.2	46.3	53.4	1.0
2012	농어촌	83,048	34,714	26,598	274	74.2	41.8	76.6	1.0
	도시	553,676	254,738	132,920	1,082	70.2	46.0	52.2	0.8
2013	농어촌	84,850	36,053	25,512	265	72.9	42.5	70.8	1.0
	도시	546,347	254,266	125,893	870	69.7	46.5	49.5	0.7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1) 국내대학에는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진학자가 포함되어 있고 국외대학은 국외 4년제 대학교, 전문대 포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22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 농어촌의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은 각 43.3%, 8.2%

농어촌의 특수교육자(장애인)의 진학률은 43.3%로 도시(43.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농어촌 특수교육자의 취업률은 8.2%로 도시(14.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3-22 | 특수교육자 진학률 및 취업률

(단위: %)

연도	구분	진학률			취업률		
			남	여		남	여
2008	농어촌	55.9	58.3	51.9	12.1	12.6	11.3
	도시	46.5	46.9	45.7	20.5	20.0	21.6
2009	농어촌	57.0	54.3	62.2	13.3	12.8	14.3
	도시	49.6	48.3	52.0	20.2	20.9	18.7
2010	농어촌	58.3	57.3	60.4	9.9	11.3	7.2
	도시	45.4	45.0	46.3	17.8	18.8	15.7
2011	농어촌	33.3	33.6	32.8	8.7	9.9	6.1
	도시	29.2	27.5	32.3	15.9	16.0	15.9
2012	농어촌	28.8	29.1	28.5	10.2	9.1	12.0
	도시	29.6	28.6	31.7	17.0	16.5	18.0
2013	농어촌	43.3	45.0	40.0	8.2	8.1	8.3
	도시	43.6	44.6	41.6	14.6	15.1	13.5

자료: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조사

주: 1) 대학(교)진학률을 의미함

2) 농어촌은 '읍면지역+도서지역', 도시는 '특별/광역시+시'를 합한 수치임

3>23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5.0만원

2012년 기준, 농어촌의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5.0만원이며, 사교육 참여율은 58.0%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사교육비는 모든 학교급에서 대도시, 중소도시에 비해 적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고등학교에서 차이가 컸다. 농어촌의 사교육 참여율도 대도시(71.9%), 중소도시(70.3%)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3-23 |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단위: 만원, %)

연도	구분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사교육 참여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2007	농어촌	12.1	13.2	13.1	7.9	7.8	66.4
	대도시	24.6	24.7	26.2	22.7	28.0	79.6
	중소도시	22.8	23.9	23.3	19.7	23.0	77.5
2008	농어촌	12.5	13.9	13.3	8.4	8.3	64.0
	대도시	25.5	26.0	26.8	23.3	28.1	77.6
	중소도시	24.2	25.9	24.3	21.0	24.8	75.8
2009	농어촌	15.6	18.0	17.7	8.1	11.1	67.3
	대도시	26.9	26.3	27.3	27.3	32.2	76.6
	중소도시	24.5	25.4	27.4	19.9	24.3	76.0
2010	농어촌	16.0	19.1	16.9	8.4	11.3	65.4
	대도시	26.6	25.7	27.1	27.4	31.9	75.5
	중소도시	24.4	25.6	26.7	19.9	23.9	74.7
2011	농어촌	16.0	18.6	17.8	8.6	11.0	64.0
	대도시	26.6	25.3	27.9	27.2	31.7	73.8
	중소도시	24.3	25.1	27.2	20.1	23.6	72.4
2012	농어촌	15.0	16.3	18.7	9.1	11.3	58.0
	대도시	26.3	23.6	29.7	27.1	31.7	71.9
	중소도시	23.4	21.7	28.3	21.5	25.0	70.3

자료: 각 연도 사교육비실태조사

3>24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 농어촌의 68.6%가 교육비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느끼고 있음

농어촌의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은 '부담스럽다'가 68.6%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보통'은 22.1%, '부담스럽지 않다'는 9.2%였다. 농어촌에서 교육비가 부담된다는 비율이 2010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도시(73.7%)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표3-24 | 교육비 부담에 대한 인식

(단위: %)

연도	구분	부담스럽다			보통	부담스럽지 않다		
			매우	약간		별로	전혀	
2008	농어촌	75.9	37.9	38.0	18.6	5.6	5.0	0.6
	도시	80.5	40.1	40.4	15.0	4.4	3.9	0.5
2010	농어촌	76.6	34.6	42.0	17.6	5.8	5.1	0.7
	도시	78.7	37.9	40.8	16.4	4.9	4.2	0.7
2012	농어촌	68.6	29.4	39.2	22.1	9.2	7.2	2.0
	도시	73.7	31.9	41.8	20.8	5.4	4.5	0.9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30세 이상 가구주 대상

3>25 도서관 현황

▶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도서관 수는 177개로 도시의 약 1/7 수준이었으며, 농어촌 도서관 당 종사자 수는 5.7명으로, 도시 8.0명에 비해 적었다.

표3-25 | 도서관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구분	도서관 수	종사자	도서관 당 종사자 수
2007	농어촌	142	920	6.5
	도시	583	8217	14.1
2013	농어촌	177	1,006	5.7
	도시	1,287	10,275	8.0

자료: 각 연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주: 1) 도서관에 기록보존소 포함

2)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0.6%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참여율은 30.6%로, 대도시(30.7%) 및 중소도시(29.6%)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3-26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경험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참여율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직업관련	
2007	농어촌	31.7	4.2	28.3	13.9
	대도시	29.4	7.5	25.3	9.2
	중소도시	29.3	3.9	26.9	10.7
2009	농어촌	26.4	3.1	24.4	11.8
	대도시	27.6	5.5	24.2	13.3
	중소도시	29.2	3.2	27.2	16.8
2010	농어촌	30.8	3.1	29.8	19.3
	대도시	28.1	4.2	25.6	12.8
	중소도시	33.6	3.7	31.2	16.4
2011	농어촌	25.7	2.1	24.5	13.9
	대도시	35.0	5.6	32.0	16.6
	중소도시	31.8	3.3	30.1	16.3
2012	농어촌	26.6	0.4	26.2	13.4
	대도시	37.3	4.3	34.2	14.3
	중소도시	37.3	3.8	34.8	17.8
2013	농어촌	30.6	1.7	29.9	19.3
	대도시	30.7	4.6	28.1	16.1
	중소도시	29.6	3.8	27.3	15.6

자료 : 각 연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실태조사

주 : 1) 전체참여율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하나라도 참여한 경우임

2) 형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3) 비형식교육이란 강좌형태로 기관에 등록하여 참여하거나 개인과외, 스터디클럽 형태로 참여한 교육을 의미

※대도시: 특·광역시, 중소도시: 특·광역시 이외의 도시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4

문화여가여건

부문

주요 여가활동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4.01 주요 여가활동

▶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은 'TV 및 DVD 시청(35.6%)'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주요 여가활동으로는 'TV 및 DVD 시청'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가사일'(15.4%), '휴식'(13.0%), '종교활동'(8.9%) 순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의 여가 활동 중 'TV 및 DVD 시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대부분의 여가활동에서 비율이 낮으나 'TV 및 DVD 시청',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비율은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4-01 | 주요 여가활동

(단위: %)

연도	구분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창작적 취미
2007	농어촌	29.1	4.2	1.1	0.4	3.6	4.5	1.0
	도시	27.4	5.3	2.4	0.6	5.0	6.5	1.1
2009	농어촌	30.0	4.6	1.4	0.4	3.8	4.9	1.1
	도시	30.1	5.4	2.8	1.0	5.7	6.2	1.0
2011	농어촌	36.4	3.3	2.0	0.6	4.3	4.7	1.3
	도시	36.1	4.3	3.5	1.2	5.5	6.4	1.5
2013	농어촌	35.6	4.7	2.3	0.6	4.6	3.7	1.2
	도시	34.2	5.9	3.6	0.8	5.3	5.8	1.3

연도	구분	자기 개발	봉사 활동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일	기타
2007	농어촌	1.6	0.3	9.2	16.8	18.4	9.2	0.5
	도시	3.2	0.2	10.5	13.1	15.4	8.9	0.5
2009	농어촌	1.8	0.3	8.0	19.2	14.4	8.9	1.2
	도시	3.4	0.4	10.0	13.0	12.5	8.2	0.6
2011	농어촌	1.5	0.4	8.1	16.4	12.9	7.1	1.1
	도시	2.8	0.2	9.4	12.5	9.5	6.5	0.5
2013	농어촌	1.5	0.2	8.9	15.4	13.0	7.1	1.2
	도시	2.8	0.3	8.6	12.4	10.9	7.6	0.6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4>02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 농어촌의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45.9%, 횟수는 7.7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지난 1년간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경험률은 45.9%, 평균 관람 횟수는 7.7회로 나타난 가운데, 유형별로는 ‘공연장’ 관람 경험률(30.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관람 경험률 및 평균 관람 횟수가 낮았다.

| 표4 - 02 | 공연장 및 전시장 관람

(단위: %, 회)

연도	구분	관람함								관람 하지 않음
				공연장 이용		전시장 이용		스포츠 관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07	농어촌	42.8	5.1	79.0	4.8	38.8	2.4	15.0	3.0	57.2
	도시	56.8	7.3	88.1	6.3	36.2	2.9	19.0	3.4	43.2
2009	농어촌	38.4	6.0	84.3	5.4	33.2	2.6	17.8	3.3	61.6
	도시	58.7	7.7	90.2	6.6	32.4	3.0	20.9	3.5	41.3
2011	농어촌	42.7	7.0	30.3	3.2	21.8	2.4	20.4	4.1	57.3
	도시	62.1	8.6	34.2	3.4	23.8	2.5	24.9	4.2	37.9
2013	농어촌	45.9	7.7	30.7	3.7	22.3	2.6	19.5	3.9	54.1
	도시	67.1	9.0	34.0	3.7	22.7	2.6	22.4	4.1	32.9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1)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 2011년 이후, ‘음악연주회’, ‘연극마당국뮤지컬’, ‘무용’, ‘영화’를 ‘공연장’에 포함, ‘박물관’, ‘미술관’을 ‘전시장’에 포함

4>03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690개로 도시(2,951)의 약 1/4 수준

2009년 기준, 농어촌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690개로, 지역 문화·복지 시설(393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의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는 총 2,951개로 공연시설(1,647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표4-03 | 문화·예술시설 공간 수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총계	공연시설				전시시설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 상영장		미술관	화랑
2006	농어촌	715	96	69	6	21	57	41	16
	도시	2,728	1,415	296	235	884	363	125	238
2009	농어촌	690	101	72	10	19	55	52	3
	도시	2,951	1,647	342	246	1,059	387	129	258

연도	구분		지역 문화·복지 시설				기타시설
			시군 구민회관	복지회관	청소년 회관	다목적 체육 이용시설	소계
2006	농어촌	426	53	316	57	0	136
	도시	744	72	461	178	33	206
2009	농어촌	393	43	283	67	-	141
	도시	701	84	454	163	-	216

자료 : 각 연도 시도 통계연보

주 :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4>04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 농어촌의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1.2%

2012년 기준, 문화이용권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층은 1.2%로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문화이용권 이용률은 각각 1.6%, 1.7%로 농어촌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 표4 - 04 | 지역별 문화이용권(바우처) 이용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2012	농어촌	1.2	98.8
	대도시	1.6	98.4
	중소도시	1.7	98.3

자료 :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4>05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및 동호회 참여현황

▶ 농어촌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율은 12.0%, 문화 관련 동아리 참여율은 1.8%

2012년 기준, 농어촌에서 대중음악교육(4.4%), '영화교육'(3.6%)에 대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문화·예술교육 전체에 대한 참여율은 12.0%로 대도시(7.1%), 중소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농어촌의 문화 동아리 중 '역사문화유산'(6.3%) 동아리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농어촌의 전체 동아리 참여율은 1.8%로 대도시(0.5%), 중소도시(1.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4 - 05 - (1)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교육	미술 교육	서양 음악 교육	전통 예술 교육	무용 교육	연극 교육	뮤지컬 교육	영화 교육	대중 음악 교육	역사 문화 유산 교육
2012	농어촌	12.0	2.3	2.3	2.9	1.4	0.9	0.7	1.2	3.6	4.4	1.7
	대도시	7.1	2.1	2.0	0.9	0.5	0.5	1.0	0.8	2.1	1.3	1.1
	중소도시	9.0	2.3	2.4	1.7	1.1	0.8	0.7	0.2	1.3	0.8	1.1

자료: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 표4 - 05 - (2) | 지역별 문화 동아리 참여현황 (단위 : %)

연도	구분	전체	문학	미술	서양 음악	전통 예술	무용	연극	뮤지컬	영화	대중 음악	역사 문화 유산
2012	농어촌	1.8	0.7	0.6	0.6	0.4	0.5	0.4	2.2	1.0	1.1	6.3
	대도시	0.5	0.6	0.2	0.4	0.1	0.3	0.2	0.5	0.4	0.3	2.7
	중소도시	1.0	0.7	0.9	0.6	0.4	0.3	0.0	0.2	0.6	0.3	4.3

자료: 2012 문화향수실태조사

기초생활여건/ 환경·경관 부문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의 시설 현황
주택(규모, 시설)만족도
상수도 보급률
하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인터넷 이용 목적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환경오염 체감 정도

5>01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

▶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별은 '1995~2004년'에 지은 비율이 35.0%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을 보면 '1995~2004년'이 35.0%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1980~1994년'(27.1%), '1979년 이전'(20.7%) 순이었다. '1979년 이전'에 지은 주택 비중이 도시(6.6%)에 비해 농어촌에서 높은 반면, 1980년~2004년에 지어진 주택 비율은 도시에서 더욱 높았다.

| 표5-01-(1)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05)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0~2005년	1990~1999년	1980~1989년	1979년 이전
2005	농어촌	100.0	19.9	40.3	15.3	24.5
	도시	100.0	22.7	47.3	20.9	9.1

자료 : 2005 인구주택총조사

| 표5-01-(2) | 주택 건축년도별 현황(2010)

(단위: %)

연도	구분	계	2005~2010년	1995~2004년	1980~94년	1979년 이전
2010	농어촌	100.0	17.3	35.0	27.1	20.7
	도시	100.0	15.2	39.9	38.3	6.6

자료 : 2010 인구주택총조사

5>02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 '자가'(70.8%) 비중이 매우 높은 가운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63.1%), '아파트'(30.2%) 순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형태로는 '단독주택'(63.1%)이 가장 많았으며, '아파트'(30.2%), '연립주택'(3.0%), '다세대주택'(2.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도시의 경우, '아파트'(52.4%), '단독주택'(34.9%), '다세대주택'(8.5%)의 순이었다.

농어촌의 주택 점유형태로는 '자가'(70.8%)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도시에서는 '자가'(51.2%), '전세'(24.3%), '보증금 있는 월세'(19.5%) 순이었다.

| 표5-02-(1) | 주거형태

(단위: %)

연도	구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2005	농어촌	68.4	24.3	3.2	2.1	2.0
	도시	39.3	46.8	3.4	8.8	1.7
2010	농어촌	63.1	30.2	3.0	2.4	1.3
	도시	34.9	52.4	2.9	8.5	1.2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5-02-(2) | 점유형태

(단위: %)

연도	구분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무상
2005	농어촌	71.9	10.2	8.1	2.2	2.1	5.5
	도시	52.2	25.3	16.4	2.0	1.7	2.4
2010	농어촌	70.8	11.0	9.9	1.9	1.6	4.9
	도시	51.2	24.3	19.5	1.8	1.3	2.0

자료: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5.03 주택의 시설 현황

- ▶ 농어촌의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 목욕시설' 비중은 90%대로 높은 반면, '상수도'는 69.3%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 96.5%, '기름보일러'가 43.8%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주거시설은 '입식부엌'이 97.3%, '상수도'가 69.3%, '수세식화장실'이 90.3%, '온수목욕시설'이 94.6%로 나타난 가운데,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입식부엌 98.9%, 상수도 99.5%, 수세식화장실 98.6%, 온수목욕시설 98.4%)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농어촌의 난방형태로는 '개별난방'이 96.5%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름보일러'가 4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도시의 난방시설로는 '도시가스보일러'(67.8%)가 가장 많았다.

| 표5-03-(1) | 주거시설

(단위 : %)

연도	구분	부엌			수도				화장실			목욕시설		
		입식	재래식	없음	상수도	마을 상수도	자가 수도	수도 없음	수세식	재래식	없음	온수	비온수	없음
2005	농어촌	95.5	4.3	0.2	52.9	22.8	4.0	20.3	80.1	19.7	0.1	90.5	1.1	8.4
	도시	98.6	1.1	0.3	98.4	0.4	0.6	0.7	97.5	2.4	0.1	97.2	0.1	2.6
2010	농어촌	97.3	2.6	0.1	69.3	21.5	0.9	8.3	90.3	9.7	0.0	94.6	2.0	3.4
	도시	98.9	0.9	0.3	99.5	0.2	0.1	0.3	98.6	1.4	0.0	98.4	0.4	1.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 표5-03-(2) | 난방형태

(단위 : %)

연도	구분	난방방식			개별난방의 난방시설							
		중앙 난방	지역 난방	개별 난방	도시 가스 보일러	기름 보일러	프로판 보일러	전기 보일러	연탄 보일러	연탄 아궁이	재래식 아궁이	기타
2005	농어촌	1.1	1.5	97.4	15.0	57.3	8.5	9.3	3.6	0.6	1.9	1.3
	도시	7.1	10.4	82.5	59.4	17.9	2.4	1.8	0.5	0.1	0.0	0.3
2010	농어촌	0.6	2.9	96.5	24.2	43.8	8.4	12.4	3.8	0.3	1.1	2.4
	도시	5.7	12.4	81.9	67.8	9.3	1.9	2.1	0.5	0.0	0.0	0.2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5>04 주택 만족도

▶ 농어촌의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는 52.2%

2011년 기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농어촌에서 52.2%로 ‘불만족’(12.5%)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와 비슷한 수준(52.3%)을 나타냈다.

| 표5-04 | 주택(규모, 시설)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대체로			대체로	매우
2006	농어촌	50.9	12.9	38.0	37.9	11.3	9.4	1.9
	도시	31.5	5.7	25.8	51.5	17.0	13.2	3.8
2011	농어촌	52.2	9.1	43.0	34.2	12.5	10.8	1.7
	도시	52.3	11.3	41.0	36.8	9.7	9.2	0.6

자료: 각 연도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등 조사

5>05 상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2.1%로 도시(99.5%)에 비해 낮음

2012년 기준, 농어촌의 상수도 보급률은 72.1%로 도시(99.5%)에 비해 낮았다.

| 표5-05 | 상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급수인구	상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9,539,023	5,677,070	59.5
	도시	40,160,933	39,625,063	98.7
2012	농어촌	9,892,779	7,561,558	72.1
	도시	42,084,490	41,857,340	99.5

자료: 각 연도 상수도통계

주: 1) 도시는 시가지, 농어촌은 읍면부, 도서지역을 포함함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5>06 하수도 보급률

▶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0.8%로 특광역시(98.9%), 중소도시(88.5%)에 비해 낮음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60.8%로 특광역시(98.9%), 중소도시(88.5%)에 비해 낮았다.

| 표5-06 | 하수도 보급률

(단위: 명, %)

연도	구분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하수도 보급률
2006	농어촌	4,984,466	2,099,011	42.1
	일반도시	32,325,541	31,386,187	97.1
	도농복합도시	12,314,262	8,964,998	72.8
2012	농어촌	2,293,128	1,394,688	60.8
	특광역시	23,657,889	23,387,342	98.9
	중소도시	22,350,579	19,784,600	88.5

자료: 각 연도 하수도통계

주: 1) 도시, 농어촌 구분 기준은 시부, 군부임

2) 보급률=(급수인구÷총인구)×100

5>07 도로 포장률

▶ 도로 포장률은 82.4%

전체적인 도로포장률이 82.4%인 가운데, ‘고속도로’(100.0%), ‘특·광·시도’(98.8%), ‘일반국도’(97.6%), ‘구도’(97.4%) 포장률이 매우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방도’(83.7%), ‘시도’(74.5%), ‘군도’(66.0%) 순이었다.

| 표5 - 07 | 도로 포장률

(단위 : m,%)

연도	구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도로 포장률		
2007	농어촌	33,536,554	24,634,335	73.5	6,748,259	2,153,940
	특별·광역시	20,469,380	20,100,482	98.2	318,088	50,810
	일반시	31,358,613	22,663,720	72.3	1,101,465	7,593,428
	도농복합시	17,654,413	13,222,920	74.9	2,961,749	1,469,744
2013	총계	108,102,776	89,089,784	82.4	8,769,770	10,243,222
	고속도로	4,094,907	4,094,907	100.0	0	0
	일반국도	13,738,982	13,410,477	97.6	57,303	271,202
	지방도	17,992,090	15,062,774	83.7	1,589,126	1,340,190
	특·광·시도	8,131,324	8,033,482	98.8	20,280	77,562
	시도	29,839,667	22,217,520	74.5	1,148,860	6,473,287
	군도	22,760,592	15,023,324	66.0	5,841,976	1,895,292
	구도	11,545,214	11,247,300	97.4	112,225	185,689

자료 : 각 연도 도로현황조사

5>08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33.5%

2012년 기준, 농어촌의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표지판, 노면표시 등)에 대해서 ‘만족’하는 비율이 33.5%로 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32.0%)에 비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표5-08 |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24.0	3.4	20.5	52.6	23.5	19.4	4.1
	도시	26.1	3.0	23.1	54.6	19.3	16.8	2.5
2010	농어촌	28.4	5.6	22.8	51.8	19.7	16.8	2.9
	도시	29.4	4.8	24.6	53.3	17.2	15.0	2.2
2012	농어촌	33.5	6.1	27.4	48.0	18.5	15.1	3.4
	도시	32.0	5.6	26.4	53.5	14.4	12.4	2.0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5>09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70.1%로 도시(83.3%)에 비해 낮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컴퓨터 보유가구 비율은 70.1%이며, 보유가구 중 인터넷 접속 가능한 가구는 96.2%였다. 도시(보유율 83.3%, 접속가능률 98.6%)에 비해 보유율 및 접속 가능률 모두 낮게 나타났다.

| 표5-09 | 컴퓨터 보유 및 인터넷 설치 여부 (단위: %)

연도	구분	보유율		계		미보유
				인터넷 접속가능	인터넷 접속 불가능	
2007	농어촌	68.5	100.0	67.3	32.7	31.5
	도시	83.3	100.0	82.8	17.2	16.7
2013	농어촌	70.1	100.0	96.2	3.8	29.9
	도시	83.3	100.0	98.6	1.4	16.7

자료: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10 인터넷 이용 목적

▶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 목적 중 '자료 및 정보 획득'(88.2%) 비중이 가장 높음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인터넷 이용목적(복수 응답)은 '자료 및 정보 획득'이 88.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다음으로 '여가활동'(81.4%), '커뮤니케이션'(79.3%) 순이었다. 도시에서도 유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인터넷 금융'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이었다.

| 표5-10 |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연도	구분	자료 및 정보 획득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인터넷 구매 및 판매	인터넷 금융	홈페 이지 운영	교육 학습	커뮤 니티	SW 다운/ 업그레 이드	구직 활동	파일 공유 서비스	기타
2007	농어촌	85.9	86.9	80.2	44.9	26.1	37.4	41.2	30.1	9.7	1.4	-	6.1
	도시	87.8	85.9	83.5	51.4	35.5	40.7	49.1	37.6	11.3	3.9	-	13.2
2010	농어촌	91.6	88.9	85.6	56.8	31.5	43.9	43.0	41.9	7.4	10.1	26.1	13.2
	도시	91.6	89.1	88.9	57.9	39.6	45.6	55.2	49.0	10.1	12.0	22.2	17.9
2011	농어촌	92.0	88.0	85.2	57.7	31.1	43.3	41.9	40.6	7.4	9.7	25.1	1.2
	도시	92.0	87.9	88.4	58.6	39.3	44.5	52.2	46.3	9.9	11.5	21.5	0.6
2012	농어촌	92.3	87.3	84.4	56.8	31.1	42.3	40.4	39.3	8.4	9.2	24.1	1.8
	도시	92.3	87.5	87.8	57.9	40.0	43.8	50.3	45.0	10.7	11.5	21.0	0.9
2013	농어촌	88.2	81.4	79.3	40.0	33.2	35.3	18.0	11.4	13.0	8.0	7.8	1.7
	도시	91.9	87.3	86.7	47.5	43.4	37.5	19.2	18.7	12.3	9.5	7.2	2.0

자료 : 각 연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5>11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농어촌에서 '식량안보'(31.0%)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불안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범죄위험'(65.3%), '교통사고'(54.0%), '신종 전염병'(47.6%)에서 크게 나타남

2012년 기준, 농어촌에서는 '식량안보'(31.0%)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범죄위험'(65.3%), '교통사고'(54.0%), '신종 전염병'(47.6%)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도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였다. 단, 대부분의 영역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더 높았으나,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도시에서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5-11-(1)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건축물 및 시설물/교통사고 (단위: %)

연도	구분	건축물 및 시설물			교통사고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16.6	52.6	30.8	5.1	32.1	62.9
	도시	18.1	51.9	30.0	5.8	33.4	60.8
2010	농어촌	22.6	55.4	22.1	8.2	41.1	50.7
	도시	23.7	54.5	21.9	7.0	38.9	54.1
2012	농어촌	27.4	51.4	21.2	10.0	36.0	54.0
	도시	26.0	52.8	21.3	9.3	40.1	50.7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1-(2)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국가안보/범죄위험 (단위: %)

연도	구분	국가안보			범죄위험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22.0	41.7	36.2	-	-	-
	도시	25.2	43.1	31.6	-	-	-
2010	농어촌	13.5	31.1	55.4	8.8	28.1	63.2
	도시	15.3	32.9	51.9	8.0	28.7	63.2
2012	농어촌	23.1	36.8	40.1	9.2	25.5	65.3
	도시	21.8	38.9	39.4	9.1	27.0	63.9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1-(3)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식량안보/신종 전염병

(단위: %)

연도	구분	식량안보			신종 전염병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4.4	30.2	65.5	-	-	-
	도시	4.3	26.5	69.3	-	-	-
2010	농어촌	34.1	45.0	20.9	8.8	32.1	59.0
	도시	35.0	45.9	19.0	10.6	36.4	53.0
2012	농어촌	31.0	45.9	23.1	13.2	39.2	47.6
	도시	29.9	45.4	24.6	12.9	39.7	47.4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1-(4)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정보보안/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단위: %)

연도	구분	정보보안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5.4	36.8	57.8	13.1	37.4	49.5
	도시	4.6	28.6	66.7	18.3	43.9	37.8
2010	농어촌	14.4	46.5	39.1	16.2	42.2	41.6
	도시	13.3	41.7	45.1	19.4	46.1	34.5
2012	농어촌	13.6	44.4	42.0	21.9	41.3	36.7
	도시	12.2	38.4	49.3	23.5	46.1	30.3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1-(5) |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 화재·산불/전반적인 사회 안전

(단위: %)

연도	구분	화재·산불			전반적인 사회 안전		
		안전	보통	불안	안전	보통	불안
2008	농어촌	8.3	44.6	47.0	7.2	39.1	53.7
	도시	10.2	48.8	40.9	8.5	40.7	50.9
2010	농어촌	15.7	51.0	33.3	10.6	47.2	42.1
	도시	16.8	56.0	27.2	11.4	50.9	37.6
2012	농어촌	18.0	49.4	32.6	14.1	47.3	38.5
	도시	17.7	55.1	27.2	13.7	49.3	37.1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5>12 환경오염 체감정도

▶ 농어촌의 환경오염 체감정도는 '좋아졌다'는 긍정적 인식이 많음

2012년 기준, 농어촌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정도는 '좋아졌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은 가운데, '대기오염'(67.4%)에서 가장 높았으며, '수질오염'(59.8%),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57.7%)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긍정적 인식 비율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 표5-12-(1)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대기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3	1.0	6.3	54.9	37.8	33.4	4.4
	도시	9.7	0.7	9.0	50.9	39.4	33.9	5.4
2010	농어촌	60.5	24.0	36.5	30.5	9.1	8.1	1.0
	도시	30.5	6.3	24.2	46.0	23.5	19.9	3.6
2012	농어촌	67.4	32.4	35.0	24.7	7.9	6.7	1.2
	도시	34.3	8.0	26.3	47.1	18.7	15.9	2.8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2-(2)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수질오염

(단위 :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7.2	0.9	6.3	54.3	38.5	33.2	5.3
	도시	11.2	0.8	10.4	59.0	29.8	25.7	4.1
2010	농어촌	54.2	18.8	35.4	35.8	9.9	8.8	1.1
	도시	29.4	4.9	24.5	54.7	15.9	13.8	2.1
2012	농어촌	59.8	25.1	34.7	30.8	9.4	8.1	1.3
	도시	32.0	6.4	25.6	55.6	12.4	10.8	1.6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2-(3) | 환경오염 체감정도 - 토양오염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1	0.8	5.2	53.4	40.6	34.9	5.7
	도시	9.4	0.7	8.7	56.1	34.5	29.6	4.9
2010	농어촌	48.0	14.9	33.1	38.1	13.9	12.5	1.4
	도시	26.5	4.3	22.2	52.5	21.1	18.1	3.0
2012	농어촌	54.8	21.9	32.9	34.3	10.9	9.6	1.3
	도시	29.1	5.7	23.4	53.9	17.1	14.5	2.6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2-(4) | 환경오염 체감정도 - 소음공해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5.8	0.9	4.9	52.1	42.1	34.2	7.9
	도시	7.5	0.6	6.9	44.7	47.8	38.6	9.2
2010	농어촌	46.8	17.1	29.7	33.3	19.9	15.9	4.0
	도시	23.1	4.3	18.8	40.9	36.1	27.9	8.2
2012	농어촌	52.8	23.3	29.5	29.3	17.8	14.3	3.5
	도시	23.9	5.4	18.5	41.6	34.5	26.6	7.9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 표5-12-(5) | 환경오염 체감정도 - 녹지 등 주위환경 개선

(단위: %)

연도	구분	좋아짐			보통	나빠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8	농어촌	6.9	1.0	5.9	54.0	39.2	30.5	8.6
	도시	15.3	1.6	13.7	51.3	33.4	27.1	6.3
2010	농어촌	60.8	25.3	35.5	31.6	7.5	6.6	0.9
	도시	37.8	9.1	28.7	42.9	19.2	14.8	4.4
2012	농어촌	57.7	25.8	31.9	30.9	11.4	8.8	2.6
	도시	40.9	11.3	29.6	40.7	18.5	14.2	4.3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8년, 2010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2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6

지역역량 부문

사회단체 참여율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6>01 사회단체 참여율

▶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50.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은 50.2%인 가운데 ‘친목 및 사교단체’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교 단체’(15.4%),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11.5%), ‘지역사회모임’(6.8%) 순이었다. 농어촌의 사회단체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가운데, 도시에 비해 ‘친목 및 사교단체’, ‘지역사회모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6-01 | 사회단체 참여율

(단위 : %)

연도	구분		참여율									참여 단체 없음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 사회 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 사회 모임	기타 단체	
2006	농어촌	41.4	82.7	17.3	20.5	12.9	2.0	2.8	1.1	-	0.3	58.6
	도시	38.2	77.7	22.7	29.6	10.3	4.2	3.5	1.2	-	0.4	61.8
2009	농어촌	41.0	68.1	13.6	9.0	7.2	0.8	0.8	0.2	-	0.3	59.0
	도시	39.5	56.2	21.1	13.1	6.0	2.1	1.1	0.3	-	0.2	60.5
2011	농어촌	47.1	60.3	14.8	10.7	5.6	0.7	0.7	0.2	6.7	0.2	52.9
	도시	46.5	53.1	20.8	16.2	4.9	1.9	0.8	0.3	1.7	0.3	53.5
2013	농어촌	50.2	59.2	15.4	11.5	5.4	0.9	0.5	0.1	6.8	0.3	49.8
	도시	50.1	58.0	18.1	14.7	5.0	1.7	0.7	0.2	1.5	0.2	49.9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6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3세 이상 인구 대상

6>02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

2010년 기준, 농어촌 마을 중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은 7.2%로 2005년 5.4%에 비해 증가하였다.

| 표6-02 | 마을 홈페이지 구축 비율

(단위 : 마을, 행정리, %)

구분		총 마을 수	홈페이지가 있는 마을	비율
2005	농어촌	36,041	1,953	5.4
2010	농어촌	36,498	2,613	7.2

자료 :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7

경제활동 부문

소득 및 가계지출
부채 규모
소득 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노후준비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자동차 보유 여부

7.01 소득 및 가계지출

▶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1,031천원, 연평균 가계지출은 27,490천원

2007년 대비 2012년, 농가의 호당 연평균 소득은 31,967천원에서 31,031천원으로 감소한 반면, 어가의 연평균 소득은 30,668천원에서 37,381천원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도시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은 같은 시기에 43,874천원에서 53,908천원으로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표7-01 | 소득 및 가계지출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연평균 소득	연평균 가계지출
2007	농가	31,967	28,048
	어가	30,668	22,963
	도시근로자	43,874	33,918
2008	농가	30,523	27,102
	어가	31,176	25,405
	도시근로자	46,807	36,306
2009	농가	30,814	26,574
	어가	33,945	27,065
	도시근로자	46,238	36,440
2010	농가	32,121	27,672
	어가	35,696	28,700
	도시근로자	48,092	38,514
2011	농가	30,148	27,906
	어가	38,623	29,906
	도시근로자	50,983	40,376
2012	농가	31,031	27,490
	어가	37,381	29,169
	도시근로자	53,908	41,937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7.02 부채 규모

▶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262천원, 어가는 39,518천원

2012년 말 기준, 농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27,262천원으로 농업용 부채는 13,123천원, 가계용 부채는 7,030천원이었다. 같은 시기 기준, 어가의 호당 평균 부채는 39,518천원으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가운데, 어업용 부채는 20,177천원, 가계용 부채는 10,363천원으로 나타났다.

| 표7-02 | 부채 규모

(단위: 천원)

연도	구분	부채		농업, 어업용		가계용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연도초	연도말
2007	농가	28,966	29,946	16,125	16,481	7,263	7,725
	어가	33,920	34,407	16,800	16,690	9,544	10,178
2008	농가	23,920	25,786	12,638	13,600	6,343	6,446
	어가	33,630	33,587	18,581	18,207	9,265	9,484
2009	농가	25,614	26,268	13,040	13,150	6,891	7,086
	어가	35,745	35,864	19,734	19,038	9,701	10,618
2010	농가	27,025	27,210	13,189	12,930	6,857	7,330
	어가	34,177	35,640	18,349	18,277	9,835	10,347
2011	농가	27,509	26,035	12,634	11,892	7,748	7,156
	어가	39,687	37,862	20,035	18,631	11,045	10,816
2012	농가	27,889	27,262	13,022	13,123	7,435	7,030
	어가	40,766	39,518	20,716	20,177	10,544	10,363

자료: 각 연도 농어가경제조사

7.03 소득 만족도

▶ 농어촌에서 소득 '만족' 비율은 10.8%

2013년 기준, 농어촌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의 소득 만족도는 '불만족'이 48.5%로 '만족'(10.8%)에 비해 높은 가운데, 도시 주민의 '만족' 비율(12.4%)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 표7-03 | 소득 만족도

(단위: %)

연도	구분	소득 있음								소득 없음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66.2	10.2	1.3	8.9	37.8	52.0	35.9	16.1	33.8
	도시	63.6	10.0	1.1	8.9	36.2	53.8	35.7	18.2	36.4
2009	농어촌	69.9	13.5	1.6	11.9	38.3	48.2	34.9	13.3	30.1
	도시	64.9	14.2	1.5	12.7	39.6	46.2	32.7	13.5	35.1
2011	농어촌	74.0	10.5	1.2	9.3	40.5	48.9	36.3	12.6	26.0
	도시	71.9	12.0	1.5	10.5	38.9	49.1	35.5	13.6	28.1
2013	농어촌	80.3	10.8	1.7	9.1	40.7	48.5	36.0	12.5	19.7
	도시	75.6	12.4	1.5	10.9	38.6	49.1	34.6	14.5	24.4

자료: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7.04 소비생활 만족도

▶ 농어촌의 소비생활 '만족' 비율은 12.2%

2013년 기준, 농어촌의 전반적인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39.3%)이 '만족'(12.2%)에 비해 높았으며, 도시에 비해 '만족' 비율(13.9%)이 낮게 나타났다.

| 표7-04 |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

연도	구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2007	농어촌	10.1	1.2	8.9	45.3	44.6	33.2	11.4
	도시	10.2	1.2	9.0	43.2	46.6	33.3	13.3
2009	농어촌	12.2	1.8	10.4	45.6	42.2	33.0	9.2
	도시	14.0	1.8	12.2	46.2	39.8	29.9	9.9
2011	농어촌	10.4	1.2	9.2	49.1	40.5	31.7	8.8
	도시	13.2	1.6	11.6	46.3	40.4	30.0	10.4
2013	농어촌	12.2	1.8	10.4	48.4	39.3	31.3	8.0
	도시	13.9	2.0	11.9	46.4	39.7	29.6	10.1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2007년, 2009년 - 15세 이상 인구 대상 /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인구 대상

7.05 노후준비

▶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0.1%, 주된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0%)

2013년 기준,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은 60.1%인 가운데,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49.0%),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20.8%) 순이었으며,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비율은 39.9%로 '준비능력이 없음'(49.2%), '자녀에게 의탁'(23.9%) 등의 이유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노후준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자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비율이 높았다.

| 표7-05 | 노후준비

(단위 : %)

연도	구분		준비하고(되어)있음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금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부동산 운용	기타
2007	농어촌	65.6	39.7	7.9	14.6	2.8	26.1	8.4	0.5
	도시	74.2	41.4	8.0	16.6	3.9	22.5	6.6	1.1
2009	농어촌	64.3	42.9	8.4	16.6	4.0	22.4	5.1	0.6
	도시	77.8	42.6	7.3	18.0	3.8	20.7	6.3	1.2
2011	농어촌	66.4	51.6	7.9	12.3	2.9	18.7	5.3	1.3
	도시	77.9	55.9	7.1	13.7	2.5	14.5	5.3	1.1
2013	농어촌	60.1	49.0	8.2	9.3	4.3	20.8	6.9	1.5
	도시	75.7	53.1	7.8	11.6	4.6	16.9	5.1	0.9

연도	구분		준비하고 있지 않음			
			아직 생각안함	앞으로 준비할 계획	준비능력 없음	자녀에게 의탁
2007	농어촌	34.4	9.3	25.5	42.0	23.1
	도시	25.8	11.6	33.4	43.0	12.0
2009	농어촌	35.7	7.1	19.5	55.5	18.0
	도시	22.2	9.1	27.9	47.3	15.7
2011	농어촌	33.6	8.7	16.4	57.7	17.1
	도시	22.1	10.7	24.8	50.4	14.1
2013	농어촌	39.9	8.4	18.4	49.2	23.9
	도시	24.3	8.9	26.0	49.9	15.1

자료 : 각 연도 사회통계조사

주 : 1) 2007년, 2009년 - 18세 이상 가구주 대상, 2011년, 2013년 - 19세 이상 가구주 대상

2) '준비하고(되어) 있음'에서 기타는 '주식, 채권 등'을 포함

7>06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 농어촌 농어업 경영주의 농업 및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가장 많음

2010년 기준, 농어촌의 농업 경영주의 농업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81.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6.4%), '5~10년'(4.6%), '15~20년'(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어촌의 어업 경영주의 어업 종사기간은 '20년 이상'이 75.6%로 가장 많았으며, '10~15년'(9.3%), '15~20년'(6.2%), '5~10년'(5.6%)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에 비해 농어촌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농어업 경영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7-06 | 농어업 경영주의 농어업 종사기간

(단위 : %)

연도	구분	5년 미만	5~10년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2005	농가	3.9	5.3	6.2	3.8	80.8
	농어촌	3.0	4.3	5.3	3.5	84.0
	도시	8.7	10.2	10.6	5.6	64.9
	어가	4.2	6.5	9.3	7.2	72.8
	농어촌	3.8	6.1	9.2	7.3	73.6
	도시	5.9	7.9	9.7	6.9	69.7
2010	농가	5.1	6.6	7.8	4.2	76.4
	농어촌	3.7	4.6	6.4	3.8	81.6
	도시	11.1	14.8	14.0	5.9	54.2
	어가	3.7	5.9	9.5	6.3	74.6
	농어촌	3.4	5.6	9.3	6.2	75.6
	도시	5.0	7.5	10.4	6.7	70.5

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총조사

주: 어가는 해수면+내수면을 합한 수치임

7-07 자동차 보유 여부

▶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

2010년 기준, 농어촌의 자동차 보유율은 61.2%로 2005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도시(64.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 표7-07 | 자동차 보유 여부

(단위 : %)

연도	구분		자동차 보유율			자동차 미보유율
			1대	2대	3대 이상	
2005	농어촌	55.9	75.7	20.7	3.6	44.1
	도시	62.9	81.4	16.8	1.8	37.2
2010	농어촌	61.2	69.9	25.8	4.3	38.8
	도시	64.1	77.0	20.9	2.2	35.9

자료 :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부록

 농촌진흥청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전국표본리스트

주요 항목별 타자료 비교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

주요 용어 정리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01 전국 표본리스트

(1) 농어촌 표본 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1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2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3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7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8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9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10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
11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12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
13	경기도	양주시	남면	한산2리
14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15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16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삼군리
17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심석리
18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19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교리
20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
21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본죽리
23	경기도	이천시	율면	북두리
24	경기도	이천시	율면	신주리
25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26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갈곡리
27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8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2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0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31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매화리
32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33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산리
34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35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36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37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대치리
38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상광정리
39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40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예밀2리
41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
42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43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44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4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리
46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47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8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49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5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51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곡리→수동리*
5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행촌리
53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울문리
54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55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진리
56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57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
58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
59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 방곡리 : 강촌테마랜드 인근지역으로 유원지화 되어 수동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60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61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중초리
62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63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발산리
64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성리
65	충청북도	보은군	수한면	후평리
66	충청북도	세종시	부강면	등곡리→부강리*
67	충청북도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6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6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70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71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면	원촌리
72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73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5길
74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75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
76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양저리
77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합금리
78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
79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만수리
80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가마리
81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1길
82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척산리
83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
84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은곡리
85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정중리
8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창리
87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
88	충청북도	청원군	옥천읍	삼양리5길
89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문산리
90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사암리
91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도촌리
92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가신리
93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94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95	충청북도	충주시	노은면	신호리
96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
97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용교리

* 등곡리 : 한센병자 집단 거주지역으로 부강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98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우곶리
99	충청남도	논산시	성동면	원봉리
100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동산리
10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102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103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104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화리
105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오곡리
106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읍	북운리
107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궁포리
108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109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
110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죽림리
11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11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대동리
113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신평리
114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방아리
115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상하리
116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효림리
117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118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119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납안리
120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전곡리
121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북면	상동리
122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123	충청남도	천안시동남구	수신면	해정리
124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125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126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산정리
127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입장면	용정리
128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고남리
129	충청남도	태안군	고남면	누동리
130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신덕리
131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32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133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13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양기리
135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
136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137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도리리
138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139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환서리
140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녹동리
141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142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반운리
143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양전리
144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옥산리
145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내상리
146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147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
148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149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150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교리
15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이문리
152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구봉리
153	경상북도	구미시	옥성면	초곡리
154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
155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156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57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158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59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
160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포리
161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도화리
162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리
163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강사1리
164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강사3리
165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대보1리
166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문성리
167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기계면	현내리
168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마산리
169	경상북도	포항시북구	흥해읍	학전리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17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1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17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갈곶리
173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저구리
174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하둔리
175	경상남도	거제시	둔덕면	학산리
176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177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7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17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80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8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18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183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18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185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186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조눌리
187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주동리
188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189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90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191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량리
192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다평리
193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94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금문리
195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196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197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
198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199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
200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신율리
201	경상남도	진주시	내동면	독산리
202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삼덕리
203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저림리→연화리*
204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205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원평리
206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 저림리 : 학림도라는 섬 안에 있는 지역으로 연화리로 대체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207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08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09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210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211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212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양산리
213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214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215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216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218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난산리
219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220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221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서호리
222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수장리
223	전라북도	순창군	동계면	현포리
224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25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226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고원리
227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내월리
228	전라북도	순창군	적성면	석산리
229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갈산리
230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231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삼담리
232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용성리
233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화배리
234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와리
235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236	전라북도	정읍시	산외면	오공리
237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마석리
238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239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
240	전라북도	정읍시	입암면	하부리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241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덕남리
24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43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고리
244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상낙리
245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한학리
246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당오리
247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	봉룡리
248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대강리
249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죽암리
250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251	전라남도	고흥군	두원면	신송리
252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253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봉양리
254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풍남리
255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도안리
256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석호리
257	전라남도	보성군	검백면	운림리
258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59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60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주봉리
261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객산리
262	전라남도	보성군	회천면	울포리
263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만리
264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선평리
265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
266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267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268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신평리
269	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270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나진리
271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272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당인리
273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	영풍리
274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관산리
275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276	전라남도	완도군	약산면	해동리
277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278	전라남도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279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

구분	시도	시군	읍면	리
28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8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8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28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28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28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28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2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9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29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293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2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3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3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3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3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30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3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3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웅포리

(2) 도시 표본 리스트

구분	시도	시군	동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2동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3동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2동
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동
6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천동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1동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9동
11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2동
12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1동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1동
14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2동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2동
18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4동
1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5동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3동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7동
5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동
23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심곡3동
24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중동
25	경기도	부천시원미구	상동
26	경기도	성남시분당구	수내2동
27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금광2동
28	경기도	성남시중원구	은행1동
29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30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구분	시도	시군	동
31	경기도	안산시단원구	선부3동
32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반월동
33	경기도	안산시상록구	본오2동
34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비산1동
35	경기도	안양시동안구	호계3동
36	경기도	안양시만안구	안양1동
4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1동
42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2동
43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44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37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영운동
38	충청북도	청주시상당구	우암동
39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가경동
40	충청북도	청주시흥덕구	성화·개산·죽림동
45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4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3동
47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2동
48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3동
49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1동
50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동
51	울산광역시	중구	복산1동
52	울산광역시	중구	북정동
53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55	경상남도	창원시의창구	용지동
56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대죽동
57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안곡동
58	경상남도	창원시진해구	태평동
59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1동
60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
6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02 주요항목별 타 자료 비교

[보건의료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도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의료기관 이용실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병(의)원(%)	76.4	81.2	-4.8	※'12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74.42%)
			종합병원(%)	13.9	14.7	-0.8	※'12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7.24%)
			보건진료소(%)	3.7	0.6	3.1	
			보건소(지소)(%)	3.0	0.8	2.2	※'12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0.67%)
			한방병(의원)(%)	2.3	2.2	0.1	※'12한국복지패널조사 (전국 1.32%)
			기타(%)	0.7	0.5	0.2	
		의료기관 이용 횟수	월 1회 미만(%)	48.9	55.0	-6.1	
			월 1-2회(%)	33.3	30.8	2.5	
			월 3-4회(%)	9.4	8.2	1.2	
			월 5회 이상(%)	8.4	6.1	2.3	
		의료기관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자가용(%)	42.9	26.5	16.4	
			대중교통(%)	34.7	25.4	9.3	
			걸어서(%)	18.9	45.9	-27.0	
			기타(%)	3.5	2.2	1.3	
		의료기관 이용 시 평균 소요시간 (편도)	소요시간(분)	26.6	15.3	11.3	
			걸어서(분)	13.4	10.5	2.9	
			대중교통(분)	37.8	23.2	14.6	
			자가용(분)	22.7	16.2	6.5	
			기타(분)	36.4	18.5	17.9	
	공공의료시설 이용경험	만족도(점)	경험층(%)	45.1	21.9	23.2	
				73.4	71.5	1.9	※'12사회조사 의료서비스만족도 (보건소) (농촌 70.0%) (도시 56.7%)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도시	
보건의료 여건전반	질병 치료 시 어려움	치료비가 부담된다(%)	44.9	38.5	6.4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10.4	2.7	7.7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9.1	3.5	5.6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8.4	6.4	2.0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5.6	9.1	-3.5	
		기타(%)	0.9	1.0	-0.1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20.7	38.8	-18.1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24.2	30.0	-5.8	
		만족도(점)	48.9	55.0	-6.1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보건의료환경 (농촌 46.4점)

[복지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도시	
사회 보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실태	국민 건강보험 가입현황	가입(%)	96.0	98.7	-2.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94.81%)
			직장가입자(%)	59.3	72.0	-12.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68.57%)
			지역가입자(%)	40.7	28.0	12.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31.43%)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사회 보장	국민 건강보험 가입실태	국민 건강보험 가입현황	미가입(%)	4.0	1.3	2.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5.19%)
			의료급여(1종)(%)	43.1	51.3	-8.2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76.31%)
			의료급여(2종)(%)	32.8	18.4	14.4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21.46%)
			국가유공자무료진료 (%)	14.9	21.7	-6.8	※'12한국복지 패널조사 (보훈병원무료진료 전국 1.64%)
			기타(%)	9.2	8.5	0.7	
		국민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부담됨(%)	42.4	45.1	-2.7	※'13사회조사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건강보험, 가구주) 부담됨 (농촌 58.9%) (도시 65.9%)
	공적연금 가입실태	공적연금 가입현황	국민연금(%)	62.2	77.0	-14.8	※'12한국복지 패널조사-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전국 91.76%)
			공무원연금(%)	3.9	3.1	0.8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6.78%)
			사학연금(%)	0.9	1.0	-0.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0.99%)
			군인연금(%)	0.8	0.4	0.4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0.47%)
			미가입(%)	33.7	19.6	14.1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사회 보장	공적연금 가입실태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부담됨(%)	39.3	45.3	-6.0	※'13사회조사 사회보험료 부담에 대한 인식(국민연금, 가구주) 부담됨 (농촌 56.3%) (도시 63.2%)		
			민간의료보험(%)	46.5	57.0	-10.5	※'12한국복지패 널조사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전국 72.47%)		
	기타 보험 가입현황		개인연금(%)	21.6	25.3	-3.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개인연금 가입 실태 (전국 21.62%)		
			산재보험(%)	17.0	30.0	-13.0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산재보험 가입 실태 (전국 23.64%)		
			농업인안전보험(%)	14.2					
			농기계종합보험(%)	10.7					
			농작물재해보험(%)	8.4					
			농지연금(%)	2.6					
	사회 안전망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건강 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층(%)	42.6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경험층(%)	36.7			
만족도(점)					60.4				
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인지층(%)	38.1			
				경험층(%)	36.2				
				만족도(점)	60.8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노인복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서비스 인지도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35.8	47.8	-12.0		
			안검진 및 안수술지원사업(%)	29.3	36.2	-6.9		
			의치(틀니)지원사업(%)	40.2	55.4	-15.2		
			기초노령연금(%)	67.2	89.1	-21.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5.7	59.6	-23.9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5.2	50.6	-15.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29.5	37.2	-7.7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	이용 경험층	치매검진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5.6	20.0	-4.4	
				안검진 및 안수술 지원사업(%)	10.1	9.3	0.8	
				의치(틀니) 지원사업(%)	11.7	3.8	7.9	
				기초노령 연금(%)	67.3	52.8	14.5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5.7	4.7	1.0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8.0	5.1	2.9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	7.0	5.0	2.0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노인복지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노인복지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	이용 만족도	치매검진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점	68.7	73.4	-4.7	
				안검진및 안수술 지원사업점	67.4	78.3	-10.9	
				의치(틀니) 지원사업점	60.2	66.2	-6.0	
				기초노령 연금(점)	52.2	48.8	3.4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점)	72.5	86.0	-13.5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점)	68.4	71.0	-2.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점)	69.4	77.8	-8.4	
				필요한 노인복지서비스	질병예방서비스(%)	21.0	23.7	-2.7
	질병치료서비스(%)	20.1	13.5		6.6			
	방문가정간호 또는 간병 서비스(%)	12.5	9.0		3.5			
	가정봉사 서비스(%)	9.7	12.0		-2.3			
	교통수단 지원(%)	8.8	5.1		3.7			
	노인 일자리 지원(%)	4.9	3.1		1.8			
	주야간 보호 서비스(%)	0.9	1.9		-1.0			
	기타 (%)	1.7	0.4		1.3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20.3	31.2	-10.9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영유아 수		평균(명)	1.4	1.3	0.1	
			1명(%)	59.9	74.7	-14.8	
			2명(%)	36.3	22.4	13.9	
			3명 이상(%)	3.8	2.9	0.9	
	영유아 보육 방법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83.1	71.0	12.1	※'12농촌생활지표 - 육아시설 (농촌 46.0%)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이 돌봄(%)	14.9	24.7	-9.8	※'12농촌생활지표 -부모가 직접 (농촌 32.1%) -가족,친지 (농촌 16.9%) -이웃 (농촌 2.2%)
			(비용을 부담하고)가족, 지인 또는 고용보모가 돌봄(%)	1.5	4.3	-2.8	
			기타(%)	0.5	0.0	0.5	
	영유아 교육 방법		학습지(%)	41.2	24.6	16.6	
			학원, 문화센터등 사설기관(%)	29.6	26.8	2.8	
			방문교육(%)	14.6	10.4	4.2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5.5	6.2	-0.7	
			인터넷교육(%)	4.3	4.1	0.2	
			기타(%)	15.3	12.9	2.4	
			없음(%)	16.0	33.5	17.5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만원)	43.1	47.2	-4.1	
장애인 복지	장애 가구원 유무	장애 가구원 유형	가구주(%)	56.0	51.3	4.7	
			가구주의 배우자(%)	20.7	19.5	1.2	
			가구주의 자녀(%)	12.4	20.3	-7.9	
			자녀의 배우자(%)	3.5			
			손자녀/그 배우자(%)	3.0	6.4	-3.4	
			부모(%)	4.0	2.4	1.6	
			기타친인척(%)	0.6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장애인 복지	장애 가구원 유무	장애 종류 및 등급	장애 종류	지체장애(%)	45.7	44.3	1.4	
				뇌병변 장애(%)	11.5	18.3	-6.8	
				시각장애(%)	10.0	9.8	0.2	
				청각장애(%)	8.4	9.7	-1.3	
				신장장애(%)	5.9	10.1	-4.2	
				정신지체(%)	5.4	2.2	3.2	
				발달장애(%)	3.2			
			중복장애 여부	비해당(%)	79.5	84.1	-4.6	
				중복(%)	20.5	15.9	4.6	
			장애 등급	1급(%)	11.4	12.4	-1.0	
				2급(%)	19.8	19.1	0.7	
				3급(%)	19.6	24.9	-5.3	
				4급(%)	12.8	12.4	0.4	
				5급(%)	14.4	6.2	8.2	
				6급(%)	21.5	25.1	-3.6	
				7급(%)	0.5			
	필요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지원(%)		20.8	35.3	-14.5	
			의료재활서비스(%)		16.8	17.2	-0.4	
			가사지원서비스(간병 인, 도우미 등)(%)		14.7	14.9	-0.2	
			이동편의지원서비스 (%)		18.0	7.4	10.6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3.5	5.7	-2.2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		7.3	7.8	-0.5	
			장애자녀 학습지원 서비스(%)		6.3	1.0	5.3	
			기타(%)		12.7	10.6	2.1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복지 여건 전반	복지시설 이용횟수 및 이용 만족도	월 1회 미만(%)	3.1	1.5	1.6	
		월 1-2회(%)	2.1	0.9	1.2	
		월 3-4회(%)	1.1	0.6	0.5	
		월 5회 이상(%)	1.3	2.3	-1.0	
		이용 경험 없음(%)	92.4	94.7	-2.3	
		이용 만족도(점)	66.1	74.2	-8.1	
	복지시설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걸어서(%)	53.1	55.8	-2.7	
		대중교통(%)	27.0	23.2	3.8	
		자가용(%)	15.1	20.2	-5.1	
		기타(%)	4.8	0.8	4.0	
		편도 소요시간(분)	17.4	16.7	0.7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11.9	12.7	-0.8	
		만족도(점)	44.4	48.0	-3.6	

[교육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학생교육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걸어서(%)	44.1	65.5	-21.4	※'10인구총조사 소요시간 및 이용 교통수단별 통근 통학 인구
		대중교통(%)	24.0	19.9	4.1	-걸어서 (농촌 38.2%)
		통학버스(%)	11.7	5.0	6.7	-승용차소형승합차 (농촌 28.0%)
		자가용(%)	16.1	5.3	10.8	-사내좌석마을버스 (농촌 11.9%)
		기타(%)	4.2	4.3	-0.1	-통학버스 (농촌 4.9%)
						-자전거 (농촌 2.2%)
		소요시간(분)	16.3	14.2	2.1	-고속시외버스 (농촌 0.7%) -기타 (농촌 11.1% 등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학생교육	자녀 통학 비용	0원(%)	48.8	70.6	-21.8	
		2,000원 미만(%)	27.5	14.9	12.6	
		2,000-4,000원 미만(%)	18.7	12.9	5.8	
		4,000-6,000원 미만(%)	2.9	1.2	1.7	
		6,000원 이상(%)	2.1	0.5	1.6	
	자녀의 방과 후 시간 활용	사설학원수강(%)	49.1	64.8	-15.7	※'12농촌생활지표 방과후자녀의일과 -교과목 학원 수강 (농촌 29.3%) -취미/특기/소질 개발학원 수강 (농촌 20.7%) -개인과외 (농촌 2.1%) -친구끼리 공부 (농촌 1.9%) -혼자공부 (농촌 40.5%) -기타 (농촌 5.6%)
		개인그룹과외(%)	3.7	2.7	1.0	
		방과 후 교내 보충학습참여(%)	14.3	8.7	5.6	
		방과 후 교실(학교 외)참여(%)	5.5	3.9	1.6	
		집에서 가족이 돌봄(%)	8.6	5.3	3.3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16.8	12.3	4.5	
		기타(%)	2.0	2.3	-0.3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29.5	32.9	-3.4	※'12농촌생활지표 농촌학교 교육서비스 만족도 -만족(합) (농촌 14.9%)
		만족도(점)	51.8	54.8	-3.0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21.5	23.4	-1.9	
		만족도(점)	47.3	50.6	-3.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학교시설개선(%)	12.1	17.0	-4.9	
		우수교사확보(%)	21.1	30.1	-9.0	
		지역특성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개발(%)	28.9	23.0	5.9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강사)지원(%)	22.4	16.7	5.7	
		양질의학교 급식지원(%)	3.8	8.1	-4.3	
		기숙시설확충(%)	1.4	0.2	1.2	
		통학버스운영(%)	6.0	2.4	3.6	
		지역소규모학교유지(%)	1.1	0.6	0.5	
		기타(%)	2.0	0.8	1.2	
		없음(%)	1.3	1.2	0.1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사회교육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경험률	농업기술 교육(%)	8.7	0.5	8.2	※'12농촌생활지표 사회교육현황 -취미활동 (농촌 26.7%) -자격증관련교육 (농촌 11.8%) -농사지식/기술교육 (농촌 52.2%) -자녀/가족관련교육 (농촌 2.9%) -경제교육 (농촌 2.3%) -기타 (농촌 4.1%)
			스포츠 건강교육(%)	6.8	7.9	-1.1	
			정보화 교육(%)	4.1	4.1	0.0	
			직업능력 교육(%)	3.7	3.7	0.0	
			문화예술 교육(%)	3.7	4.3	-0.6	
			인문교양 교육(%)	2.7	5.2	-2.5	
			시민참여 교육(%)	2.1	2.1	0.0	
			문해교육(%)	1.0	1.4	-0.4	
			기타(%)	0.5	1.3	0.8	
		의향률	농업기술 교육(%)	11.7	4.7	7.0	※'12농촌생활지표 사회교육 비경험층의 희망하는 사회교육 -취미활동 (농촌 57.5%) -자격증관련교육 (농촌 8.2%) -농사지식/기술교육 (농촌 18.6%) -자녀/가족관련교육 (농촌 4.1%) -경제교육 (농촌 9.8%) -기타 (농촌 1.9%)
			스포츠 건강교육(%)	18.7	23.0	-4.3	
			정보화 교육(%)	10.6	11.7	-1.1	
			직업능력 교육(%)	10.4	14.1	-3.7	
			문화예술 교육(%)	11.1	13.0	-1.9	
			인문교양 교육(%)	11.3	15.5	-4.2	
			시민참여 교육(%)	6.2	5.1	1.1	
			문해교육(%)	4.7	5.4	0.7	
			기타(%)	2.2	4.1	-1.9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사회교육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시간적 여유가 없다(%)	38.0	51.1	-13.1	※'12농촌생활지표 사회교육비경합층의 사회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나이가 많아 필요성을 못느껴서 (농촌 34.9%) -농사일/직장일로 바빠서 (농촌 27.0%) -몰라서 (농촌 21.8%) 등
		비용이 부담된다(%)	11.4	8.6	2.8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11.4	6.2	5.2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8.6	4.6	4.0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5.4	4.4	1.0	
		교통이 불편하다(%)	5.0	1.5	3.5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3.8	3.7	1.0	
		기타(%)	0.9	1.3	-0.4	
		해당없음(%)	15.6	18.5	-2.9	

[문화·여가여건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문화 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문화센터(%)	18.5	14.1	4.4	※'11농촌생활지표 필요문화여가시설 -공공도서관 (농촌 5.6%) -공연장(농촌 4.8%) -박물관/미술관 (농촌 2.0%) -건강 및 체육시설 (농촌 57.5%) -경로당(노인회관): (농촌 26.1%) -기타(농촌 3.9%)
		찜질방/목욕탕(%)	18.3	3.9	14.4	
		영화관/공연장/전시관(%)	10.9	1.0	9.9	
		체육시설/경기장(%)	9.4	8.0	1.4	
		공원/산책로(%)	6.1	9.2	-3.1	
		마을회관/경로당(%)	5.5	0.9	4.6	
		도서관(%)	3.6	6.8	-3.2	
		유원지(%)	0.8	0.6	0.2	
		기타(%)	1.2	1.0	0.2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음(%)	25.5	44.4	-18.9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문화·여가활동 시 어려움	시간적 여유가 없다(%)	32.9	36.6	-3.7	※'13사회조사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13세 이상 인구) -경제적 부담 (농촌 48.3%) -시간 부족 (농촌 22.7%) -교통 혼잡 (농촌 1.9%) -여가시설 부족 (농촌 2.9%) -여가정보 부족 (농촌 1.0%)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농촌 4.0%) -건강, 체력 부족 (농촌 15.7%)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농촌 3.3%) -기타(농촌 0.2%)
		원하는 시설이 없다(%)	13.9	11.7	2.2	
		비용이 부담된다(%)	13.3	10.5	2.8	
		교통이 불편하다(%)	7.6	2.6	5.0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4.8	3.0	1.8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3.7	4.3	-0.6	
		함께 할 사람이 없다(%)	2.0	0.8	1.2	
		기타(%)	2.0	2.2	-0.2	
		해당없음(%)	19.8	28.2	-8.4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7.9	20.8	-12.9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전국 41.49%) ※'13사회조사 여가활용 만족도 (13세 이상 인구) -만족(합) (농촌 23.8%) (도시 27.8%)
		만족도(점)	41.4	50.0	-8.6	

[기초생활여건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이주실태	현 거주지 고향 여부 및 이주 시기	고향이다(%)		49.1	10.1	39.0	
		이주시기(년)		10.7	8.8	1.9	
	이주 직전 주택 위치	농어촌 → 농어촌 (농어촌) (%)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	38.4			
			다른 군	14.6			
			다른 시의 읍면 지역	13.4			
		도시 → 농어촌 (농어촌) (%)	다른 시의 동 지역	33.6			
		도시 → 도시 (도시) (%)	시 내 다른 주택 (다른 동지역)		56.7		
			다른 시의 동지역		27.3		
		농어촌 → 도시 (도시) (%)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		16.0		
	주택 건축년도	(년)		21.5	18.0	3.5	
주택여건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주택 종류	단독주택 (%)	53.3	9.8	43.5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36.18%)
			아파트 (%)	38.6	69.8	-31.2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43.52%)
			연립주택	3.7	7.2	-3.5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4.79%)
			다세대 주택(%)	3.1	10.2	-7.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9.65%)
			기타(%)	1.3	3.0	-1.7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5.87%)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주택여건	주택 종류 및 점유형태	점유형태	자기집(%)	81.1	61.5	19.6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54.62%)
			전세(%)	9.9	23.5	-13.6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18.80%)
			보증부 월세(%)	3.7	9.8	-6.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17.06%)
			월세 (사글세)(%)	3.7	4.6	-0.9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1.94%)
			무상(%)	1.8	0.7	1.1	
	주택 건평 및 방 개수	주택 평균 건평(m ²)		84.9	84.3	0.6	
		평균 방 개수(개)		2.7	2.7	0.0	
	주택 시설 현황	부엌	단독사용(%)	99.9	100.0	-0.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98.76%)
		화장 실	단독사용(%)	99.6	99.7	-0.1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96.38%)
		목욕 시설	단독사용(%)	98.7	99.6	-0.9	※'12한국복지 패널조사 (전국 96.94%)
		난방 시설	설치되어 있음(%)	99.8	99.9	-0.1	
	난방비 지출 기간 및 월평균 지출 금액	지출기간(개월)		4.5	4.4	0.1	
		월평균 지출 금액(만원)		19.7	14.7	5.0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 규모(점)		62.1	57.8	4.3	
		주택 시설(점)		60.5	56.6	3.9	
		주택 구조(점)		60.9	57.1	3.8	
		주택 전반(점)		61.0	56.6	4.4	
	주택 신·개축 의향	주택 신·개축 의사 및 예상 시기	의향충(%)	6.9	5.7	1.2	
			평균(년)	4.7	3.8	0.9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주택여건	주택 신·개축 의향	주택 신·개축 시 자금마련 방법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겠다(%)	55.0	57.1	-2.1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	22.5	15.9	6.6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겠다(%)	11.6	12.9	-1.3		
			가족/친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3.6	3.2	0.4		
			기타(%)	7.3	10.9	-3.6		
생활여건	상수도 종류 및 먹는 물 수질 만족도		광역 및 지방 상수도(%)	71.8	99.7	-27.9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17.1	0.3	16.8		
			자가상수도 (지하수, 우물)(%)	10.8	0.1	10.7		
			없음(%)	0.2	0.0	0.2		
			수질 만족도(%)	59.3	46.7	12.6		
	하수도 종류 및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공공하수처리시설(%)	78.2	98.5	-20.3		
			개인하수처리시설(%)	15.5	1.3	14.2		
			없음(%)	6.3	0.2	6.1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55.4	50.8	4.6		
	쓰레기 처리 방법		생활 쓰레기	종량제 봉투(%)	78.0	99.3	-21.3	※'10농림어업총 조사 - 분리수거 (농촌 74.8%)
				소각(%)	19.2	0.0	19.2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19.6%)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	61.4	98.7	-37.3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43.1%)
				매립(%)	20.1	0.2	19.9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13.9%)
				기타(%)	12.2	0.3	11.9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41.4%)
			재활용품	분리배출 (%)	86.6	98.8	-12.2	
소각(%)				9.5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생활여건	쓰레기 처리 방법		폐영농 자재	분리배출 (%)	63.5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75.2%)
				소각(%)	28.5			※'10농림어업 총조사(농촌 9.9%)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쓰레기 처리(점)		63.7	72.6	-8.9	
			대중교통여건(점)		49.4	70.5	-21.1	
			정보통신여건(점)		63.1	73.3	-10.2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CCTV 설치 확대(%)		20.1	21.9	-1.8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		18.6	16.3	2.3	
			가로등 확충(%)		16.6	10.3	6.3	
			노후건물, 시설 등 보수(%)		12.0	10.6	1.4	
			도로안전시설(%)		11.7	8.9	2.8	
			경찰순찰확대(%)		7.0	9.4	-2.4	
			기타(%)		2.0	1.9	0.1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12.1	20.7	-8.6	
	이주 의향	이주의사 및 이주 희망 이유	이주 의향층(%)		16.6	34.7	-18.1	
			직업관련사유(%)		26.4	19.3	7.1	
			주택관련사유(%)		23.1	38.8	-15.7	
			자녀교육(%)		17.1	11.2	5.9	
			현재 거주환경 불만족(%)		13.2	11.7	1.5	
			가정 경제 상황의 변화(%)		6.3	5.0	1.3	
			가족관련 사유(%)		3.5	4.3	-0.8	
			건강상의 이유(%)		3.5	1.1	2.4	
			농어업 창업 또는 전원생활(%)		0.0	2.6	-2.6	
			기타(%)		6.9	5.9	1.0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생활여건	이주 의향	이주 희망 지역	농어촌 → 농어촌 (%)	면에서 읍으로	13.1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	13.8			
				시/군 내의 다른 곳으로	29.0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10.6			
			농어촌 → 도시 (%)	다른 시의 동 지역으로	29.6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3.9			
			도시 → 도시 (%)	시 내 다른 주택 (다른 동지역)		65.3		
				다른 시의 동지역		26.2		
			농어촌 → 도시 (%)	다른 시군의 읍면지역		6.4		
			기타 (해외 파견, 이민 등)			2.2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25.6	40.9	-15.3		
		만족도(점)		51.0	57.8	-6.8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종합만족도) (농촌 46.1점)	

[환경·경관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촌의 경관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점)	73.7	73.2	0.5	
		농어촌의 경관은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점)	72.1	74.5	-2.4	
		농어촌의 경관(자연, 농지, 마을 등)은 아름답다(점)	70.4	69.9	0.5	
다원적 가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39.5	35.7	3.8	※'11농촌생활지표 -식량의안정적공급 (농촌 29.8%) -자연환경보전 (농촌 19.8%) -전원생활공간제공 (농촌 18.2%) -국토의균형발전 (농촌 9.6%) -전통문화보존/계승 (농촌 8.3%) -관광·여가공간제공 (농촌 5.6%) -지역사회유지 (공동체의식제고) (농촌 4.7%) -타산업에노동력제공 (농촌 3.8%)
		전원생활 공간 제공(%)	17.4	19.4	-2.0	
		관광/휴양 공간 제공(%)	10.1	11.6	-1.5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13.2	12.5	0.7	
		국토의 균형 발전(%)	10.5	7.6	2.9	
		식량의 안정적 공급(%)	8.7	12.4	-3.7	
		기타(%)	0.5	0.8	-0.3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40.7	37.1	3.6	
		만족도(점)	60.2	55.7	4.5	

[지역역량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지역개발 사업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발전된 편(%)		13.9	33.2	-19.3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의사(농어촌)	마을 공동사업	경험률(%)	9.0			
			향후 참여 의향률(%)	20.3			
		마을 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교육	경험률(%)	7.6			
			향후 참여 의향률(%)	19.6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농어촌)	주민 소득 증대 도움 정도(점)		61.1			
		생활 환경 개선 도움 정도(점)		62.0			
		주민 화합 도움 정도(점)		63.0			
		마을 발전 도움 정도(점)		62.8			
	지역개발사업 방향(농어촌)	농어촌 산업 육성(%)		23.5			
		문화·여가·복지·여가개선(%)		22.4			
		기초주거환경개선(%)		20.0			
		농수산물의 생산·가공 유통 관련 기반 정비(%)		15.9			
		관광휴양자원개발(%)		6.7			
		주민역량강화(%)		4.4			
		주민공동체복원(%)		2.9			
		도시민유치(%)		1.8			
		기타(%)		2.3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48.7	29.6	19.1	
		만족도(점)		64.7	56.3	8.4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이웃환경) (농촌 62.5점)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이웃과의 관계	외부인 유입 실태 및 의식	외부인 유입 여부	귀농/ 귀촌인	있음(%)	16.6			
			결혼 이민자	있음(%)	21.9	18.9	3.0	
			이주 노동자	있음(%)	12.0	12.8	-0.8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농/ 귀촌인	찬성(%)	49.9			
			결혼 이민자	찬성(%)	46.0	43.9	2.1	
			이주 노동자	찬성(%)	41.6	41.1	0.5	

[경제활동 부문]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도·농 교류 활성화	도·농 교류 경험 실태	도·농 교류 경험 유무 및 만족도	경험 실태	농수산물 직거래(%)	16.7	16.1	0.6	
				농어촌 체험관광 (%)	6.2	8.7	-2.5	
				자매결연 (%)	5.4	1.7	3.7	
				농어촌 봉사활동 (%)	3.5	4.3	-0.8	
				음식판매 또는 민박운영 (%)	3.1	9.8	-6.7	
				주말농장 운영(%)	1.9	6.4	-4.5	

분류	문항		항목		2013		차이	타자료 비교
					농어촌	도시	농어촌 -도시	
도·농 교류 활성화	도·농 교류 경험 실태	도·농 교류 경험 유무 및 만족도	만족도	농수산물 직거래(점)	64.7	76.7	-12.0	
				농어촌 체험관광 (점)	65.4	73.9	-8.5	
				자매결연 (점)	68.3	53.9	14.4	
				농어촌 봉사활동 (점)	59.0	73.4	-14.4	
				음식판매 또는 민박운영 (점)	56.0	68.3	-12.3	
				주말농장 운영(점)	58.5	73.8	-15.3	
		도·농 교류 향후 참여 의사	농수산물직거래(%)	32.5	33.2	-0.7		
			농어촌체험관광(%)	17.1	21.7	-4.6		
			자매결연(%)	17.1	7.5	9.6		
			농어촌봉사활동(%)	10.9	17.5	-6.6		
			음식판매 또는 민박운영(%)	9.8	19.5	-9.7		
			주말농장운영(%)	9.0	24.8	-15.8		
	도·농 교류 추진 시 어려움(농어가)	자금부족(%)	29.3					
		일손부족(%)	23.3					
		역량 부족(기획력, 기술 등)(%)	17.9					
		기반 시설 부족(%)	16.8					
		고객 확보(홍보)(%)	5.3					
		법/제도 미흡(%)	2.9					
		주민 간 갈등(%)	2.4					
		기타(%)	2.1					
경제활동 여건	전반적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	만족(합)(%)		13.5	19.8	-6.3		
			만족도(점)	41.3	46.9	5.6	※'11농촌생활지표 지역생활만족도- 소득원/일자리환경 (농촌 38.3점)	

03 주요 항목별 상대표준오차⁷⁾

표준오차(SE)와 상대표준오차(RSE)

◦ 표본오차 (sampling error)

- 모집단 전체가 아닌 일부 표본을 확률 추출하는 데에서 생기는 통계적 오차
- 표본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의 정확성(precision)을 나타내는 척도
- 일반적으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등의 형태로 표현

◦ 표준오차 (standard error: SE)

- 추정치의 표준편차: $\sqrt{Var(\hat{\theta})}$

◦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RSE)

$$- RSE(\hat{\theta}) = \frac{\sqrt{Var(\hat{\theta})}}{\hat{\theta}}$$

- 상대표준오차는 추정치나 표준오차의 단위와 상관없이 일정하므로 표본조사 품질 척도로 널리 사용됨

◦ 95% 신뢰구간 (95% confidence interval)

$$- \hat{\theta} \pm 1.96 \sqrt{Var(\hat{\theta})}$$

◦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모두 $Var(\hat{\theta})$ 의 함수로 표현

- 모두 수학적으로 동등함

◦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통계적 정확도

- 통계의 중요성, 목적, 용도에 따라 정확도 요구가 다름
- 일반적으로, 전국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1 ~ 5% 정도이고
- 시도별, 속성별 통계의 상대표준오차는 3 ~ 10% 정도임
- 상대표준오차가 지나치게 크면 공표를 지양해야 함

7) 전체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별책으로 발간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구분	n	평균	SE	RSE(%)
의료기관 이용시 편도 소요시간 (분)	농어촌	2,705	26.6	1.03	3.9
	도시	1,163	15.3	0.81	5.3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점)	농어촌	1,235	73.4	0.99	1.3
	도시	1,163	15.3	0.81	5.3
국민건강보험 가입 여부 (%)	농어촌	2,655	96	0.55	0.6
	도시	1,178	98.7	0.36	0.4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점)	농어촌	2,725	44.4	0.71	1.6
	도시	1,180	48	0.9	1.9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구분		n	평균	SE	RSE(%)
농 어 촌	농어촌 전체	2,725	44.4	0.71	1.6
	경기	561	45.5	0.89	2
	강원	172	46	1.78	3.9
	충북	183	49.5	1.7	3.4
	충남	384	34.7	2.56	7.4
	전북	170	46.9	3.57	7.6
	전남	327	50.6	2.1	4.2
	경북	453	41.3	2.07	5
	경남	433	45.3	1.49	3.3
	제주	41	53.9	1.98	3.7
	읍	1,211	44.9	1.25	2.8
	면	1,514	44	0.96	2.2
	농어가	901	43.4	1.14	2.6
	비농어가	1,824	44.9	0.81	1.8
	아파트	1,035	44.6	1.29	2.9
	비아파트	1,691	44.3	0.85	1.9
	남	1,196	44.3	0.85	1.9
	여	1,525	44.4	0.78	1.8
	30대 이하	500	42.6	1.7	4
	40대	530	46.1	1.1	2.4
	50대	548	43.4	1.14	2.6
	60대	486	44.7	1.01	2.3
	70대 이상	652	44.9	1.16	2.6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계속)

구분		n	평균	SE	RSE(%)
농 어 촌	농/어/축산업	723	44.1	1.23	2.8
	자영업/직장인	890	44	1.17	2.7
	주부/무직/기타	1,093	44.8	0.9	2
도 시	도시 전체	1,180	48	0.9	1.9
	서울	295	52.2	0.88	1.7
	광역시	360	47.1	1.93	4.1
	기타	524	46.3	1.45	3.1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구분	n	비율(%)	SE(%)	RSE(%)
농어촌	2,698	100		
10만원 미만	346	12.8	1.57	12.3
10~15만원 미만	601	22.3	1.53	6.9
15~20만원 미만	474	17.6	1.27	7.2
20~25만원 미만	454	16.8	1.1	6.5
25~30만원 미만	262	9.7	0.94	9.7
30~50만원 미만	464	17.2	1.59	9.2
50만원 이상	97	3.6	0.69	19.2
도시	1,162	100		
10만원 미만	311	26.7	3.2	12
10~15만원 미만	322	27.7	2.19	7.9
15~20만원 미만	192	16.5	1.7	10.3
20~25만원 미만	180	15.5	1.67	10.8
25~30만원 미만	64	5.5	0.94	17.1
30~50만원 미만	83	7.2	1.58	21.9
50만원 이상	10	0.9	0.37	41.1

04 주요 용어정리

- **가구주** :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 :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 종류** : 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의 소득비례 부과 및 원천징수가 가능한 임금소득자(직장가입자)와 보험료의 원천징수가 곤란한 비임금소득자(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 **의료급여** :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의료혜택(진찰, 수술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 **1종** : 외래, 입원 진료 시 전액 무료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이주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광주민주화보상자, 입양아동(18세미만), 행려환자, 차상위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2종** : 외래 진료 시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능력세대), 차상위 수급권자(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를 대상으로 한다.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 의료급여(1종, 2종)와는 달리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 : 국민연금이란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연금제도로, 급여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원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이지만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된다.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각각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이 가입하는 연금으로 대개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며 가입이 강제적인 경우가 많다.
- **민간의료보험** : 개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질병에 걸릴 경우 보험금으로 진료비를 대납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산재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가리킨다. 종신편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 **농업인 안전보험** :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을 위한 대용상품으로 농협을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해주어 실제 가입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률은 15%수준(2012년도 평균기준)이다.
- **농기계 종합보험** : 농업경영 목적의 농기계 운행 중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주는 농촌복지형 상품으로서, 농협을 통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준다.
- **농작물 재해보험** :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이다.
- **농지연금**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에게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를 말한다.
-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치매검진·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검진사업은 치매의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조기검진(선별, 진담, 감별)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은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약제비,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사업** : 안질환의 조기발견/적기치료를 통한 실명예방 및 시력유지를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밀 검진과 백내장, 망막질환 등으로 인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의치(틀니) 지원사업**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 **기초노령연금**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2013년 기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83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132.8만원 이하이다(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월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 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급전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5% 기준으로 책정되어,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6,8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최고 154,9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이 지급된다.
-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요양서비스 필요(A, B)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 서비스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일종을 말한다.
- 장애등급 : 1~6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이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 복지시설 종류 :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이 포함된다.
 - 주·야간 보호시설 :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맡아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일종이다.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 건강가정지원센터 : 보건복지부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정책의 전달체계로서 설치하는 시설로, 정부의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실시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할 의무를 지닌다.
 - 정신보건센터 :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시설로,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 관리 등을 실시한다.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지원사업 주체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상담,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이다.
- 학교시설 :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어학실습, 실험실습 등)나 시설, 설비 또는 생활시설(식당, 휴게실, 화장실 등) 등을 말한다.
- 교육수준 :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이나 수준(교사의 학문적 수준, 교사의 수업행동, 지식전달 능력 등), 교육 방법, 평가방법 등을 말한다.

- 사교육 여건 : 필요한 사교육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을 가리킨다.
- 사회교육 :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폭넓게 지칭하는 것으로서,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평생교육 등이 있다.
 - 인문교양교육 : 경제/경영강좌(펀드, 재무설계, 부동산 등), 인문교양강좌(역사, 철학 등), 자연/생태강좌(자연과학, 환경, 생태 등), 가정생활강좌(요리, 자녀교육, 꽃꽂이 등) 등이 포함된다.
 - 시민참여교육 : 지도자과정(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등), 시민참여교육강좌(시민교육, 인권 교육 등) 등이 포함된다.
- 단독주택 : 단일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구조의 주택을 말한다.
- 아파트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 연립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전세 : 계약한 액수의 돈을 미리 지불하고 입주하여 살다가 퇴거할 때 그 금액을 되찾아 나오는 방식으로,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입주할 때 낸 금액의 이자이다.
- 보증부 월세 : 보증금을 내고 별도로 매월 월세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월세가 제때에 지불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월세분의 10배 정도의 금액을 입주할 때 보증금으로 내는 방식이다. 이 경우 실질적인 방세는 보증금의 이자와 매월 내는 월세의 합계액이다.
- 사글세 : 매월 월세액을 정한 뒤 미리 1년분 정도의 월세 합계액을 선세(先貰)로 내고 그 금액을 매달 삭감해 가는 형식이다. 사글세액의 잔액이 떨어질 때가 계약이 만료되는 달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퇴거해야 한다. 만일 계약기간 내에 퇴거할 경우에는 삭감된 액수의 잔액을 되찾아갈 수 있다.
- 월세 : 보증금이나 선세(先貰) 없이 매월 방세를 지불하는 형식이다.

-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광역상수도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 지방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 인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마을상수도 외의 수도를 말한다.
- 마을상수도 :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제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 자가상수도 : 개인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상수도로 지하수, 우물 등이 포함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일부로,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및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개인하수도의 일부로,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생활쓰레기 : 인간의 생활에서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사용치 않고 버리게 된 산업폐기물 이외의 물질로, 가정쓰레기, 시장쓰레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음식물쓰레기 : 동식물의 취급, 저장, 판매, 요리 준비, 요리, 공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동, 식물성의 쓰레기를 말한다.
- 재활용품 :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종이류, 의류 및 담요, 캔류, 고철류, 병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폐영농어자재** : 영농어업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로 폐비닐, 농약병 등이 포함된다.
- **정보통신 여건** :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을 가리킨다.
- **농어촌 경관** : 숲, 산, 하천, 바다 등 자연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된다.
- **마을공동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활력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소득원 개발, 기초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 **귀농·귀촌인** : 귀농인이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귀촌인이란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한다.
- **결혼 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이주 노동자** : 국내 체류하면서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도농교류**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 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 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 **자매결연** : 도시의 주민·기업·단체·기관과 마을의 주민·단체 간에 도농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농어촌 체험관광** :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 **농수산물 직거래** : 농림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소비하는 개인 가구에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직판장, 직매장, 통신판매, 우편판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 판매, 거리판매, 방문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농어가 식사**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식사를 준비하여 판매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도시 방문객을 확보하여 식사를 준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민박** : 마을 단위로 방문 도시민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개인 단위로 직접 방문객을 확보하여 숙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주말농장** : 농업인이 소규모로 구획한 농지를 도시민에게 분양하여 일정 기간 영농체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 **농어촌 봉사활동** : 농어촌 일손 돕기, 재능기부 등 개개인의 자원, 역량, 전문성 등을 동원하여 농어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가구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 **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하며, 개별가구 단위로 급여를 실시하되 일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차상위계층** : 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05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표

 농촌진흥청(농림축산 식품부)	본 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ID				
----	--	--	--	--

2013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도시/농어촌 주민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도시/농어촌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 교육,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을 파악, 도·농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 귀댁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9월



작성기관 농촌진흥청
 심사기관 코뮤니타스
 전화번호 053-746-0021

면접원 이름	
--------	--

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동/읍/면 ()리
상세주소 (번지)	아파트 동·호수
응답자	① 가구주 ② 가구주 배우자 조사표 기입방법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기입식

1. 가구원 정보

1. 다음은 귀하 및 가구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혼해서 분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타 지역 직장 근무, 유학, 군복무 등으로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해 주십시오.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⑩ 동거인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1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2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3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⑩ 동거인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4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5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6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보기] 가구주와의 관계

-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손자녀/그 배우자 ⑥ 부모
 ⑦ 조부모 ⑧ 형제자매/그 배우자 ⑨ 기타 친인척 ⑩ 동거인

* 직업의 경우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보기 참고)	성별	태어난 연도	혼인 상태	학력		직업 및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사유	
					학교급	상태	직업*	종사자 지위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07	① (가구주)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08	② (가구주 배우자)	① 남 ② 여	년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① 무학/미취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졸업 ② 재학 ③ 중퇴		① 자영업자 ② 상용직 ③ 임시직 ④ 일용직 ⑤ 무급가족 봉사자	① 동거 ② 비동거	① 타 지역 직장 근무 ② 해외 근무 ③ 타 지역 유학 ④ 해외 유학 ⑤ 입원, 요양 ⑥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⑦ 기타(군복무, 별거, 가출 등)
가구원 수 총 _____명			동거		_____명		농어가 여부 (농어촌에 한해)		① 농어가 ② 비농어가	
			비동거		_____명					

II. 보건의료 부문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2.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① 보건진료소 ② 보건소(지소) ③ 병(의)원 ④ 한방병(의)원 ⑤ 종합병원 ⑥ 기타(⇨)

2.1. [의료기관 이용 횟수] 지난 1년을 기준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한 월 평균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2.2. [의료기관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의료기관으로 가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하여 작성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분

3.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 귀택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의 보건소(지소),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4번** 으로 가십시오.

3.1. [공공의료시설 이용 만족도] 공공의료시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4. [응급실 이용 경험] 귀택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① 있음

② 없음



↳ **문 5번** 으로 가십시오.

4.1. [응급실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응급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응급실 이동시의 교통수단] 응급실 이동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습니다?

- ① 구급차 ② 개인용 차량 ③ 택시 ④ 걸어서 ⑤ 기타 (⇒)



문 5번

으로 가십시오

4.2.1. [구급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구급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보건의료 여건 전반

5. [질병 치료시 어려움] 귀택에 환자가 생길 경우, 그 환자의 질병치료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치료비가 부담된다 ②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다
 ③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가 어렵다 ④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렵다
 ⑤ 환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 ⑥ 기타 (⇒)
 ⑦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

6. [전반적 보건의료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Ⅲ. 복지 부문



사회보장

7.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귀택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가입 여부	① 가입(↓)	② 비가입(↓)
(2) 종류	① 직장가입자	① 의료급여(1종) ② 의료급여(2종)
	② 지역가입자	③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④ 기타 (⇒)



문 8번

으로 가십시오

7.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부담 정도]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 편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⑥ 분가한 자녀가 납부하여 잘 모름

8. [공적연금 가입현황] 귀댁은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가입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가구원 중 1명 이상 가입하고 있는 것(수급 포함)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국민연금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학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미가입



문 9번

8.1. [공적연금 보험료 부담 정도] 납부하시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 ① 매우 부담됨 ② 부담되는 편 ③ 보통 ④ 부담되지 않는 편 ⑤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⑥ 현재 연금 수급 중이어서 해당없음

9. [기타 보험 가입 현황] 이밖에 귀댁은 현재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아래 보기 중에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4~7은 농어가에 한해)

구분	가입	미가입	구 분	가입	미가입
(1) 민간의료보험	①	②	(5) 농기계종합보험(농어가)	①	②
(2) 산재보험	①	②	(6) 농작물재해보험(농어가)	①	②
(3) 개인연금*	①	②	(7) 농지연금(농어가)	①	②
(4) 농업인안전보험(농어가)	①	②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 '농어가'에 한해

10.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국가는 농어업인에게 건강·연금보험료를 일부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2)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 노인복지(‘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한해) —

11.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신다면, 귀하 또는 귀댁의 가구원께서 이 사업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분	인지 여부	이용 경험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치매검진·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2) 안검진 및 개인수술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3) 의치(틀니) 지원사업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4) 기초노령연금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5)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6)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7)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바우처)*	① 잘 알고 있음(⇔)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② 들어본 적 있음(⇔)						
	③ 모름(↓)	② 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함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요양서비스 필요(A, B)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12. [필요한 노인복지 서비스] 다음의 노인복지 서비스 중 귀하 또는 귀하의 어르신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① 질병예방서비스(건강진단, 치매 조기검진 등) ② 질병치료서비스(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③ 가정봉사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④ 방문 가정간호 또는 간병서비스
 ⑤ 주·야간보호서비스 ⑥ 교통수단 지원(병원 동행 등)
 ⑦ 노인일자리 지원 ⑧ 기타 (⇒)
 ⑨ 특별히 필요한 서비스가 없음

— 영유아 보육 및 교육('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한해) —

13. [영유아 수] 귀택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몇 명 있습니까? () 명

14. [영유아 보육 방법] 귀택에서는 영유아 자녀를 주로 어떤 방법으로 돌보십니까?

- 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이용
 ② (비용 부담 없이) 직접 또는 가족(부모, 조부모, 친인척 등)이 돌봄
 ③ (비용을 부담하고) 가족, 지인 또는 고용 보모가 돌봄 ④ 기타 (⇒)

15. [영유아 교육 방법] 다음 중 귀택에서 영유아 교육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 ① 학원, 문화센터 등 사설기관 ☐ ②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 ③ 학습지
☐ ④ 방문교육 ☐ ⑤ 인터넷교육 ☐ ⑥ 기타 (⇒)

16. [영유아 보육/교육 비용] 귀택의 영유아 전체 인원의 보육/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1) 본인 부담	(2) 보조금
월평균 () 만원	월평균 () 만원

— 장애인복지('장애가 있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해) —

17. [장애 가구원의 유무] 귀하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가구원의 장애종류와 등급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십니까? 여러 분이 계실 경우 각각의 가구원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하되,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함

구분	장애종류(보기 참고)	중복여부	장애등급
(1)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2)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3) () 번 가구원		① 비해당 ② 중복	() 급

<보기>

-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지체
 ⑦ 발달장애 ⑧ 정신장애 ⑨ 신장장애 ⑩ 심장장애 ⑪ 호흡기장애 ⑫ 간장애
 ⑬ 안면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18. [필요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귀하 또는 귀하의 장애가 있는 가구원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② 의료재활서비스
 ③ 가사지원서비스(간병인,도우미 등) ④ 이동편의지원서비스
 ⑤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⑦ 장애자녀 학습지원서비스 ⑧ 기타 (⇨)

— 복지 여건 전반 —

19. [복지시설 이용 횟수] 귀택에서는 지난 1년간 지역 복지관(노인, 장애인, 종합) 등 복지시설을 이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가장 자주 이용한 복지시설을 기준으로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복지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신보건(건강증진)센터 등

- ① 월 1회 미만 ② 월 1~2회 ③ 월 3~4회 ④ 월 5회 이상 ⑤ 이용 경험 없음



↳ **문 20번** 으로 가십시오

19.1. [복지시설 이동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그 복지시설로 이동하는 데에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편도 소요시간은?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

(1)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2) 편도 소요시간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자가용	④ 기타 (⇨)	)	()분

19.2.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그 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0. [전반적 복지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복지 여건(주민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파악 및 제공)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IV. 교육 부문

— 학생교육(‘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 한해) —

21. [자녀 통학 시 교통수단 및 소요시간] 귀댁의 자녀(손자녀)가 통학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이며, 편도를 기준으로 평균 통학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니까?

※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고르고, 소요시간은 교통수단별 소요시간을 합산

구분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편도 소요시간
(1) 첫째자녀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통학버스 ④ 자가용 ⑤ 기타 (⇨)	()분
(2) 둘째자녀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통학버스 ④ 자가용 ⑤ 기타 (⇨)	()분
(3) 셋째자녀	① 걸어서 ② 대중교통 ③ 통학버스 ④ 자가용 ⑤ 기타 (⇨)	()분

22. [자녀의 통학비용] 귀댁의 자녀(손자녀)의 평균 하루 통학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자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자부담 비용 작성(보조 금액 미포함).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를 어림 계산하여 작성

구분	0원	2,000원 미만	2,000원 이상 ~ 4,000원 미만	4,000원 이상 ~ 6,000원 미만	6,000원 이상
(1) 첫째 자녀	①	②	③	④	⑤
(2) 둘째 자녀	①	②	③	④	⑤
(3) 셋째 자녀	①	②	③	④	⑤

23. [자녀의 방과후 시간 활용] 귀댁의 자녀(손자녀)는 학교에서 돌아온 후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 ① 사설학원 수강 ② 개인·그룹 과외 ③ 방과후 교내 보충학습 참여
 ④ 방과후 교실(학교 외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참여 ⑤ 집에서 가족이 돌봄
 ⑥ 자녀 자율적으로 보냄 ⑦ 기타 (⇨)

24. [자녀의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자녀(손자녀)에 대한 학교교육 여건(시설, 교육수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5. [자녀의 사교육 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자녀(손자녀) 사교육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사교육 여건 : 필요한 사교육을 원할 때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등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귀하께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시설 개선 ② 우수교사 확보 ③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강사) 지원 ⑤ 양질의 학교 급식 지원
 ⑥ 기숙시설 확충 ⑦ 통학버스 운영 ⑧ 지역 소규모학교 유지
 ⑨ 기타 (⇒)



사회교육

27. [사회교육 경험 및 수요] 귀하께서는 지난 1년 동안 다음의 사회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또한 향후 수강 의사는 어떠하십니까?

※ 사회교육 : 학교 밖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유사용어로 성인교육, 평생교육 등이 있음

구분	수강 경험		향후 수강 의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농업기술교육	①	②	①	②
(2) 문해교육(한글교실, 한문교육 등)	①	②	①	②
(3) 인문교양교육(경제/경영, 외국어, 요리, 자녀교육 등)	①	②	①	②
(4) 정보화교육(워드, 인터넷, 홈페이지 작성 등)	①	②	①	②
(5) 직업능력교육(자격증 강좌, 취업/창업 준비과정 등)	①	②	①	②
(6) 문화예술교육(음악, 미술 강좌 등)	①	②	①	②
(7) 시민참여교육(마을리더/자치위원 교육, 인권교육 등)	①	②	①	②
(8) 스포츠·건강교육(스포츠, 건강/의료 강좌 등)	①	②	①	②
(9) 기타 ()	①	②	①	②

28.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의 어려움] 귀하께서 사회교육을 받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된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③ 지역에 제공하는 시설(기관)이 없다
 ④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⑤ 교통이 불편하다 ⑥ 건강, 나이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⑦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⑧ 기타(⇒)
 ⑨ 해당없음(어려움이 없음, 사회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음 등)

V. 문화·여가여건 부문



문화·여가시설 수요 및 만족도

29. [필요한 문화·여가시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문화·여가시설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문화센터 ② 영화관/공연장/전시관 ③ 도서관 ④ 마을회관/경로당
 ⑤ 체육시설/경기장 ⑥ 공원/산책로 ⑦ 찜질방/목욕탕 ⑧ 유원지
 ⑨ 기타 (⇒) ⑩ 특별히 필요한 시설이 없음

30. [문화·여가활동시 어려움] 귀하께서 문화·여가활동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비용이 부담된다 ② 시간적 여유가 없다 ③ 원하는 시설이 없다
 ④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⑤ 교통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함께 할 사람이 없다 ⑧ 기타 (⇒)
 ⑨ 해당없음(어려움이 없음, 문화·여가활동 필요를 느끼지 않음 등)

31. [전반적 문화·여가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여가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VI. 기초생활여건 부문

이주 실태

32. [이주 후 거주기간] 현 거주지가 귀하의 고향이십니까? 아니시라면 이주 후 거주기간은 언제입니까?

※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작성. 여성 응답자가 혼인시 이주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 가구(남편)를 기준으로 작성

- ① 현 거주지가 고향이다(동리 경계를 넘어 이주한 적이 없다) ② () 년도에 이주했다

문 33번 으로 가십시오



32.1. [이주 직전 주택의 위치]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농어촌)

- ① 현재 살고 있는 군(또는 시) 내 다른 주택 ②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군
 ③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 지역 ④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읍면 지역

[이주 직전 주택의 위치] 현 거주지로의 이주 직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위치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도시)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 내 다른 주택(다른 동 지역) ②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의 동 지역
 ③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

주택 여건

33. [주택 건축년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 년도

34. [주택의 종류]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기타 (⇒)

35. [주택의 방 개수] 방은 모두 몇 개입니까? () 개

※ 사용하고 있는 방을 기준으로 하며,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거실을 침실로 사용하고 있으면 방수에 포함

35.1. [주택의 건평] 건평(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은 제외

() m²

36. [주택의 점유형태] 주택의 점유형태는?

- ① 자기 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37. [주택의 시설 현황] 귀댁 주택의 각 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 화장실, 난방시설 등이 2개 이상인 경우 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응답

구분	사용 형태	종류
(1) 부엌	① 단독사용(⇨)	① 입식 ② 재래식
	② 공동사용(⇨)	
	③ 없음(⇩)	
(2) 화장실	① 단독사용 : ____개(⇨)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② 공동사용(⇨)	
	③ 없음(⇩)	
(3) 목욕 시설	① 단독사용(⇨)	① 온수 ② 비온수
	② 공동사용(⇨)	
	③ 없음(⇩)	
(4) 난방 시설	① 설치되어 있음(⇨)	① 중앙난방 ② 지역난방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④ 기름 보일러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⑥ 전기 보일러 ⑦ 연탄 보일러 ⑧ 재래식 아궁이 ⑨ 기타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38. [난방비 부담] 1년 중 난방을 사용하는 기간은 언제이며, 그 기간의 월 평균 난방비는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주거용 난방비를 기준으로 작성, 장마철 습기 제거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난방을 가동하는 경우 제외

(1) 난방비 지출 기간	(2) 월 평균 난방비 지출 금액
() 월 ~ () 월	() 만원

39. [주택에 대한 만족도]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구 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주택 규모	①	②	③	④	⑤
(2) 주택 시설(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 구조(공간/시설 배치, 동선 등)	①	②	③	④	⑤
(4) 주택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40. [주택 신·개축 의사] 귀하께서는 주택을 향후 신축하거나 개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예상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있다 - 약 () 년 후

② 없다



나, **문 41번** 으로 가십시오.

40.1. [주택 신·개축시 자금마련 방법] 귀하께서는 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시겠습니까?

① 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하겠다

② 정부로부터 주택자금을 지원받겠다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겠다

④ 가족/친지로부터 도움을 받겠다

⑤ 기타()

— 생활여건 —

41. [상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광역 및 지방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자가상수도(지하수, 우물) ④ 없음

41.1. [먹는 물 수질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먹는 물 수질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2. [하수도 종류]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곳의 하수도 종류는 무엇입니까?

① 공공하수처리시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③ 없음

42.1. [하수 처리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하수 처리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3. [쓰레기 처리 방법] 귀댁에서는 다음의 쓰레기를 주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 활용은 '기타'에 표기

구 분	분리배출	투기	매립	소각	기타
(1) 생활쓰레기	① 종량제봉투 사용	②	③	④	⑤ (⇨)
(2) 음식물쓰레기	①	②	③	④	⑤ (⇨)
(3) 재활용품	①	②	③	④	⑤ (⇨)
(4) 폐영농자재(농어가)	①	②	③	④	⑤ (⇨)

44. [기초생활여건 영역별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기초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 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쓰레기 처리	①	②	③	④	⑤
(2) 대중교통여건	①	②	③	④	⑤
(3) 정보통신여건*	①	②	③	④	⑤

◎ 정보통신여건 : 인터넷, 전화, TV, 라디오, 우편 등의 활용 여건

45.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생활안전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도로안전시설(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등) 확충 | ② 안전한 보행자길 정비 |
| ③ 가로등 확충 | ④ CCTV 설치 확대 |
| ⑤ 경찰 순찰 확대 | ⑥ 노후 건물, 시설 등 보수 |
| ⑦ 기타 (⇨) | ⑧ 특별히 필요를 느끼지 않음 |

46. [이주 의사] 귀하께서는 향후 5년 내에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서 이주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반반이다 ③ 그렇지 않다



↳ **문 47번** 으로 가십시오

46.1. [이주 희망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농어촌)

- | | |
|------------------------------------|--------------------------|
| ① 현재 살고 있는 면에서 읍으로 | ② 현재 살고 있는 읍·면 내의 다른 곳으로 |
| ③ 현재 살고 있는 시·군 내의 다른 곳으로(다른 읍·면·동) | |
| ④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 ⑤ 다른 시의 동 지역으로 |
| ⑥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 |

[이주 희망 지역]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신다면 어디로 이주하실 생각이십니까?(도시)

- | | |
|------------------------|-------------------|
| ① 현재 살고 있는 시 내의 다른 곳으로 | ② 다른 시의 동 지역으로 |
| ③ 다른 시·군의 읍·면 지역으로 | ④ 기타(해외 파견, 이민 등) |

46.2. [이주 희망 이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농어촌)

-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③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④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⑤ 건강상의 이유로
 ⑥ 자녀교육 때문에
 ⑦ 현재 거주 환경이 불만족스러워서
 ⑧ 기타(⇨)

[이주 희망 이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시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도시)

- ① 직장 이동, 창업 등 직업 관련 사유
 ② 농어업 창업 또는 전원생활을 위해(귀농, 귀어, 귀촌 등)
 ③ 주택 확장, 신규 분양, 계약 변동 등 주택 관련 사유
 ④ 가구원의 분가, 출생, 사망 등 가족 관련 사유
 ⑤ 가정경제 상황의 변화로
 ⑥ 건강상의 이유로
 ⑦ 자녀교육 때문에
 ⑧ 현재 거주 환경이 불만족스러워서
 ⑨ 기타(⇨)

47. [전반적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VII. 환경·경관 부문**—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48. [농어촌 경관에 대한 인식]** 농어촌의 경관에 대해 귀하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주십시오.

※ 농어촌 경관 : 숲, 산, 하천, 바다 등 자연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져 형성됨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농어촌의 경관(자연, 농지, 마을 등)은 아름답다	①	②	③	④	⑤
(2) 농어촌의 경관은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농어촌의 경관 보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다원적 가치

49.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인식] 다음의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중 귀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개만 골라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자연환경·경관의 보전	② 전원생활 공간 제공
④ 농어업 유산 보존·계승	⑤ 국토의 균형 발전
⑦ 기타(⇔)	③ 관광·휴양 공간 제공
	⑥ 식량의 안정적 공급

50. [전반적 환경·경관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자연)환경·경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VIII. 지역역량 부문

— 지역개발사업

51. [지역발전 정도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전반적인 발전 정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매우 발전된 수준 ② 발전된 편임 ③ 보통임 ④ 낙후된 편임 ⑤ 매우 낙후되어 있음

52. [마을공동사업 참여 경험 및 참여 의사]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사업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향후에 마을공동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농어촌)

※ 마을공동사업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신활력지원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사업 등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

구 분	참여 경험 유무		향후 참여 의사	
	있음	없음	있음	없음
(1) 마을공동사업	①	②	①	②
(2) 마을공동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민 교육	①	②	①	②

53.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인식] 귀하께서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질문에 대해 해당하는 곳에 ○표해 주십시오.(농어촌)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지 않다
(2) 마을공동사업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공동사업은 주민 화합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공동사업은 전반적으로 마을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4. [지역개발사업 방향]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읍/면)의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농어촌)

- ① 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관련 기반 정비 ② 농어촌 산업 육성
 ③ 관광휴양자원 개발 ④ 기초주거환경 개선
 ⑤ 문화/여가/복지여건 개선 ⑥ 주민역량 강화
 ⑦ 주민 공동체 복원 ⑧ 도시민 유치
 ⑨ 기타(⇨)

— 이웃과의 관계 —

55.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는 평소 자신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6. [외부인 유입 여부] 귀댁 또는 귀하의 이웃에는 귀농·귀촌인, 결혼 이민자, 이주 노동자가 살고 있습니까?

※ 귀농(어)은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귀촌은 도시에서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를 가리킴. 응답 가구가 귀농·귀촌 가구인 경우 ‘① 우리 가구에 있음’을 선택함

구분	우리 가구에 있음	우리 이웃에 있음	없음	잘 모름
(1) 귀농·귀촌인(농어촌)	①	②	③	④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3)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57. [외부인에 대한 수용성] 귀하께서는 연고가 없는 외부인이 귀하의 이웃에서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보통	다소 반대	매우 반대
(1) 귀농·귀촌인(농어촌)	①	②	③	④	⑤
(2) 결혼 이민자	①	②	③	④	⑤
(3) 이주 노동자	①	②	③	④	⑤

IX. 경제활동 부문

도·농 교류

58. [도·농 교류 경험 유무 및 만족도] 귀하께서는 농어업 생산에서 확장한 다음의 사업형태 중 지난 1년 동안 직접 운영하거나, 마을 단위에서 실시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 유무와 향후 참여 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직접 운영 또는 참여 경험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농어가)

다음에 제시된 도시와 농어촌의 교류활동에 대해 지난 1년 간 경험 유무와 향후 참여의사를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귀하께서 참여하신 활동에 대해서는 만족도를 표시해 주십시오.(도시)

구 분	경험 유무	만족도					향후 참여 의사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자매결연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2) 농어촌 체험관광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3) 농수산물 직거래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4) 음식 판매 또는 민박 운영(농어가)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4) 농어가 식사 또는 민박 이용(도시)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5) 주말농장 운영(농가)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5) 주말농장 이용(도시)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6) 농어촌 봉사활동 (재능기부)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7) 기타 ()	①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① 있음
	② 없음(⇔)						② 없음

59. [도·농 교류 추진시 어려움-농어가] (57번에서 '경험 유무' 또는 '향후 참여 의사' 중 한 개라도 '있음'을 선택한 경우) 귀하께서 도농교류를 추진하면서, 또는 추진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① 자금 부족 ② 역량 부족(기획력, 기술 등) ③ 기반 시설 부족 ④ 법·제도 미흡
⑤ 일손 부족 ⑥ 고객 확보(홍보) ⑦ 주민 간 갈등 ⑧ 기타(⇔)

— 경제활동여건 —

‘농어가’에 한해

60. [농어가 소득 구성] 귀댁의 소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주십시오. 비중이 같을 때는 같은 순위를, 해당 소득이 없을 때는 ‘0’을 기입해 주십시오.

(1) 농업 수입	()순위	(2) 어업 수입	()순위	(3) 농어업 외 수입	()순위
--------------	-----------	--------------	-----------	-----------------	-----------

6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여부] 귀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 포함) ② 차상위계층 ③ 해당없음

62. [전반적 경제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여건(일자리, 소득원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